

공동국제학술대회 일정표

중앙아시아에서의 한국어언어문화교육 & 중앙아시아의 한국학과 관광산업

●일시: 2019. 6. 21.(금). 09:00~18:00

●장소: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다마스호텔 ㉸

09:00-10:00	등 록			
10:00-10:40	개회식 장소: 다이아몬드홀(2층)		사회: 백태현(중앙아시아 한국학교수협의회 명예회장) 세리쿨로바 미나라(중앙아시아 한국대 교수)	
	개회사 나삼일(한국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INK] 회장) 환영사 박 넬리(중앙아시아 한국학교수협의회 회장) 축 사 하태역(주키르기스스탄 대한민국대사) 강현화(세종학당재단 이사장) 박상배(한국국제교류재단 모스크바사무소장) 성필상(한국관광공사 알마티사무소장) 위촉장 수여 및 기념촬영			
10:40-11:20	제1부 주제특강 I		사회 장향실(상지대, 한국 원주)	
	성기철(한국 서울대), '언어문화'의 개념과 적용			
11:20-12:10	제2부 주제특강 II		사회 최권진(인하대, 한국 인천)	
	김태호(일본 고난대), 일본 간사이 지역의 한국학 현황 장호중(카자흐스탄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중앙아시아의 한국학 현황			
12:10-13:30	점심 식사			
제3부 개인 논문 발표				
13:30-15:00	Session 1A 장소: 프로그레스홀(12층)	Session 1B 장소: 브렉퍼스트홀(1층)	Session 1C 장소: 크리스탈홀(1층)	Session 1D 장소: 퀸스홀(1층)
	사회: 플럼리 M. (나자르바예프대, 카자흐스탄 누르술탄)	사회: 세리쿨로바 M. (중앙아시아 한국대,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사회: 이미향 (영남대, 한국 경산)	사회: 신윤경 (가천대, 한국 성남)
	■ 키르기스스탄의 한국학과 관광산업 발전 방안 백태현, 세리쿨로바 M. (키르기스 한국대/ 중앙아시아 한국대,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 한국어와 러시아어 구의 분류 엘킨 데니스, 김 올라, 리보바 이리나(타슈켄트 세계언어대/ 타슈켄트 인하대/ 니자미 사범대,	■ 세종학당 한국어·한국문화 교육자료 활용법 및 개발 계획 박충식 (세종학당재단, 한국 서울)	■ 한국어 교육의 흐름과 카자흐스탄 현지 교육 사례 우인혜 (선문대, 한국 아산)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R)		
	<p>■ 카자흐스탄 비핵화의 경험이 북한 비핵화에 주는 교훈과 함의</p> <p>고호윤(나자르바예프대, 카자흐스탄 누르술탄)</p>	<p>■ 한국의 현대 시학</p> <p>사프로노바 류드밀라(카자흐 국립대, 카자흐스탄 알마티), (R)</p>		
	<p>■ 한국어 어법 중 약간의 비체계적 현상에 관하여</p> <p>가시와바라 스구루(와카야마대, 일본 와카야마)</p>	<p>■ 대한민국에 대한 외국의 영향</p> <p>시디갈리에바 나디라(비슈케크 인문대,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R)</p>	<p>■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아동을 위한 초등학교 적응용 교육 자료 개발 사례 연구</p> <p>강남욱 (경인교육대, 한국 인천)</p>	<p>■ 우즈베키스탄 유학생의 한국어언어문화 적응 실제</p> <p>최권진 (인하대, 한국 인천)</p>
	<p>■ 불가리아의 한국학 교육과 연구의 동향 및 발전 방향</p> <p>김소영(소피아대, 불가리아 소피아)</p>	<p>■ 동북아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본 국제관계의 포스트모던 이론</p> <p>쿠틀루코프 시르자트(카자흐 국제관계및세계언어대, 카자흐스탄 알마티), (R)</p>		
	<p>■ 카자흐스탄 크질오르다 국립대학교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논의</p> <p>김다민, 김이연(크질오르다 국립대, 카자흐스탄 크질오르다)</p>	<p>■ 카자흐스탄 한국어 교육의 언어학 및 사회언어학적 요인</p> <p>젯피소프 사켄(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카자흐스탄 알마티), (R)</p>	<p>■ 헝가리 한국어교육의 현황과 과제</p> <p>유소영 (엘테대, 헝가리 부다페스트)</p>	<p>■ 몽골에서의 한국문학교육 현황 연구</p> <p>게렐치맥 (서울대, 한국 서울)</p>
15:00-15:30	휴식			
15:30-17:30	Session 2A	Session 2B	Session 2C	Session 2D
	<p>사회: 한 넬리 (카자흐 세계언어대, 카자흐스탄 알마티)</p> <p>■ 한국 무속신앙과 알타이 샤머니즘의 유사성</p> <p>카르테바-단체바 S.T. (소피아대, 불가리아 소피아), (E)</p> <p>■ 영적 고향으로 돌아가는 수단으로서의 종교관광</p> <p>세인필 아셀(중앙아시아 한국대, 키르기스스탄</p>	<p>사회: 박 넬리 (카자흐 세계언어대, 카자흐스탄 알마티)</p> <p>■ 대중 의료 담화의 의사소통 전략 및 전술</p> <p>김 올리아나(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카자흐스탄 알마티), (R)</p> <p>■ 키르기스스탄과 한국: 역사적 전제 조건과 외교 정책의 목표가 양국 관계 수립에 미치는 영향</p>	<p>사회: 김은정 (한국외대, 한국 서울)</p> <p>■ 구어와 문어의 사용 실태로 본 우즈베키스탄 학습자의 문식성(literacy) 연구</p> <p>이미향 (영남대, 한국 경산)</p>	<p>사회: 박숙자 (상지대, 한국 강원)</p> <p>■ 중앙아시아 출신 유학생들의 한국어학습 전략에 대한 연구 -정부초청외국인 대학원 장학생을 중심으로-</p> <p>이진경 (건양사이버대, 한국 대전)</p>

	비슈케크), (R)	오르모노바 아이자르킨(비슈케크 인문대,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R)		
	<p>■ 카자흐스탄 고려인의 형성, 현황 및 전망</p> <p>명 드미트리(카자흐 국립대, 카자흐스탄 알마티), (R)</p>	<p>■ '소프트 파워' 정책을 통한 한국의 국가 가치</p> <p>보란타예바 파리자,(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카자흐스탄 알마티), (R)</p>	<p>■ 일본인 고급 학습자의 한국어 실현 양상 분석</p> <p>김유선 (나가사키외국어대, 일본 나가사키)</p>	<p>■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발표 교육의 변천 과정 연구 -1970년대부터 2010년대의 교재를 대상으로-</p> <p>김운옥 (영진전문대, 한국 대구)</p>
	<p>■ 우즈베키스탄 대학의 한국어 교육을 위한 실습 프로그램</p> <p>김 나탈리아(타슈켄트 동방대, 우즈베키스탄), (R)</p>	<p>■ 한국 문화의 공간 모델</p> <p>약사날리에바 자밀랴(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카자흐스탄 알마티), (R)</p>		
	<p>■ 한국어교육에서의 프로젝트교수법</p> <p>이 올가(타라즈 국립사범대, 카자흐스탄 타라즈), (R)</p>	<p>■ 키르기스인의 문화 유산을 보존하는 요소로서의 현대 기업가 정신</p> <p>술탄쿨로바 나기마(키르기스 한국대,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R)</p>	<p>■ An Error Analysis of Korean Diphthongs by Russian Learners -Focusing on the differences in syllabic structure between one's mother tongue and target language-</p> <p>노채환 (사이버한국외대, 한국 서울)</p>	<p>■ 쇼호스트(Show host)의 담화에 나타나는 설득 전략 연구 -양태부사 사용을 중심으로-</p> <p>이세인 (한국외대, 한국 서울)</p>
	<p>■ 번역의 다문화 측면에서 한국어 어법의 정보 구성 요소</p> <p>신데츠키야 예브게니야(비슈케크 인문대,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R)</p>	<p>■ 그룹활동을 통한 한국어 의사소통능력 개발: 영어와의 비교</p> <p>카이르자노바 누르굴(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카자흐스탄 알마티), (R)</p>		
	<p>■ 한국어 교육의 혁신적인 교수법</p> <p>김 타티야나(타슈켄트 동방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R)</p>	<p>■ 한국어 정치 담화에서의 영어 차용어</p> <p>무하메자노바 메루예르트(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카자흐스탄 알마티), (R)</p>	<p>■ 한국어 지시어 '이','그'의 선택 기준 제시 -러한 번역 사례를 중심으로-</p> <p>함계임 (한국외대, 한국 서울)</p>	<p>■ 『論語』를 통해 본孔자의 교육관과 활용 방안 -외국인의 한국어 교육 시 시사할 교육방안 제시-</p> <p>윤인현 (인하대, 한국 인천)</p>
	<p>■ 문화의 교차점에 있는 키르기스스탄과 한국</p> <p>스탐베코바 티나틴(키르기스 한국대,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R)</p>	<p>■ 한국시의 새로운 흐름</p> <p>샤이케노프 아스하트(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카자흐스탄 알마티), (R)</p>		
17:30-18:00	<p>폐회식 장소: 프로그레스홀(12층)</p>		<p>사회 : 임형재(한국외국어대, 한국 용인)</p>	

목차

개회사	8
환영사	11
축사	13
주제 특강 I: ‘언어문화’의 개념과 적용 (성기철)	24
주제 특강 II: 일본 간사이(関西) 지역의 한국학 현황 (김태호)	34
주제 특강 II: 중앙아시아의 한국학 현황 (장호종)	47
Session 1A	
■ 키르기스스탄의 한국학과 관광산업 발전 방안	58
■ 카자흐스탄 비핵화의 경험이 북한 비핵화에 주는 교훈과 함의	60
■ 한국어 어법 중 약간의 비체계적 현상에 관하여	63
■ 불가리아의 한국학 교육과 연구의 동향 및 발전 방향	65
■ 카자흐스탄 크질오르다 국립대학교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논의	67
Session 1B	
■ 한국어와 러시아어 구의 분류	72
■ 한국의 현대 시학	75
■ 대한민국에 대한 외국의 영향	79
■ 동북아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본 국제관계의 포스트모던 이론	81
■ 카자흐스탄 한국어 교육의 언어학 및 사회언어학적 요인	86
Session 1C	
■ 세종학당 한국어·한국문화 교육자료 활용법 및 개발 계획	94
■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아동을 위한 초등학교 적응용 교육 자료 개발 사례 연구	115
■ 헝가리 한국어교육의 현황과 과제	127
Session 1D	
■ 한국어 교육의 흐름과 카자흐스탄 현지 교육 사례	136
■ 우즈베키스탄 유학생의 한국어언어문화 적응 실제	150
■ 몽골에서의 한국문학교육 현황 연구	159
Session 2A	
■ 한국 무속신앙과 알타이 샤머니즘의 유사성	164
■ 영적 고향으로 돌아가는 수단으로서의 종교관광	169
■ 카자흐스탄 고려인의 형성, 현황 및 전망	171
■ 우즈베키스탄 대학의 한국어 교육을 위한 실습 프로그램	174
■ 한국어교육에서의 프로젝트 교수법	176
■ 번역의 다문화 측면에서 한국어 어법의 정보 구성 요소	182
■ 한국어 교육의 혁신적인 교수법	184
■ 문화의 교차점에 있는 키르기스스탄과 한국	190

Session 2B

- 대중 의료 담화의 의사소통 전략 및 전술 194
- 키르기스스탄과 한국: 역사적 전제 조건과 외교 정책의 목표가 양국 관계 수립에 미치는 영향 197
- ‘소프트 파워’ 정책을 통한 한국의 국가 가치 201
- 한국 문화의 공간 모델 203
- 키르기스인의 문화 유산을 보존하는 요소로서의 현대 기업가 정신 206
- 그룹활동을 통한 한국어 의사소통능력 개발: 영어와의 비교 210
- 한국어 정치 담화에서의 영어 차용어 213
- 한국시의 새로운 흐름 216

Session 2C

- 구어와 문어의 사용 실태로 본 우즈베키스탄 학습자의 문식성(literacy) 연구 220
- 일본인 고급 학습자의 한국어 실현 양상 분석 225
- An Error Analysis of Korean Diphthongs by Russian Learners -Focusing on the differences in syllabic structure between one's mother tongue and target language- 240
- 한국어 지시어 ‘이’, ‘그’의 선택 기준 제시 -러·한 번역 사례를 중심으로- 248

Session 2D

- 중앙아시아 출신 유학생들의 한국어학습 전략에 대한 연구 -정부초청외국인 대학원 장학생을 중심으로- 260
-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발표 교육의 변천 과정 연구 -1970년대부터 2010년대의 교재를 대상으로- 274
- 쇼호스트(Show host)의 담화에 나타나는 설득 전략 연구 -양태부사 사용을 중심으로- 283
- 論語를 통해 본 孔子의 교육관과 활용 방안 -외국인의 한국어 교육 시 시사할 교육방안 제시- 288

개 회 사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INK)

회장 나삼일

안녕하십니까?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INK) 회장 나삼일입니다.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에서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한국어문화교육 및 한국학 전문가 여러분을 모시고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수협의회와 공동으로 제7차 중앙아시아 한국학학술대회 겸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INK) 제27차 춘계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번 국제학술대회 공동 개최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중앙아시아 한국학 교수협의회 백태현 명예회장님, 박넬리 회장님, 장호종 부회장님, 이근중 부회장님과 협의회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공사다망하신데도 불구하고 학술대회를 더욱 뜻있는 자리로 빛내 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주키르기스스탄 하태역 대사님, 세종학당재단 강현화 이사장님, 한국국제교류재단 모스크바사무소 박상배 소장님, 한국관광공사 성필상 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제특강을 위해 멀리 한국과 일본에서 오신 성기철 원장님과 일본 고난대 김태호 교수님, 그리고 카자흐스탄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장호종 교수님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익하고 심도 있는 연구물들을 발표해 주실 한국과 중앙아시아 학자 여러분, 사회자, 토론자들과 더불어 대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국제학술대회 준비를 위해 많이 수고해 주신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INK) 임형재 부회장님, 장향실 부회장님, 최권진 부회장님, 이미향 총무이사님, 김은정 섭외이사님, 황사운, 강소희 간사님, 한국외대 선생님들을 비롯한 모든 임원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INK)는 매년 정기 국제 및 국내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KCI(한국연구재단) 등재지 학술지 「한국언어문화학」을 연 3회 발간하고 있는데, 「한국언어문화학」이 2019년 2월 한국 내 한국어와 국어 관련 학회 중 유일하게 ESCI에 선정되어 세계적인 학술지로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학회의 자랑인, 학술상 ‘한국언어문화학 신진 연구자상’은 올해로 6회째가 되었는데 젊은 연구자들의 한국어문화교육에의 관심과 열정에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는 학회의 정체성에 맞게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전 세계에 보급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며, 한국어문화의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타 언어문화의 이해와 연구는 물론 관련 분야와의 협력을 통해 학회의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그동안 태국에서 국립국어원과 공동 주최로 ‘한-태 한국어문화 교육의 내용과 방법 -국제통용 한국어표준교육과정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베트남에서는 국립국제교육원과 공동 주최로 ‘한-베 한국어문화교육과 한국어능력평가 -한국어능력시험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성황리에 대회를 마쳐 학회의 역량을 넓히기도 했습니다. 이번 키르기스스탄에서의 국제학술대회도 중앙아시아에서의 한국어문화교육과 한국학 및 관광산업에 관련한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와 함께 열린 토론의 장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제1부 주제 특강에서는 성기철 원장님께서 ‘언어문화의 개념과 적용 문제’에 대해 발표해 주시고, 제2부 주제 특강에서는 일본 고난대 김태호 교수님께서 ‘일본 간사이 지역의 한국학 현황’에 대해 발표해 주시며, 마지막 제3부 주제 특강에서는 카자흐스탄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장호종 교수님께서 ‘중앙아시아의 한국학 현황’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오후에는 각 세션별로 개인 발표가 이어지겠는데, 중앙아시아에서의 한국어언어문화교육의 현황과 방향, 중앙아시아에서의 한국학 현황과 더불어 관광산업에 관련한 논문들이 발표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술대회를 통해서나 발표집과 학술지 발간으로 매년 후원을 해 주시는 도서출판 하우, 도서출판 박이정, 도서출판 시사북스, 그리고 주식회사 세잎누리 등 대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이번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중앙아시아에서의 한국어교육과 한국학 연구의 질적 향상은 물론 양 학회 간 계속 훌륭한 파트너십 관계가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Вступительная речь

Председатель Международной Науч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по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и культуре
На Сам Иль

Здравствуйте, меня зовут На Сам Иль, я являюсь председателем Международной Науч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по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и культуре.

Я очень рад очередному открытию в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е, г. Бишкек Науч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по корееведению 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и всеобщего собрания Ассоциации профессоров по корееведению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2019. Я искренне приветствую вас, специалистов по преподаванию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 культуры.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хочу выразить огромную благодарность почетному председателю Ассоциации преподавателей-корееведов Бэк Тэхёну, председателю Пак Нелли, заместителям председателя Чан ХоДжону и Ли ГынДжону за организацию дан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и поприветствовать всех здесь присутствующих. Также я хотел бы поблагодарить Чрезвычайного и Полномочного Посл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е Ха Тэ Ёка, Председателя Фонда Института Седжон Кан Хён Хва, Директора Московского офиса Корейского Фонда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обмена Пак Сон Бэ, Директора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а Националь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Туризма Кореи в Алматы Сонг Пхиль Сана и искренне поблагодарить приехавших из Кореи и Японии, для проведения лекций Директора Сонг Ги Чоля и профессора Япон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Конан Ким Тхэ Хо, а также поблагодарить профессора Казах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й и Всемирных языков Чанг Хо Джонга. Вдобавок хотелось поблагодарить вас, ученых из Кореи и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подготовивших и презентующих полезные научные работы, также ведущих дан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участников дебатов и всех здесь присутствующих. Также я бы хотел выразить слова благодарности заместителям Международной Науч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по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и культуре Им Хён Дже, Джанг Хянг Шиль, Чве Квон Джин, управляющему директору

Ли Ми Хянг, директору Связи Ким Ын Джонг, управляющим Хван Са Юн и Кан Со Хи, а также преподавателям Университета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ов Хангук за приложенные усилия в подготовке и организации данной науч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Международная ассоциаци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 культуры (INK) ежегодно проводит регулярные международные и отечественные научные конференции, издает три раза в год журнал KCI (Korean Research Foundation) по изучению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 культуры. В феврале 2019г. журнал «Исследовани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 культуры» из множества издающихся журналов как внутри, так и за рубежом страны, был отобран в ESCI и получил всемирное признание. Кроме того, в этом году 6-я премия в области изуч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 культуры, является ступенькой для интереса и энтузиазма молодых исследователей в област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 культур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Международная ассоциаци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 культуры (INK) играет важную роль в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 культуры, а также помогает увеличить возможность построения международной сет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 культуры путем понимания культуры и объединения со связующими отраслями. По данному звену в Тайланде совместно с Национальным Институтом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была открыта конференция на тему: «Корейско-Тайландские методы преподавани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 культуры - использования официального стил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во Вьетнаме совместно с Национальным институтом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была открыта конференция на тему: «Корейско-вьетнамское обучени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 культуры, оценивание знаний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экзамен на знани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эти конференции расширили возможности научной Ассоциации.

В первой части директор Сон Ги Чоль выступит с лекцией на тему: «Понятие языковой культуры, проблемы ее применения», во второй части выступит профессор Япон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Конан Ким Тхэ Хо с лекцией «Нынешняя ситуация корееведения в провинции Кансаи (Япония)», в заключительной 3-й части профессор Казах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й и Всемирных языков Чанг Хо Джонг выступит с лекцией на тему «Состояние корееведения 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После обеда продолжатся выступления по отдельным темам и будут представлены научные работы, на темы: Состояние и направления преподавани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 культуры в странах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Нынешнее состояние корееведения в странах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Туристический бизнес.

Напоследок, я хотел бы выразить свою сердечную благодарность таким издательствам, как «Хау», «Пак Иджон», «Щиса Бокс», которые ежегодно спонсируют научные конференции, публикации и журналы, а также директору акционерной компании «Сэап Нури».

Я надеюсь, что благодаря данной международ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исследования по преподаванию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 корееведения в странах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несомненно, будут развиваться также как и длительные доверительные партнерские отношения между научным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Спасибо.

환영사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수협의회 회장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교수
박 넬리

존경하는 손님 여러분!

존경하는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수협의회 회원 여러분!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와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수협의회가 공동으로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에서 개최하는 제27회 INK국제학술대회 겸 제7회 중앙아시아 한국학학술대회 개최를 맞이하여 모든 참가자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제6회 중앙아시아 한국학학술대회는 2018년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열렸습니다. 아시다시피, 학술대회 개최지는 매년 바뀌기 때문에 많은 선생님들이 대학에서 일하는 동안 쌓은 경험을 공유하고 다른 대학의 상황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수협의회는 한국학의 교육과 연구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한국학자 및 교원뿐 아니라 한국의 여러 기관들도 중앙아시아의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한국학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한국의 여러 기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수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및 각 지회장들이 학회를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모든 발표문은 추후 발간할 학술지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육>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학술지에 실린 논문들을 살펴보면, 해마다 그 수준이 향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 많은 나라에서 참석하신 것도 주목할 만한 사실입니다. 학술대회 역시 해마다 양적으로 풍성해지고 질적으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학술대회에서 한국학 교육과 관련된 흥미롭고 유용한 많은 것들을 알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활발한 토론이 있기를 희망하며, 좋은 인상을 가지고 다음 학술대회에서 만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수협의회 명예회장인 백태현 교수님께서 중앙아시아 교수협의회 회장으로서 중앙아시아 한국학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다양한 활동을 해주신 데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유익한 학술대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Уважаемые коллеги, члены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еведов стран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Уважаемые гости!

Мы рады приветствовать участников с открытием 7-ой очередной Центрально-Азиатской конференции по корееведению, проводимой Ассоциацией корееведов стран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в Бишкеке.

Предыдущая конференция проходила, как вы знаете, в Алматы в 2018 году. Как вам известно, место проведения наших конференций меняется ежегодно, с тем, чтобы как можно больше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могли иметь возможность поделиться своим опытом работы в университетах, послушать своих коллег.

Цель нашей Ассоциации - повышать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й уровень, как педагогический, так и научный в области корееведения. В этом заинтересованы не только мы - граждане ЦА, но и организации Кореи, имеющие отношение к образованию и подготовке 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х специалистов-корееведов. Они нам оказывают всестороннюю помощь в самых разных формах, начиная от методических пособий. Спасибо им за это.

И Комитет Ассоциации, в лице Президента, заместителя и секретаря, прилагает все усилия, чтобы наша Ассоциация работала координированно, системно и результативно. По традиции Ассоциации все доклады, представленные на конференции, опубликованы в очередном «Сборнике докладов ЦААК». Если просмотреть содержание самого сборника, качество выполненных работ, то мы можем с удовлетворением отметить, что от улучшается из года в год.

Особо следует сказать и о количестве и географии участников конференции. Она расширяется количественно и улучшается качественно. Надеемся, что на этой конференции мы услышим много интересного, полезного, чтобы внедрить в учебный процесс. Надеемся также, что будут оживленные диспуты, и мы сможем увезти отсюда хорошие впечатления и хороший заряд для следующей конференции.

Сегодня мы хотим особо отметить плодотворную работу экс-Президента Ассоциации, посвятившего несколько лет работе Ассоциации Пэк Тэхёну.

Желаем интересного прослушивания и успехов в нынешней конференции!

Оргкомитет конференции.

축사

주키르기스공화국 대한민국대사
하태역

제7회 중앙아시아 한국학학술대회 및 2019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수협의회 정기총회가 이곳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에서 개최되게 된 것을 환영하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그 어느 곳에 비해 한국어에 대한 인기와 한국어 보급 수준이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들어 61개의 초중등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을 하고 있고, 19개의 대학교에서 한국어 또는 한국학을 전공으로 채택하거나 제2외국어로서 한국어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인구 600만 명인 키르기스스탄에서 연 8천여 명의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한국어와 한국학에 대한 관심의 양적인 확대를 바탕으로 이제는 진정한 의미의 한국 전문가를 양성해내는 한국학의 질적 발전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앙아시아에서 한국학을 전공하신 학자들이 모여 지혜를 모으고, 한국학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오늘의 학술대회가 매우 의미 있고 뜻깊은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로 “한국학과 관광산업”을 선정한 것은 한국학이 실용적인 학문으로의 발전을 모색한다는 차원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학술대회에서 중앙아시아 한국학 발전을 위한 보다 다양하고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제7회 중앙아시아 한국학학술대회 및 2019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수협의회 정기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드리며, 오늘 행사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Поздравительная речь на открытии VII Конференции по корееведению 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Чрезвычайный и Полномочный Посол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е
Ха Тэ Ёк

Искренне поздравляю вас с открытием здесь в Бишкеке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VII Науч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по корееведению 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и очередного всеобщего собрания Ассоциации профессоров по корееведению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2019 года.

Что касается Кыргызстана то можно сказать, что здесь по сравнению с другими местами довольно высокий уровень интереса к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и корееведению. На этот год, в 61 школах проводятся занятия по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в 19 университетах есть специальности по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или же ведутся занятия по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как второй иностранный язык.

Население КР составляет 6 млн. человек из них примерно 8 тыс. человек изучают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На основе такого количественного увеличения интереса к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и корееведению, я считаю, что теперь настало время для качественного развития корееведения, которое будет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возвращению подлинн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Сегодня на конференции собрались ученые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специализирующиеся по корееведению, которые соединив все свои интеллектуальные ресурсы будут обсуждать дальнейшее развитие корееведения. Я считаю, что сегодняшняя конференция имеет важное и глубокое значение. Также мне кажется, что выбор темы «Корееведение и туризм», где будет обсуждаться развитие корееведения как практической науки было своевременно. Я надеюсь, что сегодня на конференции будет многостороннее и конструктивное обсуждение, которое будет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развитию корееведения 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Еще раз искренне поздравляю вас с успешным открытием VII Науч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по корееведению 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и очередного всеобщего собрания Ассоциации профессоров по корееведению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2019 года. И также хочу выразить огромную благодарность всем организаторам этого мероприятия. Спасибо.

축 사

세종학당재단 이사장
강현화

안녕하십니까?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에서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수협의회와 공동으로 진행되는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제27차 춘계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 세계에 한국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세종학당은 K-pop, 한국 드라마 등 다양한 한국문화 콘텐츠로 쌓인 한국에 대한 관심이 언어를 통해 더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종학당재단은 카자흐스탄 쉘켄트,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와 오쉬, 타지키스탄 두산베,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지역에 세종학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세종학당은 현지 교육기관과 협력을 통해 질 높은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며 한국과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 간 문화 교류 활성화를 위한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종학당재단은 앞으로 중앙아시아 지역 내 한국 문화 교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중앙아시아에서의 한국 언어 문화 교육의 방향을 토의하고 실질적인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한국어 교육을 위해 온 마음을 다해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학술대회가 한국어와 한국문화가 중앙아시아 지역에 꽃을 피우기 위한 귀한 준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나삼일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진 여러분과 국제학술대회를 준비하고 진행을 주관하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Поздравительная речь от имени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общества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 культуры**

Кан Хён Хва
Председатель Института Седжон

Здравствуйтесь! Искренне поздравляю с открытием 7-ой очередной Центрально-Азиатской конференции по корееведению, проводимой Ассоциацией корееведов стран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в Бишкеке.

Интерес к Южной Корее по всему миру растет с каждым годом. Институт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Седжон с помощью корейских сериалов, K-POP и через преподавани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помогают еще глубже прорости интересу к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е

Центры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от Фонда Института Седжон находятся в городе Шымкент (Казахстан), в городах Бишкек и Ош (Кыргызстан), в городе Душанбе (Таджикистан) и в городе Ташкент (Узбекистан). Каждый филиал института Седжон совместно с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ми центрами предоставляют высокий уровень преподавани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 выполняют функцию соединяющего моста для укрепления культурного обмена между Южной Кореей со странами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Фонд Института Седжон и в дальнейшем будет постоянно стараться укреплять культурный обмен Южной Кореи со странами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Я считаю, что для этого очень важно ваше содействие.

Эта конференция-то самое место, где мы можем обсудить направление преподавани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 поделиться накопленными знаниями и опытом. Я надеюсь, что на основе ваших мнений и предложений мы сможем обсудить дальнейше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Я выражаю огромную благодарность всем тем, кто активно старается в преподавани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Желая, чтобы эта конференция стала ценным началом процветани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 культуры в странах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Я хотел бы поблагодарить председателя На Самил, а также всех тех, кто участвовал в подготовке и проведении международ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축사

한국국제교류재단 모스크바사무소장

박상배

안녕하십니까, 한국국제교류재단(KF) 모스크바사무소장 박상배입니다.

먼저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수협의회가 주관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한국국제교류재단을 대표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와 함께 개최하는 이번 학술대회가 중앙아 5개국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불가리아에서도 많은 분들이 참석하게 됨으로써 지역을 넘어 명실 공히 국제 학술대회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중앙아시아에서의 한국어언어문화교육”, “중앙아시아의 한국학과 관광산업”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중앙아시아 내 한국학 교육 및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 내 한국학 기관 간 교류와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중앙아시아의 한국학 네트워크를 더욱 확대, 강화하는데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이번 학술대회를 마련한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수협의회가 지난 2013년 발족한 이래 중앙아시아 내 한국학 교육 및 연구 수준을 향상시키는 구심점 역할을 해온 것을 높이 평가하며, 지금까지 그 여정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함께 해온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국과 중앙아시아는 비록 국가별로 편차는 있지만 경제협력, 무역, 문화교류, 인적 교류 등 여러 분야에서 꾸준히 상호 교류·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오고 있습니다. 그 가시적인 결실 중의 하나가 ‘한-중앙아협력포럼 사무국’입니다. 본 사무국은 2007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온 정례 다자협의체인 ‘한-중앙아 협력포럼’의 지속적, 안정적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대한민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의 공동번영을 위한 실질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상생협력 확대를 위하여 지난 2016년 11월 15일 제10차 포럼에서 인준을 받아 한국국제교류재단 내에 설치되었습니다. 본 사무국은 출범 이후 교통·물류, 에너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등 6대 중점 사업 분야를 선정하고 해당 분야에서 다양한 상호 교류·협력 사업을 개발, 시행함으로써 대한민국과 중앙아 5개국 간 상호 이해 증진과 공동 번영을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한-중앙아협력포럼 사무국’이 본연의 설립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이번 학술대회와 이어서 개최될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수협의회 정기 총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값진 결실을 맺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하느라 노고가 많으신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수협의회 박 넬리 회장님, 백태현 명예회장님, 장호종 교수님, 그리고 제가 미처 거명하지 못한 모든 관계자분들께 한국국제교류재단을 대표하여 따뜻한 격려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Приветственная речь

Директор Московского офиса Корейского Фонда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обмена
Пак Сан Бэ

Здравствуйте! Я директор Московского офиса Корейского фонда Пак Сан Бэ.

Прежде всего хотелось бы сказать, что для меня большая честь выступить от имени Корейского Фонда с поздравительной речью на данной науч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которая проводится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Центрально-Азиатской ассоциации преподавателей-корееведов. Более того, позвольте поздравить с тем, что Центрально-Азиатская научная конференция - вместе с International Network for Korean Language and Culture (INK), участниками которой являются не только представители пяти стран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но 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из Южной Кореи, Японии и Болгарии, - уже поднялась из регионального уровня и стала международной конференцией.

Я надеюсь, что эта научная конференция, главными темами которой являются такие темы, как «Обучение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и культуре Южной Кореи 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Корееведение и туристический бизнес 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внесет вклад в расширение и укрепление центров корееведения 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в долгосрочной перспективе. Уверен, что данная конференция будет служить в качестве площадки для продвижения обмена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ежду корееведческими учреждениями в регионе и поспособствует обмену достижениями в области образования и исследования внутри региона. Корейский фонд высоко оценивает роль сформированной в 2013 году Ассоциации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корееведов в ЦА в повышении уровня образования и исследований в регионе. Я рад, что ассоциация сотрудничает с Фондом и по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и у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 стран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есть присущие только каждой из них особенности, мы продолжаем развивать взаимн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и обмен в различных сферах, таких как экономика, торговля и образование. Одним из плодов совместного труда является Форум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 Центральная Азия» (который проводится на уровне заместителей министров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Форум проводился ежегодно начиная с 2007 года, в качестве многосторонней консультативной группы для совместного процветания РК и пяти стран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Форум также был направлен на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 перспективе. 15 ноября 2016 года Форум был преобразован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Корейского Фонда. После преобразования форум активно работает в шести основных направлениях: транспорт и логистика, энергетик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е и медицина, образование и культура. Помимо этого Форум, осуществляя различные проекты обмена и взаим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пособствует повышению взаимопонимания и процветанию пяти стран региона и РК. Прошу всех присутствующих сегодня на мероприятии уделить внимание Форуму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РК - ЦА, чтобы он смог достигнуть своей главной цели создания.

Еще раз прошу Вас приложить все усилия, чтобы успешно завершить собрание ассоциации преподавателей-корееведов ЦА, которое пройдет вместе с научной конференцией. Передаю слова сердечной благодарности и поддержки от имени Корейского фонда председателю ассоциации преподавателей-корееведов 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Пак Нелли, почетному председателю Бэк Тэхёну, профессору Чжан Ходжон, которые приложили немалые усилия в организации мероприятия и всем участникам мероприятия, которых, к сожалению, не могу назвать поименно. Спасибо.

축사

한국관광공사 알마티사무소장
성필상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관광공사 알마티 사무소장 성필상입니다.

먼저, 오늘 학술회의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짧은 시간이나마 한국관광공사에 대해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중아시아 한국학교수협의회” 박 넬리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한국관광공사는 한국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공공 기관이고, 1962년에 최초로 설립되었는데, 한국의 공공 기관 중에서도 설립 역사가 빠른 기관 중 하나입니다. 참고로 여러 분들이 잘 아시는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와 설립연도가 같습니다.

1953년 한국 전쟁이 끝난 후 황폐해진 경제 재건을 위해 힘쓰던 한국 정부는 외화 수입의 주요 원천으로 수출과 함께 관광의 중요성을 빠른 시기에 인식하고, 한국관광공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공사는 전 세계에 32개의 해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관광 홍보 및 해외 관광객 유치 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하기로 하고, 이제 다음으로 저희 한국관광공사가 중아시아에 사무소를 개소하게 된 경위와 오늘 한국학 학술회의에 참가하게 된 이유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는 통신 및 교통수단의 발달로 과거 어느 시대보다도 서로 가까워졌습니다. 유엔 세계관광기구(UNWTO)의 발표에 의하면 2018년 전 세계 해외 관광객의 숫자는 14억 명으로 전년 대비 6% 증가하였고, 이는 2010년 이래 두 번째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최근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관광 산업은 현재 저성장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최근의 낮은 경제 성장률과 높은 실업률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광이 다시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2018년에 한국을 찾은 외래 관광객 수는 1,530만 명이었는데, 이중 중국인이 480만 명, 일본이 300만 명으로 이 두 개 국가 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50%를 차지하였습니다. 현재 한국 관광산업은 중국과 일본 관광객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이들로 인한 성장률의 기복이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저희는 방한 시장의 다변화를 꾀하고 있으며, 최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도 해외지사를 개설하였고, 2017년에는 카자흐스탄에도 사무소를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2년 전에 알마티 사무소를 개설하고 현재까지도 느끼고 있는 어려움은 중아시아 국가들은 한국에 대한 관심은 높은 편이지만, 관광 목적지로서의 한국에 대한 인지도는 아직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중아시아의 국가들이 대부분 1991년에 독립한 신생국가이고, 한국과 국교를 수립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카자흐스탄을 제외하고는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관광 목적지로서의 한국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앞으로 제가 보다 많은 일을 해야 하고, 또한 이는 단기간에 이를 수는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 9월에 Korea Club이라는 공동협력체를 만들어 관광뿐만 아니라 문화, 교육, 의료 등 다른 분야에서 한국을 알리는 사업을 하시는 기관들과 협력을 피하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수협의회에서도 저희 Korea Club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최근 인터넷 및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한국 드라마와 K-Pop 등 한류가 한국 방문객 증가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에서 한국학을 교육하고 계신 교수님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관광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을 알리는데 노력하고 계신 교수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저희 한국관광공사도 중앙아시아에서의 한국학의 지속적인 발전과 확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 축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Поздравительная речь

Добрый день!

Разрешите представиться, меня зовут Сонг Пхиль Санг, я являюсь Директором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а Националь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Туризма Кореи в Алматы.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хочу поблагодарить Председателя ЦААПК Нелли Сергеевну и всех организаторов конференции за приглашение и возможность представить нашу Организацию Туризма Кореи.

Организация Туризма Кореи являетс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ей при Министерстве культуры, спорта и туризм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которая образована в 1962 году и является одной из немногих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учреждений, имеющих столь продолжительную историю. Для справки, КОТРА, которую вы хорошо знаете, также образована в этом году.

В 1953г.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корейской войны,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траны, прилагая все усилия для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разрушенной войной экономики, признало важность развития сферы туризма наряду с развитием экспорта, как основных источников валютных поступлений, так была создана Националь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Туризма Кореи.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Организация представлена 32 зарубежными офисами по всему миру, и наша основная деятельность направлена на рекламное продвижение Южной Кореи в качестве туристской дестинации и привлечение иностранных туристов.

Теперь вы знаете о том, что из себя представляет наша Организация и я хотел бы вкратце рассказать о том, как открывалось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о 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и почему мы принимаем участие в сегодняшней науч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по корееведению.

Сегодня мир стал намного ближе чем когда-либо благодаря развитию средств связи и транспорта. По данным Всемирной Туристской Организации при ООН, число международных туристов во всем мире выросло на 6% в годовом исчислении, составив 1,4 млрд.человек, что является вторым самым высоким показателем роста с 2010 года.

Индустрия туризма, которая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демонстрирует высокие темпы роста,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привлекает внимание как индустрия, способная стимулировать рост экономики в странах, испытывающих трудности замедленного роста экономики.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в Корею также индустрия туризма обратила на себя новый усиленный интерес дабы

решить вопрос высокого уровня безработицы и низких темпов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оста.

Число иностранных туристов, посетивших Корею в 2018 году, составило 15,3 млн. человек, из которых туристы из Китая - 4,8 млн, из Японии - 3 млн., что в совокупности составляет 50% от общего числа. Сегодня туристская индустрия Кореи очень зависима от туристического потока из Китая и Японии, что приводит к резким колебаниям показателей роста.

Для решения данной проблемы, наша Организация приступила к диверсификации рынка, недавно открыты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а в странах Юг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т.к. Малайзия, Индонезия, Филиппины, а в 2017 году открыто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о в Казахстане, г. Алматы.

Открыв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о в Алматы 2 года назад, мы столкнулись с некоторой сложностью, а сложность заключается в том, что в странах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наблюдается большой интерес к Корее, но осведомленность о Корее как туристической дестинации все еще остается весьма низкой.

Страны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в основном стали независимыми в одно время - в 1991 году, и сравнительно недавно установили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е отношения с Кореей, за исключением Казахстана, гражданам других стран для въезда в Корею необходима виза. Для повышения узнаваемости Кореи в качестве туристской дестинации, в дальнейшем необходимо приложить еще немало усилий, и это дело, требующее усилий не одного дня.

Так, в сентябр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нашими силами создан так называемый "Korea Club", посредством которого мы совместно с нашими партнерами, чья деятельность связана с Кореей, знакомим пользователей с корейским туризмом, культурой, образованием, медициной и пр.

Пользуясь случаем, хочу поблагодарить Центрально-азиатскую ассоциацию преподавателей-корееведов за то, что откликнулись на нашу просьбу и вступили в "Korea Club".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посредством интернета и социальной сети набирают популярность во всем мире корейские дорамы и K-POP, тем самым внося значительный вклад в увеличение числа туристов в Корею. Я думаю, что и преподаватели-корееведы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играют огромную роль в развитии корейского туризма в долгосрочной перспективе.

Выражаю благодарность всем преподавателям за ваш труд и старания, мы же в свою очередь будем оказывать поддержку для развития и расширения корееведения 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На этом я завершаю свою речь, благодарю за внимание!

주제 특강

주제특강 I

- ‘언어문화’의 개념과 적용
성기철(한국 서울대)

주제특강 II

- 일본 간사이 지역의 한국학 현황
김태호(일본 고난대)
- 중앙아시아의 한국학 현황
장호종(카자흐스탄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언어문화’의 개념과 적용

성기철(서울시립대 명예교수, INK 초대, 2대 학회장)

1. 들어가는 말

제가 오늘 잠시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은 제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언어문화’에 대한 학술적 연구가 아니다. 언어 문화의 개념, 그리고 이와 관련된 현상들을 원점에서 다시 정리해 보면서, 학회의 명칭과 학회지에 명시된 ‘언어문화’와 학회의 정체성, 그리고 언어문화의 적용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한다. 특히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의사소통의 문제로, 외국어 교육 또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유념하면서, 언어, 문화, 언어문화, 의사소통의 근본을 돌아보 고자 한다. 이런 문제는 시각에 따라 다양한 견해와 논의가 가능하다는 전제를 미리 밝히면서, 이러한 논의가 금후 한 국언어문화 연구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이런 문제들은 적어도 20여년에 걸쳐 한국어 교육계를 중심으로 논의가 거듭되어 온 것이어서, 진부한 되풀이일 수 도 있지만, 좀 더 생각해 볼 것이 전혀 없지는 않아 보인다. 창립 후 20년이란 세월이 흐른 본 학회로서는 한국언어문 화의 연구를 근본으로 하는 만큼, 그 개념을 포함한 정체성의 재확인과 함께, 그 적용을 포함한 금후의 과제를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것도 의미가 없지 않아 보여, 오늘의 자리를 가지게 되었다.¹⁾

2. 인간과 삶 그리고 그 원초성

2.1 인간의 기본적 삶과 그 형태

인간의 삶은 그 근본에서 두 가지 삶을 영위한다. 하나는 물리적 삶으로, 육신의 생명을 보전하는 것이고, 다른 하 나는 정신적 삶으로, 이것은 사고에 기초한 삶이다. 이 ‘사고’ 또는 ‘사고하는 삶’이란 본능적 ‘창의’를 기반으로 상호 소통을 영위하는 삶이겠다.

그러면 이러한 인간의 원초적인 삶의 형태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는 의식주로서, 이는 본능성, 개별성을 특성으로 하고, 다른 하나는 의사소통으로, 이것은 언어적(음성적) 또는 비언어적(비음성적)인 수단을 매개로 하는 의사소통이다. 이러한 의사소통이 가져다주는 최초의 결과물이 다름 아닌 ‘사회’요, ‘문화’이다. 결국 의식주에 기초한 의사소통이 인 간의 원초적 사회, 문화를 잉태했다고 하겠다. 바꿔 말해서, 의사소통은 사회와 문화의 발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2.2 인간의 사회, 문화적 특성

인간의 특성은 무엇보다도 사회, 문화적 특성에서 근본을 찾을 수 있다. 의사소통을 통해 인류의 사회, 문화가 잉태 되고 성장한 것이라면, 인간의 사회, 문화적 특성은 어떤 것일까? 대략 몇 가지 특성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하나는 당연히 ‘소통성’이 되어야 한다. 자신의 정보를 표현하고, 상대방과 이를 주고받는 것이 소통이다. 의사소통은 구체적 소통 수단을 전제하지 않는 본능적 의사소통과 인간이 개발한 소통 수단에 의한 후천적 의사소통이 있어, 의사소통의 질과 양을 상승시켜 나간다.

인간의 사회, 문화적 특성의 또 다른 하나는 ‘집단성’입니다. 이것은 탈개인성 또는 통합성과 의미를 같이 한다. 인

1) 이런 문제는 학회지 한국언어문화학 제1권 제1호에서부터 진지한 논의가 있었고, 이후 한국어교육과 연관된 논의가 주를 이루어 온 것으로 이해됩니다.

간이 개체로 존재하는 한, 의사소통이란 것이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할 필요도 없다. 집단성이란 소통에서 발원되는 에너지가 개체를 묶어 집단을 형성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의사소통’이란 것이 개체를 집단화하는 ‘에너지’요, ‘에너지’의 원천임을 보게 된다.

인간의 세 번째 사회, 문화적 특성은 ‘체계성’입니다. 앞의 ‘집단성’이란 것은 ‘체계’를 전제로 한다. 체계가 없으면, 구성원은 개체로만 존재하게 될 뿐이다. ‘집단’, ‘체계’의 부재는 사회, 문화의 부재를 의미한다. 여기서도 우리는 ‘집단’, ‘체계’가 사회, 문화를 구성하고 지켜가는 ‘에너지’임을 확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인간의 원초적 사회, 문화적 특성인 ‘소통성’, ‘집단성’, ‘체계성’ 등은 모두가 인간의 사회, 문화를 구성하고 유지하고 발전시켜 가는 에너지인 동시에 에너지의 원천이라 하겠다.

3. 의사소통, 언어 그리고 문화

이제는 언어와 문화, 그리고 이와 분리할 수 없는 ‘의사소통’ 또는 ‘의사소통 문화’를 함께 하여 생각해보기로 한다.

3.1 의사소통

가. 개념과 기능

우선 의사소통의 개념과 그 기능을 돌아보기로 한다. 의사소통의 개념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필요할 것 같지 않지만, 간요하게 축약한다면, ‘의도된 정보의 표출이나 교환’이라 할 수 있다. 자아의 표출이 일방성을 특성으로 한다면, 교환은 말 그대로 양방성이다.

이러한 의사소통을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면, 다양한 기능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본 발표의 주제를 고려하면, ‘정보 교환’ 기능과 ‘생산적’ 기능의 구분이 가능해 보인다. 전자는 일방성 정보 표출과 상대와의 양방성 정보 교환을 내용으로 한다. 이에 비해 생산적 기능은 좀 더 다양한 시각에서 고려될 수 있으나, 기본적인 생산성 기능은 의사소통이 개별 인간을 통합, 결속시켜, 인간의 사회와 문화를 만들어 내는 데 있다. 좀 더 부연하면, 의사소통은 사회, 문화를 만들어 내서, 이를 유지하고, 때로는 변형시키면서, 또 새로운 사회, 문화를 발전시킨다. 여기서 의사소통은 인간의 사회, 문화 또는 역사를 산출하고 견인해 가는 동력이라 할 수 있다.

나. 의사소통 그리고 에너지와 혼

(1) 의사소통과 에너지

인간의 원초적 삶에서 볼 수 있듯이, 인간은 더 나은 질의 삶을 위해서, 비언어적 언어와 음성적 언어를 만들어 내었다. 언어의 이러한 언어적, 비언어적 기호의 창안은 의사소통을 위한 것으로, 이 의사소통이 필요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의사소통의 에너지’를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사소통의 에너지가 개별적인 사람 사람을 묶어 집단을 만들었고, 집단이 만들어지면서, 질서, 조직, 체계화도 가능해짐으로써, 여기에 인간의 사회,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 결국 기호의 활용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해지고, 이를 동력으로 인간이 집합하여 사회, 문화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 인간의 사회, 문화 역시 새로운 동력이 되어, 금후의 발전된 국가, 국제 사회를 이끌어 가는 에너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인간의 활동 하나하나가, 그것이 정신적인 것이든 물리적인 것이든, 에너지인 동시에 에너지원이 됨을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에너지란 것이 연속성을 가진 것임을 확인하게 된다. 하나의 에너지가 어떤 대상에 작동하면, 이 대상은 또 다른 에너지원이 되어, 다른 대상에 작동하면서, 이러한 에너지의 작동은 반복적으로 또 연속체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에너지의 반복적 연속성이라 할 수 있을지 모른다.

(2) 에너지와 혼

그런데 여기서 좀 더 주목할 것이 있다. 이렇게 단계 단계에서 발생하고 이전되는 에너지는 단순히 에너지일 뿐만 아니라, ‘혼’을 만들어 낸다는 사실이다. ‘혼’을 담고 있는 것이다.

에너지는 물리적인 에너지와 정신적인 에너지의 구분이 가능하다. 그런데 정신적인 에너지는 에너지로만 머물러 있

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정신’이라고도 할 수 있는 ‘혼’을 발생시킨다. 여기서 우리는 언어, 문화, 언어문화, 사회, 의사소통 등이 각각 ‘에너지’인 동시에 ‘에너지’의 원천이 되면서, 그 내부에 ‘혼’을 잉태시킨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정원의 돌 하나를 옮길 때, 에너지의 발동이 필요하지만, 여기에 ‘혼’이 동반되지는 않는다. 그런가 하면 응원석의 박수는 에너지이면서 에너지원이 되고, 누군가의 ‘혼’이 발동되고 있는 것이다.

다. 언어와 문화 발생의 배경

잠시 의사소통과 관련하여, 언어와 문화 발생의 배경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기본적으로 인간의 언어와 문화는 의사소통의 욕구에서 비롯하였다. 그것은 인간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욕구이다. 의사소통의 도구 개발로 의사소통도 발전하게 되고, 의사소통의 발전에 따라, 언어와 문화도 발전하게 되므로, 의사소통과 언어, 문화의 발달은 상호 상승 작용을 통해 더 진전된 단계로 발전을 거듭한다.

언어, 문화의 발생 배경은 여기에 머물지 않는다. 위에 언급된 것은 현실적인 기본 배경임에 틀림없지만, 여기에 머무는 것만은 아니다. 인간이 더 나은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사람으로 하여금 항상 새로운 것을 찾게 하지만, 그 배후에는 더 근원적으로 인간의 심층에 내재한 ‘창의’의 욕구가 있다. 이것은 현실적인 요구나 필요성을 떠나서, 인간은 본원적으로 무언가 새로운 것, 미지의 것에 대한 창의적 활동 요구가 내재해 있음을 의미한다. 미지의 것, 새로운 것, 불가능한 것에 대한 호기심과 도전 의식이 인간의 깊은 속에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언어와 문화가 발생하게 된 배경에는 상승된 현실적 삶에 대한 요구와 함께, 더 본원적으로 미지, 불가지(不可知)에 대한 접근 또는 도전 의식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언어는 물론 의사소통의 도구지만, 의사소통을 수단으로 만들어진 문화도 의사소통의 도구가 된다. 인간은 언어와 문화를 수단으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의사소통을 도구로 해서 언어, 문화가 만들어진다. 우리는 여기서 순환성을 보게 된다. 어떤 형태의 것이든, 그 자체가 힘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그대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3.2 언어

언어에 대하여 우리는 이미 상당한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언어문화’와 관련하여 언어의 몇 가지 주요 특성을 돌아보기로 한다.

첫째로, 언어는 문화이다. 문화는 상위 개념이고, 언어는 그 하위 개념이다. 언어는 문화이면서, 여타의 문화와는 차별화되고 대응되는 개념이다.²⁾

둘째로, 언어는 전형적인 의사소통 수단이다. 여기에는 비음성적[비언어적] 수단과 음성적[언어적 수단] 수단이 존재한다.

셋째로, 언어는 모든 자연 현상을 범주화한다. 이것은 모든 사물에 대한 언어상의 명명이다. 우주 만상은 개별적인 독자(獨自)이면서도, 실제로는 타자(他者)와의 관계 속에서 전체로는 하나의 연속체, 연합체를 이루고 있다. 무한한 색채의 연속체인 무지개를 일곱 색으로 이해하는 것은 언어의 범주화 때문이다.³⁾

넷째로, 언어는 에너지이다. 에너지란 무엇을 움직이는 ‘힘’이요 ‘동력’이다. 방금 살핀 자연의 범주화도 언어의 힘이다. 언어의 ‘힘’에 힘입어, 인간은 자연을 이해하게 되었고, 의사소통이 가능해졌고, 인간의 사회, 문화 형성이 가능해졌으며, 이에 힘입어 지속적인 발전을 하고 있다. 언어는 의사소통, 사회, 문화의 형성과 견인을 주도하는 동력이다.

다섯째로, 언어는 ‘혼’이다. 발표자는 언어, 문화에서 에너지와 함께 혼을 중시한다. 언어는 그 자체로 에너지이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여기에 혼이 동반된다. 혼은 그 주체의 에너지를 발동시키는 추상적 실체다. 어느 민족이든 자신의 언어와 문화를 민족의 혼으로 중시한다.⁴⁾

2) 이러한 현상은 마치 ‘사람’이 ‘동물’의 한 하위 구성 요소이면서, ‘동물’과 대등하게 상응하는 어휘인 것과 다르지 않다.

3) 사물에 대한 인간의 이해는 사물에 대한 언어의 범주화에 기초하고 있다.

4) 3장의 ‘에너지와 혼’ 참조

3.3 문화

가. 문화의 개념

언어의 개념이나 마찬가지로, 문화의 개념도 수없이 언급되어 왔다. 여기서는 ‘문화’를 ‘인간의 유형화된 삶의 방식: 사고방식 및 행동 방식’이란 말로 정리해 두고 다음 문제를 생각해 가기로 한다.

나. 문화의 특성

잠시 문화의 특성을 돌아보고자 하는데, 이것 역시 널리 알려진 것이어서, 발표 주제와 관련된 몇 가지만 생각해 보기로 한다.

첫째로, 문화는 의사소통에 의해 생성되고 발달되어 왔다. 이미 앞서 언급된 바로, 문화는 의사소통의 산물이다.

둘째로, 문화는 패턴화되어 있다. 이것은 문화가 다수에 의해 공유된 현상임을 말해준다. 개개인의 문화를 생각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셋째로, 문화는 언어에 의해서 생성되고 발전된다. 언어 및 의사소통은 문화의 동력이다.

넷째로, 문화의 전형은 언어이다. 문화를 구성하는 요소는 수없이 많지만, 그 전형은 언어이다. 문화는 언어에서 가장 큰 동력을 얻는다.

다섯째로, 문화는 동력[에너지]이다. 의사소통을 동력으로 형성된 문화는 또 다른 문화를 생성하고 견인하는 동력이 된다.⁵⁾

여섯째로, 문화는 ‘혼’이다. 혼이 내재하지 않은 문화는 생각하기 쉽지 않다. 문화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지고, 다수에 의해 공유되고, 오랜 동안 지속되는 데서, 에너지도 생성되고 혼도 생성된다.⁶⁾

다. 문화와 의사소통

앞서 문화는 의사소통의 산물이라 했다. 그런데 여기에 역설적인 진실이 있다. 의사소통을 수단으로 형성된 문화가 또 다른 문화를 형성하는 수단이 되면서 동시에 기성의 문화를 견인하는 동력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문화를 만들어 내는 수단은 언어, 의사소통, 그리고 문화이다. 앞서 보았던 순환성을 다시 보게 된다.

라. 문화와 언어의 주요 공통점

위에서 언어와 문화의 특성과 기능을 생각해 보았다. 둘은 물론 용이하게 변별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공통점도 적지 않다.

첫째, 언어는 문화라는 점에서 언어, 문화의 공통성을 보게 된다. 언어는 문화의 소산인 문화이면서, 문화 형성의 비중 높은 구성 요소가 된다.

둘째, 문화와 언어는 모두 의사소통의 산물이란 점에서도 공통성을 가진다. 의사소통이 언어, 문화 생성의 도구가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셋째, 언어와 문화는 상호 내포적이란 점도 공통 특성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언어에는 문화가 내포되고, 문화에는 언어가 내포한다. 상호 내포라 할 수 있다.

넷째, 언어와 문화가 각각 별개의 수단, 도구이면서, 다른 언어와 문화를 생성하고 견인하는 수단, 도구가 된다는 점에서 공통성을 가진다.

마지막으로 이 언어와 문화는 각각 에너지이면서, 모두 그 안에 혼이 깃들어 있다. 앞서 언급한 바다.

5) 이러한 순환성은 사회, 자연에도 일반화된 보편성의 하나이다. 인류의 역사가 생장소멸(生長消滅)의 역사라면 이것은 곧 순환의 역사이다.

6) 얼핏 성취 문화라고 하는 건축물도, 명작일수록 거기에 작가의 정신, 작가의 혼이 작용할 수 있지만, 여기에 더하여, 한 사회, 한 시대의 정신, 혼이 움직이고 있을 수 있다. 서울의 남대문이 불탈 때, 온 국민이 마음 아파한 것은, 단순히 문화재에 대한 애정 때문만은 아니라고 본다. 거기에서 우리 국민, 우리 국가, 사회의 혼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체감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4. 언어문화

4.1 연구 영역의 교직(交織)

학계에는 실로 많은 수의 연구 학문 영역이 존재한다. 아주 인접한 학문이 아닌 경우, 그 명칭이나 성격조차 짐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학문의 연구는 인접 또는 관련 영역과의 통합 또는 융합이 이루어지면서 연구 영역은 더욱 확대되고 세분되어 간다.⁷⁾

언어나 문화에 관심을 가진 우리들에게 이러한 현상을 친숙하게 보여 주는 예가 있다. 사회학과 언어학은 별개의 학문 영역이지만, 언어학이 사회 문제를, 그리고 사회학이 언어 문제를 부분적으로 수용하면서, 각각 사회언어학, 언어사회학을 만들어 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언어학과 사회학을 양극으로 하는 연구 영역은 다음과 같은 연속선상에 놓이게 된다.

< 언어학 - 사회언어학 - 언어사회학 - 사회학 >

언어학, 문화학도 우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다. 언어학이 언어와 긴밀한 연관성을 가진 문화학을, 그리고 문화학이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 언어학을 부분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언어학은 문화언어학을, 그리고 문화학은 언어문화학을 만들어 내게 되었다. 새로 등장하게 된 문화언어학과 언어문화학은 모두 언어와 문화를 공통 요소로 하는 점에서 공통성을 가지면서도, 전자가 언어에, 후자가 문화에 더 무게를 두는 점에서 변별된다. 언어와 문화를 양극으로 하는 연구 영역도 다음과 같은 연속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는 점이 사회언어학, 언어사회학의 경우와 다를 바 없다.

< 언어학 - 문화언어학 - 언어문화학 - 문화학 >

이러한 점진적인 연속체의 속성을 보여 주는 것은 학문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학문 영역보다는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또는 일반 자연 현상에서 더 두드러지게, 더 광범하게 나타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⁸⁾

4.2 '언어문화'의 개념

가. '언어문화(학)'에 대한 기존의 논의

(1) 기존 논의의 문제점

언어, 문화와 관련하여, 한국문화학이나 한국언어학에서 '언어문화'에 대한 깊은 논의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 학술적인 측면에서 20세기 초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가 창립되고, 그 학회지를 '한국언어문화학'이라 명명하면서, 언어문화가 처음으로 하나의 독자적인 연구 영역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이 학회 창립과 때를 같이 하여, 학회지 '한국언어문화학' 창간호인 제1권 제1호를 시작으로 언어문화, 언어문화 교육에 관한 연구가 활기를 보였다. 이들 몇몇 연구에서 주로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언어문화의 개념, 범위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여러 논의에도 불구하고, 학술 용어로서의 '언어문화'의 적절성 여부 및 그 개념을 포함하여, 이것이 언어학의 대상인가 문화학의 대상인가 등에 대한 논의는 매우 미진하였다. 여기에는 그 동안 학회 연구 활동 자체가 한국어 교육의 문화 교육과 관련된 활동에 무게를 두어 온 반면, 문화학, 언어문화학의 근본에 대한 연구나 관심이 적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언어문화학 전문 연구자가 많지 못한 데도 한 원인이 있을 수 있고, 이에 따라 이 분야 연구의 저변이 든든하지 못한 데도 원인이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7) 이렇게 연관성 있는 분야 간의 통합 또는 융합을 간학문(間學問) 또는 '학제간 연구'란 말로 표현하기도 한다.

8) 'Whorf-Sapir 가설' 또는 '언어 상대성 원리' 통해서, 자연 현상 자체가 언어상의 범주화를 어렵게 하거나, 문화권에 따라 범주화가 불가능하거나 수의적인 경우가 있음을 이해하게 된다. 이 배후에는 자연 또는 인간 세계 자체가 언어의 명시적 범주화를 거부하는 연속체가 적지 않음을 말해 준다.

(2) 기존 연구에서의 ‘언어문화’

① 문화언어학

언어와 문화의 복합에서 언어에 주안점을 둔 연구 분야를 ‘문화언어학’이라 할 수 있다. 다음에서 그 한 예를 볼 수 있다.

(ㄱ) 중국의 ‘문화언어학’

중국에서는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언어학과 문화학이 접목된 언어학’의 의미로 ‘문화 언어학’이란 용어를 사용해 온 것으로 이해된다.(황보유, 2004)

(ㄴ) M. Agar(1995)의 ‘Languaculture’

이 용어의 어휘 구조로 보아서는 우리의 ‘언어문화’에 유사해 보이는데, 실제의 의미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이 용어는 문화가 반영된 ‘언어’ 또는 이런 ‘언어의 연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⁹⁾

(ㄷ) 한국에서의 ‘언어문화’

한국에서 ‘언어문화’는 주로 한국어 교육계를 중심으로 비교적 활발한 논의가 있어 왔다.

언어와 문화의 복합에서 문화에 주안점을 둔 영역, 달리 말해서 언어 문제를 고려한 문화학을 ‘언어문화학’이라 할 수 있다. 본 학회의 학회지 ‘한국언어문화학’ 창간호와 뒤를 이은 학회지들에서 언어문화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 대체로 언어와 긴밀히 관련된 문화를 언어문화로 규정하거나 그렇게 이해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지만 동간의 논의를 보면, 공동 인식과 함께 차별화되는 인식 또한 없지 않다.

‘강승혜 외(2010)’의 ‘언어의 사용과 관계가 있는 문화를 보통 한국어 교육에서는 ‘언어문화’라 부른다.’에서 저간(這間)의 사정을 짐작하게 한다. 동일 연구에서 언어문화와 관련하여, ‘언어문화’는 ‘언어에 투영된 문화적 함의, 언어로 이루어지는 문화’로 이해되고, ‘언어가 다루는 문화’ 또는 ‘언어를 통하여 산출되는 문화적 양상’은 독자적인 내용 부분인 ‘문화’를 가리킨다고 보았다. ‘언어문화’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대략 성기철(2004), 조항록(2004a, 2004b), 이미혜(2004) 등의 논의와 큰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나삼일(2014)¹⁰⁾, 이지영(2014)¹¹⁾ 등에도 그대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본 학회나 학회지 명칭 중의 ‘언어문화’는 언어와 문화의 복합 영역으로, 문화에 초점이 놓여 있다. 이 시기의 대체적인 인식은 언어문화에 대한 이러한 개념 정리를 함께 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당시 본 학회의 창립은 곧 이러한 연구 영역에 기초한 한국 언어문화학의 성립과 출범을 의미하는 역사적인 의미를 가진 것이었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과는 다른 시각도 적지 않다. 한국어 문화 교육과 관련하여, ‘언어문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해도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사례들이 없지 않다.

먼저 주목되는 것은 민현식(2004)이다. 문화를 보는 시각에서 ‘제한 관점’과 ‘포괄 관점’의 두 가지를 구분하면서, 전자는 언어 속의 문화, 그리고 후자는 문화 속의 언어로 보았는데, 여기까지는 인식을 같이 하는 연구가 적지 않다. 그런데 전자는 국어 교육에, 그리고 후자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 연계시킨 점에서는 다른 연구와 차별화될 듯싶다. 한국어 교육에서 흔히든 둘 다 문화 교육의 대상으로 보면서도, 제한 관점의 언어문화를 문화 교육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서혁(2017)은 ‘언어문화’의 개념을 가장 넓게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특징적인 차이를 보인다. 본 논문(주1)에서, “본고에서 지칭하는 ‘한국언어문화’란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총칭하는 일반적 의미로 사용하되, 특히 한국어 사용과 관련된 사회문화적 맥락을 반영하는 지식, 기능(기술), 태도의 총체를 말한다.” 고 하였다. 그런가 하면 정지현 외(2015)는 ‘언어문화’를 별개의 용어로 규정하지 않고, 단순히 ‘언어’와 ‘문화’, 즉 두 단어의 수평적 합성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9) Agar(1995)에서는 언어문화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Languaculture is a term meaning a language that includes not only elements such as grammar and vocabulary. but also past knowledge, local and cultural information, habits and behaviours.”(‘신현숙, 2014’에서 재인용)

10) 나삼일(2014)는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17차 춘계학술대회 ‘한국 언어문화 교육의 방법’ 주제 토론에서, ‘언어문화’의 의미는 ‘언어의 사용과 관계가 있는 문화’로 보았다.

11) 이지영(2014)는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17차 춘계학술대회 ‘한국 언어문화 교육의 방법’ 주제 토론에서 “언어문화는 언어를 통해 발현되고 소통되는 문화의 총체”로 규정하였다.

나. 본 발표에서의 ‘언어문화’의 개념

발표자는 이 기회에 ‘언어문화’, ‘언어문화학’의 개념을 분명히 하여, 전문 용어로 규정되고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 본 발표에서 의미하는 ‘언어문화’의 개념은 본인이 학회지 창간호[제1권 제1호]에서 규정한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좀더 부연하여 구체화하면, 우선 언어문화를 광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다.

광의의 개념이란 것은 논리적인 개념으로, 언어 및 언어와 관련되어 있는 문화 전체를 가리킨다. 여기서 논리적이란 표현을 한 것은 언어도 문화이기 때문에, 언어문화의 영역에서 순수 언어를 배제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언어문화 = 언어 + 언어문화’와 같은 등식이 가능해진다. 한편 언어문화를 협의로 규정하게 되면, 이것은 실용적 개념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런 개념에서는 언어문화에서 순수 언어는 배제되어야 한다. 이런 현상은 ‘동물’과 ‘사람’의 관계와 동일하다.¹²⁾

그러므로 ‘언어’와 ‘언어문화’의 관계에서도, ‘언어’를 상위 개념으로 볼 것인가, 둘을 대등한 개념으로 이해할 것인가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발표자는 두 개의 상이한 개념을 존중하되, 실용적인 측면에서 ‘언어문화’는 순수 언어를 제외하고, 언어와 관련된 문화로 그 범위를 제한하기로 한다.¹³⁾

다. 언어문화의 내용

언어문화의 주요 ‘내용’은 그 ‘범위’와 크게 다르지 않다. 언어문화의 내용을 좀 포괄적으로 보면, 대략 언어 속의 문화, 문화 속의 언어, 그리고 ‘언어와 긴밀하게 관련된 여타의 문화’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관련’이 정도의 문제여서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면 대략 다음과 같은 것이 될 것이다.¹⁴⁾

- (1) 언어 속의 문화: 언어에 내포되어 있는 문화
예) 대우법, 문화적 함의가 있는 어휘 및 표현(김치, 효, 설, 속담, 관용구 등) 등
- (2) 문화 속의 언어: 문화에 내포되어 있는 언어
예) 통신 문화 속의 언어: 예) 휴대 전화의 통신 언어
특징: ① 비공개성
② 간요, 생략, 비문법성, 은어성 등
③ 비언어적 기호 사용
- (3) 언어로 표현되는 문화
예) 문학(소설, 시, 시나리오, 희곡 등), 영화, 연극, 음악, 간찰 문화 등
- (4) 언어에 동반되는 문화
예) 언어 행위와 함께 하는 다양한 행위 또는 예절(절, 악수 또는 포옹 등)
기타 비언어적 언어 등
- (5) 언어와 밀접하게 관련된 문화
예) 한글 또는 한자 등 표기 문화, 번역 문화, 방언 문화 등
- (6) 언어문화의 역사¹⁵⁾

12) 논리적으로 보면 ‘사람’은 ‘동물’의 하위 개념으로, ‘사람’은 ‘동물’이다. 그렇지만, 일상에서는 둘을 대등한 개념으로 생각하여, ‘동물 및 사람’과 같이 말한다.

13) 발표자는 ‘언어문화’의 영어 용어로, 필요하면 기존 용어 ‘Languaculture’를 사용하되, M, Agar(1995)와 같은 그 본래의 개념은 수용하지 않기로 한다.

14) 여기서 우리는 ‘언어 속의 문화’와 ‘문화 속의 언어’를 구분했지만, 실제에서는 둘이 겹치거나 통합되는 경우도 없지 않다. 가령 우리는 ‘김치’라는 어휘 속에서 문화적 함의를 찾을 수 있는가 하면, 한국의 음식 문화에서는 ‘김치’라는 문화성 어휘를 보게 된다.

15) 언어사, 국어사 등은 순수 언어학에 포함됨.

6. 언어문화의 적용

지금까지 발표자는 인간의 원초적인 단계에 주목하면서, 언어, 문화, 언어문화, 의사소통 등을 개관하고, 특히 ‘언어문화’의 개념과 그 특성을 생각해 보았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살펴 본 ‘언어문화’가 실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간략히 생각해 보기로 한다.

6.1 학술적 연구

본 학회의 기본적 창립 목적은 언어문화에 대한 학술적 연구이다. 우리는 본 학회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학회의 명칭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는 몇 가지 주요 내용을 대변하고 있다.

첫째는 언어문화의 연구란 점이다. 즉 언어문화를 연구의 제일 목표로 삼는다는 의미이다.

둘째는 한국언어문화에 대한 연구가 중심이 된다는 점이다. 언어문화 중에서 한국언어문화의 연구가 우선순위라는 의미이다.

셋째는 국제적인 연구로 그 내용과 범위를 확대한다는 점이다. 여기에도 몇 가지 상이한 의미 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제적’에는 한국언어문화의 국제적 연구는 물론, 다른 언어권의 언어문화 연구를 포함해서, 이들 각각의 언어문화에 대한 비교 연구라는 의미가 내재해 있다.

본 학회가 추구하는 연구는 이렇게 명시적이면서, 그 범위는 매우 넓다.¹⁶⁾

잠시 한국언어문화 연구에 눈을 돌려 보기로 한다. 한국언어문화가 다양한 모습으로 많은 연구 실적을 쌓기도 했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언어문화학의 영역으로보다는 국어학, 역사학, 문학, 일반 문화학, 민속학 등 별도의 학문 영역에서 진행되어 온 것이 한 특징적인 현상이라 하겠다.¹⁷⁾

다양한 모양으로 표현되는 대우 현상을 포함하여, 속담이나 관용구, 금기어 등과 관련된 한국 언어문화는, 비록 ‘언어문화’라는 용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우리의 많은 관심과 함께 많은 연구 실적을 쌓아 온 한국의 언어문화 현상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 예를 들어 대우법 연구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경우 그 형태, 통사, 화법 등 문법 또는 언어학적 시각의 분석에 주목했을 뿐, 그 문화적 측면에 대한 연구는 간과되었다.

한국에서 그 동안 한국언어문화학과 관계없이 이루어 온 언어문화의 연구는 또 다른 정리가 필요한 외에, 전문 연구자들의 관심 밖에 놓여 온 언어문화 현상의 발굴과 연구에 주목해야 될 줄 안다. 가령 그 동안 많은 관심과 함께, 적지 않은 연구 실적을 쌓아 온 한국의 방언이나 경음화 현상 같은 것도 전형적인 언어문화 현상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구는 순수 국어학의 관점에서 접근되었을 뿐, 언어문화적 고려는 별로 없어 보인다.

6.2 언어문화와 한국어 교육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 학계에서 한국 언어문화 현상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은 의사소통 교육이어서, 문화 교육이 중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 언어문화에 대한 한국어 교육계의 깊이 있는 연구도 적지 않은 결실을 거두어 온 것으로 생각된다.¹⁸⁾

이에 의사소통 관련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나 연구는 활발했지만, 특별히 언어문화에 대한 전문적 접근에는 흔히 거리를 두어 왔다. 문화 교육에서 언어문화를 엄격하게 구별할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지 않았기 때문으로도 이해된다.

16) 본 학회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외국의 언어문화권에서 국제 학술회의를 가졌고, 이번에도 키르기스에서 학술회의를 가지게 된 것은 본 학회의 정신이나 추구하는 목표에 부합하는 것이라 하겠다.

17) 국내 연구에서 ‘언어문화’란 말은 엄격한 개념 규정 없이, 언어나 문화와 관련되면 언어문화로 명명하는 사례도 없지 않다. ‘한국언어문화’가 ‘한국문학사’나 ‘한국문학개론’ 같은 영역을 지칭하는 경우까지 있는 것 같다.

18) 조항록(2004a, 2004b), 이미혜(2004), 민현식(2004), 왕한석(2005), 강승혜(2010), 서혁(2017) 등은 그 중의 적은 일부일 것이다.

그러나 외국어 교육이 언어 교육과 문화 교육의 협업이라고 본다면, 언어, 문화, 언어문화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이해된다. 교육과정, 학습자 또는 교사에 따라, 문화 또는 언어문화 교육은 다양한 모습으로 구현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언어 교육 또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서 ‘언어문화’를 ‘언어와 관련된 문화’로만 치부하면, ‘언어문화’란 개념도 용어도 의미 없는 것이 되고, ‘언어문화학’도 설 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

7. 마무리

지금까지 본인은 언어문화의 개념과 특성 또는 내용 등에 주목하면서, 인간의 원초적인 삶과 관련하여, 언어, 문화, 그리고 이를 통한 의사소통의 문제를 생각해 보았다. 여기에서는 과거에 규정하였던 언어문화의 개념을 다시 확인하면서, 관련 현상들과 이들 간의 상호 관계 또는 상호 작용을 돌아보았다. 이런 과정에서 현재 한국 언어, 문화 관련 학계에서 ‘언어문화’에 대한 개념조차 만족스럽게 정립돼 있지 못한 현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늘 발표에서는 특히 언어, 문화, 의사소통 등 언어문화 관련 현상들을 ‘에너지’와 ‘혼’이라는 관점에서 그 순환적 기능과 역할도 생각해 보았다. 아울러 ‘언어문화’ 현상이면서도, 언어문화 또는 언어문화학의 이름이 아닌 다른 영역의 이름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온 아쉬움도 언급하였다. 언어문화, 언어문화학이 아직은 학계에서 제 자리를 잡지 못한 때문으로 이해된다. 언어문화가 가장 많은 적용을 받는 국어 교육 또는 한국어 교육에서부터 언어문화에 대한 전문적 접근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아울러 한국학 여러 영역에서 한국 언어문화학이 제 자리를 찾아 가기를 기대해 본다.

한 가지 더 첨언하고 싶은 것은 키르기스에서 본 학회가 국제학술회의를 가지는 점에 다시 한 번 큰 의미를 되새기면서, 오늘을 계기로, 양국 간 언어, 언어문화 그리고 언어·언어문화 교육에서 활발한 연구와 교류가 있기를 기대한다. 감사합니다.

참고 문헌

- 강승혜 외(2010), 한국문화교육론,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형설출판사.
- 강현화, 이미혜(2011), 한국어교육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나삼일(2014),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17차 춘계학술대회, ‘한국 언어문화 교육의 방법’ 주제 토론
- 김종철(2005), 문화 교육의 과제와 발전 방향, 한국어교육론 2, 한국문화사.
- 민현식(2004), (한)국어 문화 교육의 개념과 실천 방향, 한국언어문화학 1권 1호,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 박갑수(1999? 1998?),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과 문화적 배경, 해외 한민족과 차세대, 계명대학교 아카데미코리아.
- 박영순(2002), 한국어교육을 위한 한국문화론, 한국문화사.
- (2006),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국문화론, Hollym.
- 서 혁(2017), 학교 교육과 한국어언어문화 교육의 쟁점과 과제, 한국언어문화학 제14권 제3호,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 신현숙(2014), 뉴스를 활용한 언어문화 교육,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INK) 17차 춘계 학술 대회 기조 강연.
- 왕한석(2005), 한국 언어 문화학의 학문적 정체성,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제2차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 이미혜(2004),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통합 교육 -언어 교육과 문화 교육의 통합 양상을 고려한 교육 방안-, 한국언어 문화학 1권 1호,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 이지영(2014),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17차 춘계학술대회 ‘한국 언어문화 교육의 방법’ 주제 토론
- 정지현 외(2015), 한국 언어문화 리터리시에 나타난 북한 이탈 대학생의 경험에 대한 연구, 한국언어문화학 제12권 제 3호,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 조항록(2004a), 한국언어문화와 한국어교육, 한국언어문화학 1권 2호,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 (2004b), 한국어 문화 교육론의 내용 구성 시론, 한국언어문화학 제1권 제2호,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 (2010), 한국어교육 현장의 주요 쟁점-교재, 평가, 문화교육, 한국문화사.
- 황보유(2004), 문화언어학과 언어문화 교육, 한국언어문화학 제1권 제1호,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 Agar, Michael(1995), Language shock: Understanding the culture of conversation. New York, William Marros.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17차 춘계학술대회,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나삼일(2014), ‘한국 언어문화 교육의 방법’ 주제 토론

“‘언어문화’의 의미는 언어의 사용과 관계가 있는 문화”

이지영(2014), ‘한국 언어문화 교육의 방법’ 주제 토론

“언어문화는 언어를 통해 발현되고 소통되는 문화의 총질”

일본 간사이(關西) 지역의 한국학 현황

김태호(金泰虎)

일본 고난대학(日本 甲南大學)

Title: Current Status of Korean Studies in the Kansai Region of Japan

Author: Konan University Prof. KIM TAE HO

Abstract: In Japan, under the special situation that Korea was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modern Korean studies education began and an educational institution of Korean studies was established. Korean studies concerns general knowledge of Korea including various fields such as language, culture, society, history, geography, politics, and economy. For Koreans who were living in Japan during the period of Japanese imperial occupation in Korea, there were evening schools and temple schools, which were educational institutions that teach children their heritage language, history, and culture. In the Kansai region, Osaka Foreign Language School and Tenri Foreign Language School were established by the Japanese, which were later reconfigured into universities.

With the liberation of Korea from Japanese occupation in 1945, Koreans residing in Japan started to establish their own educational institutions to educate ethnically Korean children on Korean language, history, and culture, which were related to the identity of Korean people, training institutes, seminars, Korean language institutes, established various schools. However, when the Korean school closure order to shut down educational institutions established by Koreans in Japan was issued in 1948, the Hanshin education struggle occurred in the Kansai region around Osaka. As a result, ethnic classes were given after school at public elementary and junior high schools in the Kansai region, and various other educational institutions conducted ethnic education on Korea.

In the 1960's, when the number of students attending ethnic classes fell, the Korean government began teaching Korean language and Korean culture throughout Japan, starting with the Korean Education Institute in Osaka in 1963, with the intent of complementing the existing ethnic education. From the beginning of the 1980s, Korean academic education was conducted mainly at Japanese universities, and it was decided that Korean ethnic classes in Japan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of Korean will be conducted with Korean studies

Since entering the global era, the Korean boom in Japan has caused many Japanese universities to adopt Korean language for education and to have Korean majors established. Furthermore, colleges, vocational schools, high schools, supplemental schools, and even companies also began to offer Korean studies. In particular, the ethnic classes of Koreans in Japan and the educational institutions of Japanese Korean studies coexist in the Kansai region of Japan.

주제어: 한국학, 간사이(關西)지역, 긴키(近畿)지방, 민족교육, 민족학급, 한국어, 교육기관

들어가며

본 발표에서는 근대 국민국가 성립기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 관계에 입각하여 일본 간사이(関西) 지역의 한국학 교육기관의 변천과 현황, 그리고 그 특징을 분석하기로 한다. 이 과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는 시대적으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식민지 정책과 그 후유증이 맞물려 있고, 또 일본 내의 한국학의 상황이 복잡하며 각 지역별로 나타나는 지역적 특성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사이(関西) 지역을 한정하여 논하기로 한다. 일본 간사이(関西) 지역 한국학의 지역적 특징을 파악해 보는 것은 전체적인 일본 한국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중요한 작업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우선 본 발표에서 다루려는 간사이(関西) 지역이 어떤 지역에 해당하는 지 그 의미를 명확히 한 뒤에 본격적인 논의를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간사이(関西)는 일본 국내의 일부 지역을 가리키는 명칭으로, 일반적으로는 2부 4현 (오사카부 : 大阪府, 교토부 : 京都府, 효고현 : 兵庫県, 시가현 : 滋賀県, 나라현 : 奈良県, 와카야마현 : 和歌山県)을 뜻한다.

아래 (그림 1)의 간사이(関西) 지역은 (그림2)의 일본 열도의 도도부현(都道府県)에서 보면 사각의 점선 부분에 해당된다.

(그림1) 일본의 간사이(関西) 지역(2부 4현)



(그림 2) 일본 열도의 도도부현(都道府県)



이외에 2부와 4개의 현에 3개의 현(후쿠이현 : 福井県, 돗토리현 : 鳥取県, 도쿠시마현 : 徳島県)을 넣어 2부 7개의 현을 간사이(関西)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본 발표에서는 다음의 (그림1)에서 제시한 2부 4현을 간사이(関西) 지역으로 간주한다.

참고로 간사이(関西) 지방은 5 기나이(畿内) (야마시로국 : 山城国, 셋츠국 : 摂津国, 가와치국 : 河内国, 야마토국 : 大和国, 이즈미국 : 和泉国)와 주변 지역을 가리키는 긴키(近畿) 지방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주요 백과 사전에는 긴키(近畿) 지방은 2부 5현(오사카부 : 大阪府, 교토부 : 京都府, 효고현 : 兵庫県, 시가현 : 滋賀県, 나라현 : 奈良県, 와카야마현 : 和歌山県, 미에현 : 三重県) 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다.¹⁾ 현재 간사이(関西) 지방은 관동(関東) 지방과 대치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지만, 행정기관과 방송국의 기상정보에서는 긴키(近畿) 지방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다.

한편 주지하다시피 한국학(Korean Studies)의 영역은 한국을 대상으로 하는 지식 전반, 즉 언어, 문화, 사회, 역사, 지리, 정치, 경제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는 종합적인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외국에서의 한국학 내용은 주로 언어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와 사회의 영역을 상정하는 경향이 강하다. 다시 말하면 한국학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언어, 문화, 사회의 영역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그 출발점과 관점의 중심은 외국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학이라는 용어는 해방 후에 사용되기 시작하였는데 비슷한 의미로 한국에서는 국학이라는 명칭도 사용되었다. 국학이라는 용어는 그 의미가 자민족에 기초하고 있어 국제사회와 외국인에게는 보편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주의와 국수주의적인 색채도 짙다.

이러한 한국학은 크게 네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첫 번째는 연구, 두 번째는 교육, 세 번째는 학습, 네 번째는 교육을 하는 기관이라는 네 측면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첫째는 한국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와 연구자, 두 번째는 한국학을 가르치는 교육과 교육자, 세 번째는 배우는 학습자, 그리고 네 번째는 학습자가 한국학을 배울 수 있는 기관이다. 본 발표에서는 네 번째의 교육 기관을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일본에서의 한국학에 관한 선행연구는 교육과 교육자, 그리고 학습과 학습자를 중심으로 한 테마(Thema)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²⁾ 한편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학 연구는 거의 행해지고 있지 않았다. 특히 간사이(関西) 지역은 해방 전부터 한국인이 많이 살고 있다는 특징과 재일 한국인이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격렬하게 투쟁을 한 지역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 곳이다. 한국인 연구자를 중심으로 재일 한국인의 민족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기관인 '민족학급'에 대한 연구는 부분적으로 행해져 왔다.³⁾ 그러나 간사이(関西) 지역을 한정하여 한국인뿐만 아니라 일본인이 설립한 한국학 교육기관까지 모두를 시야에 넣어 분석을 한 선행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기점으로 일본인과 한국인이 설립한 간사이(関西) 지역의 한국학 교육기관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시대적 흐름과 각 교육기관이 갖는 특징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단, 조총련⁴⁾에 관련이 되는 한국학 기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기로 한다.

1) 『日本国語大辞典』(小学館), 『広辞苑』(岩波書店), 『大辞泉』(小学館), 『大辞林』(三省堂), 『日本大百科全書』(小学館)을 의미한다.

2) 金泰虎 『韓国語教育の理論と実際』(白帝社, 2006年), 李知垠 「語彙翻譯으로 인한 日本語圈 學習者 誤用 様相」(『韓国文化研究』第8号, 韓国文化学会, 2018年) 등을 들 수 있다.

3) 中島智子 「在日朝鮮人教育における民族学級の位置と性格—京都を中心として—」(『京都大学教育学部紀要』第27号, 京都大学教育学部, 1981年), 金德龍 「50年代前半期における在日朝鮮民族教育の一考察—公立分校・分校, 民族学級を中心に—」(『朝鮮大学校学報』3号, 1998年), 梁陽日 「大阪市公立学校における在日韓国・朝鮮人教育の課題と展望—民族学級の教育運動を手掛かりに—」(『Core ethics (コア・エジックス)』Vol. 9, 立命館大学大学院先端総合学術研究科, 2013年) 등을 들 수 있다.

4) 해방(1945) 후 10월에 재일 한국인은 「在日本朝鮮人連盟」을 설립하고, 다음 해 10월에는 「在日本朝鮮居留民団」(현재의 日本大韓国民団 : 民団), 1955년에는 「在日本朝鮮人總連合會」(朝總連)를 만들었다.

1. 일본 한국학의 경위

1.1. 네이션(Nation)과 한국학

근대 국민국가 성립기에 서양에서 전해진 네이션(Nation)이라는 개념에는 시민적(Civic)과 종족적(Ethnic)이라는 두 개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네이션에 대해 한국과 일본에서는 종족적인 개념으로 받아 들였기 때문에 민족 또는 국민이라는 표현 중 민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강하다.⁵⁾

한국에서는 네이션의 개념 중 민족적 함의에 그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일본의 식민지 지배기에는 한국인이라는 민족의식이 높아지면서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강하게 반발하게 된다. 당시 미국 윌슨 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의 영향을 받아 한국인의 민족의식이 강하게 나타난 것의 대표적인 예는 3·1 독립운동이었다. 일제 강점기의 억압 하에서는 민족의식을 강하게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한민족은 일제의 지배를 받지 않고 독립을 하여 스스로 살아가야 한다는 민족의식이 강하게 표출된 운동이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즉 독립운동의 이면에는 한민족이라는 혈통과 종족을 중시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민족의 개념은 한민족, 또는 한국인이라는 정체성 성립 과정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자국의 언어, 역사, 문화의 교육은 빼놓을 수 없다. 식민지 지배기에 일본에 이주한 한국인들이 자녀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려고 한 것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에 필요한 핵심적 내용으로 당시 한국학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 영역의 내용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겠다.

자민족(한민족)=자국민에게 민족적 정체성에 관한 내용을 가르치는 것을 한국학이라고 하면 어울리지 않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한민족이라고 해도 제일 한국인⁶⁾과 중앙아시아의 고려인과 같이 외국에서 태어나 외국에 살며 현지에서 한국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배우는 것은 한국학이라고 할 수 있다.⁷⁾

해방 후 일본에서 제일 한국인의 정체성과 관련된 교육과 교육기관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 문제의 중심에 있었던 제일 한국인의 활동, 경과, 그 교육내용 및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1.2. 일본 한국학의 시초

중앙아시아의 한국학은 스탈린에 의한 재소 한국인의 강제 이주 이후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일본에서의 한국학 교육은 한일간의 교류와 지정학적 관계로 인해 전근대시기부터 불가분한 관계를 형성하며 진행되고 있었다. 그렇지만 일본에서의 근대적인 한국학의 본격적인 시초는 개항기라고 할 수 있다.

본 발표에서는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화하는 1910년의 한일합방을 기점으로 하는 일본에서의 한국학을 다루고자 한다. 이 같은 시대적 배경 즉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화가 된 특수한 상황에서 일본의 한국학이 시작되었다. 식민지 지배 하 일본에서의 한국학 교육은 한국인의 일본 이주와 일본의 식민지 지배 정책이 상호 맞물린 가운데 전개되었다.

한국인의 일본 이주 경향은 시기적으로 그 성향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따라서 그에 따른 한국학 교육기관의 면모도 각기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5) 金泰虎 「在日コリアン学生を対象とする民族学級」 (『韓国文化研究』別冊第1号、韓国文化学会、2018年)11頁.

6) 별칭으로 제일 교포, 제일 동포라고도 하는데 일본에 영주하고 있는 제일 한국인은 2가지 형태로 분류된다. 즉 식민지 시대부터 해방 후에도 계속 일본에 거주해 온 한국인과 그 자녀들은 특별 영주자, 그리고 1965년 한일국교 정상화 이후에 일본에 영주하고 있는 한국인과 그 자녀들은 일반 영주자라고 한다. 제일 한국인 사회에서 전자는 올드 커머(Old Comer), 후자는 뉴 커머(New Comer)라고 부르기도 한다. 단, 한국인이지만 일본인으로 국적을 바꾼 귀화인은 표면적으로는 제일 한국인으로 취급을 하지 않는다.

7) 1978년 한국에서는 한국학을 깊이 연구하기 위해 한국정신문화연구원(「한국정신문화연구원 육성법」 법률 제3116호, 1978년 6월 22일)을 설립했으나, 2005년에는 한국학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제 7350호, 2005년 1월 27일)으로 명칭으로 바꿨다. 이 기관에서 한국학이라는 명칭 하에서 한국인도 공부를 하고 있다.

1910년 한일 합방 이전의 일본 거주 한국인은 주로 유학생이나 정치 망명자가 일본에 건너왔고, 합방 후 1920년까지는 단신으로 이주해 온 노동자들이 많았다. 그러나 1920년 이후는 가족단위로 이주를 하여 자녀들의 교육 문제가 큰 과제로 대두되었다.⁸⁾

그런데 일본에 이주한 한국인은 일본인 사회에 섞여 살지 못하고 대체로 하천부지 등의 열악한 지역에 한국인만의 집단 부락을 형성하며 생활했다.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자녀에게 한국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고, 또 장래에 한국에 귀국하고자 하는 의도로 집단 부락에서 야학과 서당을 개설하여 한국어를 교육하기 시작하였다.⁹⁾ 물론 여기에서는 한국어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일본사회에 적응시키기 위해 일본어와 산수 등도 가르쳤다. 그러나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면서 일본 당국은 이러한 교육 활동을 금지시켰다.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에 대해서는 일본인과 같은 교육이 확립되어 있지 않고, 더욱 한국인의 정체성과 관련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관은 없었다. 유일하게 야학과 서당 같은 교육기관을 한국인이 자주적으로 설립했으나 일본 당국은 폐쇄를 시켰던 것이다. 즉 일제 강점기에 일본에 거주하고 있던 한국인 자녀들에 대해 언어, 역사, 문화 등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기관은 야학과 서당 외에는 없었던 것이다.

반면 간사이(関西) 지역에는 일본인이 설립한 한국학 교육기관이 2군데가 있었다. 1921년 전문학교에 해당하는 오사카(大阪) 외국어학교, 그리고 1927년 텐리(天理) 외국어학교를 설립하여 한국학을 가르쳤다. 전자는 국립 학교로 국책사업에 충실하게 따르는 입장이며, 후자는 사립학교로 표면적으로는 한국어를 가르쳐 해외 포교에 종사할 사람을 양성한다는 목적을 표방했다. 그러나 이들 교육기관은 일제가 한국을 식민지 지배를 하는데 협력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식민지 지배기 일본에서의 한국학은 일본으로 이주한 한국인이 자녀들에게 정체성을 확립시키기 위한 교육과 일본이 식민지를 지배하기 위해 일본인이 주체가 된 한국학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다. 즉 한일 간에는 식민지라는 지배와 피지배의 특별한 관계하에서 한국인과 일본 당국은 서로의 목적을 달리하는 한국학 교육기관을 설립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지키며 식민지 지배에 대항하고자 하는 의도와 한국인의 정체성을 말살시키고 식민지 지배를 강화하고자 하는 상호 상반된 목적을 지닌 한국학이 전개되었다. 이 시기에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민족의식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감은 품고 있었으나 한국인의 정체성에 관련된 교육에 민족이라는 용어를 접목하지는 않았다.

2. 해방 후 간사이(関西) 지방의 한국학 교육기관

2.1. 민족교육 기관의 탄생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식민지기에 일본에 이주해서 살고 있던 한국인은 한국인이라는 정체성 형성에 관계되는 내용의 교육을 받을 기회도 시킬 기관도 없었으며 그러한 교육 자체도 일본 당국에 의해 금지되었다.

그러나 1945년 해방을 맞이하여 재일 한국인은 자녀들에게 한민족의 정체성과 관련된 한국어, 역사, 문화 등의 교육을 시키려는 교육기관의 설립에 스스로 나섰다. 이는 정체성 형성과 함께 귀국에 대비하여 자녀들에게 한국에 대한 교육을 시키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재일 한국인 사회는 한국을 지지하는 민단과 북한을 지지하는 조총련으로 갈라지게 되었으며 교육기관도 서로 독자적인 방향으로 나아간다.

당시 일본의 간사이(関西) 지역에는 재일 한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현재도 일본 국내에서 가장 많은 숫자가 이 지역에 살고 있다.¹⁰⁾ 오사카(大阪)는 간사이(関西)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로 재일 한국인의 수도라고

8) 일본에 이주한 한국인의 가족형태는 外村大 『在日朝鮮人社會の歴史学的研究』 (綠陰書房, 2007年) pp. 91~98에 서술되어 있다.

9) 水野直樹・文京洙 『在日朝鮮人』 (岩波新書, 岩波書店, 2015年) pp. 34~35.

10) 2018년 6월의 일본 법무성 통계에 의하면 간사이(関西) 지역의 특별 영주자와 일반 영주자를 합한 숫자는 다음과 같다. 오사카부(大阪府) 101,554명, 교토부(京都府) 24,249명, 효고현(兵庫縣) 39,946명, 시가현(滋賀縣) 4,300 명, 나라현(奈良縣) 3,405 명, 와카야마현(和歌山縣) 2,055 명이다. 참고로 도쿄(東京)는 94,327명이다.

할 정도다. 특히 재일 한국인은 간사이(関西) 지역의 오사카(大阪)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한국 관련 교육기관을 많이 설립했다.

재일 한국인은 해방 직후인 1945년 9월부터 강습소, 강습회, 한국어 학원, 그리고 각종학교¹¹⁾를 설립하여 한국어를 중심으로 한 한국인의 정체성과 관련된 교육을 전개해 나갔다. 정규 학교로 1946년 3월 오사카(大阪)의 건국공업학교와 건국고등여자학교(현재의 건국소중고등학교)를 설립하였다.

그러나 1948년 4월 당시 일본을 지배하고 있던 GHQ(General Headquarters)는 일본 당국을 통해 재일 한국인이 설립한 교육기관을 폐쇄하라는「조선인학교 폐쇄령」을 내렸다. 다행히 오사카(大阪)의 건국공업학교와 건국고등여자학교는 폐쇄를 면했다. 식민지 지배기와도 같은 한국학 교육의 금지와 교육기관의 폐쇄에 불복한 재일 한국인은 시위에 나섰다. 특히 오사카(大阪)를 중심으로 한 간사이(関西) 지역의 투쟁이 격렬했는데 이를「한신(阪神)교육투쟁」이라고 한다.

그 결과 GHQ와 일본 당국은 한민족의 정체성에 관한 교육과 교육기관을 인정하게 되었다. 즉 간사이(関西) 지역의 공립 초중학교에서 방과 후에 한국인이 한국 과련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재일 한국인은 이렇게 하여 탄생한 교육기관을「민족학급」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민족」은 네이션에 내포된 개념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¹²⁾

민족학급에서 가르치는 한국어, 역사, 문화에 대해서는 ‘민족과목’이라고 했다.¹³⁾ 당시 일본의 국회에서도 교육 내용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어 재일 한국인의 자녀들에게 한국어, 한국 역사,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교육을 인정 하자는 것이었다.¹⁴⁾

일본의 식민지 지배기에 일본에 이주해 살던 한국인은 민족의식을 마음대로 나타낼 수 없었으나 해방과 더불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많은 국가가 식민지 지배로부터 독립하면서 세계적으로는 네이션에 의거한 혈통적이고 종족적인 민족이라는 의식은 약화되는 추세였다. 그렇지만 역으로 재일 한국인은 오히려 민족이라는 의식을 강화해 갔다. 그 이유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기의 한민족에 대한 억압, 조선인학교 폐쇄령으로 인한 한신(阪神)교육투쟁이 민족의식을 자극한 결과라고 하겠다.

그러나 재일 한국인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려는 민족과목의 내용인 한국의 언어, 역사, 문화는 국제적인 추세로는 한국학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즉 재일 한국인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민족학급에서의 민족과목과 한국학은 동일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민족학급에서의 민족과목과 국제적인 한국학은 내용과 범주 자체에는 차가 없으나 어떤 의도로 교육을 하는지에 대한 차가 있을 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학」, 즉 「OO학」이라는 용어는 혈통적이고 종족적인 민족보다는 국가가 지배하고 있는 국가 단위의 「지역」과 「영역」의 의미가 강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글로벌 시대의 오늘날에는 한국어, 역사, 문화에 관한 학문을 한국학이라는 용어로 보편화해서 사용하고 있는 편이다.

그러나 재일 한국인의 교육 현장에서는 아직도 민족이라는 접두어를 붙인 민족교육, 민족학급, 민족교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것을 각각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용어로 대체하면 ‘한국학 교육’, ‘한국학 학급’, ‘한국학 교사’라고 할 수 있다. 재일 한국인이 사용하는 민족교육, 민족학급, 민족교사라는 용어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해방 후 재일 한국인의 교육 투쟁이라는 역사적 배경과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의미를 알 수 없다. 재일 한국인이 투쟁을 통해 얻은 교육을 민족교육이라고 하고 그 교육기관이 민족학급인 것이다. 부연하면 이 민족학급은 일본의 공립 초중학교의 교육기관에서 한국인이 행하는 교육형태를 취하고 있다.

11) 일본의 「学校教育法」(第134号)의 1조에 규정하고 정규학교 이외의 학교를 지칭한다.

12) 前掲金泰虎 「在日コリアン学生を対象とする民族学級」 8頁.

13) 朴正恵 『この子らに民族の心を』 (新幹社、2008年) 22~24頁.

14) 1949年10月31日、第6回国会参议院文部委员会会议(「第八部文部委员会会议录第一号昭和二十四年十月三十一日【参议院】」 pp.1~4頁、1950年3月30日、第七回国会衆議院文部委员会会议(第七号文部委员会会议录第十四号昭和二十五年三月三十日」 pp.5~6.

2.2. 1945년~1970년까지의 한국학 교육기관

1948년 재일 한국인의 한신(阪神)교육투쟁으로 재일 한국인은 자녀들에게 민족의 정체성과 관련이 되는 민족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오사카부(大阪府) 지사와 재일 한국인 대표가 각서를 교환하고 오사카부(大阪府) 내의 공립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방과 후의 민족학급을 설치하여 민족교육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당시 33개의 학교에서 36명의 한국인 전임교원이 교육을 담당했다.¹⁵⁾ 이외에도 재일 한국인은 1950년에 민족학교로 일컬어지는 오사카(大阪)의 금강학원, 1958년에는 교토(京都)에 교토(京都) 국제학교를 설립했다.

한편 해방 전 간사이(関西) 지역에 한국인이 관련되어 있지 않은 일본인이 설립한 한국학 교육기관인 오사카(大阪) 외국어학교와 텐리(天理) 외국어학교는 1949년에 각각 오사카(大阪) 외국어대학(2007년 오사카대학에 합병)과 텐리(天理)대학으로 재편되었다. (표3)의 ㉒에서 보는 것과 같이 실선 중의 화살표는 두 개의 학교가 1949년에 대학으로 재출발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민족학급은 1960년대에 들어 수강을 하는 재일 한국인 자녀들의 학생수가 줄어 점차 하강 국면에 접어들었다.¹⁶⁾ 이에 한국정부는 1963년 오사카(大阪)의 한국 교육원을 시발로 하여 일본 전국에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가르치는 교육원을 설립했다. 간사이(関西) 지역에 설립된 교육원은 (표1)과 같다.¹⁷⁾

(표1) 간사이(関西) 지역의 교육원(2019년 현재)

번호	교육원 명	설치 년도	비고
1	오사카(大阪) 교육원	1963년	존속
2	교토(京都) 교육원	1963년	존속
3	고베(神戸) 교육원	1963년	존속
4	와카야마(和歌山) 교육원	1967년	2011년에 폐지
5	나라(奈良) 교육원	1977년	존속
6	시가(滋賀) 교육원	1978년	1988년에 통폐합

간사이(関西) 지역에 설립된 교육원은 재일 한국인의 민족교육과 그 교육기관의 쇠퇴에 대해 한국정부가 보안을 하는 형태를 취했다. 그러나 와카야마(和歌山) 교육원과 시가(滋賀) 교육원은 설립 후 통폐합으로 자취를 감추었고, 나머지의 교육원은 아직도 활동을 하고 있다.

2.3. 1970년대~1980년대 한국학 교육기관

1970 년대에 접어들어 오사카(大阪) 이외의 간사이(関西) 지역 대부분의 민족학급은 없어지고 오사카(大阪)의 민족학급도 10개교에 11명의 전임교원밖에 남지 않았다. 1980년에 일본 당국은 민족학급의 한국인 전임교원이 퇴직을 하면 보충을 하지 않기로 정했다.

한편 전임교원이 수업을 담당하는 민족학급은 쇠퇴의 길을 걸었으나 한편 재일 한국인이 자율적으로 비상근 강사가 가르치는 민족학급은 늘어났다. 게다가 재일 한국인의 민단은 1977년에 한국어 강좌를 개설하고 민족교육을 하는 교육기관으로 참여를 하게 되었다.

또 하나의 큰 변화는 1984년부터 NHK의 한글강좌(㉓)가 시작되어 일본인이 중심이 된 다른 하나의 한국학 교

15) 朴永奎 「日本各地の公立学校における民族学級の設置について」 (『韓国文化研究』 別冊第1号、韓国文化学会、2018年) 는 오사카(大阪) 외의 간사이(関西) 지역에서도 민족학급이 개설되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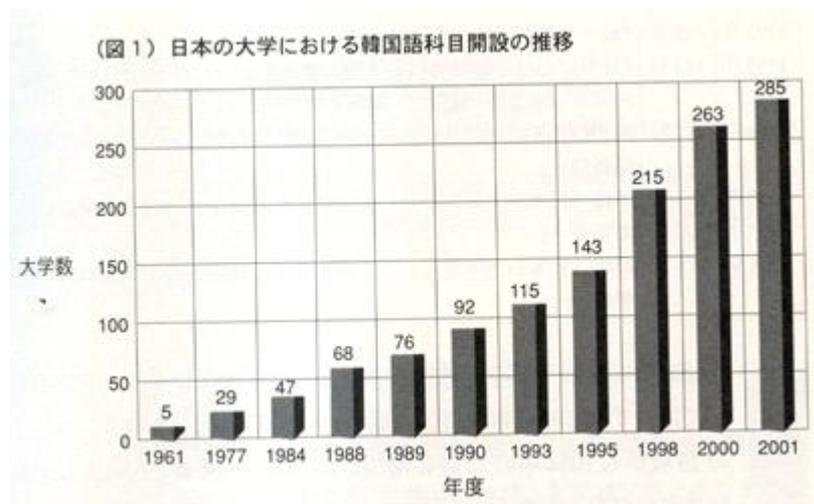
16) 前掲金泰虎 「在日コリアン学生を対象とする民族学級」 pp. 24-25

17) 간사이 민족교육 70년 발자취』 (주오사카대한민국총영사관 교육관실, 선명인쇄, 2017년) pp. 114~115를 참고로 작성했다.

육기관이 탄생한 것이다. 출범 당시 강좌의 명칭을 둘러싸고 민단과 조총련이 서로 대립하는 일이 발생했다. 즉 강좌의 명칭을 한국어로 하려고 하면 조총련에서 반발을 하고, 반대로 조선어로 하려고 하면 민단이 항의를 했다. 따라서 양측의 항의를 회피하는 의미에서 NHK측은 한글강좌로 정했다.

남북한의 분단과 대립은 일본에서의 재일 한국인의 단체를 민단과 조총련으로 양분시키고 더욱이 한국학 교육 기관의 명칭에까지 대립을 가져오는 상황을 초래했다. 이로 인해 한국어의 명칭에 대한 대립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교육기관에서는 그 명칭으로 한국어, 조선어 외에 한글, 코리아(Korea)어, 우리말, 「한국·조선어」 등을 사용하고 있다. 현재도 이와 같은 상황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어 한국학 교육기관에 따라 그 호칭도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재일 한국인의 교육 및 그 교육기관도 상호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1986년의 아시안 게임(Asian Game)과 1988년의 서울 올림픽(Olympics)을 계기로 일본의 일부 대학에서 제 2외국어로 한국어를 채택하여 교육을 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경향은 (圖1)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¹⁸⁾



이전 시대와는 달리 1980년대 중반부터 일본인에 의한 한국학 교육이 대학을 중심으로 움트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재일 한국인에 의한 민족교육과는 별도로 일본인의 한국학 교육이 확대되어 점차 그 교육기관이 늘어나게 되었다.

그런데 일본에서 한국의 언어, 역사, 문화에 대한 교육, 즉 한국학을 교육하고 있더라도 그 모두를 민족교육 내지 민족교육 기관이라고는 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일본의 대학에서 민족학급과 같은 내용의 한국어와 한국문학을 교육을 해도 민족교육 내지는 민족교육 기관이라고는 하지 않는다.¹⁹⁾ (표2)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6개 항목의 조건을 채울 수 있어야 민족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겠다.

구체적으로 보면 (表2)에서 실선이 연결되어 있는 것은 민족교육의 제 조건을 채우고 있는 것이며 실선이 끊기거나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은 제 조건을 완전히 채우지 못한 것이다. (표2)의 제 교육기관은 6개 항목을 채우지 못하고 있으나 설립 배경(역사성)이 재일 한국인의 민족교육과 관련이 있고, 또 그 연속선상에 있으므로 민족교육기관으로 간주하고 있다. 원래 민족교육 기관은 재일 한국인의 교육투쟁(역사성)과 관련이 있으며 한국인 교원(교사)이 정체성에 관한 교육(교육내용)을 가지고 재일 한국인의 자녀(수강생)를 대상으로 무료교육(수강료)을 실시하는 곳이다. 수강생의 수강 목적은 스스로의 뿌리를 알고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함이다.

18) 이 (圖1)은 金泰虎 「日本における韓国語教育の諸問題」 (『韓国語教育の理論と實際』 白帝社、2006年) 38頁에서 인용했다.
 19) 前掲金泰虎 「在日コリアン学生を対象とする民族学級」 에서 민족교육을 실시하는 광의의 민족학급은 (표3)에서 보면 ③~⑪이며, 협의의 민족학급은 ⑥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다

(表2) 民族教育の条件と実施機関

条件 機関	歴史性	教育内容	教師	受講生	受講目的	受講料
A 民族学校				①	②	
B 民族学級				③		
C 各種学校						④
D 韓国語学院						⑤
E 教育院	⑥			⑦	⑧	
F 民団学校	⑨					
G 世宗学堂		⑩		⑪	⑫	
H ハングル学校		⑬				

*表の機関別の線が途切れているのは、その項目において満たしていない意味合いである。

(表2)의 A민족학교는 오사카(大阪)의 건국학교, 금강학교, 그리고 교토(京都)의 교토 국제학교다.²⁰⁾ A민족학교의 3개 항목에서 ①의 실선이 연결되지 않은 것은 일본인 자녀들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수강료의 ②에서 실선이 끊긴 것은 교사의 급료와 학교의 유지를 위해 수강료, 즉 수업료를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

반면 B민족학급에서 수강료를 무료로 하는 것은 최초 오사카부(大阪府)와의 협정에서 오사카부(大阪府)가 교육의 재정적인 뒷받침을 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이다. ③이 실선으로 연결되지 않은 것은 재정적 부담을 하는 오사카부(大阪府)가 국제화 시대에 제일 한국인 자녀들뿐만 아니라 일본인 자녀들을 비롯한 외국인 아동도 수업을 하고 싶어 하는 학생은 받아들이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방 이후 줄곧 C각종학교와 D한국어학원에서 민족 정체성에 대한 교육을 해오고 있다.²¹⁾ 역사성 항목을 시계열적으로 보면 E교육원(⑥), F민단학교(⑨), G세종학당(⑩)은 1979년에는 도쿄(東京) 및 1999년에는 오사카(大阪)에, 그리고 1998년에는 H한글학교(⑬)가 설립되었다. 각각 실선 길이에 차이를 보이는 민족학급이 쇠퇴하는 시기에 민족 정체성 교육을 보완하기 위해 설립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G세종학당은 2012년에 세종학당재단으로 개편하면서부터 본래의 제일 한국인의 민족 정체성 교육과는 달리 한국문화를 세계에 전파하는 목적(⑫)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현재는 민족교육 기관으로는 보기 어렵다. 게다가 일본인 수강생(⑪)을 받아들이고, 수업료를 징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G세종학당은 일반적인 한국학 교육기관으로 변질된 것이다.

특히 H한글학교는 탄생의 역사로 보면 글로벌(Global)시대이지만 제일 한국인 자녀들에게 정체성에 관한 교육을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보면 민족교육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학 교육기관 설립과 교육의 주체, 역사성, 그리고 교육목적은 일반적인 한국학과 민족교육의 구분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고 하겠다.

20) 1954년 도쿄(東京)에서 「동경한국학교」를 개설하고, 2008년에는 간사이(関西) 지역인 오사카(大阪)에 제일 한국인이 중심이 되어 「코리아 국제학원」을 설립하여 한국학 교육기관으로 출범했으나 민족교육 기관이라고는 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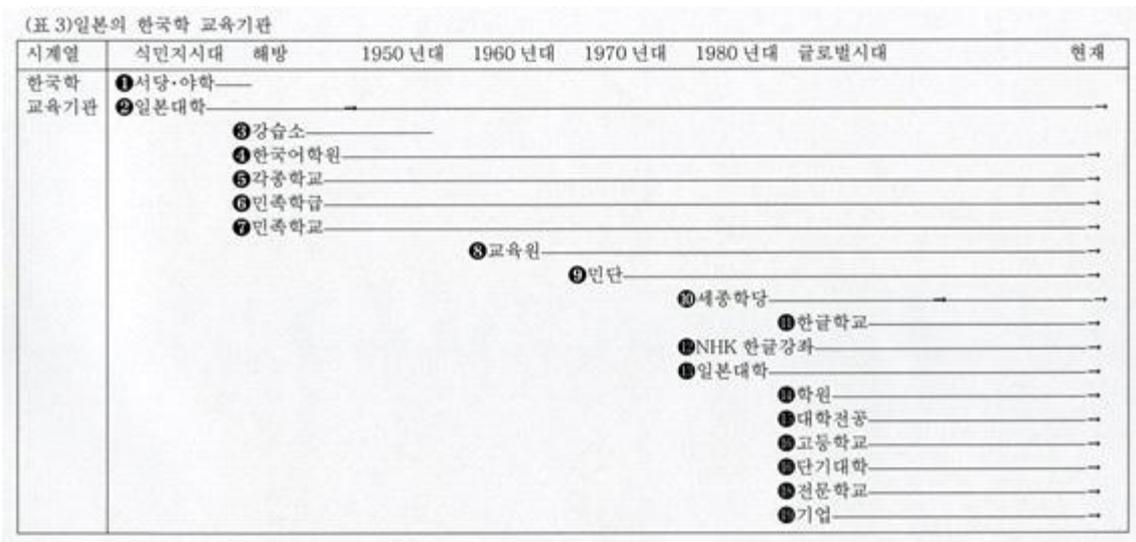
21) 간사이(関西) 지역의 각종학교는 학교법인 고베(神戸)한국학원, 교토(京都)신명학원, 한국어학원으로는 니시아마(西山) 한국학원 등을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前掲 『간사이 민족교육 70년 발자취』 pp. 175~180를 참고.

3. 글로벌 시대의 한국학 교육기관

전임교원이 배치된 민족학급이 쇠퇴의 길을 걷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전임교원이 아닌 클래스(Class)는 늘어났다. 그 이유는 1980년 일본 당국은 민족학급의 한국인 전임교원이 퇴직을 하면 보충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전임교원이 아닌 클래스가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1991년 한일 외무장관 회담을 계기로 민족학급의 한국인 전임교원이 퇴직을 하면 보충을 하지 않기로 했던 일본 당국은 방침을 바꿔 1994년부터 1970년대 초 간사이(関西) 지역의 수준과 같이 11명의 전임교원은 유지하기로 했다.²²⁾ 이로 인해 오사카(大阪)의 민족학급은 여전히 제일 한국인 자녀들의 민족교육 기관으로 존속하고 있다. 게다가 2010년부터 한국 정부는 민족학급에 대해 교재 개발비, 교사의 연수 명목 등으로 경제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²³⁾

식민지 시대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본에서의 민족학급 및 한국학을 가르치는 제 교육기관을 시기별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3)과 같다.



글로벌 시대의 일본에서는 한류 붐(Boom), 즉 한국 드라마(Drama), 영화, K-pop이 일본인 사이에도 인기가 있어 한국문화에 대한 붐만 아니라 한국어 교육에까지도 붐이 일어나고 있다. (표3)의 세종학당(⑩)의 경우는 실선에 화살표가 들어간 시기부터는 글로벌 시대의 분위기에 편승하여 한국문화를 세계에 전파한다는 교육목적으로 바꾼 것을 의미한다.

글로벌 시대에 들어서도 제일 한국인의 민족교육은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방 후에 시작했던 ④~⑦의 교육기관이 민족교육을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⑧·⑨·⑩은 시기적으로 ④~⑦보다 늦게 시작되었으나 ⑥이 쇠퇴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테면 제일 한국인을 대상으로 민족의 정체성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인 것이다.

이외의 ⑫~⑲는 교육기관과 그 교육의 주체가 일본이다. 글로벌 시대에는 일본인이 주관하는 한국학 교육기관이 늘어난 특징이 있다. 즉 이전의 시대와는 달리 일본의 많은 대학(⑬)과 단기대학(⑰)은 글로벌 시대의 커리큘럼(Curriculum)으로 개편하여 한국어를 제2외국어 및 제3외국어로 채택했다. 특히 일부의 고등학교(⑯)에서까지도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참고로 일본의 고등학교는 한국과 같이 제2외국어를 필수과목으로 하지 않는다.

그런데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2001년에 일본 전국의 대학 약 500개교 중 거의 60%에 달하는 285개교가 한

22) 前掲金泰虎 「在日コリアン学生を対象とする民族学級」 pp. 28~29.
 23) 朴永晔 「民族学級と韓国政府」 (『韓国文化研究』 別冊第1号、韓国文化学会、2018年)

국어 제2외국어로 채택을 했다. 그러나 지금은 대부분의 대학에서 제2외국어 및 제3외국어로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현재 간사이(関西) 지방에는 오사카부(大阪府) 58 개교, 교토부(京都府) 36 개교, 와카야마현(和歌山県) 4 개교, 시가현(滋賀県) 10 개교, 효고현(兵庫県) 41 개교 나라현(奈良県) 14 개교로 합계 163개의 대학이 있다.

그리고 일본의 대학(17) 및 전문학교(18)에서는 한국학을 전공하는 전공학과도 설립했다. 간사이(関西)지역에서 전공학과가 있는 대학은 해방 전부터의 교육을 해 온 오사카(大阪) 대학과 텐리(天理) 대학을 비롯한 긴키(近畿) 대학, 전문학교로는 교토(京都)외국어 전문학교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학원(14)으로는 ECC, 공민관, 대학의 사회인 강좌 등을 들 수 있으나 이름조차도 파악할 수 없는 수많은 개인 학원에서도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이외에도 글로벌 시대는 국경을 넘는 경제활동이 활발하여 그 활동의 일환으로 기업(19)에서도 교사를 초빙하여 한국학을 교육하여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한국지사 파견할 사원 교육과 한국 기업에서 상담(商談) 차 일본에 오는 사람들을 상대하기 위함이다.

이와 같이 글로벌 시대의 일본에서는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재일 한국인에 의한 특별한 한국학 교육기관인 민족학급과 일본인의 제 교육기관에서 다양한 형태로 한국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다. 즉 시대적 흐름의 변화와 한국문화의 영향을 받아 대학, 단기대학, 전문학교, 고등학교, 학원, 심지어 기업까지 한국학을 교육하고 있다.

재일 한국인의 민족교육은 어디까지나 재일 한국인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민족교육이며 이외의 대부분의 교육기관과 교육의 주체는 일본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글로벌시대는 일본인에 의한 한국학의 교육과 교육기관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다. 그 이유는 한국의 경제적 성장과 함께 한국문화가 일본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나가며

한일 간 역사의 너울아래 재일 한국인은 해방 후 간사이(関西) 지역의 한신(阪神)교육투쟁을 통해 한민족의 정체성과 관련된 교육을 하는 민족학급을 만들었다. 일본의 간사이(関西)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된 한민족의 정체성과 관련된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인 민족학급이라는 명칭은 재일 한국인 사이에서는 고유명사가 되었고, 또 이와 관련된 민족교육, 민족교사, 나아가 민족학교라는 용어도 같은 의미에서 정착되어 있다.

이 민족교육의 내용은 한국인의 정체성 확립과 관련이 되는 언어, 역사 문화, 사회와 같은 과목이다. 이와 같은 과목과 교육 내용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로는 일반적으로 한국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다.

그러나 민족교육은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간사이(関西) 지역의 민족학급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동시에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한편 1980년대의 중반을 기점으로 일본에서 일본인에 의한 한국학 교육이 서서히 일어나게 된다. 즉 해방 이후부터 80년대 중반까지는 재일 한국인의 민족교육이 우세를 점했다고 한다면 80년대 중반 이후는 재일 한국인의 민족교육과 일본인이 시작한 한국학 교육과의 경쟁을 하는 듯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글로벌 시대에 접어들면서 일본인에 의한 한국학 교육기관이 많이 생겨나 종래의 민족교육 기관보다 숫적으로 압도하게 되었다.

아무튼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일 한국인의 민족교육과 일본인에 의한 한국학 교육은 교육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서로 일치하지만 실시 의도와 그 역사성은 현격한 차이가 있다. 그렇지만 교육 내용과 과목에 국한시킨다면 재일 한국인의 민족교육도 일반적인 한국학의 교육 내에 포함시켜 이해를 해도 무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시 의도와 역사성, 그리고 실시 주체의 측면에서 보면 양자는 서로 독자적으로 병립하는 존재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일본의 간사이(関西) 지역에서 나타나는 한국 관련 교육기관의 특수성과 보편성은 앞으로 상호 공존하며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문헌

金泰虎『韓国語教育の理論と実際』(白帝社、2006年)

金泰虎「在日コリアン学生を対象とする民族学級」(『韓国文化研究』別冊第1号、韓国文化学会、2018年)

李知垠「語彙翻譯으로 인한 日本語圈 學習者 誤用 様相」(『韓国文化研究』第8号、
韓国文化学会、2018年)

中島智子「在日朝鮮人教育における民族学級の位置と性格—京都を中心として—」(『京都大学教育学部紀要』第27号、京都大学教育学部、1981年)

金徳龍「50年代前半期における在日朝鮮民族教育の一考察—公立分校・分校、民族学級を中心に—」(『朝鮮大学校学報』3号、1998年)

梁陽日「大阪市公立学校における在日韓国・朝鮮人教育の課題と展望—民族学級の教育運動を手掛かりに—」(『Core ethics (コア・エジックス)』Vol. 9、立命館大学大学院先端総合学術研究科、2013年)

外村大『在日朝鮮人社会の歴史学的研究』(緑陰書房、2007年)

水野直樹・文京洙『在日朝鮮人』(岩波新書、岩波書店、2015年)

朴正恵『この子らに民族の心を』(新幹社、2008年)

朴永奎「日本各地の公立学校における民族学級の設置について」(『韓国文化研究』別冊第1号、韓国文化学会、2018年)

朴永炅「民族学級と韓国政府」(『韓国文化研究』別冊第1号、韓国文化学会、2018年)

일본 법무성 통계(2018년 6월)

『日本国語大辞典』(小学館)、

『広辞苑』(岩波書店)

『大辞泉』(小学館)

『大辞林』(三省堂)

『日本大百科全書』(小学館)

『日本国語大辞典』(小学館),『広辞苑』(岩波書店),『大辞泉』(小学館),『大辞林』(三省堂),『日本大百科全書』(小学館)을 의 미한다.

金泰虎『韓国語教育の理論と実際』(白帝社、2006年)、李知垠「語彙翻譯으로 인한 日本語圈 學習者 誤用 様相」(『韓国文化研究』第8号、韓国文化学会、2018年) 등을 들 수 있다.

中島智子「在日朝鮮人教育における民族学級の位置と性格—京都を中心として—」(『京都大学教育学部紀要』第27号、京都大学教育学部、1981年)、金徳龍「50年代前半期における在日朝鮮民族教育の一考察—公立分校・分校、民族学級を中心に—」(『朝鮮大学校学報』3号、1998年)、梁陽日「大阪市公立学校における在日韓国・朝鮮人教育の課題と展望—民族学級の教育運動を手掛かりに—」(『Core ethics (コア・エジックス)』Vol. 9、立命館大学大学院先端総合学術研究科、2013年) 등을 들 수 있다.

해방(1945) 후 10월에 제일 한국인은 「在日本朝鮮人連盟」을 설립하고, 다음 해 10월에는 「在日本朝鮮居留民団」(현재의 日本大韓国民団: 民団), 1955년에는 「在日本朝鮮人總連合會」(朝總連)를 만들었다.

金泰虎「在日コリアン学生を対象とする民族学級」(『韓国文化研究』別冊第1号、韓国文化学会、2018年)11頁.

별칭으로 제일 교포, 제일 동포라고도 하는데 일본에 영주하고 있는 제일 한국인은 2가지 형태로 분류된다. 즉 식민지 시대부터 해방 후에도 계속 일본에 거주해 온 한국인과 그 자녀들은 특별 영주자, 그리고 1965년 한일국

교 정상화 이후에 일본에 영주하고 있는 한국인과 그 자녀들은 일반 영주자라고 한다. 제일 한국인 사회에서 전자는 올드 커머(Old Comer), 후자는 뉴 커머(New Comer)라고 부르기도 한다. 단, 한국인이지만 일본인으로 국적을 바꾼 귀화인은 표면적으로는 제일 한국인으로 취급을 하지 않는다.

1978년 한국에서는 한국학을 깊이 연구하기 위해 한국정신문화연구원(「한국정신문화연구원 육성법」법률 제 3116호, 1978년 6월 22일)을 설립했으나, 2005년에는 한국학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제7350호, 2005년 1월 27일)으로 명칭으로 바꿨다. 이 기관에서 한국학이라는 명칭 하에서 한국인도 공부를 하고 있다.

일본에 이주한 한국인의 가족형태는 外村大『在日朝鮮人社会の歴史学的研究』(緑陰書房、2007年) pp. 91~98에 서술되어 있다.

水野直樹·文京洙『在日朝鮮人』(岩波新書、岩波書店、2015年) pp. 34~35.

2018년 6월의 일본 법무성 통계에 의하면 간사이(関西) 지역의 특별 영주자와 일반 영주자를 합한 숫자는 다음과 같다. 오사카부(大阪府) 101,554명, 교토부(京都府) 24,249명, 효고현(兵庫県) 39,946명, 시가현(滋賀県) 4,300 명, 나라현(奈良県) 3,405 명, 와카야마현(和歌山県) 2,055 명이다. 참고로 도쿄(東京)는 94,327명이다.

일본의 「学校教育法」(第134号)의 1조에 규정하고 정규학교 이외의 학교를 지칭한다.

前掲金泰虎「在日ユリアン学生を対象とする民族学級」8頁.

朴正恵『この子らに民族の心を』(新幹社、2008年) 22~24頁.

1949年10月31日、第6回国会参議院文部委員会会議(「第八部文部委員会會議録第一号昭和二十四年十月三十一日【参議院】」pp.1~4頁、1950年3月30日、第七回国会衆議院文部委員会會議(第七号文部委員会會議録第十四号昭和二十五年三月三十日)pp.5~6.

朴永奎「日本各地の公立学校における民族学級の設置について」(『韓国文化研究』別冊第1号、韓国文化学会、2018年)는 오사카(大阪) 외의 간사이(関西) 지역에서도 민족학급이 개설되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前掲金泰虎「在日ユリアン学生を対象とする民族学級」pp. 24~25.

간사이 민족교육 70년 발자취(주오사카대한민국총영사관 교육관실, 선명인쇄, 2017년) pp. 114~115를 참고로 작성했다.

이 (図1)은 金泰虎「日本における韓国語教育の諸問題」(『韓国語教育の理論と実際』白帝社、2006年) 38頁에서 인용했다.

前掲金泰虎「在日ユリアン学生を対象とする民族学級」에서 민족교육을 실시하는 광의의 민족학급은 (표3)에서 보면 ㉓~㉑이며, 협의의 민족학급은 ㉒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다.

1954년 도쿄(東京)에서「동경한국학교」를 개설하고, 2008년에는 간사이(関西) 지역인 오사카(大阪)에 제일 한국인이 중심이 되어「코리아 국제학원」을 설립하여 한국학 교육기관으로 출범했으나 민족교육 기관이라고는 하지 않는다.

간사이(関西) 지역의 각종학교는 학교법인 고베(神戸)한국학원, 교토(京都)신명학원, 한국어학원으로는 니시야마(西山) 한국학원 등을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前掲「간사이 민족교육 70년 발자취」pp. 175~180를 참고.

前掲金泰虎「在日ユリアン学生を対象とする民族学級」pp. 28~29.

朴永奎「民族学級と韓国政府」(『韓国文化研究』別冊第1号、韓国文化学会、2018年)

중앙아시아의 한국학 현황

장호종

카자흐스탄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학교

1. 서론

중앙아시아는 전통적으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의 5개국을 일컫는다. 면적이 한반도의 약 18배에 달하지만 인구는 약 6,600만 명에 불과해 인구밀도가 상당히 낮은 편이다. 전체 인구의 70% 이상이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에 집중되어 있으며, 타슈켄트와 알마티, 비슈케크 등 인구 밀집도시는 남동부에 몰려 있다. 소비에트연방으로부터의 독립 후 각국의 정치적, 경제적 환경과 목표가 달라 단일공동체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해관계가 얽혀 국가별 협력과 공존에서도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언어와 민족 측면에서 우즈베크, 카자흐, 키르기스, 투르크멘은 알타이어 계통의 투르크계인 데 반해, 타지크는 페르시아어 계통의 언어를 사용하는 이란계에 속한다. 경제력과 국토면적에서는 카자흐스탄이 월등하며, 인구수와 농업생산력에서는 우즈베키스탄이 압도적이다. 정치에서는 키르기스스탄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민주적인 체제를 정립해 장기집권이 지속되고 있는 4개국을 앞서고 있다. 그러나 반세기 넘게 지속된 사회주의 체제와 관습이 일정 정도 남아 있고 러시아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슬람교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문화적 단일체로 접근할 수 있다.¹⁾

이 지역의 한국학 역사는 소련 시기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소련의 한국학은 1970년대에 이미 양적, 질적으로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렀으며, 중앙아시아에서도 이른 시기부터 고려인들을 중심으로 한국의 민속, 설화, 언어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냉전 시기 정치적인 목적에서 북한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구가 진행된 측면이 강하여 관련 기관과 학자들이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블라디보스토크 등 러시아에 집중되었고,²⁾ 중앙아시아에는 전문적인 연구기관 없이 개별적인 연구자들이 존재할 뿐이었다. 연방이 해체되기 직전인 1980년대 중반부터 고르바초프의 개방정책과 한국의 지원에 힘입어 일부 대학에서 한국학 강좌를 시작하면서 디아스포라로서의 고려인의 역사, 문화, 언어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한국학 연구가 시작되었다.

연방이 해체된 1990년대 이후에는 타슈켄트, 알마티, 비슈케크를 중심으로 외형적인 측면에서 한국학이 매우 빠르게 성장했다. 한국의 경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취업을 목적으로 수강생이 크게 늘었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는 한류로 대변되는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과 맞물려 한국어교육이 양적인 면에서 급속히 성장한 것이다.³⁾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교원의 양성, 교재 및 교수법의 개발, 강좌의 다양화 등 내적인 기반을 다지기보다는 한국의 일방적인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하였기에 한국어교육의 양적인 성장이 한국학의 질적인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현재 중앙아시아의 한국학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한국학의 동기와 목적, 주체를 포함한 전반적인 환경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체계와 방법의 변화와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1) “중앙아시아 한류: 문화-경제 한류의 선순환”(장호종, <2015 대한민국 한류백서>,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pp.381-383) 참조.
- 2) 소련 한국학의 특징과 성과는 “러시아 한국학의 역사와 현황”(콘체비치, <해외한국학백서>, 을유문화사, 2007, pp.438-465), “러시아 한국학의 전개 및 발전 양상”(장호종, <민족어교육과 외국어교육의 이중성>, 박문사, 2009, pp.227-294)에서 확인할 수 있다.
- 3) 독립 후 중앙아시아의 한국학 흐름은 “중앙아시아의 한국학”(김 게르만, <해외한국학백서>, 을유문화사, 2007, pp.466-483)(장호종, <해외한국학백서>, 을유문화사, 2018, pp.173-192)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 현지 대학의 처우가 다른 직업에 비해 열악하여 전문성을 갖춘 젊고 우수한 교원의 양성에 어려움이 많다.
- (3) 중앙아시아의 특성을 반영한 교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체계적인 수준 향상을 꾀하기 위한 단계별 교재 또한 전무하다.
- (4) 한국학 대학의 재정이 빈약하고 넓은 지역에 산재되어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학 간의 교류와 협력이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들은 더 이상 외부적인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해결하기 힘들며, 내적인 기반을 충실히 다지는 과정에서 차차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중앙아시아 주요 대학의 한국학 현황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이 지역의 한국학을 진흥시키기 위한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수협회의 활동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2. 주요 대학의 한국학 현황

2.1. 카자흐 국립대

알파라비 카자흐 국립대(Al-Farabi Kazakh National University, 이하 카자흐 국립대)는 1988년 언론학부에 한국어 과목이 개설되면서 한국학 강좌가 시작되어, 1994년 한국학과 설립 후 카자흐스탄을 넘어서 중앙아시아 한국학 교육 및 연구의 중심지로 크게 부상하였다. 카자흐스탄 최고 대학이라는 상징성을 기반으로 초기부터 학술대회 개최, 학술지 편찬, 온라인강의실 설치 등 꾸준히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었다. 국내외의 많은 인적, 물적 지원을 통해 3,000권 이상의 한국 관련 도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며,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한 중앙아시아 타 대학에 비해 멀티미디어 교육설비도 제법 갖출 수 있었다. 교수진은 20명 내외로 카자흐인, 고려인, 한국인이 역사, 문학, 언어, 정치, 인류학 등 분야별로 균형있게 구성되어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교원 급여가 대부분 100-200달러 수준임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가 발전한 카자흐스탄은 최근 현지화 폭락에도 불구하고 급여가 400-500달러에 달하여 교원을 확보하는 데에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학 강좌는 동양학, 어문학, 통번역의 3개 전공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동양학전공은 한국의 역사, 정치, 경제를 중심으로, 어문학전공에서는 한국어와 한국문학을 중심으로, 통번역전공은 한국어-러시아어와 한국어-카자흐어 통번역을 중심으로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2016년 8월 현재 학부 전공생이 105명에 달하며, 대학원에도 석사 5명, 박사 2명이 한국학을 전공하고 있다. 산학협동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등의 지원으로 장학 사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으며, 해마다 20-30명의 학생들이 교환학생프로그램으로 한국의 여러 대학에서 수학하고 있다.

<표1> 카자흐 국립대 한국학 수강생(2015-2016학년도)⁴⁾

	세부전공			계
	동양학	어문학	통번역	
1학년	14	6	6	26
2학년	14	9	10	33
3학년	9	6	8	3
4학년	12	10	1	23
석사	2	2	1	5
박사	2	0	0	2
합	53명	33명	26명	112명

4) “카자흐 국립대 한국학편람”(중앙아시아 한국학교수협의회,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육> 2,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 알마티, 2016, pp.218-220) 참조.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교원들과 카자흐스탄 최고 수준의 우수한 학생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재 편찬이나 교수법 개발 등의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편이다. 학과의 교원이 개발에 참여한 <카자흐스탄인을 위한 한국어>(전6권, 한국국제교류재단, 2012)를 한국어표준교재로 활용하는 외에 두드러진 성과가 없다. 초기부터 국내외 유관기관들로부터 중앙아시아 최대 규모의 다양한 연구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원이 특정 교원에게 집중된 결과, 학과의 학술 역량을 강화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개최한 학술대회나 포럼도 일회적인 전시성 행사에 그쳐서 교원들의 연구 성과를 집약하는 데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했다. <한인 이주의 역사>(박영사, 2005), <해외한인사>(한국학술정보, 2010), <CIS 고려인 문학사와 론>(한국문화사, 2016) 등의 단행본을 발간하고 학술지 <중앙아시아 한국학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으나, 이는 특정 교원의 개인적인 성취에 그칠 뿐 학과의 연구 성과는 지닌 역량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 또한 대학 내 학과조정정책의 일환으로 2014년 일본학과와 통합되어 극동학과 내 한국학전공으로 축소되는 등 최근에는 대내외적인 위상 면에서 부침을 겪고 있다.

그러나 2017년 6월부터 “카자흐스탄 한국문학(고려인문학 포함) 통합교재 제작 및 문학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주제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해외한국학 씨앗형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8년 9월에는 “해외한국학 씨앗형사업 국제세미나”를 개최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어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된다.

2.2. 비슈케크 인문대

카라사예프 비슈케크 인문대(Bishkek Humanities University named after K. Karasaev. 이하 비슈케크 인문대)의 한국학 강좌는 1991년 동양학과에 과목이 개설되면서 시작되었다. 1993년 동양학 및 국제관계학부 내 한국학과가 개설되면서 키르기스스탄 한국학의 중심대학으로 자리 잡았다. 키르기스스탄은 여러 대학에서 경쟁적으로 강의를 개설하다 보니, 대학과 수강생이 현지의 한국학 수요를 넘어선 지 이미 오래이다. 비슈케크 인문대 한국학과는 “키르기스스탄 한국어교수협의회”의 창립(2001)을 주도하여 한국어교육기관 간의 교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교수진은 10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으나, 생활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급여로 인해 교원의 양성과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학과는 아시아 아프리카학, 언어, 국제관계, 경제의 4개 전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어, 역사, 문화, 통번역 등과 관련한 강의를 제공한다. 그러나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자격을 갖춘 교원을 확보하기 어렵고, 교과과정상 지역학에 대한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전공별로 차별화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재정적인 문제로 한국 대학들과의 교환학생 프로그램 운영도 거의 중단되었다. 2016년 8월 현재 1학년부터 5학년 까지 105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데, 2016-2017학년도부터 4년제로 학제가 변경되었다. 대학원에는 석사 2명, 박사 3명이 재학 중이다.

<표2> 비슈케크 인문대 한국학 수강생(2015-2016학년도)⁵⁾

	세부전공				계
	아시아, 아프리카학	언어	국제관계	경제	
1학년	-	10	11	9	30
2학년	7	7	6	5	25
3학년	9	7	7	-	23
4학년	2	9	3	4	18
5학년	-	2	-	7	9
합	18명	35명	27명	25명	105명

5) “비슈케크 인문대 한국학편람”(중앙아시아 한국학교수협의회,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육> 2,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 알마티, 2016, pp.211-217) 참조.

현지에서 교원을 확보하기 어려워 한국국제협력단, 국립국제교육원 등의 파견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며, 교재 개발이나 논문 발표 등 학술적인 활동도 일부 교원에 집중되어 있다. 교원들은 교재 개발이나 논문 발표 등 교육 및 연구 역량 강화에 집중할 여력 없이 주당 40시간 내외의 강의를 소화하기에 급급하다. 과도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급여는 100달러 남짓에 불과해, 국립국제교육원이나 재외동포재단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한국의 대학원에 진학한 우수한 재원들이 학과로 돌아오는 경우가 없다. 30대 전후의 현지인 교원들도 자주 교체된다 보니 한국학의 진흥을 위해 교원 양성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또한 주요 교원의 이직으로 그간 보여준 학과의 위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도 주목할 만한 문제이다.

2.3. 타슈켄트 동방대

타슈켄트 국립동방대(Tashkent State Institute of Oriental Studies, 이하 타슈켄트 동방대)의 한국학 강좌는 1991년에 시작되었으며, 1993년부터 2004년까지 한국학부로 존재하다가 2004년에 극동 및 남아시아 언어학부 내에 한국학과로 편입되었다. 2015년부터는 동양어학부 내 한국학과로 변경되었다. 우즈베키스탄에는 고려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1990년대 초반만 해도 타슈켄트가 중앙아시아의 중심도시였기 때문에 타슈켄트 동방대의 한국학은 한국 유관기관들의 지원을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 니자미 사범대, 카자흐 국립대, 비슈케크 인문대 등 초기 중앙아시아 한국학을 주도하던 대학들이 최근 정체되어 활로를 찾지 못하는 중에도 타슈켄트 동방대는 꾸준히 교육과 연구의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표3> 타슈켄트 동방대 한국학 수강생(2015-2016학년도)⁶⁾

	세부전공					제2 외국어	계
	어문학	경제	국제 관계	역사	통번역		
학생수	110	72	30	32	30	60	334명

한국학과는 어문학, 경제, 국제관계, 역사, 통번역의 5개 전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6년 8월 현재 학부전 공생이 274명, 석사과정생이 15명(언어학 6명, 문학 4명, 통번역 1명, 경제 4명)에 달할 정도로 큰 규모를 자랑한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제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취업을 목적으로 한국어교육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결과이다. 교수진은 한국국제교류재단과 한국국제협력단의 파견교원 2명을 포함해도 13명에 불과하지만, 한국어, 문학, 통번역, 역사, 경제, 정치 등의 다양한 분야의 강의를 개설하고 있다. 낮은 급여와 과도한 업무로 인해 교원이 되기를 기피하는 현상은 우즈베키스탄에서도 동일한 문제이므로, 유능하고 젊은 교원을 양성할 방안을 찾는 것이 주요 과제이다.

교원 양성의 문제와는 별개로 학술적인 측면에서는 문학과 통번역 분야에서 꾸준히 결과물을 양산하고 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문학 대표선 번역 및 ‘한국문학의 이해’ 출판”을 연구주제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해외한국학 씨앗형사업을 진행하여 고대부터 현대까지 대표적인 한국 문학작품들을 우즈베크어로 번역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시: 고대에서 근대까지>, <한국의 소설: 고대에서 근대까지>, <한국의 현대시: 1950년대까지>, <한국의 현대소설: 1950년대까지>, <한국문학의 이해> 등 결과물들의 수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일부에서 의혹의 시선이 거두지 않고 있으며, 성과들이 중앙아시아는커녕 우즈베키스탄 내에서도 공유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6) “타슈켄트 동방대 한국학편람”(중앙아시아 한국학교수협의회 편,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육> 2,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 알마티, 2016, pp.249-253)와 “우즈베키스탄 내 한국학 연구 현황 및 발전 전망”(한국학진흥사업단 온라인소식지> 55, http://ksps.aks.ac.kr:18080/news_view.jsp?ncd=72) 참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씨앗형사업에 재선정되어 “우즈베키스탄 한국학 진흥사업”을 주제로 온라인강의환경 구축, 교재 개발, 학술지 발간, 학술대회 개최 등의 한국학진흥사업을 추진하였다. 한국어교육에서 한국학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초 교재 개발, 한국 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인터넷 강좌 개설, 학술대회와 세미나 등을 통한 한국학 연구 역량 강화, 현지 한국학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연구성과의 공유를 목표로 하였으나, 성과는 미미한 편이다.

그러나 2018년 9월 한국어교육의 높은 열기와 많은 수강생을 기반으로 한국학 단과대학을 개설한 만큼, 내부 노력과 외부 지원이 조화를 이룬다면 좋은 성과를 기대할 만한 저력이 있다.

2.4.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카자흐 아블라이한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Kazakh Ablai Khan University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World Languages, 이하 카자흐 세계언어대) 한국학과는 어문학, 통번역, 동양학의 3개 전공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국어와 문학 중심의 과목이 집중된 어문학전공에는 136명의 학부생이 재학 중이며, 한국어-러시아어 통번역과 한국어-카자흐어 통번역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는 통번역전공에는 84명의 학부생이 재학 중이다. 지역학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역사, 정치, 경제 등의 과목을 강의하는 동양학전공은 88명의 학부생이 재학 중이다. 한국의 대학들과도 활발하게 교류하여 해마다 40-50명의 학생들이 교환학생과 복수학위 프로그램으로 한국에서 수학 중이다. 한국어 강의의 표준교재로는 학과의 교원이 개발에 참여한 <카자흐스탄인을 위한 한국어>(전6권, 한국국제교류재단, 2012)를 활용하고 있다. 대학원에는 석사 10명, 박사 5명이 재학 중인데, 한국국제교류재단과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장학사업을 통해 박사과정의 인원을 늘려나가고 있다.

<표4> 카자흐 세계언어대 한국학 수강생(2018-2019학년도)

	세부전공			제2외국어	계
	어문학	통번역	동양학		
1학년	58	31	35	0	124
2학년	26	18	25	18	86
3학년	33	18	16	24	91
4학년	19	17	12	8	56
석사	4	3	3	5	15
박사	1	2	2	0	5
합	140명	89명	94명	55명	378명

카자흐 세계언어대는 1993년 제2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강의 개설을 시작으로 1998년 동양어학과 내 한국어전공 설치 이후 서서히 한국학의 기반을 닦아 왔다. 2000년대 중반까지는 학생이나 교원의 규모가 급속히 성장한 타슈켄트 동방대, 니자미 사범대, 사마르칸트 국립외대(이상 우즈베키스탄), 카자흐 국립대, 알마티 사범대(이상 카자흐스탄), 비슈케크 인문대(키르기스스탄) 등에 비해 국내외 한국학계에서 인지도가 떨어졌다. 그러나 2010년대 들어 한국학과 개편 이후 학생과 교원 수가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고, 다양한 경시대회 및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학술지와 소식지를 발행하면서 중앙아시아의 주요 한국학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표5> 카자흐 세계언어대 전공생 변천(최근 10년)

	2009-2010	2010-2011	2011-2012	2012-2013	2013-2014	2014-2015	2015-2016	2016-2017	2017-2018	2018-2019
학부	79	93	122	146	182	209	203	227	237	308
석사	0	1	2	2	4	9	12	10	6	10
박사	0	0	0	1	1	1	0	1	5	5
합	79명	94명	124명	149명	187명	219명	215명	238명	248명	323명

<표6> 카자흐 세계언어대 한국학 교원 변천(최근 10년)

	2009-2010	2010-2011	2011-2012	2012-2013	2013-2014	2014-2015	2015-2016	2016-2017	2017-2018	2018-2019
교원수	12명	13명	12명	12명	15명	15명	18명	18명	18명	20명

한국학과로 재편되기 전인 2011년까지 100명도 안 되던 학부전공생의 수가 2012년을 기점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기존의 어문학전공, 동양학전공 외에 통번역전공이 신설된 2013년부터 크게 증가하여 2019년 현재 308명에 달하며, 1-2명에 불과하던 대학원생도 10명 내외로 증가하였다. 교원은 2012년까지 한국국제협력단 봉사단원 3명을 포함해도 12명에 불과했으나, 현지에서 꾸준히 교원을 확보하여 20명까지 증원하였다. 2012년 한국국제협력단이 철수하면서 카자흐스탄의 각 대학들이 한국학 교원을 수급하는 데에 큰 어려움을 겪었으나, 카자흐 세계언어대는 비교적 대비가 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언어, 역사, 문학, 정치 등을 전공한 교원이 고루 분포한 카자흐 국립대와 달리 카자흐 세계언어대는 언어전공자를 중심으로 교수진이 구성된 한계가 있었으나, 최근 역사와 문화를 전공한 교원이 충원되고 있다.

2012년에 설립된 카자흐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는 형식적인 기관에 머물지 않고 전임인력을 고용하여 체계적으로 운영되면서 중앙아시아 한국학이 지닌 문제들을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연구체계 확립과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카자흐스탄 한국학의 확산”을 주제로 해외한국학 씨앗형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고, 그 성과를 기반으로 2015년부터 중앙아시아 최초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해외한국학 중핵대학 육성사업에 선정되었다. 박 넬리(사업단장), 장호종, 한 넬리, 쿠틀루코프 시르자트, 김 울리야나, 전 엘레나, 쿠르만베코바 발렌티나, 보란타예바 파리지, 카이르케노바 굴나즈, 오스파노바 마르잔 등이 참여하여 “공존과 소통의 한국학: 중앙아시아 한국학의 가치 창출”을 주제로 다양한 연구사업을 진행 중이다.

3. 중앙아시아 한국학의 한계와 중앙아 한교협의 역할

한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에서 출발해 교육원, 문화원, 세종학당을 찾거나 좋은 조건의 직장을 구하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이 증가하는 것에 비해 현지에서 양성되는 교원의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의 4개 도시(타슈켄트, 알마티, 누르술탄, 비슈케크)에 교육원과 문화원이 주재하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의 7개 도시(타슈켄트, 알마티, 누르술탄, 심켄트, 비슈케크, 오슈, 두산베)에 세종학당 9개소가 설치되어 연간 한국어 수강생이 7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낮은 급여와 과도한 업무로 인해 좋은 재원들이 교원이 되기를 기피하여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현지 교원을 양성하는 일은 여전히 요원한 과제이다.

대학은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다. 현지 공교육기관의 교과과정이 허술하고 교육환경이 낙후되어 있기에 우수한 학생들이 한국 유학을 희망하게 된다. 2019년 대한민국정부초청장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중앙아시아에서 한국의 대학원에 진학할 예정인 학생들만 59명(우즈베키스탄 5+12명, 카자흐스탄 5+11명, 키르기스스탄 6+6명, 타지키스탄 4+3명, 투르크메니스탄 5+2명)에 달하며, 학부 장학생이나 고려인 장학생 프로그램에 선발되는 인원도 상당하다. 더욱이 국내 대학들이 좋은 조건으로 중앙아시아 유학생들을 유치하고 있어 한국에서 수학하는 학생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현지의 평균 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급여와 과도한 업무로 인해 자국으로 돌아와 한국학 교원이 되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표7> 기타 대학 한국어 수강생(2016-2017학년도)

국가명	대학명	학생수
우즈베키스탄	니자미 사범대	60명
	우즈베크 세계언어대	213명
	세계경제외교대	129명
	사마르칸트 국립외대	200명
	부하라 국립대	40명
카자흐스탄	유라시아 국립대	31명
	크질오르다 국립대	45명
	제티수 국립대	40명
	타라즈 사범대	75명
	동카자흐 국립대	27명
키르기스스탄	키르기스 국립대	50명
	아라바예프대	110명
	키르기스 법률대	28명
	오슈 국립대	24명
	키르기스-러시아 슬라브대	26명
타지키스탄	타지크 국립외대	60명
투르크메니스탄	투르크멘 세계언어대	50명

앞서 소개한 4개 대학 외에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현 누르술탄) 내 한국학 보급 사업”을 주제로 2018년부터 해외한국학 씨앗형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나자르바예프대나 비교적 체계적인 한국학 교과과정을 갖추고 있으며 100-200명에 달하는 학생 수와 10-20명으로 구성된 교수진 등을 갖춘 중앙아시아 한국대, 키르기스 한국대학, 사마르칸트 국립외대 등은 한국학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편이지만, 그 외의 대학에서는 한국학 강좌가 동양학과 내 전공이나 제2외국어로 운영되어 한국학의 지위가 불안정한 상황이다. 카자흐스탄에서 최초로 한국학 강좌를 개설했던 알마티 사범대는 교원 충원과 신입생 확보에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한국학 강좌를 폐쇄하였으며, 다양한 교수법과 교재 개발을 선도하던 우즈베키스탄의 니자미 사범대 한국어교육과는 당국의 정책에 따라 2016-2017학년도에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기도 하였다. 2017-2018학년도부터 신입생 모집을 재개하였으나, 여전히 학과의 입지가 불안하다.

이제 교원 확보나 교과과정 정비와 같은 교육 기반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고, 졸업생의 진로 등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 없이 한국에서 무한한 인적, 물적 지원이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한국학 강좌를 개설한 대학들이 어떻게 경쟁력을 갖출 것인가가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유라시아 국립대, 크질오르다 국립대, 키르기스 국립대, 타지크 국립외대, 투르크멘 세계언어대 등은 동양학과 내 한국학전공이 개설되거나 복수전공으로 한

국어가 개설되어 2-4명의 교원이 30-4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학과로 발전시킬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한편 세계경제외교대, 동카자흐 국립대, 아라바예프대, 키르기스 법률대 등은 1-2명의 교원에 의존하여 제2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강의가 진행되기에 교과과정 정비, 교재 발간, 교수법 개발 등 한국학의 기반을 마련할 여력이 없기에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2000년대 중반까지 중앙아시아의 한국학은 전문성을 갖춘 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현지 사정에 맞게 개발된 교재가 거의 없는 열악한 교육 환경에도 불구하고,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국제협력단, 교육원, 문화원, 대사관 등 유관기관의 인적, 물적 지원을 기반으로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외형적 성장이 질적인 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다.

중앙아시아의 각 대학들은 학술적인 교류와 협력에 매우 취약하다. 지역 간의 거리가 멀고 대부분 재정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도시별, 대학별로 이루어진 연구 성과가 공유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학술 교류가 적다 보니 기존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비판적으로 발전시키는 데에도 제약이 많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 지역의 한국학은 대외적인 기여도가 낮고 교육 성과로의 파급력 또한 미약한 편이다. 연구 및 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할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해 한국학의 장기적인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것도 커다란 문제이다. 또한 한국학 교원의 수가 양적으로 크게 증가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한국에서 파견된 교원이나 현지에 정착한 한국인을 제외하면 현지인 교원의 수는 더욱 적어진다. 특히 젊은 교원들이 양산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장기적으로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한국학 교육 현장의 난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발전 방향을 공동으로 모색하기 위해 타슈켄트 동방대, 니자미 사범대, 사마르칸트 국립외대(이상 우즈베키스탄), 카자흐 세계언어대, 카자흐 국립대, 유라시아 국립대(이상 카자흐스탄), 비슈케크 인문대, 키르기스 국립대, 오슈 공대(이상 키르기스스탄), 타지크 국립외대(타지키스탄), 투르크멘 세계언어대(투르크메니스탄) 등의 교원들이 뜻을 모아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수협의회(이하 중앙아한교협)를 결성하였다.

제1회 중앙아시아 한국학학술대회(비슈케크, 2013)에서 중앙아시아 한국학계의 내적인 교류와 소통을 위한 공동체를 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져 준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중앙아 한교협은 1년간의 준비를 통해 2014년 6월 비슈케크 인문대에서 학술대회와 창립총회를 가졌다. 2015년 타슈켄트에서 “공존의 역사, 상생의 문화: 21세기 실�크로드의 과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고, 2016년에는 알마티에서 “중앙아시아 한류와 한국학”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으며, 2017년 학술대회는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비슈케크에서 개최하였다. 2018년에는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육의 발전과 확산”을 주제로 알마티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으며, 2019년 학술대회는 “중앙아시아에서의 한국어문화교육”과 “중앙아시아의 한국학과 관광산업”을 주제로 비슈케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중앙아 한교협은 학술지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육> 발간, 소식지 <중앙아시아 한국학네트워크> 발행, 인터넷 홈페이지(<http://canks.asia>) 운영 등 한국학 관련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 2013.06. 제1회 중앙아시아 한국학학술대회 개최(비슈케크)
- 2014.04. 소식지 <중앙아시아 한국학네트워크> 발행
- 2014.06. 제2회 중앙아시아 한국학학술대회 및 창립총회 개최(비슈케크)
- 2015.06. 학술지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육> 창간호 발간
- 2015.06. 소식지 <중앙아시아 한국학네트워크> 발행
- 2015.06. 제3회 중앙아시아 한국학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개최(타슈켄트)
- 2016.01. 소식지 <중앙아시아 한국학네트워크> 발행
- 2016.06. 학술지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육> 2호 발간
- 2016.06. 소식지 <중앙아시아 한국학네트워크> 발행
- 2016.06. 제4회 중앙아시아 한국학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개최(알마티)
- 2017.01. 소식지 <중앙아시아 한국학네트워크> 발행

- 2017.06. 소식지 <중앙아시아 한국학네트워크> 발행
- 2017.06. 제5회 중앙아시아 한국학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개최(비슈케크)
- 2018.01. 소식지 <중앙아시아 한국학네트워크> 발행
- 2018.06. 학술지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육> 3호 발간
- 2018.06. 소식지 <중앙아시아 한국학네트워크> 발행
- 2018.06. 제6회 중앙아시아 한국학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개최(알마티)
- 2018.11. 소식지 <중앙아시아 한국학네트워크> 발행
- 2019.06. 소식지 <중앙아시아 한국학네트워크> 발행 예정
- 2019.06. 제7회 중앙아시아 한국학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개최(비슈케크) 예정
- 2019.08. 학술지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육> 4호 발간 예정

4. 결론

1990년대 이후 중앙아시아의 한국어교육 수요는 크게 증가하였으나, 이러한 성과가 학문적인 차원으로 반영되지 못하였다. 한국학의 전문성 결여로 인해 한국어교육의 수요 증가도 일시적인 현상에 머물렀으며,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성장의 동력을 찾지 못해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발전을 기대할 수도 없게 되었다. 결국 한국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내외적으로 실질적인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연구와 교육을 병행하면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차원의 협력과 변화가 아니라 장기적인 차원에서 한국학계의 내적 기반과 체질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할 것이다.

이처럼 중앙아시아 한국학은 내부적으로 여러 과제들을 안고 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아시아 한국학 교수협의회는 국내외 교육 및 연구기관들과 연계하여 다양한 연구 및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한국에서 관련 기관들의 외적 지원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현지의 내적 활동이 어우러진다면 중앙아시아의 한국학이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다만, 중앙아시아 한국학이 기여하고 지향해야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립할 시기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따라서 향후 중앙아시아의 한국학이 긍정적인 발전을 지속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일들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1) 한국학의 주제, 대상, 방법 등 기초적인 개념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이루어져야 한다. 중앙아시아의 한국학은 학문적인 기초 작업 없이 발생하여 그 대상이 남한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세계 한국학에서 중앙아시아 한국학의 고유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남북한을 포함하는 진정한 의미의 ‘한국학’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2) 내적인 기반을 충실히 다지기 위하여 재정적인 자립 방안이나 신진 교원의 양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젊은 인재들이 재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거나 학술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공동연구나 장기적인 연구사업을 기획할 필요가 있다. 학문적인 열정만을 기대하기보다는 우수한 인재들을 대학으로 끌어들이려는 내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3) 내부적인 교류 및 학술적 공유를 추진하고, 해외 한국학과와의 교류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단순히 결과물을 내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연구 성과를 보급하고 전파하는 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해외 한국학, 특히 한국의 한국학계와의 교류를 통하여 연구방법론이나 교수법 등을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김 게르만. “중앙아시아의 한국학”. 한국국제교류재단 편. <해외한국학백서>. 을유문화사, 2007. pp.466-483.
2. 장호종. <민족어교육과 외국어교육의 이중성: 러시아의 한국어교육>. 박문사, 2009. 385p.
3. 장호종. “중앙아시아 한류: 문화-경제 한류의 선순환”. <2015 대한민국 한류백서>.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2016. pp.381-400.
4. 장호종. “중앙아시아의 한국학”. 한국국제교류재단 편. <해외한국학백서>. 을유문화사, 2018. pp.173-192.
5. 장호종. “카자흐스탄 한국학의 현황과 과제”. <제27회 한국어문학 국제학술회의: 중앙아시아에서의 한국어문학 교육 및 연구의 재검토>. 알마티: 고려대 BK21플러스 한국어문학사업단,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 2018. pp.1-8.
6.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수협의회.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육> 1. 알마티: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2015. 248p.
7.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수협의회.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육> 2. 알마티: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2016. 290p.
8.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수협의회.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육> 3. 알마티: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2018. 262p.
9. 콘체비치(L. Kontsevich). “러시아 한국학의 역사와 현황”. 한국국제교류재단 편. <해외한국학백서>. 을유문화사, 2007. pp.438-465.

Session 1A

사회: 플럼리 M. (나자르바예프대학교)

■ **키르기스스탄의 한국학과 관광산업 발전 방안**

백태현, 세리쿨로바 M(키르기스 한국대/중앙아시아 한국대,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 **카자흐스탄 비핵화의 경 험이 북한 비핵화에 주는 교훈과 함의**

고호윤(나자르바예프대, 카자흐스탄 누르술탄)

■ **한국어 어법 중 약간의 비체계적 현상에 관하여**

가시와바라 스구루(와카야마대, 일본 와카야마)

■ **불가리아의 한국학 교육과 연구의 동향 및 발전 방향**

김소영(소피아대, 불가리아 소피아)

■ **카자흐스탄 크질오르다 국립대학교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논의**

김다민, 김이연(크질오르다 국립대, 카자흐스탄 크질오르다)

키르기스스탄의 한국학과 관광산업 발전 방안

백태현

키르기스 한국대,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세리쿨로바 미나라
중앙아시아 한국대,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개요

키르기스스탄을 포함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학습자가 한국어나 한국학을 전공으로 선택하는 이유와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선택 요인은 바로 학습자의 '현실적 필요성'이다. 다양한 부류의 학습자가 한국어나 한국학을 선택하기까지는 본인의 현실적 필요성과 더불어 중앙아시아 지역에 크게 일고 있는 한류의 영향 및 한국의 국가적 위상, 향후 한국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신뢰 등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상에 발맞추어 중앙아시아 한국학 교육현장에서 요청되고 있는 현실적 과제 중의 하나는 키르기스스탄의 국가 주요 산업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관광분야와 한국학의 접목 방안이다.

오늘날 관광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성장산업 중의 하나이다. 에너지산업, 방위산업보다 그 규모가 더 크다. 이러한 관광산업은 국가 발전 및 지역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주민의 소득과 고용기회를 증대시키며, 고유한 문화유산 및 자연을 보전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실크로드 중심부에 위치한 키르기스스탄은 '중앙아시아의 스위스'라고 불릴 정도로 빼어난 자연환경이 비교적 온전히 보존되어 있는 지역이다. 특히 자연친화적 생태관광자원과 역사적 깊이를 간직한 무한한 유형, 무형의 노마드 문화관광자원의 보고이기도 하다. 이같은 생태문화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키르기스스탄 관광산업의 발전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렇지만 키르기스스탄의 현 상황은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한 도로, 항공, 숙박 등 관광 인프라의 부족과 관광산업 종사자의 비전문성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관광산업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키르기스스탄의 관광산업의 현실과 비슷하게 키르기스스탄의 전반적인 한국학 수준은 아직도 초보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학교육 및 연구 분야 모두 그렇다. 현 상황에서 키르기스스탄 대학의 발전적인 한국학교육 및 연구 체계를 갖추어 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르기스스탄의 '지역학으로서의 한국학'의 정착이라는 과제의 목표는 그 양적인 발전이 아니라 질적인 발전에 과감히 그 초점을 맞추어 가야 할 때가 되었다.

본 발표문은 키르기스스탄의 한국학과 관광산업 분야가 지니고 있는 현실적 한계를 타개하기 위한 일 방안으로서 뿐만 아니라 양 분야의 발전적인 융합 방안을 도모해보고자 하는 하나의 시도이다. 먼저 키르기스스탄의 한국학과 연계한 키르기스스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생태관광자원과 역사문화관광자원의 가치를 재발견해갈 필요성이 있다. 나아가 한국과 키르기스스탄 양방향에서 요구되고 있는 의료관광, 산악트레킹, 노마드체험관광과 전문 통역, 관광 서비스 분야 등에 필요한 전문요원을 육성해 가는 것도 현실적으로 요청되는 분야이다.

Development Method for Korean Studies and Tourism Industry of Kyrgyzstan

Back Tae Hyeon

Kyrgyz Korean College, Bishkek, Kyrgyzstan

Sherikulova Minara A.

Korean Institute of Central Asia, Bishkek, Kyrgyzstan

Abstract

In Central Asia, including Kyrgyzstan, there are many reasons and purposes for learners to choose Korean or Korean Studies as major, but the most important factor is the 'real need' of learners. It is expected that various types of learners will have a considerable influence on the choice of Korean language and Korean Studies as well as their real necessity, the influence of the Korean Wave that has been widespread in the Central Asian region, the national status of Korea, and the trust of Korea in the future.

In keeping with these changes, one of the practical tasks that are being requested in the field of Korean Studies in Central Asia is the integration of Korean Studies with the field of tourism that is growing into a major national industry in Kyrgyzstan.

Today, tourism is one of the largest growth industries in the world. It is more important than the energy industry or the defense industry. These tourism industries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balanced development of national development and local economy, increase income and employment opportunities of residents, and contribute to preservation of unique cultural heritage and nature. Kyrgyzstan is located in the heart of Central Asia Silk Road. Kyrgyzstan is a report of infinite tangible and intangible Nomad cultural tourism resources that have a nature-friendly ecotourism resource and historical depth, which is called "Switzerland of Central Asia". The tourism industry in Kyrgyzstan, which possesses such Eco-culture tourism resources, is highly likely to develop. However, the current situation is that the tourism industry is not well established due to various factors such as the lack of tourism infrastructure such as roads, airplanes, and accommod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the tourism industry, and the non-expertise of the tourism industry workers.

Similar to the reality of Kyrgyzstan's tourism industry, Kyrgyzstan's overall level of Korean Studies is still at a nascent stage. It is all in the field of Korean studies and education. In this situation, it is not easy to prepare the Kyrgyz University's progressive Korean education and research system. Nevertheless, the goal of the establishment of Kyrgyzstan's 'Korean studies as a regional science' has become a time to focus on qualitative development, not quantitative development.

This presentation is an attempt not only to provide practical limitations of Kyrgyzstan's Korean studies and tourism industry but also to develop a convergence plan in both fields. First, there is a need to rediscover the unique ecotourism resources and historical and cultural tourism resources that Kyrgyzstan has in connection with Kyrgyzstan's Korean studies. In addition, it is a realistic requirement to nurture specialists required for medical tourism, mountain trekking, Nomad experience tourism, professional interpreter, and tourism service, which are required both in Korea and Kyrgyzstan.

카자흐스탄 비핵화의 경험이 북한 비핵화에 주는 교훈과 함의

고호윤

나자르바예프대, 카자흐스탄 누르술탄

최근의 북미 관계 개선과 남북 관계의 진전에 따라 북한의 비핵화는 정책의제를 넘어 학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으로서 리비아, 남아프리카, 카자흐스탄의 세 국가가 이른바 세 가지 비핵화 모델로 종종 언급되고 있으며, 이들 중 카자흐스탄 모델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로 주목을 받고 있다. 첫째, 카자흐스탄의 비핵화는 핵무기 포기과 경제발전을 교환한 성공적인 사례로서, 비핵화와 경제제재 해제라는 교환을 염두에 두고 있는 북한의 사례에 유사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둘째, 두 국가 모두 구소련의 핵기술을 물려받은 것으로, 북한 핵무기의 기술적인 내용이 카자흐스탄이 보유했던 핵무기와 유사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왜냐하면 양국 모두 구소련의 핵 기술을 계승했기 때문이다. 셋째, 카자흐스탄 사례는 미국과 러시아 등 강대국의 개입 아래서 평화적으로 비핵화를 이룬 국제적 비핵화의 성공 사례로서 북한 핵무제의 당사국으로서 참여하는 미국, 중국 등의 강대국의 이해관계이라는 측면에도 시사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용한 모델로 언급되고 있다.

본 논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자흐스탄의 비핵화 사례는 북한 비핵화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카자흐스탄의 경험을 북한의 비핵화에 직접 적용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크게 세 가지 지점에서 카자흐스탄의 비핵화 사례는 북한과 다르다. 첫째, 카자흐스탄에게 핵무기의 효용은 부정적이거나 최소한 논란이 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기록에 따르면 나자르바예프 대통령과 그의 주요 정책보좌진들은 카자흐스탄이 단독으로 핵무기를 통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구소련의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자국의 안보에 유용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김정은에게 핵 능력은 대미역제라는 안보의 측면과 정권유지라는 정치적 측면에 있어서 최대한의 효용을 가지는 것으로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자산이며, 오히려 핵능력의 포기는 북한과 김정은에게 중대한 도전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둘째, 카자흐스탄의 비핵화는 새로운 국가 정체성 형성이라는 맥락에서 가능했다는 점이다. 1991년 말 독립과 동시에 카자흐스탄은 물리적인 안보의 문제뿐만 아니라 존재론적 안보의 문제에 직면했다. 물리적 안보에 관해서는 중국과 러시아로부터의 위협이 주요 관심사였고, 이는 장차 국경분쟁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1992년 주변 강대국을 포함하여 미국 등 주된 잠재적 위협세력들과 다양한 합의를 통해 즉각적인 안전보장이 이루어지면서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비핵국가'를 카자흐스탄의 주된 외교 아젠다로 적극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비핵화 결정은 국제 체제에서 카자흐스탄의 새로운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에 유용한 도구로 기능했지만, 북한의 경우 비핵화가 자동적으로 새로운 국가 정체성의 형성으로 이어지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핵화는 필연적으로 지역과 세계질서로의 편입을 의미하게 되는데, 개방과 세계화를 북한이 수십 년 동안 거부해 온 것을 감안하면 비핵화의 길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알 수 있다. 셋째, 카자흐스탄 비핵화 결정은 국민과 지배 엘리트 간의 응집력을 촉진하였다. 구소련 시대의 핵실험장인 Semipalatinsk 핵실험장 폐쇄 결정은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독립 직후 내린 결정들 중 하나였으며, 전국적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도 했다. 카자흐스탄의 통치 엘리트는 비핵화 결정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합법적인 권위와 지지를 쉽게 획득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선군정치와 고난의 행군 등을 정당화하는 국내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으로,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이 이루어진 후에도 핵 능력의 해체는 김정일에게 국내정치적인 부담을 가져오는 것이 된다. 핵무기가 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실패국가의 통치 정당성을 확보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감안할 때, 그 반대의 선택인 비핵화를 위해서는 정치적인 정당화가 필수적이며, 이는 김정은 정권에게 위기의 측면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카자흐스탄의 사례가 북한 비핵화에 대해 갖는 함의는 무엇인가? 카자흐스탄의 경험에서부터 우리는 적어

도 세 가지 지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북한의 비핵화 논의에 접목시켜야 한다. 첫째, 기존 핵보유국이 비핵화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미국과 러시아는 카자흐스탄의 비핵화의 필수적인 주체였다. 한국은 핵무기에 관한 미국, 중국, 그리고 러시아의 역할을 인정하고 이들 국가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둘째, 비핵화는 국제 비확산 체제의 틀 아래에서 이행되고 검증되어야 한다. 비핵화의 초기 협상에서 북미 간 협상이나 남북관계의 역할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실질적인 비핵화의 단계에서는 국제적인 비확산의 틀을 통해야 하며,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과 국제원자력에너지기구 등의 구조 안으로 돌아와야 한다. 셋째,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비핵화를 위해서는 북한이 비핵국가로서 국제체제에 데뷔하는 것은 물론 이에 따른 긍정적 기대 이득이 강조되어야 한다. 단순한 경제제재의 해체를 넘어서 내부적으로는 김정운의 정치적 자본은 담보하면서 동시에 대외적으로 북한에게 상징 또는 외교적 자본이 발생할 수 있는 모델을 고민해야 한다.

Denuclearizing North Korea: Lessons from the Kazakhstani Experience

Koh Hoyoun

Nazarbayev University, Nursultan, Kazakhstan

Abstract: The recent development of the US-DPRK rapprochement and the inter-Korea relations is stimulating the discussion of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in both academia and policy circles. Three models of denuclearization are often discussed as a possible reference for the process of denuclearizing North Korea: the Libyan model, the South African model, and the Kazakhstan model. Among those, the Kazakhstan model receives particular attention for three reasons. First, the nuclear disarmament of Kazakhstan gives an example of a successful exchange between nuclear weapons and economic development, which can be analogous to the trade-off between denuclearization and economic sanctions in the North Korean case. Second, technical specifications of the North Korea nuclear program are believed to be similar to those of Kazakhstan for both countries are inherited nuclear technologies from the former Soviet Union. Third, the Kazakhstan case is recognized as a successful case of denuclearization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Nonetheless, there are some fundamental gaps between the two cases, which makes it difficult to directly apply the Kazakhstani experience to the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The Kazakhstan case differs from the North Korean case in three fundamental ways. First, the value and utility of nuclear weapons for Kazakhstan is perceived as negative or debatable at best. Archival evidence shows that President Nazarbayev and his advisors saw little utility of maintaining the nuclear arsenal after they realized that the control over those weapons might not be in their hands. Kim Jong-un, however, shall face challenges by renouncing the nuclear capability of the country. All the North Korean motivations of the nuclear armament seem to be the exact opposite of the Kazakhstan case. Second, the denuclearization of Kazakhstan should be understood in the context of a new national identity formation. As a newly independent country, Kazakhstan faced not only material security challenges but also ontological security. As to material security, threats from China and Russia were the main concerns, which might lead to future border disputes. Once the immediate material security was guaranteed through multiple arrangements with neighboring power and the United States, Nazarbayev actively sought a nuclear-free state in his diplomacy. The decision of denuclearization functioned as a tool for carving

out a new state identity of Kazakhstan in the international system. However, North Korea, if denuclearized, has to find a way to debut itself in the regional and global order. To some extent, the open economy and globalization is an inevitable consequence of denuclearization, which North Korea has been refusing for decades. Third, the Kazakhstani decision promotes the internal cohesion of the country, in particular between the people and the ruling elites. The decision to shut down the Semipalatinsk site was one of the first choices of Nazarbayev and received nationwide support. By promoting denuclearization, the ruling elite could easily recover its legitimate authority and support from the Kazakh people. To the contrary, the nuclear program of North Korea is believed to have domestic political purposes. Even after the security guarantee is provided, the dissolution of nuclear capability requires a legitimate justification for Kim's domestic audience. Given that the nuclear weapons have used for domestic political cohesion and muting public discontents, the reversed choice needs better explanations.

Then, are there any lessons that the North Korean case should learn from the Kazakhstani case? There are at least three lessons should be critically learned and reconsidered for the ongoing discussion of denuclearizing North Korea. First, the existing nuclear states should play a major role in denuclearizing any nuclear weapon-possessing states. The United States and Russia were the essential actors of the denuclearization of Kazakhstan. For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the US, China, and Russia are supposed to take the major part of the process. Second, the denuclearization requires to be implemented and verified under the frame of the international nonproliferation regime. Third, for the durable and stable state of denuclearization, there should be some positive gains for North Korea to debut at the international system as a non-nuclear state.

한국어 어법 중 약간의 비체계적 현상에 관하여

가시와바라 스구루
와카야마대, 일본 와카야마

개요

[연구과제] 본 발표는 “‘구체명사-하다’ 동사”의 구체명사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구체명사(concrete nouns)는 구체적인 물건(나무, 돌)을 가리키는 반면에 ‘-하다’는 동작, 행동을 뜻하므로 양자는 결합하기 어렵다. 그래서 “‘구체명사-하다’ 동사”는 많지 않다. 한편 추상명사(abstract nouns)는 동작, 행동을 가리키는 단어가 많아서(말, 사랑), ‘-하다’의 뜻과 적합한다. 그래서 “‘추상명사-하다’ 동사”는 다수파이며 체계적인 반면에 “‘구체명사-하다’ 동사”는 예외적 소수파이며 비체계적이다. 그런 “‘구체명사-하다’ 동사”에 관하여 송정근(2007)은 “-하다”의 의미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본 발표자는 “명사의 의미 종류에 따라 ‘-하다’의 의미가 변한다”고 본다. 그래서 본 발표는 1) “‘구체명사-하다’ 동사”의 수량과 내역, 2) “‘구체명사-하다’ 동사”가 가능하게 될 조건, 3) 앞 명사의 구조와 의미 분야의 특징 등을 밝히는 것이다.

[자료와 방법] “‘구체명사-하다’ 동사”를 수집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표준국어대사전”의 ‘자세히 찾기’에서 ‘끝 포함’, ‘찾는 말 = 하다’를 설정해서 “-하다” 형태를 수집한다. 2) ‘품사’와 ‘어종’ 항목으로 수집범위를 ‘동사, 고유어’로 한정한다. 한정 이유의 예비조사의 결과, ‘구체명사-하다’ 형용사는 거의 없음, 한자어와 외래어는 명사와 용언(동사, 형용사) 간의 구별이 곤란함. 3) 검색결과로 표시된 6,060개 단어를 예문과 함께 일일이 검토해 가면서 아닌 것을 제외한다.

[조사결과] 그 결과 58개의 “‘구체명사-하다’ 동사”를 발견할 수 있었다. 내역은 다음과 같다. 앞 명사만 가나다순으로 표기한다.

01 가을, 02 간, 03 갈풀, 04 값, 05 개막이, 06 거름, 07 거멸장, 08 공기, 09 글,
10 길동무, 11 골값, 12 꽃모종, 13 끝줄, 14 나무, 15 나물, 16 남자, 17 낮, 18 놀(<너울),
19 동무, 20 두레, 21 뒷거름, 22 땀나무, 23 말동무, 24 머리, 25 못자리, 26 무릎베개,
27 반죽, 28 밥, 29 벳, 30 벳가을, 31 보람, 32 보리풀, 33 보릿가을, 34 사이, 35 손님,
36 손다리미, 37 신발, 38 앞뒤, 39 양념, 40 어깨동무, 41 옷갓, 42 옷거름, 43 이름,
44 이마, 45 이웃, 46 자리, 47 잠동무, 48 잠자리, 49 제기, 50 즈음, 51 짝, 52 판소리,
53 팔매, 54 팔베개, 55 풀다듬이, 56 풀대님, 57 풀1, 58 풀2

[고찰] 58개 명사의 구조와 명사 및 파생동사의 의미분야에는 몇몇 특징이 보인다.

- 1) <명사와 파생동사의 구조> (1)구체명사도 동작의 뜻을 띠게 된 겨우에는 ‘-하다’ 동사를 만들 수 있다. (어휘론적 통사론 lexico-syntax) (2)복합어가 절반정도 있다 (위의 3, 5, 10, 11, 12, 13, 21, 22, 23, 25, 26, 30, 32, 33, 36, 37, 38, 40, 41, 42, 47, 48, 52, 53, 54, 55, 56).
- 2) <명사와 파생동사의 의미분야> 일상생활에서 친근한 명사가 많아서 생활 냄새가 나는 듯한 느낌이 든다. 특징은 (1) 농업 용어가 많고 수산업 용어도 있다. (2) 음식, 위로, 도구 등 생활 어휘가 많다. (3) 신체 어휘를 사용한 말이 있다. (4) 인간관계에 관한 말이 많다. (5) 종교, 유희(놀이)에 관한 말이 있다. 등이다.

[결론] “‘구체명사-하다’ 동사”는 어느 정도 수량이 있고 문법도 생활어휘 면도 재미있다.

Some Unstructured Phenomena in Korean Syntax

Kashiwabara Suguru

Wakayama University, Wakayama, Japan

Abstract

[purpose] This study examines “concrete noun - ‘hada’ verbs” focusing on the concrete nouns. A concrete noun is a noun that refers to a real physical object, for example “wood”, “stone”. On the other hand, suffix “-hada” refers to movement. So combination of the two is difficult.

And then “concrete noun - ‘hada’ verbs” are not many. They can be called “the minority” or “unstructured phenomena”. Song Joung Geun(2007) examined them focusing on the meanings of ‘-hada’. But author consider that meaning of ‘-hada’ correspond to the meaning group of noun”. So this study aims to explain the followings. 1) the number and a list of “concrete noun - ‘hada’ verbs” 2) the condition of organizing “concrete noun - ‘hada’ verbs” 3) the meaning group of noun.

[survey] The process of collecting “concrete noun - ‘hada’ verbs” is as following. 1) Start advanced search of “Standard Korean Dictionary”. At first set search terms as “suffix (backward) matching”, “search word = ‘hada’”. 2) Then set search terms as “part of speech = verb”, “language kind = original Korean”. Because in first pilot study it became clear that [1]“concrete noun - ‘hada’ adjective” is rare, [2] Chinese or English as loan-word do not distinguish strictly between noun and verb/adjective. 3) As a result 6,060 words and example sentences were displayed. Then “concrete noun - ‘hada’ verbs” were selected by reading them.

[result] Then 58“concrete noun - ‘hada’ verbs” were selected. The list of them is as following. Concrete nouns are shown in Korean alphabetical order.

01 autumn, 02 soybean paste/soy sauce, 03 green manure, 04 price, 05 weir(fish trap), 06 manure/compost, 07 clamp, 08 stone of 'gong gi' game, 09 letter/character, 10 fellow traveler, 11 price of face, 12 young plant of flower, 13 tow rope, 14 wood, 15 Korean seasoned vegetables, 16 hairpiece, 17 face, 18 big wave, 19 friend, 20 cooperation/collective, 21 additional fertilizer, 22 firewood, 23 companion, 24 hair, 25 rice nursery, 26 (lap-pillow), 27 dough, 28 boiled rice, 29 friend, 30 (rice-autumn), 31 mark/target, 32 manure for barley/wheat, 33 (barley-autumn), 34 space, 35 visitor/guest, 36 (hand-iron), 37 footwear, 38 front and rear, 39 spice/seasoning, 40 (shoulder-friend), 41 clothes and hat, 42 additional fertilizer, 43 name, 44 forehead, 45 neighbor, 46 place, 47 (sleep-friend), 48 bed, 49 a kind of shuttlecock, 50 edge/side, 51 pair/partner, 52 (place-voice), 53 (throwing)stone, 54 (arm-pillow), 55 (paste-'tatumi'), 56 (paste-bottom string), 57 paste, 58 grass

[comment] 58 words show special features as followings. 1)Word formation. (1) When a concrete noun begin to have a meaning of movement, it can join with - ‘hada’. (2) Compound words amount to half, and they can have meaning of movement. 2) Mention to semantic field, many words belong to (1) agriculture, (2) food, clothes, tool, (3) body, (4) human relations, (5) religion, game.

[conclusion] 58“concrete noun - ‘hada’ verbs” shows relevance of noun to verb (good examples of “lexico-syntax”). And life vocabularies in those semantic fields are interesting, too.

불가리아의 한국학 교육과 연구의 동향 및 발전방향

김소영

소피아대, 불가리아 소피아

개요

한국과 불가리아는 1990년 3월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하였고, 1992년 소피아 국립대학교에 한국어 강좌가 최초로 개설되었다. 1995년에는 소피아대학교 내 동양어문화센터에 한국학 전공이 개설되었고, 이후 동유럽 최초로 대학원 석·박사과정도 개설되는 등 불가리아에서 한국어 교육은 빠른 속도로 정착하였다. 현재 70명의 학생이 한국학을 전공으로 공부하고 있다.

소피아대 한국학과는 2010년 11월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일제강점기와 터키 식민지 시절의 한국과 불가리아 문인의 삶과 내면세계 비교 연구’라는 주제로 1단계 씨앗형 사업을 수행하였고, 이 주제를 심화 발전시켜 2012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식민지 유산과 사회발전: 정치·법제·문화-불가리아와 한국의 비교 및 교재개발 기초연구”를 주제로 2단계 씨앗형 사업을 추진하였다. 5년간 수행된 씨앗형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그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그 기초 위에서 2015년부터 중핵 사업(과제: 불가리아의 한국학 정착과 확산을 위한 교육·연구 통합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인기를 얻으면서 한류팬들이 생겨났고 10대를 중심으로 K-pop과 컴퓨터 게임이 큰 인기를 누리면서 한국어 학습자가 점점 증가하였다. 한류열풍으로 한국어 학습 붐이 일면서 공립 중고등학교에도 한국어가 정식 과목으로 개설되는가 하면 세종학당 등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학생 및 일반인을 위한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었다. 지난 26년 동안 15개 이상의 사립, 공립 교육기관에 초등학생부터 중년까지의 다양한 계층의 학습자 대상으로 한국어강좌가 개설되면서 한국어 교육이 불가리아 전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Trends and Developments of Education and Research in Korean Studies in Bulgaria

Kim Soyoung

Sofia University St Kliment Ohridski, Sofia, Bulgaria

Abstract

In 1992, the first courses in the Korean language began at Sofia University St. Kliment Ohridski. The Korean Studies Department was officially established in October 1995 in the Faculty of Classical and Modern Philology. This was the first time Korean studies was established as a major in a Balkan region. In 2010, in accordance with Sofia University regulations, the Department of Korean Studies was officially established, as the number of Koreans in permanent positions increased to seven. Presently, more than 70 students are studying for their bachelor's and doctor's degrees in the Korean Studies Department. In April 2017, two students graduated from the master's course, and in September 2017, more new students will enroll in the master's course. In 2015, as a result of the previous five-year development project (research on political, legal, cultural system and situation after the colonial period), Sofia University began the research project 'Core University Program for Korean Studies'. The subject of the project

involves the establishment of a combined education and research system for the planting and spreading of Korean studies in Eastern Europe. This project aims at binding the BA course, graduate courses, and the research institute into one, in order to combine research and teaching activities. One of the important tasks is to collect archive materials concerning North and South Korea during the Cold War. Researchers of this project analyse and study these collected documents and translate them into the Korean language.

Twenty five years ago, Koreans were prohibited entry into Bulgaria. Korea was an unfamiliar country to Bulgarians, who knew much about Japan and China but very little about Korea. And so, Bulgarians were not really interested in Korea. They associated Korea only with the 1988 Olympics (held in Seoul, South Korea), the Korean War,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or Korean unification. But now the classrooms of Sofia University are full of energetic young people, and the image of Korea is significantly improving, which is highly gratifying.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Bulgaria were established in November 1948. After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the Bulgarian Communist Party made the decision to support North Korea by way of a political campaign for the collection of North Korean relief. In 1952-56, the Bulgarian government organised special humanitarian medical missions to North Korea. Bulgaria also cared for more than 500 Korean orphan children. During the Cold War, Bulgarian material aid to North Korea increased, as well as the development of bilateral commercial, scientific, and cultural cooperation. After the collapse of communism in Eastern Europe in 1990, Bulgaria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 with South Korea. In the same yea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elected a university state scholarship student who was scheduled (with two other students from South Korea) to visit Sofia, Bulgaria. But before they arrived in Sofia, the Embassy of North Korea in Sofia recalled their students (who had been residing and studying in Sofia) back to North Korea.

카자흐스탄 크질오르다 국립대학교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논의

김다민, 김이연

크질오르다 국립대, 카자흐스탄 크질오르다

개요

현대 한국 문화에 대한 전세계적인 관심과 한국의 정치·경제·사회적 위상에 힘입어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습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고, 해외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논의의 중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중앙아시아에서의 한국어 교육을 비롯한 한국학에 대한 논의 또한 증가하면서, 중앙아시아 한국학학회대회가 올해로 7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중앙아시아에서의 한국어 교육에 대해 논의한 연구들은(한영균·김수경·김류보비 2009; 황 바채슬랍 2012; 한 넬리 2015; Nelly Park 2015) 일반적으로 중앙아시아 한국어 교육의 현황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살피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앙아시아 한국어 교육의 주요 문제는 교육과정, 교원, 교재의 문제이다. 카자흐스탄 크질오르다 국립대학교의 한국어 교육 또한 이와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크질오르다 국립대학교의 한국어 교육의 역사와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문제점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크질오르다 국립대학교의 정식 명칭은 코르키타타 크질오르다 국립대학교로 1931년 블라디보스토크에 우리 민족이 세운 원동고려사범대학의 후신이다. 원동고려사범대학은 1937년 극동 지역 고려인의 중앙아시아로의 강제 이주와 함께 크질오르다로 옮겨졌고, 이후 여러 번의 개편을 거쳐 현재는 고려인 민족학교의 성격은 남아 있지 않다.

크질오르다 국립대학교의 한국어 교육은 1991년 동양어학부에 한국어 전공이 개설되면서 시작되었다. 1996년에 국제 경제 한국어과로 변경되었다가, 1998년에는 한국어 통역과로 변경되었고, 2008년 지역학과의 한국어 전공 분과로 개편되었다(조나야 2009: 56). 1991년 한국어 전공 개설 당시에는 신입생 수가 21명으로 적지 않았으나, 이후에는 신입생 수가 10명에도 못 미쳐 겨우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한편, 교원 수는 학생 수에 비하여 충분하였으나, 대부분이 한국어 교육 전문가가 아닌 봉사단원과 선교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구체적인 한국어 교육과정이 없고, 한국어 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교수·학습이 이루어지기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학과의 잦은 명칭 변경과 신입생 수의 변동, 교원 수의 문제 등으로 인해 한국어관련학과는 결국 폐과되었다.

현재 크질오르다 국립대학교 한국어학과의 정식 소속 및 명칭은 ‘문헌, 역사, 법학부’의 ‘외국어 및 통·번역 학과’ 내 ‘영어-한국어 전공’이다. 이는 한국어관련학과가 폐과된 이후 2013년 9월에 재개설된 것이다. 2013년에 재개설된 영어-한국어 전공은 이전에 폐과되었던 한국어관련학과와는 다른 긍정적인 양상을 보인다. 한국의 관련 기관의 지원과 관심 속에서 꾸준히 전문적인 한국어 교원이 파견되고 있고, 학생 수 또한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질오르다 국립대학교의 영어-한국어 전공 또한 다른 중앙아시아 지역의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볼 수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교원 수급의 문제이다. 폐과 전과는 달리 전문적인 한국어 원어민 교원이 파견되어 양질의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져 왔지만, 급격하게 증가하는 학생 수에 비해 교원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 또한, 파견 교원으로만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 지속적인 한국어 교육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어렵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써 두 가지를 제시한다. 하나는 파견 교원들 간의 인수인계를 통해 연속적인 교수·학습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어 석사 과정을 개설하여 현지인 교원을 양성하는 것이다.

교원의 문제는 교육과정의 문제로 이어진다. 현지인 교원이 없고, 각기 다른 기관에서 파견된 교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2017년까지는 교원들마다 서로 다른 교재를 사용하여 일관성이 없는 교육과정을 수행하였다. 이에 현 교원은 파견 초기 ‘연세한국어’를 주 교재로 통일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교육과정을 정비하였다. 처음 2년 동안은 ‘연세한국어’ 1, 2권을 교수·학습하여 2급 수준을 갖추고, TOPIK I 기출 문제 학습을 통해 숙달도를 측정하고, 다음 2년 동안은 ‘연세한국어’ 3급을 공부하여 3급 수준을 갖추고, TOPIK II 기출 문제 학습을 통해 최종적으로 3급 수준

이상의 한국어 실력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또한 지속적인 교육과정의 수행을 위해 후임 교원을 위한 상세한 기록을 남겼다. 하지만 이 교육과정은 최종적으로 중급 수준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고급 한국어 학습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의 개설이 필요하다. 이는 앞서 말한 현지인 교원 양성을 위한 한국어 석사 과정 개설을 통해 함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학년별 학생 수는 해마다 20명 이상 증가하는 반면에 교재는 한 질 당 10권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충분한 교재 구비를 위한 유관 기관의 지원이 절실하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크질오르다 국립대학교는 역사적, 문화적으로 한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한국의 여러 기관으로부터 지속적인 지원을 받아오고 있다. 이에 부응하여 2013년 영어-한국어 전공의 재개설 이후 신입생 수가 꾸준히 그리고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더욱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 문제점들은 크질오르다 국립대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아시아 전역의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대두되는 문제이다. 중앙아시아의 한국어 교육을 비롯한 한국학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이 문제들 또한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되어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

A Discussion on Korean Language Education at Korkyt Ata Kyzylorda State University in Kazakhstan

Kim Damin, Kim Yi Yeon

Korkyt Ata Kyzylorda State University, Kyzylorda, Kazakhstan

Abstract

The number of Korean language learners is rapidly increasing, because of the global interest in modern Korean culture, and political, economic, social status of Korea. Consequently, the importance of discussing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overseas is also increasing. As the discussion on Korean studies including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Central Asia has increased, this year we are celebrating the 7th Conference of Korean Studies in Central Asia.

The studies on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Central Asia mostly aim to figure out the problems of current status and discuss how to solve these problems. There are three main problem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Central Asia: curriculum, teachers, and textbooks. Korean language education at Kyzylorda State University in Kazakhstan has the same problems.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look into the history and the current state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at Kyzylorda State University, figure out the problems in detail, and discuss how to solve these problems.

The official name of Kyzylorda State University is 'Korkyt Ata Kyzylorda State University'. It is based on the Far Eastern Korean Pedagogical Institute which was founded by Korean people in Vladivostok in 1931. The Far Eastern Korean Pedagogical Institute was moved to Kyzylorda in 1937, and reorganized through many years. Now Kyzylorda State University is no longer specific institute for Korean nation in Kazakhstan.

In 1991, the first Korean language major course was opened in the Department of Oriental Studies. The name of the course had been changed many times. At the time of opening the Korean language major course, 21 students enrolled, but after that, the number of new students was reduced to less than 10, which was not enough for maintaining the course. When it comes to the teachers, the number was enough, but the quality might be in question, since most of them were not expert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but volunteers. Consequently, the first Korean language major course in the Kyzylorda State University was finally closed.

Fortunately, Korean language major course was reopened in 2013. Currently, the official name of

Korean language major course is 'Specialty in Foreign Languages: Two Foreign Languages: Korean' in the 'Department of Foreign Languages and Translation' of the 'Faculty of Philology, History and Law'. This new Korean language major course shows positive aspects unlike the course before 2013. After reopening, the qualified Korean teachers have been dispatched with the help of the related institutions in Korea, and the number of students has been rapidly increasing every year. However, Korean language education at Kyzylorda State University also has problems like other Korean language institutes in Central Asia.

The biggest problem is lack of teachers. As mentioned above, now only qualified teachers have been dispatched from Korea, but the number of teachers is not enough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number of students is rapidly increasing. Moreover, since there are only two Korean teachers dispatched from Korea for a short time and there is no teacher who lives in Kyzylorda, it is hard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continuously. This paper suggests two solutions. One is helping dispatched teachers have enough communication by making manuals. The other one is establishing the advanced Korean language course for training teachers who live in Kyzylorda.

The problem of teachers leads to the problem of curriculum. Until 2017, teachers had used different textbooks and inconsistent curriculum, because there was no teacher who was consistently in charge of and the teachers from Korea had been dispatched through different programs. As noticing these problems, the teachers who came to Kyzylorda in 2017 discussed these matters. They choose 'Yonsei Korean' as a main textbook, and revised the curriculum based on this textbook. Firstly they set the goal for Korean learners to achieve level 3 of Korean language. For the first two years, students need to study first and second book, and then check their proficiency by TOPIK I. For the next two years, students have to study third book and examine their level by TOPIK II. In addition, the current teachers have been making notes in detail to make next dispatched teachers continue the current revised curriculum. However this curriculum does not include the course for advanced learners. Establishing the advanced Korean language course for training teachers who live in Kyzylorda, which was mentioned above, also could be a suggestion to solve this problem. Moreover, since the number of textbooks is not enough compared to the number of students, Kyzylorda State University is in desperate need for help of the related institutions to purchase enough textbook for students.

Kyzylorda State University is closely related to Korea in terms of history and culture. Since 2013, many institutions in Korea have supported Korean language major course in Kyzylorda State University. Thanks to this help, the newly opened Korean language major course has developed and is expected to develop further. When the problems mentioned through this paper are solved, there will be a bright future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 at Kyzylorda State University. These problems can also be emerged in the field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all over the Central Asia. Since there have been a lot of discussion on Korean studies including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Central Asia, it is expected that these problems can be solved in a near future.

참고문헌

- 국립국어원,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개발 2단계』, 2011.
- 조나야, 「카자흐스탄 한국어 교육 현황과 전망」,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한넬리, “카자흐스탄에서의 한국어 교육과정”,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5,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15, 278-284.
- 한영균·김수경·김류보비, “중앙아시아 3국의 한국어 교육”, 「한국어교육」, 20(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9, 303-335.
- 황 바채슬랍, 「키르기즈스탄 지역 한국학과외의 한국어 교육과정 연구」, 배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Nelly Park, “카자흐스탄의 한국어 교육 -현황과 문제점-”, 「국제한국어교육」, 1(2), 국제한국어교육문화재단, 2015, 141-160.

Session 1B

사회: 세리쿨로바 M. (중앙아시아 한국대학교)

■ 한국어와 러시아어 구의 분류

옐킨 데니스, 김 올가, 리보바 이리나

(타슈켄트 세계언어대/타슈켄트 인하대/니자미 사범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R)

■ 한국의 현대 시학

사프로노바 류드밀라(카자흐 국립대, 카자흐스탄 알마티), (R)

■ 대한민국에 대한 외국의 영향

시디갈리에바 나디라(비슈케크 인문대,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R)

■ 동북아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본 국제관계의 포스트모던 이론

쿠틀루코프 시르자트(카자흐 국제관계및세계언어대, 카자흐스탄 알마티), (R)

■ 카자흐스탄 한국어 교육의 언어학 및 사회언어학적 요인

젯피소프 사켄(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카자흐스탄 알마티), (R)

한국어와 러시아어 구의 분류

엘킨 데니스

우즈베크 국립세계언어대

김 올라

타슈켄트 인하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리보바 이리나

타슈켄트 국립니자미사범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Классификация словосочетаний в корейском и русском языках

Ким О.А.

Университет Инха, Ташкент, Узбекистан

Львова И.С.

ТГПУ им. Низами, Ташкент, Узбекистан

Елькин Д.Ю.

УзГУМЯ, Ташкент, Узбекистан

Аннотация: классификация словосочетаний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по главному слову, по структуре, смысловым отношениям между компонентами словосочетания, грамматической связи слов в словосочетании.

Синтаксические отношения между членами словосочетания строятся на основе подчинительной синтаксической связи, так как в словосочетании всегда есть грамматически независимый и грамматически подчиненный ему компоненты.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также, как и в русском, словосочетание образуется на основе способности знаменательных слов распространяться различными словоформами и объединяться грамматически и по смыслу. Словосочетание служит для выражения единого, но расчлененного понятия или представления.

Корейские лингвисты (Ким Джеук 김재욱, Пак Кидок 박기덕, Со Джонгсу 서정수, Со Гвансу 성광수, И Иксоп 이익섭, Че Ван 채완 и др.)¹⁾ рассматривают словосочетание внутри предложения. Часть речи главного слова в словосочетании определяет грамматическую функцию словосочетания.

Словосочетание внутри предложения неделимо и является одним членом предложения.

Словосочетание по своему лексико-грамматическому оформлению может быть омонимично предложению. Однако предложениям свойствен целый ряд признаков. Не обладая ими, словосочетание предложением не является. У словосочетания нет цели высказывания, смысловой и интонационной завершенности, грамматической основы. Словосочетание не содержит законченной мысли и не является единицей общения. Оно, как и слово, выполняет номинативную роль, т.е. роль называния различных компонентов

1) 김재욱 외. 한국어문법론. 2003; 남기심, 고영근. 표준 국어문법론. 2003; 박기덕. 한국어 문법론. 2003; 서정수. 국어문법. 1996; 성광수. 한국어 표현 문법. 2005; 이익섭, 채완. 국어문법론강의. 2002; 이익섭. 한국어 문법. 2006.

действительности: предметов, действий, признаков, состояний и проч. Но при этом словосочетание выполняет эту роль, выражая более детализированную информацию, чем слово.

Слова в словосочетании неравноправны: одно главное, другое – зависимое. В роли главного слова могут выступать слова всех самостоятельных частей речи. Тип словосочетания определяют по характеру главного слова. Выделяются три типа словосочетаний: именные, глагольные, наречные.

Таким образом, словосочетание как в корейском, так и в русском языках – это соединение самостоятельных слов на основе подчинительной синтаксической связи, имеющее следующие признаки:

- 1) слова в словосочетании связаны по смыслу и грамматически;
- 2) словосочетание не является самостоятельной синтаксической единицей;
- 3) словосочетания не передают законченную мысль, не являются единицей в коммуникации (самостоятельной единицей в общении людей), это только материал, необходимый для единиц более высокого синтаксического уровня – предложений

Classification of Word Combinations in Korean and Russian Languages

Kim O.A.

Inha University in Tashkent, Tashkent, Uzbekistan

Lvova I.S.

Tashkent State Pedagogical Institute named after Nizami, Tashkent, Uzbekistan

Elkin D.Yu.

Uzbekistan State University of World Languages, Tashkent, Uzbekistan

Abstract: The classification of word combinations is carried out according to the main word, structure, semantic relations between the components of the word combinations, the grammatical connection of words in the word combination.

The syntactic relations between the members of a word combination are built on the basis of a subordinate syntactic connection, since the word combination always contains grammatically independent and grammatically subordinate components. In Korean, as well as in Russian, the word combination is formed on the basis of the ability of significant words to be distributed by various word forms and to be combined grammatically and by meaning. The word combination is used to express a single, but dismembered concept or representation. Korean linguists (Kim Jeuk 김재욱, Pak Kidok 박기덕, So Jongs r, So Gwansu 성광수, And Iksop 이익섭, Che Van 채완 др, etc.) consider the word combination within the sentence. The part of the speech of the main word in the word combination determines the its grammatical function.

The word combination within the sentence is indivisible and is one member of the sentence.

The word combination in its lexical and grammatical design may be homonymous with the sentence. However, sentences are characterized by number of features. Without possessing them, the word combination is not considered to be a sentence. The word combination has no goal of expression,

semantic and intonational completeness, grammatical basis. The word combination does not contain a complete thought and is not a unit of communication. As well as the word, it performs the nominative role, i.e. the role of naming various components of reality: objects, actions, signs, states, and so on. But at the same time the word combination fulfills this role, expressing more detailed information than the word.

Words in the word combination are unequal: one thing is important, the other is dependent. The words of all independent parts of speech can come as the main word. The type of the word combination is determined by the nature of the main word. There are three types of word combinations: nominal, verbal, adverbial.

Thus, the word combination in both Korean and Russian is a combination of independent words based on a subordinate syntactic connection, which has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 1) the words in the word combination are related grammatically and by meaning;
- 2) the word combination is not an independent syntactic unit;
- 3) word combinations do not convey a complete thought, are not a unit in communication (an independent unit in the communication of people), it is only the material necessary for units of a higher syntactic level - sentences.

한국의 현대 서사

사프로노바 류드밀라, 세르무하메토바 바그잔
카자흐 국립대, 카자흐스탄 알마티

개요

1970년대 한국 문학은 여성주의적 감성의 성장, 현실적인 표현 스타일에 대한 헌신, 그리고 한국의 전통적 가치에 대한 잠재적인 투쟁이 증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시대의 대표적인 작가는 오정희이다. 많은 국내외 수상 경력을 갖고 있다. 오정희의 책은 영어, 독일어, 스페인어, 일본어, 러시아어 및 다른 언어로 번역되었다. 오정희는 단편소설을 통해 조용하고 평온한 세상을 묘사하지만 실제로는 삶은 혼란스럽고 때로는 무서운 것으로 판명된다. 매일의 일과에서 제공하는 거짓 보안과 평온의 뒤에 숨어있는 캐릭터의 삶은 무거운 생각과 범죄 열정의 어둠에 실제로 잠기게 된다. 오정희는 중산층 여성의 심리를 탐구하면서 결혼과 가족 문제에 관해 쓴다. 가족 공간은 보안을 제공하더라도 여성의 신원을 제한한다. 인상주의 문체 기법의 도움으로 작가는 한국의 평온함을 감추고 숨어있는 어두운 욕망의 심연을 드러낸다.

1990년대 한국 문학은 “일상 생활로의 복귀” 또는 “자신에의 몰입”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 작가 최인석은 자신만의 독창적인 세계를 만들어 냈으며, 한국 사회의 부정적인 측면을 사회, 역사적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에 접목하여 표현했다. 최인석은 현실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넓히고 새로운 시각을 부여 할 수 있는 문학적 특성으로 ‘판타지’ 요소를 수용한다. 그의 작품에 나타난 현실은 절망적이고 비관적인 세계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탈출구를 찾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은 그의 모든 작품을 하나로 묶어 놓은 공통된 주제이다.

“전통적 리얼리즘”에서 벗어나 자신의 작품에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최인석은 “현실주의가 중요하지만 사실 자체는 아닙니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 ‘노래’, ‘바다’, ‘해안’과 허구의 요소들이 사용되는 많은 다른 작품들에서 저자는 90년대의 사회 문제를 드러내고 있고 1980년 5월 31일에 설립된 국가안보위원회(National Security Committee)의 활동과 같이 고문 피해자를 유지한다. 눈에 띄는 사례는 무언가가 없는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묘사하면서 “현실을 환상과 결합”하는 본격적인 시도를 한 이야기인 “내 아름다운 유령”(My beautiful ghost)이다.

동시에 최인석은 현실에 대한 절망적인 인식과 유토피아적 의식에 의해 주도된다. 저자의 현실은 극단적인 절망에 빠지며 영웅이 희망없는 현실에서 숨어지면서 무서운 “지옥”으로 묘사된다. 최인석의 모든 이야기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주요 주제 중 하나는 폭력의 주제이다. 이 폭력은 주로 사회적 정치적 억압 문제와 관련이 있다.

2000년대 초의 작가 중 김별은 2005년에 역사소설 “미실”(Misil) 덕분에 세계문학상을 수상했다. 김별은 항상 역사에 대한 깊은 지식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삭매와 자미”는 역사적인 산문 장르의 첫 번째 샘플이다. 이것은 단지 역사적인 것이 아니라 환상적인 이야기이다. 이 동작은 고대 중국의 국경에서 이루어진다. 사건 자체와 시간대는 현실감과 거리가 멀다. 이 동작은 역사적인 사건의 배경을 배경으로 이루어지지만 그 이야기는 역사적인 사실을 드러내지 않는다. 이것은 우선 삶의 즐거움을 찾는 이야기, 현실에서 벗어나는 이야기이다. 사실, 이것은 남성 운명의 전형적 모델에 관한 남성 운명에 관한 이야기이다. 의무와 사랑 사이의 문학에 대한 전통적인 갈등은 이 이야기에서 제거된다. 인생은 단순한 선택을 하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절대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한국 포스트모더니즘의 대표자 오수연은 “난장이 국가의 날”(1994)이라는 소설의 저자로 알려져 있다. 많은 언어로 번역된 그녀의 가장 인기있는 이야기 중 하나는 ‘곤충’이다. ‘곤충’이라는 이야기의 줄거리가 만들어지는 변형의 동기는 이미 고대 신화에 있었으며, 한국 신화와 동화뿐만 아니라 집단 무의식의 측면에서 항상 그 근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작가의 해석에서 그는 새로운 해석을 얻는다. 오수연은 현대 한국의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의 자기 실현의 문제를 다루는 최초의 여성 작가가 되었다. 무의식적인 수준에서의 그녀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한국 여성의 전통적인 역할, 즉 단지 어머니와 아내에 저항한다. 이 순수한 생물학적 역할에서, 그녀는 거대한 수의 난자를 생산하는 곤충 여성 같다고 느낀다. 물론 오수연은 카프카의 작품, 특히 그의 소설 “변형”의 영향을 받아 “곤충”이라는 이야기를 썼다. 이 작품들은 하나의 사상적 주제별 복합체를 가지고 있으며, 자본주의(카프카) 대표, 가부장제(오수연) 사회의 시도가

원리와 신념의 확립된 체계에 저항하는 것을 기술하고 있다. 오수연의 이야기의 초점은 개성화, 사람으로서의 사람의 이미지, 그리고 개인으로서 발전하려는 욕망이지 사회의 얼굴없는 것이 아니다. 곤충이 되는 동기는 권위주의적인 권력 / 가부장제의 가족으로부터의 압박감에 처한 사람의 무의미 함, 무의미함과 같은 내적인 의미와 관련이 있다. 변형의 동기는 신화로의 출발, 무의식적인, 사람의 본능에 몰두하는 것인데, 이는 슈퍼에고 (Superego) (남편, 집단주의자 사회)의 관점에서 부정적인 것처럼 보인다. 페미니스트 작품인 “곤충”은 근대 한국 사회의 가부장제적 전망을 파괴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졌다.

한국의 포스트모더니즘의 또 다른 대표자는 많은 괴기한 작품의 저자인 장정일이다. 그는 시와 연극으로 문학 활동을 시작하여 여러 문학상을 수상했다. 예를 들어, 장정일의 “펠리컨”의 이야기는 허구와 풍자의 조합이다. 비평가는 이 이야기를 환상적인 사실주의와 신소설 픽션에 모두 반영했다. 그러나 자연과 초자연의 경계가 지워지는 신소설과는 달리 이 이야기에는 논리가 존재한다. 한국의 정치적, 사회적 현실과 그것들을 묘사하는 풍자적인 방식은 이 이야기를 환상적인 사실주의의 속성으로 만들고 풍자와 그로테스크의 기법을 통해 현실에 대한 사회-역사적 이해를 제공한다.

따라서 이야기의 장르에 나타난 한국의 현대 문학은 세계 문학의 전반적인 맥락에서 진화하고 있으며, 현대의 시간과 예술의 주제와 문제점을 다루고 있다. 이들은 페미니스트 비판, 마술 (환상) 리얼리즘, 포스트모더니즘, 상호텍스트성과 ‘외계어’(다른 언어, 단어), 그로테스크와 정치사회적 풍자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Поэтика корейских рассказов новейшего времени

Сафронова Л.В., Сермухаметова Б.Б.

КазНУ им. Аль-Фараби, Алматы, Казахстан

Аннотация

Современная корейская литература 70-х гг. XX века характеризуется ростом феминистских настроений, приверженностью к реалистическому стилю изложения и латентной, но все усиливающейся борьбой с традиционными корейскими ценностями. Типичный представитель этого литературного периода – писательница О Чонхи. Лауреат множества корейских и зарубежных премий. Книги ее переведены на английский, немецкий, испанский, японский, русский и др. языки. Писательница – автор коротких рассказов. Она изображает мир, который на поверхности кажется тихим и безмятежным, но на самом деле жизнь оказывается хаотичной, часто ужасающей. Скрытая за ложной безопасностью и умиротворенностью, которые придает ей повседневная рутина, жизнь персонажей на самом деле погружена во тьму их тяжелых мыслей и преступных страстей. О Чонхи пишет о проблемах брака и семьи, углубляясь в психологию женщин из среднего класса. Пространство семьи ограничивает личность женщины, даже если оно и обеспечивает безопасность. С помощью импрессионистических стилистических приемов писательница раскрывает бездну темных желаний, которые скрываются под покровом традиционного корейского спокойствия.

Корейскую литературу 90-х годов XX века можно охарактеризовать как "возвращение к повседневной жизни" или "погружение в себя". Так, например, корейский писатель Чхве Ин Сок создал свой, независимый творческий мир, в котором обличает негативные аспекты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включив иллюзии в критическое восприятие социальных и исторических реалий. Чхве принимает фактор "фантазии" как литературный атрибут, который

может расширить его восприятие реальности и дать ему новую перспективу. Реальность, показанная в произведениях Чхве, - это безнадежный и пессимистичный мир. Постоянный поиск выхода из этих реальностей - это общая тема, которая объединяет все его произведения. "Важен не реализм, а сама реальность", - утверждает Чхве, отходя от так называемого "традиционного реализма" и привнося фантазию в свои произведения. Однако на самом деле, в произведениях «О песни», «В глубине моря», «Морское побережье» и многих других, где также используются элементы фантастики, автор, наоборот, раскрывает социальные проблемы 90-х годов, такие как деятельность комитета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учрежденного 31 мая 1980 года, публичные дома, жертвы пыток. Ярким примером служит рассказ «Мой прекрасный призрак», в котором автор предпринял полномасштабную попытку "объединить реальность с фантазией", описав жизнь бедных людей, которым некуда уехать, на фоне разрушающейся деревни.

Чхве Ин Соком одновременно движет безнадежное осознание реальности и утопическое сознание. Реальность у автора доходит до крайности отчаяния и изображается как ужасающий "ад", в котором герои бегут навстречу утопии, скрываясь от столь безнадежной реальности. Одна из основных тем, которая последовательно появляется во всех рассказах Чхве - это тема насилия. Это насилие,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связанное с проблемой социальных и политических репрессий.

Писательница начала 2000 гг. Ким Пель в 2005 году стала лауреатом первой Всемирной литературной премии благодаря историческому роману "Мисиль". Ким Бёль А всегда проявляла глубокие познания в истории. Например, рассказ "Сакме и Чами" - ее первая проба в жанре исторической прозы. Это не просто исторический, но и фантастический рассказ. Действие разворачивается на границах древнего Китая. Сами события и временная эпоха далеки от ощущения реальности. Действие происходит на фоне исторических событий, но рассказ не ставит целью раскрыть исторические факты. Это, прежде всего, история о поиске удовольствий от жизни, об уходе от действительности. По сути, это рассказ о судьбе мужчины, о некой типичной модели мужской судьбы. Традиционный для литературы конфликт между долгом и любовью снимается в данном рассказе, поскольку жизнь сложнее однозначного выбора, в ней просто должно быть все абсолютно.

Представитель корейского постмодернизма О Су Ён известна как автор романа «Национальный день страны гномов» (1994). Один из самых популярных ее рассказов, переведенный на множество языков, - «Насекомое». Мотив превращения, на котором построен сюжет рассказа «Насекомое», присутствовал уже в древней мифологии, а также корейских мифах и волшебных сказках, всегда имея свое обоснование в аспекте коллективного бессознательного. Однако в интерпретации писательницы он получает новое толкование: О Су Ён стала первым автором-женщиной, которая затронула проблемы самореализации женщины в современном корейском патриархальном обществе. Главная героиня ее рассказа на бессознательном уровне сопротивляется традиционной роли корейской женщины - быть только матерью и женой. В этой чисто биологической роли она чувствует себя самкой насекомого, производящей огромное количество яиц. Безусловно, О Су Ён написала рассказ «Насекомое» под влиянием творчества Ф. Кафки, в частности - его новеллы «Превращение». Эти произведения имеют единый идейно-тематический комплекс, описывая попытки героев,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капиталистического (Кафка), и патриархального (О Су Ён) обществ,

противостоять сложившейся системе принципов и убеждений. В фокусе рассказа О Су Ен – индивидуализация, изображение человека как Личности и его желание развиваться как индивидуальности, а не в качестве безликого винтика социума. Мотив превращения в насекомое связан с внутренним ощущением мизерности, малозначимости, ничтожности человека под прессингом авторитарной власти / патриархальной семьи. Мотив превращения – это уход в миф, бессознательное, погружение в инстинктивную сущность человека, которая выглядит негативной с точки зрения Суперэго (мужа, коллективистского социума). Рассказ «Насекомое» – феминистское произведение – призвано разрушить патриархальное мировоззрение современного коре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Другой представитель корейского постмодернизма, автор многих гротескных произведений – Чан Чонг Иль. Начиная свою литературн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с поэзии и драматургии, стал лауреатом нескольких литературных наград. Рассказ Чан Чонг Иля «Пеликан», например,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сочетание фантастики и сатиры. Критики относят данный рассказ и к фантастическому реализму, и к неофантастике. Однако в отличие от неофантастики, где граница между естественным и сверхъестественным стирается, в этом рассказе присутствует и логика. Определенные политические и социальные реалии Кореи и сатирический способ их описания делают рассказ принадлежностью фантастического реализма, который дает социально-историческое понимание реальности с помощью сатиры и приемов гротеска. Автор выносит приговор современному корейскому социуму, сформировавшего личность главного героя – жестокого, равнодушного, жадного и т.д.

Таким образом, новейшая литература Кореи, представленная в жанре рассказа, эволюционирует в общем контексте мирового литературного процесса, затрагивая самые актуальные темы и проблемы современного времени и искусства. Это феминистская критика, магический (фантастический) реализм, постмодернизм, с его вниманием к интертексту и «чужому слову», гротеску и политической и социальной сатире.

대한민국에 대한 외국의 영향

시디갈리에바 나디라
비슈케к 인문대, 키르기스스탄 비슈케к

Иностранное влияние на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Сыдыгалиева Н.Н.
БГУ им. К. Карасаева, Бишкек, Кыргызстан

Аннотация

Развитие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й, процессы глобализации, усиление культурных обменов между странами, а также возникновение каких-либо явлений и предметов оказывают влияние не только на повседневную жизнь людей, но и язык, развивая и обогащая его. Одним из источников его обогащения является процесс заимствования. Заимствование приводит к появлению новых слов, не имеющих аналогов в данном языке, интернационализмы значительно облегчают международное общение и значительно пополняют словарный запас.

Корея в разные периоды своей истории находилась под влиянием различных государств: Китай, Япония, страны Запада и Америка. Большой след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оставил Китай, когда Корея была под его сильным влиянием. В течение нескольких веков китайский язык считался официальным языком Кореи.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можно встретить очень много китайских слов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Однако, они настолько прижились в этом языке, что пишутся на хангыль, и с легкостью используются в обиходе.

Японский язык, несмотря на многолетнюю колонизацию Кореи, не смог прижиться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и можно найти незначительное количество слов-заимствований.

Английский язык, признан языком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уровня, языком глобализации и межкультурного общения.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английский язык не является ни официальным, н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языком Кореи, он занимает прочные позиции в рейтинге заимствований не только в образовании, культуре, политике, внешней торговле, но и в обыденной жизни корейцев. Причиной проникновения английского языка на корейский полуостров, который всегда находился обособленно, окруженный влиянием двух могущественных соседей – Китая и Японии, послужило военное присутствие США после 1945 года. Введение английского языка как обязательного предмета во все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учреждения Кореи, процессы глобализации и становление английского языка «языком межкультурного общения», выход Кореи на международный рынок, развитие IT-технологий – все это послужило причиной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и обоснования английского языка. Английский язык перенимается не только в своем оригинальном виде, но и с искаженным значением, с видоизменными формами, образуемых при помощи соединения корейских слов, которые образуют совершенно новую форму лексической единицы. Большое значение в изучении заимствований играют так называемые слова конглиш, образованные путем слияния английского 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ов.

В настоящей статье изучены влияние различных стран на процесс становления языка, его изменение, у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е и оптимизацию в связи с реалиями настоящего времени. В публикуемой работе отмечены не только изменения в лексической составляющей языка, но и

влияние их на развитие такого явления как «корейская волна», которая является результатом слияния двух совершенно, казалось бы разных культур – современной западной и традиционно восточной.

Foreign Influence on the Republic of Korea

Sydygalieva N.N.

Bishkek Humanities University named after K. Karasayev, Bishkek, Kyrgyzstan

Abstract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 processes of globalization, the strengthening of cultural exchanges between countries, as well as the emergence of any phenomena and objects have an impact not only on people's daily lives, but also on language, developing and enriching it. One of the sources of its enrichment is the borrowing process. Borrowing leads to the emergence of new words that have no analogues in this language, internationalism greatly facilitates international communication and significantly replenishes the vocabulary.

Korea at different periods of its history was influenced by various states: China, Japan, Western countries and America. China left a big mark in Korean when Korea was under its strong influence. For several centuries, the Chinese language was considered the official language of Korea. Currently you can find a lot of Chinese words in Korean. However, they are so accustomed to this language that they are written in Hangul, and are easily used in everyday life.

The Japanese language, despite the many years of colonization of Korea, could not take root in the Korean language, and you can find a small number of words of borrowing.

English is recognized as an international language, a language of globalization and intercultural communication. Despite the fact that English is neither the official nor the official language of Korea, it occupies a strong position in the ranking of borrowing not only in education, culture, politics, foreign trade, but also in everyday life of Koreans. The reason for the penetration of the English language into the Korean peninsula, which has always been apart, surrounded by the influence of two powerful neighbors, China and Japan, was the US military presence after 1945. The introduction of English as a compulsory subject in all educational institutions of Korea, the processes of globalization and the emergence of English as the “language of intercultural communication”, the entry of Korea into the international market, the development of IT technologies – all this caused the spread and justification of English. English is adopted not only in its original form, but also with a distorted meaning, with modified forms formed by combining Korean words, which form a completely new form of lexical unit. Of great importance in the study of borrowings are the so-called konglish words, formed by merging the English and Korean languages.

This article examines the influence of various countries on the process of language formation, its change, improvement and optimization in connection with the realities of the present. In the published work, not only changes in the lexical component of the language are noted, but also their influence on the development of such a phenomenon as the “Korean wave”, which is the result of the merging of two completely seemingly different cultures – the modern western and the traditionally eastern.

동북아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본 국제관계의 포스트모더니즘 이론

쿠투루코프 시르자트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카자흐스탄 알마티

Постмодернистские теории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й на примере стран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Кутулуков Ш.П.
КазУМОиМЯ им. Абылай хана. Алматы, Казахстан

Аннотация

Современные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тношения характеризуются разнообразием методологических подходов в рамках модернистских парадигм. В исследовании предпринята попытка анализа современного состояния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измерения политики памяти в контексте исторической проблематики. Основная цель работы заключается в определении места истории в коллективной памяти этнических и политических групп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сследование может быть интересно специалистам в области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й, истории и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дальневосточных государств. Методология работы фокусируется на постмодернистских парадигмах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й и истории, разрабатываемых в рамках школы социологии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й и конструктивизма в теории этноса. Проблема истории в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ях активно исследуется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академических кругов разных стран уже несколько десятилетий. Так или иначе, на историческое наследие различных государств региона претендуют пять стран (РФ, РК, КНР, КНДР и Япония), а различные научные конференции по заданной теме проходят в атмосфере горячих академических споров и многочисленных попытках прийти к общему знаменателю. Данное исследование может стать одной из опорных точек изучения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измерения политики памяти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Социально-гуманитарные науки в постсоветск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развивались достаточно своеобразно. Марксистская теория настолько пронизывала все социальные и политические институты, что альтернативным мнениям было сложно не только сформироваться, но и найти адептов в академической среде. Конечно, мы не говорим о косности социально-политической мысли 1990-х, а скорее некой ее замкнутости и неспособности быстро перестроиться на рыночные рельсы. В то время пока западная наука переживала эпоху постмодерна, Советский Союз все глубже уходил в концептуализацию марксизма-ленинизма, а гласность и свобода слова в середине 1980-х была понята не как призыв к отходу от головной идеологической парадигмы, а как команда к ее критике любыми доступными средствами. В стремлении заново обрести «запрещенную» большевиками историю, интеллигенция союзных республик запустила необратимый процесс, протекающий и в наши дни. Распавшись на национальные государства «тюрьма народов» высвободила их, и каждый в стремлении вознести свою исключительность в абсолют, продолжает долгий путь конструирования собственной истории.

Постмодернизм сегодня оформился в различные теории целого ряда социальных наук.

В теории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й вышли работы Джеймса Дер Дериана, Роба Уолкера и Александра Вендта. «Символический обмен и смерть» Жана Бодрийера и «Состояние постмодерна» Жана-Франсуа Лиотара стали классикой постмодерна в философии. В истории постмодернистское направление оформилось в конструктивизм в теории этноса трудами Б. Андерсона, Э. Геллнера, Э. Хобсбаума.

Именно конструированию истории и ее международному измерению посвящено данное исследование, в которой автор попытался выстроить в некий порядок наиболее распространенные сегодня категории исторической политики и выявить их применимость в отношении различных спорных моментов истори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опросы исторических войн и политики памяти являются наиболее актуальными в сегодняшних социогуманитарных науках. В исследовании сделана попытка методологического обзора конфликтных компонентов национальных историй, формирования общественной памяти и влияния этих конструкций на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тношения в регионе. В работе также дается анализ категории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как культурно-историческому региону. Кроме того автор дает подробное описание понятию «политика памяти», как центральному звену в вопросах историзации политики и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й.

Исследование основано на конструктивистской концепции теории национализма, социальном конструктивизме теории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й и других постмодернистских направлениях.

С древнейших времен Дальний Восток является регионом пересечения разных народов, языков, религий и хозяйственно-культурных типов. Особое значение можно уделить и пространственно-географическому положению дальневосточных обществ. Продолжительное время, являясь конечным восточным пунктом ойкумены, регион был своего рода феноменом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кочевой и оседлой культуры, языковых трансформаций и особых путей развития общественно-политической мысли Востока. Современное состояние развития стран региона является результатом различных внешних и внутрорегиональных процессов в разные хронологические периоды.

Сохранение историзирующей легитимности, то есть стремления обосновать политические контуры и ценностные основания современной социальной общности ссылками на непрерывность исторической традиции, способствует тому, что политика памяти меняя свои социальные основания сохраняет свою действенность и в условиях глобализирующегося социума.

На протяжении всего XX века существующие на уровне массового сознания представления о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подвергались существенным трансформациям, что во многом являлось своеобразным отражением в зеркале общественного мнения тех изменений, которые были связаны с местом и ролью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 мировой политике и экономике, его статусом в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ях. Эти трансформации, безусловно, были также связаны с процессом модернизации, которому были подвергнуты традиционные структуры дальневосточных обществ, результатом чего стало превращение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к началу XXI столетия в динамично развивающийся регион, претендующего на то, чтобы играть ключевую роль в глобальных процессах.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историческая наука и сегодня остается частью большого идеологического инструментария, она обладает большей академической свободой ввиду

множества объективных причин. Глобализация, демократический процесс, научно-технический прогресс и развитие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степенно лишают национальные государства многовековой монополии на создание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рративов. Однако, поддержание образов прошлого становится возможным если не прямой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ропагандой, то различного рода политическими действиями, призванными обслуживать национальную идентичность и национальное государство. В связи с этим, исследование истории с точки зрения ее роли в коллективной памяти различных социальных групп (в том числе и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сообщества) видится задачей первостепенной, так как история, написанная историками и для историков, имеет ценность не столько общественную, сколько научную, а категории исторической политики находятся не только на стыке социологических, исторических, политических и других дисциплин, но и реализуются в практике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й.

Взаимные претензии стран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наиболее объективно рассматривать сквозь призму постмодернистской методологии. Постмодерн в теории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й рассматривает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государств в условиях конструируемой ими окружающей действительности. Конструировать эту действительность сегодня – дело достаточно затруднительное, так как формирование образов выступает одной из важнейших задач политики памяти посредство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ропаганды и информационной политики. В данной ситуации считать официальную позицию того или ин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без учета мнения интеллектуальной элиты и населения было бы неправильным. Однако, позиция политических акторов, выражающих мнение государства безусловно разделяет либо влияет на мнение определенной части населения, а у другой части может вызвать негодование. Следует отметить, что историческая наука Южной Кореи и Японии развивается в условиях большей академической свободы, нежели других стран региона. Однако, это факт вовсе не свидетельствует о беспристрастности выводов специалистов, ведь политическая конъюнктура такова, что реализация научных проектов активно финансируются и РК, и КНР и переход в «стан врага» может расцениваться не только как непрофессионализм или предательство, но и как «продажность». Таким образом, ученый порой сам оказывается заложником собственной академической свободы в условиях конкурентного рынка академической продукции.

Postmodern Theori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on the Example of the Countries of Northeast Asia

Kutulukov Sh.P.

KazUIR&WL named after Ablai Khan, Almaty, Kazakhstan

Abstract

Modern international relations are characterized by a variety of methodological approaches within modernist paradigms. In this paper attempted to analyze the current state of the international dimension of the politics of memory in the context of historical issues. The main goal of the work is to determine the place of history in the collective memory of the ethnic and political groups of the Far East. The

study may be of interest to specialists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relations, history and foreign policy of the Far Eastern states. The work methodology focuses on the postmodern paradigms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history, developed within the framework of the school of sociology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constructivism in the theory of ethnos. The problem of history in international relations has been actively investigated by representatives of academia from different countries for several decades. One way or another, five countries (Russian Federation, Republic of Kazakhstan, China, North Korea and Japan) claim the historical heritage of various states of the region, and various scientific conferences on a given topic take place in an atmosphere of heated academic disputes and numerous attempts to come to a common denominator. This study may become one of the pivot points of studying the international dimension of memory policy in the Far East.

Social and human sciences in the post-Soviet space developed quite peculiar. Marxist theory permeated all social and political institutions so much that it was difficult for alternative opinions not only to form, but also to find adherents in an academic environment. Of course, we are not talking about the inertia of the sociopolitical thoughts of the 1990s, but rather about some of its closure and inability to quickly change to market rails. At that time, while Western science was experiencing the postmodern era, the Soviet Union went deeper into the conceptualization of Marxism-Leninism, and publicity and freedom of speech in the mid-1980s was understood not as a call to move away from the ideological paradigm, but as a team to criticize it available means. In an effort to rediscover the history "forbidden" by the Bolsheviks, the intelligentsia of the Union republics launched an irreversible process that is still going on today. Having broken up into national states, the "prison of nations" freed them, and everyone, in an effort to assert his exclusiveness in the absolute, continues the long journey of constructing his own history.

Postmodernism today took shape in various theories of a number of social sciences. In the theo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came out the work of James Der Derian Rob Walker and Alexander Wendt. "Symbolic Exchange and Death" by Jean Baudrillard and "The Condition of the Postmodern" by Jean-François Lyotard became the classics of postmodernism in philosophy. In the history, the postmodernist trend took shape in constructivism in the theory of ethnos by the works of B. Anderson, E. Gellner, E. Hobsbaum.

It is precisely the construction of history and its international dimension that is devoted to this study, in which the author tried to build up some of the most common categories of historical politics today and identify their applicability to various controversial issues in the history of the Far East.

Issues of historical wars and politics of memory are most relevant in today's social sciences. The study attempted a methodological review of the conflict components of national histories, the formation of public memory and the influence of these structures on international relations in the region. The paper also provides an analysis of the category "Far East" as a cultural and historical region. In addition, the author gives a detailed description of the concept of "memory policy" as a central element in the issues of historization of politic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The study is based on the constructivist concept of the theory of nationalism, social constructivism of the theo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other postmodernist directions.

Since ancient times, the Far East is a region of intersection of different peoples, languages, religions and economic and cultural types. Particular importance can be given to the spatial and geographical location of the Far Eastern societies. For a long time, being the final eastern point of the ecumene, the region was a kind of phenomenon of interaction between nomadic and sedentary culture,

linguistic transformations and specific ways of developing the socio-political thought of the East. The current state of development of the countries of the region is the result of various external and intra-regional processes in different chronological periods.

The preservation of historicizing legitimacy, that is, the desire to substantiate the political contours and value foundations of the modern social community by referring to the continuity of the historical tradition, contributes to the fact that the policy of memory changing its social foundations retains its effectiveness in a globalizing society.

Throughout the 20th century, the ideas on the Far East existing at the level of mass consciousness underwent significant transformations, which in many ways was a reflection of changes in the mirror of public opinion related to the place and role of the Far East in world politics and economics, its status in international relationship. Of course, these transformations were also associated with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to which the traditional structures of Far Eastern societies were subjected, resulting in the transformation of the Far East to the beginning of the 21st century into a dynamically developing region claiming to play a key role in global processes.

Despite the fact that historical science today remains part of a large ideological toolkit, it has greater academic freedom due to a variety of objective reasons. Globalization, the democratic process,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progress and the development of communications are gradually depriving the national states of a centuries-old monopoly on the creation of historical narratives. However, the maintenance of images of the past becomes possible, if not by direct state propaganda, then by various kinds of political actions designed to serve national identity and the national state. In this regard, the study of history from the point of view of its role in the collective memory of various social groups (includi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eems to be paramount, since history written by historians and for historians has not only social, but scientific value, but categories of historical politics are not only at the junction of sociological, historical, political and other disciplines, but also implemented in the practice of international relations.

Mutual claims of the Far Eastern countries are most objectively viewed through the lens of the postmodern methodology. The postmodern in the theo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considers the interaction of states in the conditions of the surrounding reality constructed by them. Constructing this reality today is quite a difficult task, since the formation of image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tasks of the policy of memory through state propaganda and information policy. In this situation, it would be wrong to consider the official position of this or that state without taking into accounts the views of the intellectual elite and the population. However, the position of political actors expressing the opinion of the state undoubtedly shares or influences the opinion of a certain part of the population, and in another part it may cause outrage. It should be noted that the historical science of South Korea and Japan is developing in conditions of greater academic freedom than other countries in the region. However, this fact does not at all indicate the impartiality of the conclusions of specialists, because the political situation is such that the implementation of research projects is actively funded by both Kazakhstan and the PRC and the transition to the "enemy camp" can be regarded not only as unprofessional or betrayal, but also as "corruption". Thus, a scientist sometimes himself becomes a hostage to his own academic freedom in a competitive market for academic products.

카자흐스탄 한국어 교육의 언어학 및 사회언어학적인 요인

젯피소프 사켄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카자흐스탄 알마티

Лингвистические и социолингвистические факторы в преподавани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в Казахстане

Жетписов С.Н.

КазУМОиМЯ им. Абылай хана. Алматы, Казахстан.

Аннотация

Согласно гипотезе ученых,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как и казахский, относятся к алтайской группе языков. Алтайская группа языков на основе генетической принадлежности объединяет тюркские, монгольские, тунгусо-маньчжурские языки, а также корейский и японский. Лингвистическая схожесть корейского и казахского языков в структуре построения предложений, в похожих грамматических правилах дают все основания говорить 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более глубокого изучения и исследования вопроса родственности двух языков. А учитывая генетическую родственность корейского и казахского языков, есть все основания задуматься о возможности применения наиболее успешных корейских методик в изучении казахского языка и казахских методик в изучении корейского.

Особенностью корейской этнической культуры считается своеобразный синкретизм местных народных верований, шаманизма и заимствованных из Китая духовных ценностей.

Корейская культура является фаталистической, где принимается неизбежность происходящего. Она ориентирована на прошлое. Поэтому е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ценят статус человека, учитывают историю, традиции, родственные связи, наличие прецедентов.

Культура Кореи является в значительной степени контекстуальной, которой присущи косвенные речевые акты. Последние не называют действия, не отсылают к буквальному значению напрямую, но расшифровываются совершенно однозначно. Некоторые формы приветствия не имеют своей целью получить правдивую и исчерпывающую информацию о состоянии дел или здоровья, а выражают почтение и уважение: 아침 식사하셨습니다? «(букв. пер.) Вы позавтракали?» 어디 가는 길이에요? «(букв. пер.) Куда идете?»

Понятие «мы, наше» очень важно в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е. Такие слова как «мама», «брат», «муж» и т.д. звучат как 우리 엄마 «наша мама», 우리 오빠 «наш брат», 우리 남편 «наш муж», сочетание «моя страна» звучит только как 우리 나라 «наша страна».

При знакомстве принято спрашивать о возрасте, о месте рождения и о высшем учебном заведении. Иерархичность обуславливает наличие особенностей использования функциональных стилей речи.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статуса и возраста собеседника используется разнообразие окончаний конечной сказуемости.

Грамматическими особенностям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являются:

специфическое функционирование грамматических категорий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Корейский язык является агглютинативным языком, поэтому все грамматические форманты присоединяются к основе предикатива:

постановка предикатива в конце предложения и строго фиксированный порядок слов;

постановка придаточного определительного перед определяемым словом;

наличие постпозиционных частиц;

отсутствие подлежащего и местоимений первого и второго лица в повествовательных предложениях:

отсутствие местоимения второго лица в вопросительных предложениях;

слабо выраженная категория рода, все предметы окружающего мира наделяются мужскими свойствами:

обширная группа ономато-поэтической и звукоподражательной лексики.

Все вышеперечисленное характерно и для казахского языка. Поэтому для преподавани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возможно использование методики преподавания казахского языка.

Инновационные методы в преподавании казахского языка. Один из них – методика обучения без грамматики. Предложил её Алимхан Жунисбеков, специалист института языкознания имени Ахмета Байтурсынова. Производится она в 4 уровня. 1-й уровень – разговорно-бытовая речь, развивающая коммуникативные навыки при общении с друзьями, в кругу семьи, с коллегами по работе, с соседями. Для освоения этого материала достаточно овладения лексическим объемом в 300-500 слов, не более. 2-й уровень – разговорно-профессиональная речь. Человек, овладев разговорно-бытовой речью, переходит к новому словарному запасу в пределах своей служебной компетенции. Для большинства профессий необходимо 50-100 слов. При самом оптимистичном раскладе все сотрудники организаций должны владеть разговорно-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речью, однако 60-70 % является также весьма высоким показателем. После успешной сдачи второго уровня изучающий казахский язык в состоянии оперировать лексическим минимумом в 400-500 слов. 3-й уровень – разговорно-деловая речь, это более продвинутый уровень. К компетенции этой ступени относится составление документации: приказы, указания, договоры различных видов. Целевой аудиторией для обучения разговорно-деловой речи является руководящий состав предприятия. Она необходима лишь для 5-10 % персонала. 4-й уровень – разговорно-художественная речь, самый сложный уровень обучения. Если 3-5 % из всего числа обучающихся овладеют четвертым уровнем, то это будет очень высоким показателем. Этот уровень необходим для чтения на казахском языке, например,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литературы или газеты «Егемен Қазақстан».

Есть еще одна инновационная методика Р.Т. Наралиевой: адаптированная грамматика для изучающих курс практического казахского языка как иностранного. Она делает обучение казахского языка доступным для всех изучающих независимо от возраста. Основными задачами являются: поэтапное овладение языковым материалом от простого к сложному; правильное произношение; овладение элементарной грамматикой и лексическим материалом; осмысление структуры казахского языка с целью свободного использования грамматических форм; развитие речевых навыков с помощью упражнений. Обучение языку интереснее, если в уроках будет отсутствовать грамматика. Язык надо изучать в практике – в употреблении, т.к. многие хотят выучить язык, не изучая грамматики. При этом забывают, что речевые навыки

у носителей языка закладывались годами постепенным изучением структуры своего языка в языковой среде. Все искусство преподавателя в том, чтобы организовать обучение на базе грамматики, отчасти скрытой от учащихся, и подвести учащихся к правильному построению речи. Методика Наралиевой предлагает грамматику, которая носит функциональный характер, выполняет служебную роль. Она служит для формирования речевых навыков. При организации и подборе материала учитываются коммуникативные потребности изучающих. Представленные грамматические материалы расположены по возрастающей сложности, что способствует постепенному усвоению пройденного материала и активизации речи. Адаптированная грамматика охватывает все основные лингвистические нормы казахской грамматики и дает возможность обучить речевому общению в значимых сферах жизни. Нулевой уровень включает фонетику и короткие ситуативные диалоги на разные темы. Русскоязычные не очень быстро осваивают специфические звуки казахского языка: ә, Ұ, Ү, і, ғ, ң, қ. Поэтому в процессе изучения фонетики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уделяется этим звукам. Задания и упражнения позволяют отработать все четыре языковых навыка: чтение, говорение, аудирование и письмо.

Методы измерения понимания речи на слух и методы измерения иноязычного произношения будут различными. Поэтому их необходимо рассматривать отдельно.

Для изуч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в Казахстане, интереса к нему важными оказались внелингвистические факторы, прежде всего, наличие 100-тысячной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Это привело к появлению корейско-казахского двуязычия, особенно заметного в первые десятилетия после переселения корейцев с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озникновение корейско-казахского двуязычия обусловлено историческим и географическим факторами, компактностью проживания корейцев в ряде районов, их языковыми контактами с казахским населением, школьным образованием, наличием средств массовой информации и языковой политикой. Язык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ев несет на себе отпечаток сильнейшего влияния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а также, хотя и в меньшей степени, влияния казахского языка. Более сильное влияние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объясняется давностью корейско-русских контактов. Влияние русского и казахского языков практически не затронуло грамматического стро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Что касается лексики, то в языке корейцев СНГ могут встречаться не только архаизмы, уже не употребляющиеся в языке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но и чжурчженьские слова, законсервировавшиеся в языке. Все это является результатом длительного развития языка в изоляции от литературного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Огромное влияние на него оказал также русский язык, а после переселения в Казахстан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испытал воздействие и казахского языка. Влияние русского и казахского языков особенно сильно сказалось на лексике: при этом различные слои лексики по-разному реагируют на контакты с другими языками и с разной интенсивностью заимствуют русские и казахские слова. Области лексики наиболее непроницаемыми для иноязычных слов, оказались термины родства, названия частей тела, явлений природы, религии и т.д.

Основным результатом 80-летнего общения корейцев с русским, казахским и другими народами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является то, что корейцы практически утратили свой язык и перешли на русский. Незначительная часть, примерно 1 % корейцев, владеет казахским языком. Что касается интереса к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в Казахстане, то он вызван наличием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в стране, тесными экономическими связями с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являющейся высокоразвитой страной с уникальной культурой, а также возможностью для любого человека выучить язык и работать в структурах, где востребовано знани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Важным фактором оказалась структурная близость корейского и казахского языков, облегчающая изучени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студентами, для которых родным языком является казахский. Этот фактор дает возможность использовать наиболее передовые корейские и казахские методики изучения языков в наших странах.

Linguistic and Sociolinguistic Factors in Teaching the Korean Language in Kazakhstan

Zhetpisov S.N.

KazUIR&WL named after Ablai Khan, Almaty, Kazakhstan

Abstract

According to the hypothesis of scientists Korean like Kazakh belong to the Altai group of languages. The Altai language group based on genetic affiliation unites the Turkic, Mongolian, Tungus-Manchu languages, as well as Korean and Japanese. The linguistic similarity of the Korean and Kazakh languages in the structure of the construction of sentences, in similar grammatical rules, gives every reason to speak about the need for a deeper study and study of the question of the relatedness of two languages. And given the genetic affinity of the Korean and Kazakh languages, there is every reason to think about the possibility of using the most successful Korean methods in the study of the Kazakh language and Kazakh methods in the study of Korean.

The peculiarity of the Korean ethnic culture is considered to be a peculiar syncretism of local folk beliefs, shamanism and spiritual values borrowed from China.

Korean culture is fatalistic, where the inevitability of what is happening is accepted. It focuses on the past. Therefore, its representatives appreciate the status of a person, take into account history, traditions, family ties, the presence of precedents.

The culture of Korea is largely contextual, which is characterized by indirect speech acts. The latter do not call actions, do not refer to the literal meaning directly, but are deciphered completely unequivocally. Some forms of greeting are not intended to receive truthful and comprehensive information about the state of affairs or health, but express respect and respect: 식사 하셨어요? "(Lit. lane.) Did you have breakfast?" 가는 길이에요? "(Lit. lane.) Where are you going?"

The concept of "we, our" is very important in Korean culture. Words like "mom", "brother", "husband", etc. sound like 우리 엄마 "our mother", 우리 오빠 "our brother", 우리 남편 "our husband", the combination "my country" sounds only like 우리 나라 "our country".

When meeting it is customary to ask about age, about the place of birth and about a higher educational institution. Hierarchy determines the presence of features of the use of functional speech styles. Depending on the status and age of the interlocutor, a variety of finite predicate endings are used.

The grammatical features of Korean are:

specific functioning of grammatical categories in Korean. Korean is an agglutinative language, so

all grammatical formants are attached to the basis of the predicative;

statement of predicate at the end of the sentence and strictly fixed word order;

statement of the pseudo-empathic before the word being defined;

the presence of postpositional particles;

the absence of subject and pronouns of the first and second person in the declarative sentences;

absence of the second person pronoun in interrogative sentences;

poorly defined category of the genus, all objects of the world are endowed with male properties;

a large group of onomato-poetic and onomatopoeic vocabulary.

All of the above is typical for the Kazakh language. Therefore, for teaching the Korean language, it is possible to use the methods of teaching the Kazakh language.

Innovative methods in teaching the Kazakh language. One of them is the method of teaching without grammar. Alimkhan Zhunisbekov, a specialist from the institute of linguistics named after Ahmet Baitursynov, offered it. It is made in 4 levels. Level 1 - conversational and everyday speech, developing communication skills when communicating with friends, family, colleagues at work, with neighbors. To master this material, mastering the lexical volume of 300-500 words is enough, no more. Level 2 - conversational and professional speech. A person, having mastered colloquial speech, moves to a new vocabulary within his professional competence. For most professions, 50-100 words are required. In the most optimistic scenario, all employees of organizations should be fluent in conversational and professional speech, but 60-70% is also a very high figure. After successful completion of the second level, the student of Kazakh is able to operate with a lexical minimum of 400-500 words. Level 3 - conversational business speech, this is a more advanced level. The competence of this stage includes the preparation of documentation: orders, instructions, contracts of various kinds. The target audience for teaching conversational and business speech is the management team of the company. It is necessary only for 5-10% of the staff. 4th level - colloquial and artistic speech, the most difficult level of study. If 3-5% of the total number of students master the fourth level, this will be a very high indicator. This level is necessary for reading in the Kazakh language, for example, fiction or the newspaper "Egemen Kazakhstan".

There is another innovative technique of R.T. Naralyeva: adapted grammar for students of practical Kazakh as a foreign language. It makes learning Kazakh language accessible to all students regardless of age. The main tasks are: gradual mastering of language material from simple to complex; correct pronunciation; mastering elementary grammar and lexical material; understanding the structure of the Kazakh language in order to make free use of grammatical forms; development of speech skills through exercise. Language learning is more interesting if the lessons will not have a grammar. Language must be learned in practice - in use, because many want to learn a language without learning grammar. At the same time, they forget that speech skills of native speakers were laid down over the years by gradually learning the structure of their language in the language environment. All the art of the teacher is to organize learning on the basis of grammar, partly hidden from the students, and to lead students to the correct construction of speech. The method of Naralyeva suggests a grammar that is functional in nature, performs a service role. It serves to form speech skills. In organizing and selecting material, the communicative needs of students are taken into account. The presented grammatical materials are arranged in increasing complexity, which contributes to the gradual assimilation of the material studied and the activation of speech. Adapted grammar covers all the basic linguistic norms of Kazakh grammar and provides an opportunity to teach speech communication in

significant areas of life. The zero level includes phonetics and short situational dialogues on various topics. Russian speakers are not very quickly master the specific sounds of the Kazakh language: ә, Ұ, Ү, і, Ғ, Һ, Қ. Therefore, in the process of studying phonetics, special attention is paid to these sounds. Assignments and exercises allow you to work out all four language skills: reading, speaking, listening and writing.

Methods for measuring listening comprehension and methods for measuring foreign language pronunciation will be different. Therefore, they must be considered separately.

To study the Korean language in Kazakhstan, interest in it turned out to be extra-linguistic factors, first of all, the presence of the 100,000-strong Korean diaspora. This led to the emergence of Korean-Kazakh bilingualism, especially noticeable in the first decades after the resettlement of Koreans from the Far East. The emergence of Korean-Kazakh bilingualism is due to historical and geographical factors, the compactness of the Korean population in a number of areas, their linguistic contacts with the Kazakh population, schooling, the availability of media and language policies. The language of the Soviet Koreans bears the imprint of the strongest influence of the Russian language, as well as, although to a lesser extent, the influence of the Kazakh language. The stronger influence of the Russian language is explained by the long-standing Korean-Russian contacts. The influence of the Russian and Kazakh languages practically did not affect the grammatical structure of the Korean language.

As for the vocabulary, in the language of the Koreans of the CIS there can be found not only archaisms, which are no longer used in the language of the Korean Peninsula, but also Jurchen words that have been conserved in the language. All this is the result of a long development of the language in isolation from the literary Korean language. The Russian language also had a great influence on him, and after the resettlement to Kazakhstan, the Korean language was also affected by the Kazakh language. The influence of the Russian and Kazakh languages especially affected the vocabulary; at the same time, different layers of vocabulary react differently to contacts with other languages and borrow Russian and Kazakh words with varying intensity. The areas of vocabulary that are most impenetrable for foreign words are the terms of kinship, the names of body parts, natural phenomena, religion, etc.

The main result of 80 years of communication between Koreans with Russian, Kazakh and other peoples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is that Koreans practically lost their language and switched to Russian. A small part, about 1% of Koreans, speaks Kazakh. As for the interest in the Korean language in Kazakhstan, it is caused by the presence of the Korean diaspora in the country, close economic ties with the Republic of Korea, which is a highly developed country with a unique culture, as well as the opportunity for anyone to learn the language and work in structures that demand knowledge of the Korean language. An important factor was the structural proximity of the Korean and Kazakh languages, which facilitates the study of Korean by students whose native language is Kazakh. This factor makes it possible to use the most advanced Korean and Kazakh language learning methods in our countries.

Session 1C

사회: 이미향 (영남대학교)

- 세종학당 한국어·한국문화 교육자료 활용법 및 개발 계획

박충식(세종학당재단, 한국 서울)

-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아동을 위한 초등학교 적응용 교육 자료 개발 사례 연구

강남욱(경인교육대, 한국 인천)

- 헝가리 한국어교육의 현황과 과제

유소영(엘테대, 헝가리 부다페스트)

세종학당 한국어·한국문화 교육자료 활용법 및 개발 계획

2019. 6. 21.(금)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국제학술대회



목차



- I ▶ 세종학당재단 및 세종학당
- II ▶ 세종학당 교육과정 및 교육자료
- III ▶ 온라인 한국어·한국문화 학습 콘텐츠
- IV ▶ 한국어 교사를 위한 교육 자료
- V ▶ 세종학당 한국어 교육의 미래

1

세종학당재단 및 세종학당 소개

- 1. 세종학당재단 소개
- 2. 세종학당 운영 현황
- 3. 세종학당 신규 지정

1. 세종학당재단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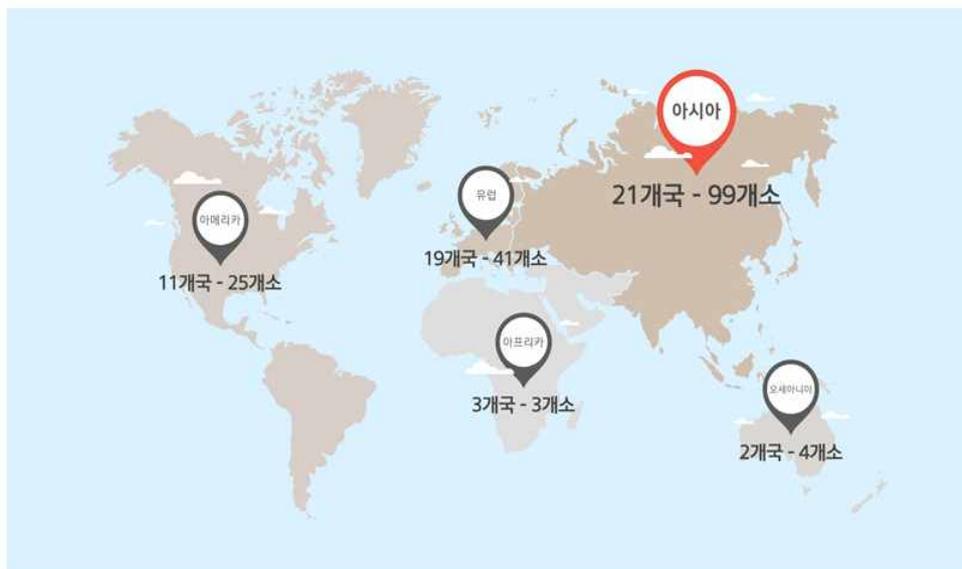
1. 세종학당재단 소개



2. 세종학당 운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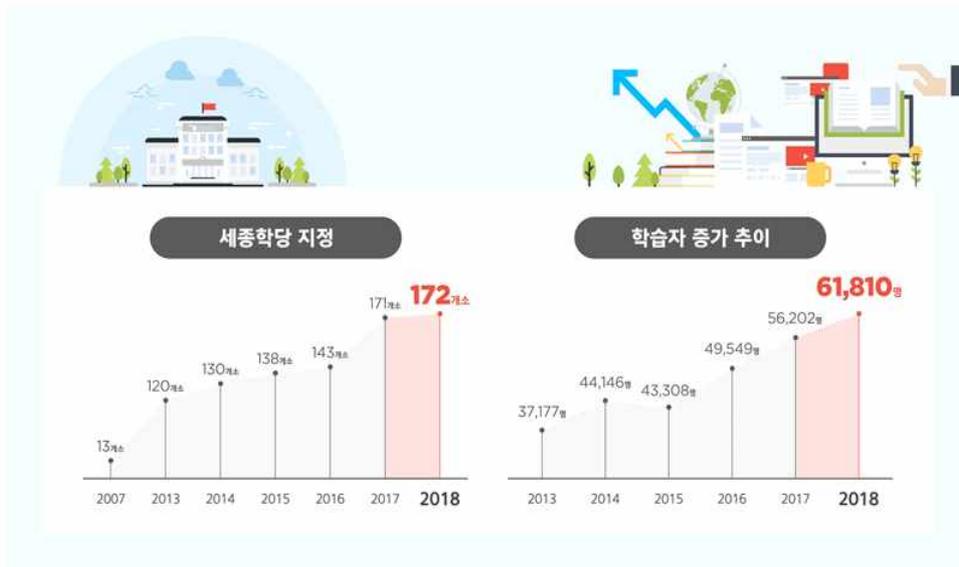
세종학당 운영 현황 56개국 172개소



2. 세종학당 운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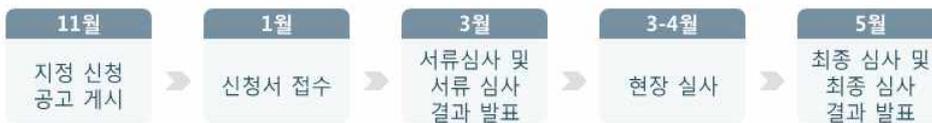
세종학당 지정 & 학습자 증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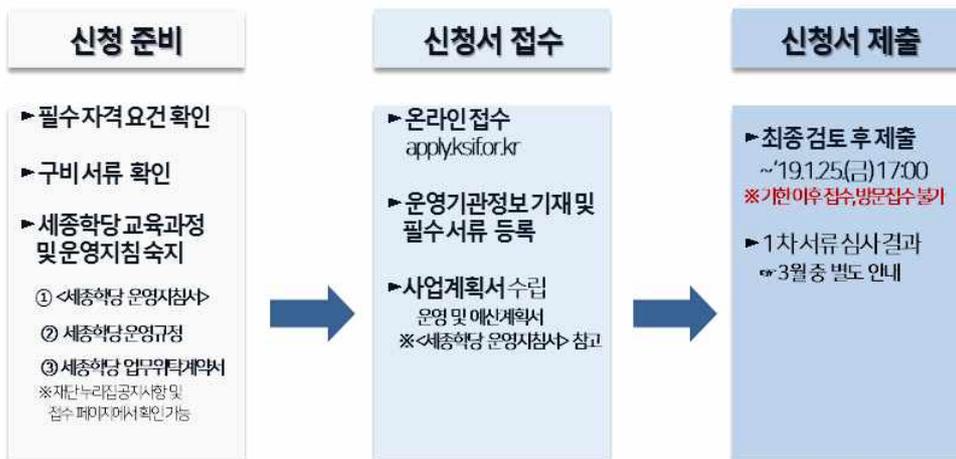
3. 세종학당 신규 지정



▶ 심사 일정



▶ 신규 세종학당 지정 신청 절차



3. 세종학당 신규 지정



- ▶ **설립 주체** : 현지 운영기관, 국내 운영기관
- ▶ **시설** : 강의실 2개 이상, 행정실1개, 자료실1개
- ▶ **교원** : 1. 한국어교원자격증 소지자 2.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자
3. 어문계열 또는 언어교육 학사 이상 소지자로 한국어교육 경력이 1년 이상
- ▶ **문화강사** : 강좌 관련 학사 학위 소지자 또는 경력 최소 2년 이상인 자
- ▶ **운영자** : 세종학당장 선임, 운영요원 확보(한국인 또는 한국어에 능통한 운영 요원 1명 이상 확보)
※ 교원 및 운영요원 등 학당관계자는 학당 근무에 적합한 비자를 소지해야 함
- ▶ **예산운영** : 세종학당 운영 지원금 독립 계좌 개설 및 관리.집행
- ▶ **과정운영** : 최소 초급 또는 중급 수준 2개 과정 이상 개설, 연 30주 이상 강좌 운영
한 강좌는 주당 120분 이상
문화 강좌 최소 1개 이상 운영 권고

2

세종학당 교육과정 및 교육자료

1. 세종학당 교육과정
2. 주요 교재
3. 보조 자료



1. 세종학당 교육과정

기본 교육과정 설계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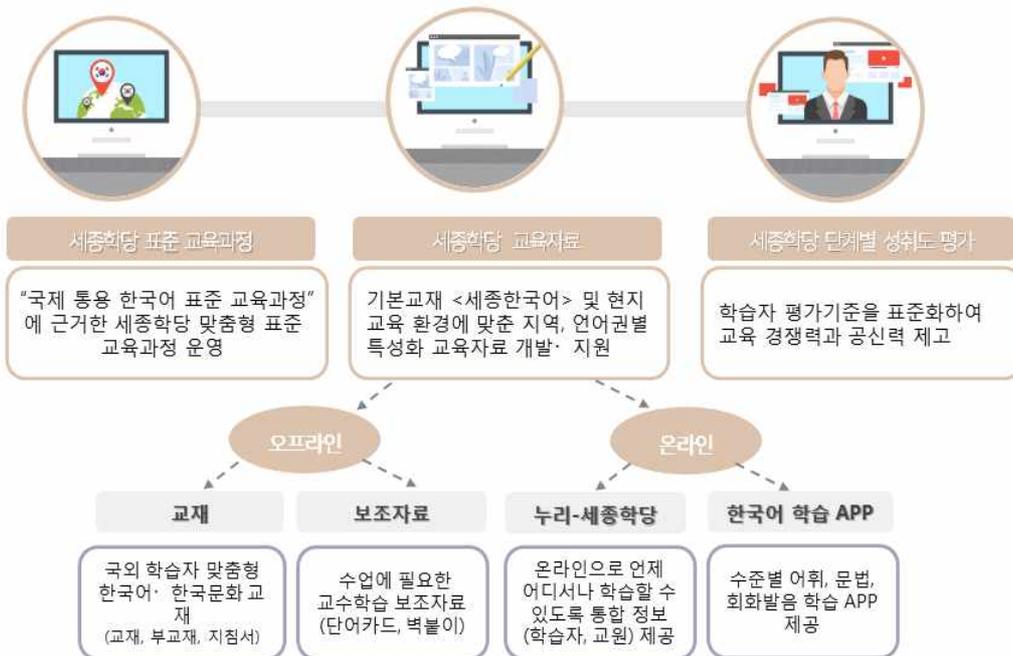
- 국립국어원 국제통용한국어 표준모형중 세종학당 모형설계(2011)
- 재단·세종학당 교육과정 운영연구(2015, 2016)
- * <세종한국어>, <세종한국어회화>, <세종한국문화> 교육과정 설계

세종학당 기본 교육과정 체계

구분	일반과정								심화과정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등급	초급1	초급2	중급1	중급2	고급1	고급2	기관 선택			
세종한국어									기관 선택	
세종한국어 회화										
세종한국문화										

1. 세종학당 교육과정 : 교육자료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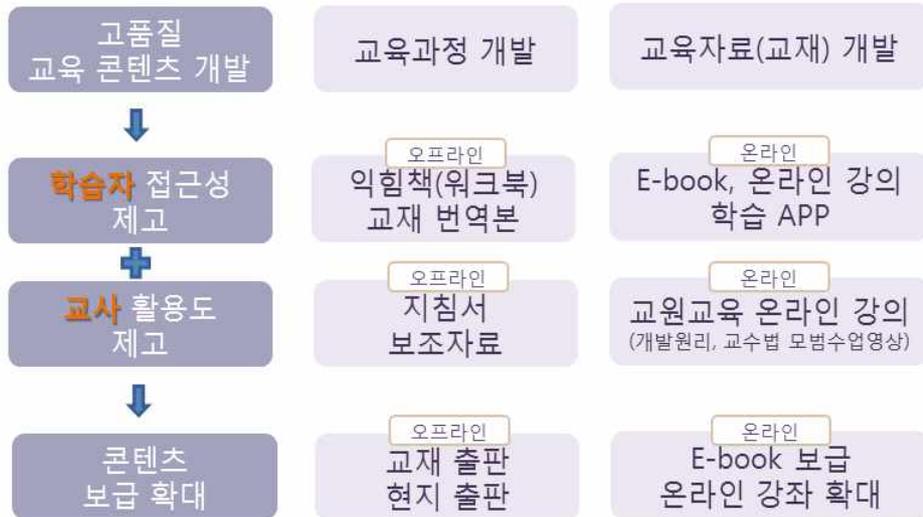
표준 교육과정, 교육자료, 평가에 이르는 체계적 교육 제공을 통해 고품질 한국어 학습 지원



1. 세종학당 교육과정 : 교육자료 구성



수요자별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체계를 통해 고품질 교육자료를 효과적으로 확산



2. 주요 교재



고
려
교
재



구성
수준: 초급 2단계
영역: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언어: 한국어, 영어

연계 콘텐츠
오프라인: (세종한국문화) 교원용 지침서 및 부교재
온라인: (세종한국문화) 교수/학습 보조 자료

세종한국어 회화 1



구성
수준: 초급 2단계 + 중급 2단계(총 4단계)
영역: 말하기, 듣기
언어: 한국어, 영어

연계 콘텐츠
오프라인: 교원용 지침서
온라인: <세종한국어 회화> 초·중급 강의 콘텐츠,
세종한국어 회화발음(초·중급) 학습 앱

2. 주요 교재



교육과정 특징

국내외 한국기업으로의 취업을 목표로 하는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특수 목적 한국어 교육 과정

구성

수준: 초급 2단계(세종한국어 3, 4)
영역: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언어: 한국어

연계 콘텐츠

오프라인: 교원용 지침서, 학습 보조자료(부교재)
온라인: 비즈니스 한국어 초급 강의 콘텐츠



2. 주요 교재



교육과정 특징

한국에 관심이 있거나 한국 여행을 꿈꾸는 외국인 학습자들이
한국 여행 시 부딪히는 다양한 상황에 활용할 수 있는 표현과 문화정보
위주로 내용 구성

구성

수준: 초/중급 학습자(세종한국어 2~세종한국어 5)
구성: 교재, 교원용 지침서, 보조자료
(어휘 사전, 대화 초록집, 여행 다이어리)
언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연계 콘텐츠

오프라인: 번역본, 교원용 지침서, 보조자료
(어휘 사전, 대화 초록집, 여행 다이어리)
온라인: 누리-세종학당 E-BOOK 콘텐츠



3. 보조 자료(번역본)

**지시문
문법설명
더
알아보세요**

번역본 제공

3. 보조 자료(교사용 지침서)

01 저는 이지윤이에요

학습 목표

1. 제와 친한 사람을 소개하고 자기 자신을 소개할 수 있다.
2. 이름, 직업, 나이, 성을 소개할 수 있다.

학습 내용

- 인사
- 직업, 나이
- 물건
- 인사말(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 직업, 나이
- 인사말(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분	주제	주제 설명	주제 설명	주제 설명	주제 설명
1차	1차 1차	안녕하세요 인사하기	안녕하세요 인사하기	안녕하세요 인사하기	안녕하세요 인사하기
	1차 2차	안녕하세요 인사하기	안녕하세요 인사하기	안녕하세요 인사하기	안녕하세요 인사하기
	1차 3차	안녕하세요 인사하기	안녕하세요 인사하기	안녕하세요 인사하기	안녕하세요 인사하기
2차	2차 1차	안녕하세요 인사하기	안녕하세요 인사하기	안녕하세요 인사하기	안녕하세요 인사하기
	2차 2차	안녕하세요 인사하기	안녕하세요 인사하기	안녕하세요 인사하기	안녕하세요 인사하기
	2차 3차	안녕하세요 인사하기	안녕하세요 인사하기	안녕하세요 인사하기	안녕하세요 인사하기
3차	3차 1차	안녕하세요 인사하기	안녕하세요 인사하기	안녕하세요 인사하기	안녕하세요 인사하기
	3차 2차	안녕하세요 인사하기	안녕하세요 인사하기	안녕하세요 인사하기	안녕하세요 인사하기
	3차 3차	안녕하세요 인사하기	안녕하세요 인사하기	안녕하세요 인사하기	안녕하세요 인사하기

학습 목표 **학습 내용**

지침서의 첫머리에는 해당 단원의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두어 교사들이 교육 목표를 숙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업 개요

- 「세종한국어 회화」 교재는 각 단원이 세 개의 Part로 나누어져 있으며 Part1, Part2는 '어휘'와 '표현', Part3는 '연습해요', '이야기해 봐요', '듣고 말해요', '자기 평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수업 개요'에서는 각 파트별 수업 진행의 전반적인 흐름을 제시하여 교사들이 한눈에 수업 절차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온라인 한국어, 한국문화 학습 콘텐츠

1. 온라인 학습 사이트 누리-세종학당
2. 온라인 영상 강의 콘텐츠
3. 스마트 러닝 콘텐츠
4. 온라인 한국어 레벨 테스트
5. 온라인 교육자료 수업 시 활용 예시

1. 온라인 학습 사이트 누리-세종학당



1. 온라인 학습 사이트 누리-세종학당

The screenshot shows the website interface for Nuri-Sejong Hakdang. At the top, there are navigation tabs for '배워요' (Learn), '즐거워요' (Enjoy), '알아봐요' (Know), and '함께해요' (Share). Below this is a large banner for the '2018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 (2018 World Korean Educators Conference) with the URL www.sejonghakdang.org. A sidebar on the right promotes the 'Nuri-Sejong Hakdang UCC Contest' from April 1 to May 31, 2019. The main content area is divided into four categories: '표준과정' (Standard Course), '종합과정' (Comprehensive Course), '코스넷과정' (CourseNet Course), and '자료' (Resources). Under '표준과정', there are four course cards: '세종한국어 입문' (Sejong Korean Introduction), '비즈니스 한국어 1' (Business Korean 1), '세종한국어 회화 1' (Sejong Korean Conversation 1), and '세종한국어 회화 2' (Sejong Korean Conversation 2). Each card shows a thumbnail, title, and engagement metrics like views and likes. At the bottom, there are four buttons for content types: '온라인 한국문화 소개 / 체험 영상 콘텐츠' (Online Korean Culture Introduction/Experience Video Content), '웹툰 콘텐츠' (Webtoon Content), '온라인 한국어 영상 강의 콘텐츠' (Online Korean Video Lecture Content), and '한국어 자가학습 콘텐츠' (Korean Self-learning Content).

2. 온라인 영상 강의 콘텐츠

세종한국어 회화 1~4(초급, 중급)

The image shows three computer monitors displaying video lecture content. The central monitor shows a woman speaking with the text '찾다 + 있었어요' and '↓' followed by '찾았어요'. The left monitor shows a group of people sitting on a stage. The right monitor shows a group of people eating at a table. Below the monitors are two boxes with details:

운영 목적

<세종한국어 회화 1~4>교재 기반 온라인 영상강의 콘텐츠 개발
 초급: 웹드라마 활용 회화 학습 진행
 중급: 한국어 선생님 및 외국인 학습자 참여 방식의 내용 구성

언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2. 온라인 영상 강의 콘텐츠



비즈니스 한국어 1~2 (초급)



운영 목적

«바로배워 바로쓰는 비즈니스 한국어 1,2» 내용 기반 온라인 영상 강의 교재 저자의 직접강의 진행 및 실제 외국인 출연을 통한 표현 사용 사례 습득 가능

언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2. 온라인 영상 강의 콘텐츠



함께 즐겨요 한국문화



운영 목적

한국을 찾은 세종학당 학습자가 각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한국문화를 체험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제작
K-POP, 태권도, 한식, 한옥

언어

한국어, 영어, 중국어

3. 스마트 러닝 콘텐츠



온라인을 활용한 학습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한국어/한국문화를 학습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을 활용한 교육 인프라 구축

<세종한국어> 기반 한국어 학습 앱



어휘 학습 앱(초·중급)

세종학당 한국어 초·중급 어휘(4,700여 개) 수록
한국어 어휘별 사진·심화 제공
다양한 예문 제시



문법 학습 앱(초급, 중급1)

애니메이션으로 문법 설명
연습문제(120항목) 제시



회화·발음 학습 앱(초급, 중급1)

대화문을 보며 회화표현 학습
직접 듣고 말해 보는 활동 제공



앱 3종 굿콘텐츠서비스인증 획득
(한국데이터진흥원)

앱 3종 32만 다운로드 달성
(2018년도 12월 기준)

3. 스마트 러닝 콘텐츠



온라인을 활용한 학습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한국어/한국문화를 학습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을 활용한 교육 인프라 구축

<세종한국어> 기반 한국어 학습 앱



어휘 학습 앱(초·중급)

세종학당 한국어 초·중급 어휘(4,700여 개) 수록
한국어 어휘별 사진·심화 제공
다양한 예문 제시



문법 학습 앱(초급, 중급1)

애니메이션으로 문법 설명
연습문제(120항목) 제시



회화·발음 학습 앱(초급, 중급1)

대화문을 보며 회화표현 학습
직접 듣고 말해 보는 활동 제공



앱 3종 굿콘텐츠서비스인증 획득
(한국데이터진흥원)

앱 3종 32만 다운로드 달성
(2018년도 12월 기준)

3. 스마트 러닝 콘텐츠



고급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앱



시사한국어어휘(고급)
뉴스영상을 보고 들으면서 한국어 고급 어휘 학습

<세종한국문화1> 기반 문화 체험 앱



세종한국문화
<세종한국문화1> 더 해보기 활동지원
AR, 에듀테크를 접목하여 능동형 학습 지원
지도, AR명소체험, 문화체험, 영상지원

4. 온라인 한국어 레벨테스트



목적

학습을 시작하기 전, 자신의 수준에 맞는 학습 콘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발

구성

대상: 세종학당 예비학습자, 누리-세종학당 학습자
등급: 초급, 중급 테스트를 선택하여 총 8단계로 평가
평가영역: 듣기/읽기 영역 평가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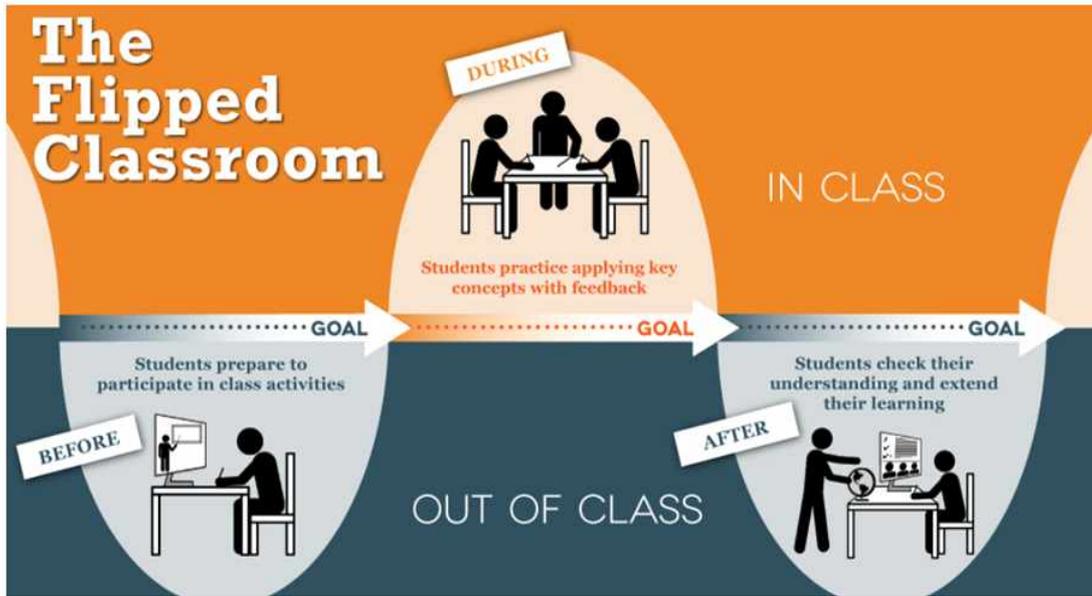
- 특별한 프로그램 설치 없이 컴퓨터나 휴대전화로 언제 어디서 응시가 가능
- 시험결과를 바로 확인 가능하며, 학습자 수준에 맞는 누리-세종학당 교육 콘텐츠를 추천



5. 온라인 교육자료 수업 시 활용 예시



플립러닝 수업 과정



5. 온라인 교육자료 수업 시 활용 예시



세종한국어 회화1 강의 콘텐츠 활용 온·오프라인 통합 교육과정 운영 모형 예시(1~2)

	온라인						
	Part1		Part2		Part3		
1주	어휘 및 표현	문법	어휘 및 표현	문법	연습해요		
	1시간		1시간		1시간		
2주	오프라인					온라인(과제)	
	Part3						
	이야기해 봐요		듣고 말해요		웹드라마	학습하기	연습하기
	1.5시간		1.5시간		1차시	2차시	3차시

온·오프라인 통합 '세종한국어 회화1' 집중형 모형 수업 구성 예시 1

	Part1			Part2		
	1주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	오프라인
웹드라마		어휘 및 표현	문법	학습하기	어휘 및 표현	문법
1차시		1.5시간		2차시	1.5시간	
2주	Part3					
	오프라인					
	연습해요			이야기해 봐요		듣고 말해요
	1시간			2시간		

온·오프라인 통합 '세종한국어 회화1' 집중형 모형 수업 구성 예시 2

5. 온라인 교육자료 수업 시 활용 예시



세종한국어 회화1 강의 콘텐츠 활용 온·오프라인 통합 교육과정 운영 모형 예시(3)

	온라인(선행학습)			오프라인				
				Part1		Part2		Part3
1주	웹드라마	학습하기	연습하기	어휘 및 표현	문법	어휘 및 표현	문법	연습해요
	1차시	2차시	3차시	1시간		1시간		1시간
2주	-			Part3				
				이야기해 봐요			듣고 말해요	
				1.5시간			1.5시간	

온·오프라인 통합 '세종한국어 회화1' 집중형 모형 수업 구성 예시 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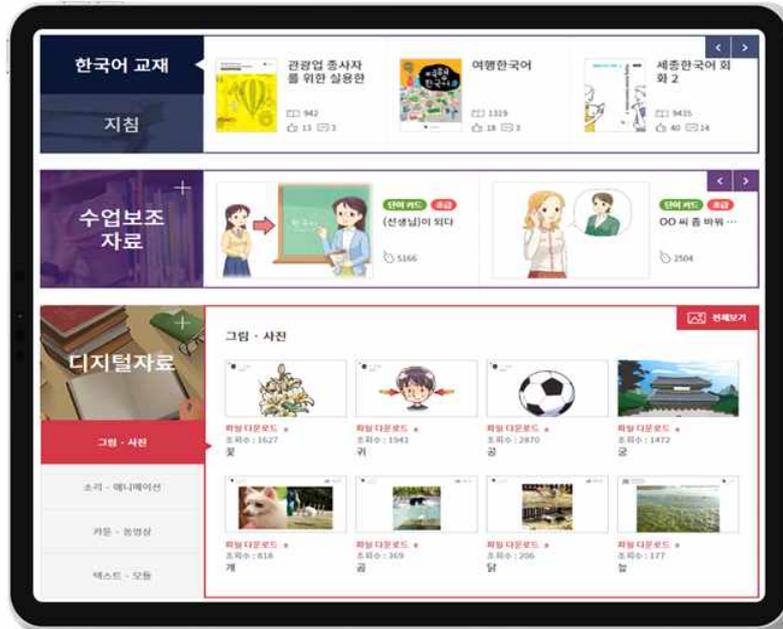
한국어 교사를 위한 교육 자료

1. 한국어 교수 학습 보조자료
2. 한국어 교사 온라인 재교육 콘텐츠

2-5. 교원 대상 온라인 서비스: 한국어교원을 위한 교육자료



교재, 지침서, 단어카드, 사진 자료 등 제공



2-5. 교원 대상 온라인 서비스: 세종학당교원 교육콘텐츠



한국어 교원
온라인 재교육 강의 콘텐츠

세종학당 한국어 교원 온라인 재교육

<한국어 교육>

세종한국어 초급/중급의 실제
세종한국어 회화 교재 이해와 실제

<한국문화 교육>

한국문화교육의 이해와 실제
문화특강 및 문화체험 활동의 이해와 실제



2019. 6월 중 공개 예정
www.sejonghagdang.org

5

세종학당 한국어 교육의 미래

1. 세종학당 한국어, 한국문화 교육의 목표와 방향
2. 주요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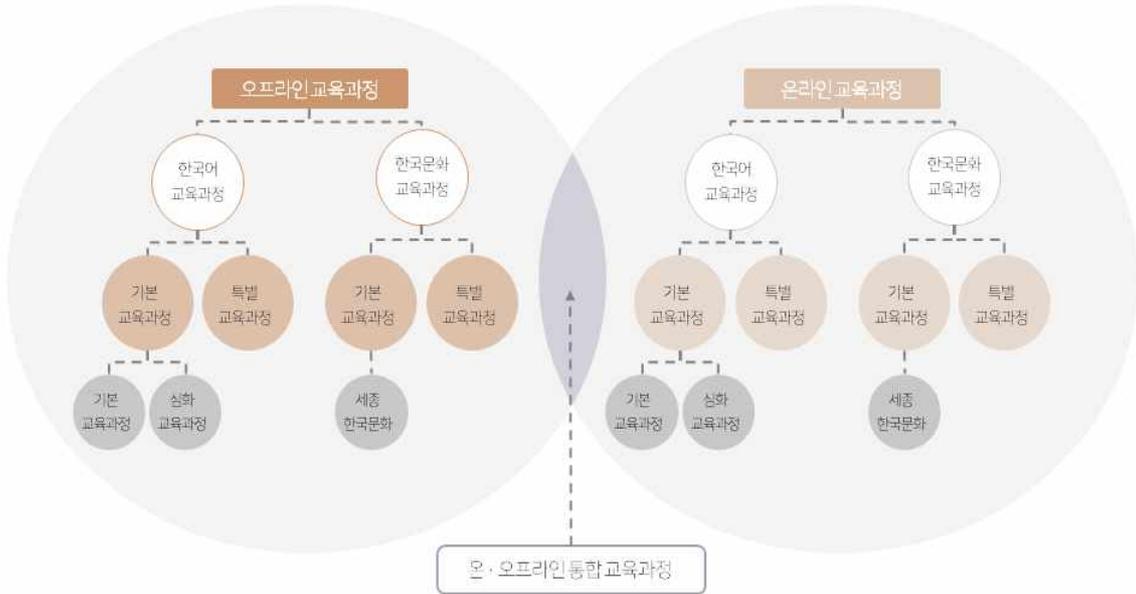
1. 향후 세종학당 한국어, 한국문화 교육의 목표와 전략방향



2. 주요 과제: 세종학당 교육과정 내실화



온·오프라인이 연계된 통합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교육 성과 극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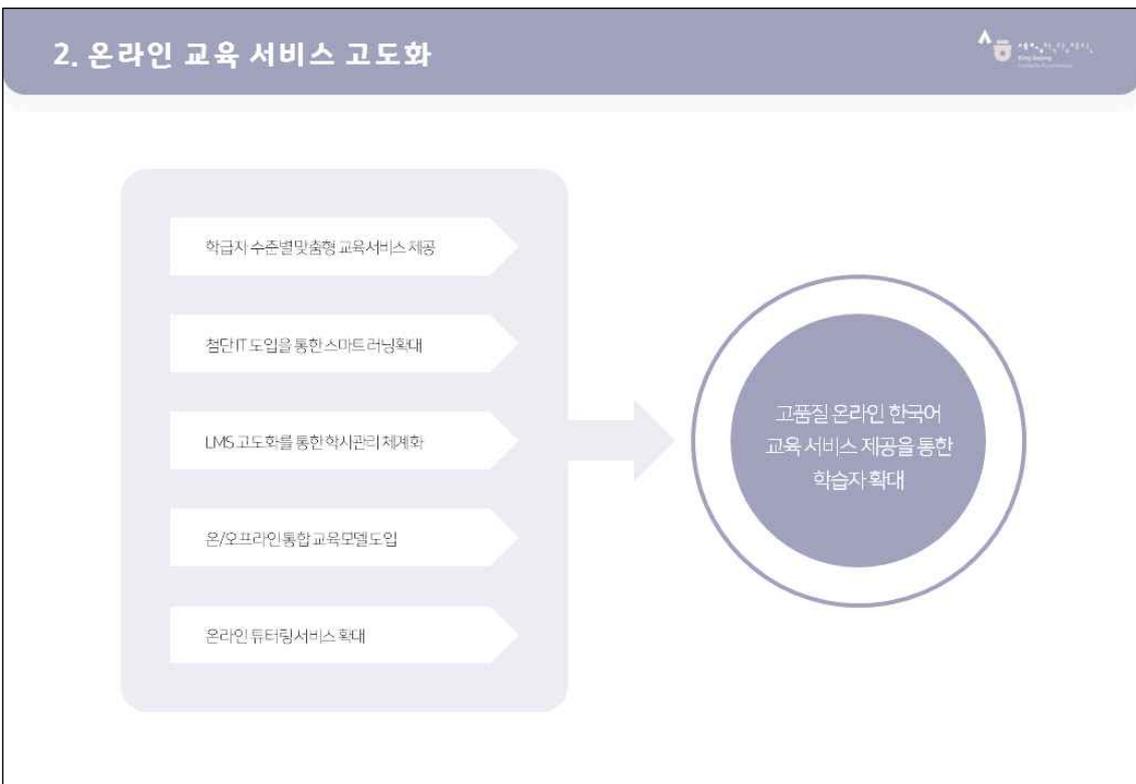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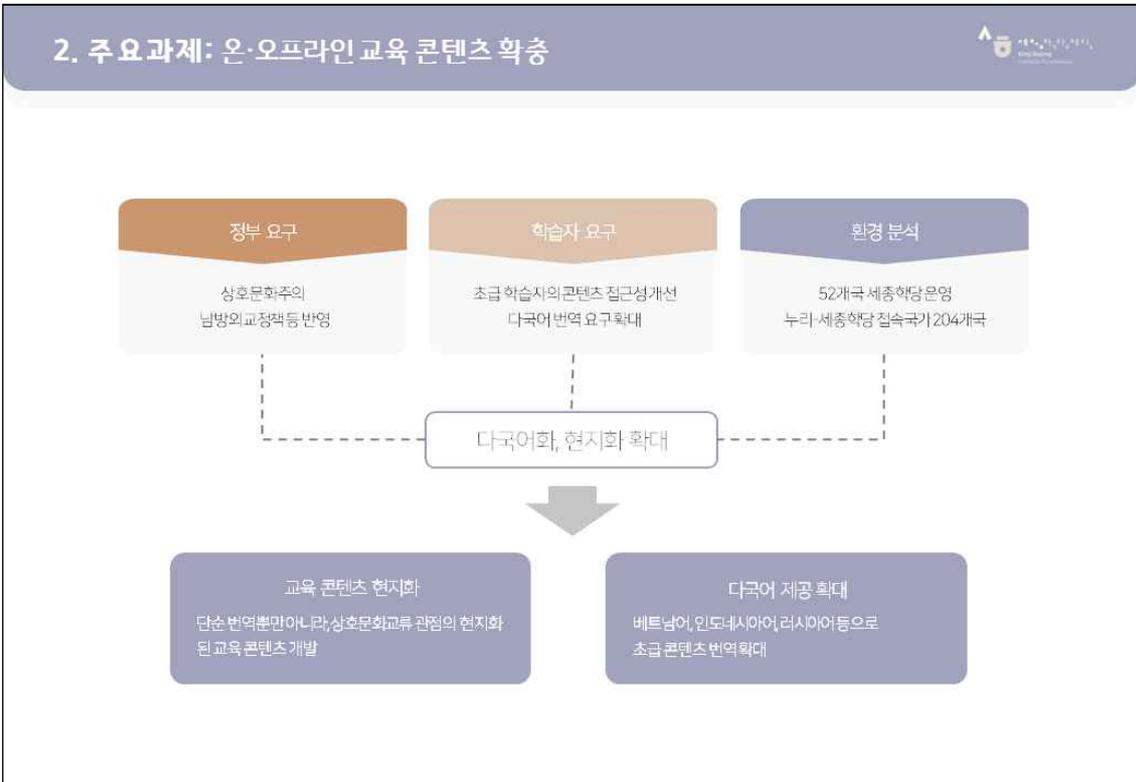


2. 주요 과제: 세종학당 교육과정 내실화



속달도 평가 체계 도입을 통한 세종학당 한국어 교육 품질 내실화





2. 온라인 교육 서비스 고도화



세계 곳곳에 한국을 세웁니다!
 세계가 한국을 꿈꾸게 하는 힘

'세종학당'에 있습니다!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아동을 위한 초등학교 적응용 교육 자료 개발 사례 연구

A case study of the development of Korean language materials for the ready-to-enter non-native children

강남옥(경인교육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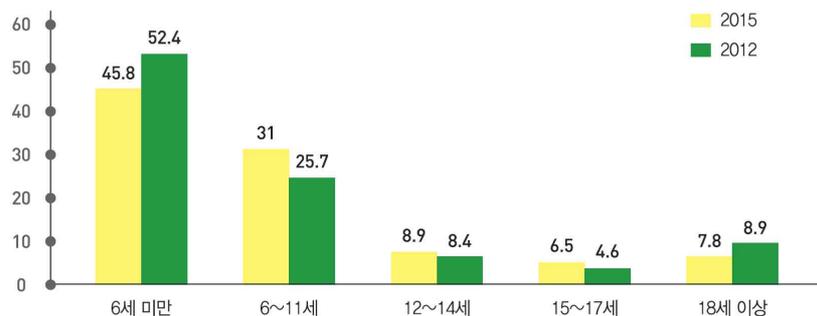
1. 들어가며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의 배경]

- 다문화가정 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 통계기준 6세 미만 다문화가정 자녀는 전체 다문화가정 자녀 중 45.8%로 점차 증가하고 있어 향후 초등교육에 진입하는 다문화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그래프 1-1 다문화가구 자녀 연령(2012, 2015)]



※ 출처 :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분석(여성가족부, 2016)

- 현재 다문화학생이 학교에 등록·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지원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다문화가정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률은 국내 평균과 비슷한 수준임.
- 그러나 다문화가정의 아동은 학교생활에서 언어 및 학습, 문화차이로 어려움을 호소하며, 이에 대한 예방과 지원 부족으로 학교에 부적응하거나 중도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함.

[다문화가정 아동의 어려움]

- 9~11세 다문화가정 아동이 학교를 다니다 그만둔 이유는 학교생활 문화가 달라서(27.6%), 한국어를 잘 몰라서(24.1%), 나이 어린 아이들과 다니는 게 싫어서(22.4%), 친구·선생님 관계 때문에(10.3%) 순으로 나타남(2015년 여성가족부 통계).
- 9~11세 다문화가정 아동이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서(57.7%), 학교공부에 흥미가 없어서(41.9%),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해서(32.5%)순으로 나타남(2015년 여성가족부 통계).
- 9~11세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부모는 자녀가 학교공부를 어려워하고(23%), 학습지원이 필요하며(53%), 자녀에게 한국사회 적응교육(문화체험, 예절교육 등)이 필요하다고(23%) 생각하는데, 특히 외국에서 주로 성장한 경우 46%

가 한국사회 적응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함(2015년 여성가족부 통계).

- 입학 초기 단계부터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습부진을 예방하고, 지원해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 방법이 미비한 수준이며, 학생들의 학습 부진을 진단하고 평가할 방법 등에 대해서도 준비되지 못한 실정(교육개발원, 2009).

[다문화가정 부모의 교육지원 요구]

- 5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77.4%가 부모역할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한국어 가르치기(31.4%)가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힘.
- 학령기 자녀가 있는 경우도 76.8%가 학부모로서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자녀가 배우는 교과목이나 학교생활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29.6%)이며, 그 다음으로는 경제적 지원(12.9%), 다른 학부모와의 대화나 정보 습득의 어려움(12.4%)으로 나타남.
- 다문화 가정은 일반 가정보다 한국어 학습 환경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문화가정 유아는 ‘언어발달지연(40.2%)’, ‘자신감, 자아정체감 부족’(13.4%), ‘기본생활습관문제(12.7%)’, ‘학습(인지)발달지연’ 등의 문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나(전국보육실태조사, 2012), 이러한 문제가 초등학교 입학 후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 미취학자녀를 가진 다문화가정 중에서 16.6%만이 교육기관인 유치원을 보내며, 56.3%가 어린이집, 27%가 돌봄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다문화가정 아동의 유치원 취학을 통계는 보고된 바 없으나, 국내 평균 유치원 취학률(2015년 기준 48.9%)에 크게 밀도는 수치를 보임.
- 따라서 입학하기 전 학교문화적응과 학교학습 준비를 도와줄 수 있도록 돕는 초등학교 입학 전 학교적응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가 필요함.

[기존 입학 전 안내 프로그램의 한계와 나아가야 할 방향]

- 초등학교 입학 전 준비프로그램 개발 사업은 현재 다문화 유치원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음.
- 기존 초등학교 입학 전 안내는 주로 학부모를 위한 입학절차 안내로, 입학 절차 및 과정, 한국교육 제도의 소개 등 행정적 정보 제공 중심.
- 초등학교 입학 전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정 부모를 대상으로 한 일회성 강연이 많았으며, 학교생활준비, 학교행정, 자녀양육 등과 관련된 내용이 다루어짐.
- 따라서 다문화가정 아동을 주 대상으로, 부모 또한 필요한 정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된 입학 전 프로그램이 필요함.
- 설계해야 할 프로그램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 (1) 다문화가정 아동이 한국의 학교문화와 학교생활, 규칙, 학습준비 등을 다방면으로 체험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 (2) 교사가 입학 전 다문화가정 아동 및 부모와 유대감과 더불어 상호이해를 형성하며,
 - (3) 교사가 입학할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이해하고 한국어 수준 및 준비도 등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면서 도와줄 수 있으며,
 - (4) 다문화가정 부모가 자녀가 다닐 학교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구성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 연구(교육자료 개발)의 목적]

- 이 연구는 취약 계층의 다문화가정 예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적응을 다각도로 도와줄 수 있는 입학 전 학교적응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활용에 대한 수월성을 높이기 위하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1.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연구의 전반적인 내용]

- 지금까지 개발된 초등학교 적응을 위한 다문화 예비 프로그램, 또는 관련된 교육 기회 균등 관련 담론이나 이론 등을 선행 연구, 기 개발된 자료와 보고서 등을 통해 분석하여 내용을 도출함.
- 국내출생 다문화배경, 또는 중도귀국/외국국적 다문화 배경 초등학교 취학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전프로그램(가칭 '징검다리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의 설계와 관련하여 이에 대한 실질적인 수요와 요구 내용을, 다문화 교육 정책학교 담당 교원을 비롯한 현장 교원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 인터뷰, 협의회 등을 통해 수집·분석함.
- 교육 기회 균등의 차원에서 초등학교 취학자를 대상으로 한 예비 프로그램의 해외 운영 사례 또는 연구 보고가 있는지 문헌 조사하고 이를 분석함.

[학교전 프로그램의 적합 모형 설계와 프로그램 내용 구성]

- 위에서 언급한 '징검다리 프로그램'의 교육 실러버스와 자료를 적용할 수 있는 적합한 시행 시기, 운영 시간, 담당 운영자, 대략의 소요 비용과 재원 및 집행 방법, 운영 장소, 모집(참여) 방법과 학생 배치 등 적합 모형에 대한 설계를 우선 시도함. 이를 위해 현장 전문가, 교사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 또는 포커스그룹 인터뷰(FGI) 등을 통해 최적의 모형을 도출함.
- 이를 바탕으로 실제 '징검다리 프로그램'의 구성 내용을 작성함. 앞서 연구 계획에서 기술한 현황에 따라, 유치원 교육 등을 접하지 못하거나 한국의 초등학교에 익숙하지 못한 가정을 대상으로 학교 안내를 위해 필요한 사항과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구안함.
- 다문화 예비학교 등의 경력자 교사를 인력풀로 구성하여 프로그램의 내용으로 구안한 것을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실제 교육 자료, 지침 자료, 활동 자료를 개발함. 이를 위해 문헌 연구를 통해 분석한 기존 자료의 재구성과 재활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음.
- 최종적으로는 위 단계에서 진행한 것을 적절한 교육 자료로서 기능할 수 있는 교육 자료집으로 개발하였으며, 2019년 4월에 국가평생교육원 중앙다문화교육센터에서 중도입국/외국국적 학생용, 국내출생 다문화 학생용 워크북 및 지도서 각 1종(총 4권)과 학부모용 연계자료 1종을 최종적으로 개발 완료되었음. (연구보고서는 중앙다문화교육센터 홈페이지에 있음 www.nime.or.kr)

[연구의 범위와 방법]

- 연구의 대략적인 범위와 추진 방법은 아래 표와 같았음.

개발 단계	연구 범위	방법
프로그램 관련 선행 연구 및 사례 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이론적 근거 분석 ○ 관련 프로그램 운영 사례(해외 사례 포함) 분석 ○ 프로그램 실시에 대한 현장전문가 의견 수집 	문헌연구 설문지연구
프로그램 내용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주기관·정책담당관 협의를 통한 운영방법 기획 ○ 현장 전문가 집필진을 중심으로 프로그램 개발 ○ 프로그램별 학습 자료, 지침, 활동지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용 활동지침서와 학습자용 교재로 개발 - 국내출생용, 중도입국자녀용을 구분하여 개발 	전문가협의 내용개발
수정 및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전문가 및 전문가 감수와 협의 ○ 개발 내용에 대한 수정 및 보완 ○ 편집과 디자인, 출판 	집필과 검수 전문가협의

[학교전 프로그램의 구성 방향]

• 프로그램 운영 방법

- (1) [주요 내용] 주제관련 활동(체험)
- (2) [모집 인원] 1학급 15명 이내
- (3) [모집 대상]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예정인 다문화학생
- (4) [운영 장소] 입학 예정인 학교 내 교실 및 기타시설
- (5) [참여 방법] 예비소집 시 신청접수 → 한국어(의사소통) 진단을 통한 선발
- (6) [운영 시간] 총 20시간(1주, 1일 4시간 이내, 중식(급식) 포함)
- (7) [교육 담당] 다문화교육 담당교사 또는 희망교사

• 참가 학생에게 구현하고자 하는 교육적 방향

- ✓ [자존감과 자신감] “학교 다니면 재미있을 거야.”, “앞으로 다닐 학교생활이 궁금하고 기대돼.”, “학교에 다니기 시작해도 겁먹지 않고 다닐 수 있어.” 등
- ✓ [학교생활과 학교 내 기본 규칙 이해] “수업 시간은 40분이고 나는 그 동안 수업을 들어야 하는구나.”, “화장실은 보통 쉬는 시간 사이에 다녀오는구나.”, “급식실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구나.”, “신발장에 신발을 넣고 실내화를 신고 다니는구나.”, “줄을 서서 이동하는구나.” 등
- ✓ [교사와 교우 사이의 관계 예절] “선생님을 만나면 인사를 이렇게 나누는구나.”, “이름을 이렇게 불러서 친구를 부르는구나.”, “친구에게 물건을 빌리거나 할 때는 이렇게 하는구나.” 등
- ✓ [학습과 수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시간표는 이렇게 되어 있구나.”, “다음 날 준비물을 이렇게 확인해서 가방에 어떤어떤 책과 준비물을 넣어 가는구나.”, “수업 시간이 되면 책을 펴놓고 기다리는구나.”, “발표는 손을 이렇게 들어서 하는구나.” 등
- ✓ [문제해결 방법에 대한 인지] “(이러한 종류의) 문제가 있으면 담임 선생님께 요청하면 되는구나.”, “내 주변에 나를 돕는 사람은 누구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구나.” 등

• 세부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범주와 주요 주제어(키워드)

구분		세부내용 관련 주제어	교육담당(안)
생활영역	시설이용	교실(복도, 계단), 화장실, 급식실, 도서실, 특별실	부장교사 (학년 또는 인성)
	규칙	등·하교, 학습평가, 알림장, 통신문	
	건강관리	건강검진(예방접종), 위생지도	
정서영역	개인정서	자기이해, 가족소개, 자존감 향상, 공동체 의식	상담교사
	교우관계	감정조절, 친밀감 형성, 도움 요청·거절	
학습영역	학습습관	한국어 및 한국문화교육, 숙제, 예습·복습, 준비물, 발표하기, 시간표 보기	담임교사
학부모 교육		학생 관련 면담, 학제안내, 건강(위생)관리 방법, 자녀교육법(가정 내 학습·생활지도 등)	

2. 학교전 프로그램 2종의 특성과 구성

2.1 프로그램 구성상의 특징과 주요 내용

[개발 형태와 형식상의 특징]

- 개발형태는 학생용 워크북과 교사용 지도서 각 2종(중도입국용/국내출생용), 학부모 연계 안내자료(학교생활과 학사 과정 이해 도모)로 제작 구상
- 형식상 특징으로는, 학교의 상황에 따라 3~4차시에서부터 20차시까지 내용 중 필요한 부분을 선택하여 모듈형, 활동형으로 구성함.
- 기본 1일 최대 4차시(중식 포함)로 구성
- 4차시 1단원(4차시)으로 하여 총 5단원(4차시×5일=20차시)로 구성
- 모듈형으로 구성하여 단원 순서와는 관계없이 각 학교의 여건에 따라 희망하는 부분만을 적절히 선택, 활용할 수 있음(중식 생략 가능)
- 교재를 다 하지 않고 '남겨 둔다'는 인식을 없애기 위해 자율적으로 제작할 수 있고, 학생들의 산출물을 쉽게 철회(綴)할 수 있는 바인딩형 교재*로 구성
 - 바인딩형 교재는 ESL 워크북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형식
- 학습 기간 동안 학교에 보관해 두고 마지막에 가져가도록 하는 방식으로 활용
 - 유치원에서 두루 쓰이는 방식을 따라 바인더에서 낱장 종이를 빼어 가져가서 가정 연계 방식으로 활용 가능

[교육 내용 및 내용상의 특징]

- 교육 내용상으로는, 각 학습자별(국내출생/외국국적용) 특성에 따라 생활영역과 학습영역의 내용을 학생 중심의 활동 형식으로 재구성하는 방식을 특징으로 함.
- 이상의 내용을 도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생활영역	학교규칙	시설이용, 집단생활(교우관계), 예의·예절, 안전교육 등
	생활습관	등·하교, 가방·준비물 챙기기, 알림장·가정통신문 등
학습영역	학습습관	시간표 보기, 교과 이해, 수업 지시 이해 등
	동기부여	자기주도성, 학습에 관련한 대인 관계 형성 등

- 활동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교재'보다는 '워크북'의 개념으로 접근
- 워크북에는 게임, 그리기, 만들기, 노래부르기 등의 활동만을 제시함
- 워크북에는 지시어를 포함, 가급적 최소한의 문자(텍스트)만을 노출
 - 특히 중도입국 다문화 학생용에는 활동 지시어를 모두 아이콘으로 대체 (일부만 제시)

구분	활동명	내용	구분	활동명	내용
	챗트	리듬과 박자에 맞추어 목표 표현을 반복하여 말하기		공부	학생들이 목표 표현을 배우며 학습하기
	놀이	목표 표현을 익히기 위한 다양한 게임하기		미술 활동	그리기, 색칠하기, 만들기와 같은 미술 활동하기

- 국내출생 다문화 학생용에는 만6세 수준의 지시어를 적절히 노출

- 내용상 특징: 중도입국 다문화 학생용 프로그램은 최초 학교 적응과 최소한의 구어 한국어 표현으로, 국내출생용 다문화 학생용 프로그램은 자존감, 자기주도성 증진과 교우관계 등의 관계성을 돕는 내용으로 구성
- 중도입국 다문화 학생용과 국내 출생 다문화 학생용의 단위 구성이 전혀 다름
- 중도입국 다문화 학생용에서는 한국어의 난이도나 구문상의 접근, 문법적 접근을 배제하고 학교생활에서의 중요도, 출현 빈도 등을 기준으로 통문장 형식으로 제시
 - 다만 챗트 형식을 통해 필요한 표현은 반복 연습하여 구문을 익히도록 함. ((V)-아/어 주세요. (V)-지 마세요. 등)
- 국내출생 다문화 학생들의 경우 전문가 협의회와 현장 교사와의 면담 등을 토대로 학생들의 자존감과 자아효능감, 자기주도성 등을 향상시키고 관계를 원활히 하는 표현('미안해', '고마워', '괜찮아', '~도(면) (안) 돼' 등)에 주목
- 양 교재 모두 보건과 위생, 건강 등의 키워드를 구현하는 단위 구성
- 자세한 단위 구성과 차시 계획은 아래에 다시 제시하며, 발표일에 예시(샘플) 단위 제시

2.2 중도입국/외국국적 다문화 학생용 <징검다리>

[단원별 구성]

첫 번째 징검다리: 선생님과 나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생활의 기본 일과 체계를 이해하여 수업시간과 쉬는 시간을 구분할 수 있다. ● 교실에서 사용되는 기본적인 지시어를 듣고 이해하여 반응할 수 있다. ● 간단한 한국어를 사용하여 자기소개를 할 수 있다. 																							
차시별 지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실 언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 -(으)세요. (앉으세요. 일어서세요. 보세요. (책) 가져오세요. 준비하세요.) ▶ 학생: ○○초등학교 1학년 ○반 ○○○입니다./안녕하세요? 안녕? 만나서 반가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차시</th> <th style="width: 15%;">목표 표현</th> <th style="width: 15%;">학습 주제</th> <th style="width: 60%;">학습 활동</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style="text-align: center;">V-(으)세요</td> <td style="text-align: center;">기초 지시어(1)</td> <td> - 시작종과 마침종이 울렸을 때 해야 할 바른 행동 학습하기 - TPR(교실 언어를 듣고 몸으로 움직이기) - 파리채 게임(교사의 지시어를 듣고 알맞은 그림 찾기)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 style="text-align: center;">V-(으)세요</td> <td style="text-align: center;">기초 지시어(2)</td> <td> - 교실 언어가 포함된 노래 부르기 - Pass the ball(교실 언어를 듣고 그림 카드 꺼내기)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d style="text-align: center;">인사 표현</td> <td style="text-align: center;">소개하기(1)</td> <td> - 교실 언어가 포함된 노래 부르기 - 이름을 맞춰라!(친구 이름 맞추는 놀이하기)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4</td> <td style="text-align: center;">소개 표현</td> <td style="text-align: center;">소개하기(2)</td> <td> - 그림 그리기를 통한 자기소개 하기 - 그림을 보고 누구인지 맞추기 </td> </tr> </tbody> </table>				차시	목표 표현	학습 주제	학습 활동	1	V-(으)세요	기초 지시어(1)	- 시작종과 마침종이 울렸을 때 해야 할 바른 행동 학습하기 - TPR(교실 언어를 듣고 몸으로 움직이기) - 파리채 게임(교사의 지시어를 듣고 알맞은 그림 찾기)	2	V-(으)세요	기초 지시어(2)	- 교실 언어가 포함된 노래 부르기 - Pass the ball(교실 언어를 듣고 그림 카드 꺼내기)	3	인사 표현	소개하기(1)	- 교실 언어가 포함된 노래 부르기 - 이름을 맞춰라!(친구 이름 맞추는 놀이하기)	4	소개 표현	소개하기(2)	- 그림 그리기를 통한 자기소개 하기 - 그림을 보고 누구인지 맞추기
차시	목표 표현	학습 주제	학습 활동																					
1	V-(으)세요	기초 지시어(1)	- 시작종과 마침종이 울렸을 때 해야 할 바른 행동 학습하기 - TPR(교실 언어를 듣고 몸으로 움직이기) - 파리채 게임(교사의 지시어를 듣고 알맞은 그림 찾기)																					
2	V-(으)세요	기초 지시어(2)	- 교실 언어가 포함된 노래 부르기 - Pass the ball(교실 언어를 듣고 그림 카드 꺼내기)																					
3	인사 표현	소개하기(1)	- 교실 언어가 포함된 노래 부르기 - 이름을 맞춰라!(친구 이름 맞추는 놀이하기)																					
4	소개 표현	소개하기(2)	- 그림 그리기를 통한 자기소개 하기 - 그림을 보고 누구인지 맞추기																					

두 번째 징검다리: 학교와 나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를 돌아보며 학교 안 여러 장소의 명칭과 역할에 대해 알 수 있다. ● 학교 안의 여러 장소를 사용하는 규칙에 대해 알 수 있다. ● 간단한 한국어를 사용하여 장소 이동을 요청 할 수 있다. 			
차시별 지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실 언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 -(으)세요. (앉으세요. 일어서세요. 보세요. (책) 가져오세요. 준비하세요.) ▸ 학생: -어/아도 돼요? (화장실 가도 돼요? 물 마시러 가도 돼요? 보건실 가도 돼요?) 			
	차시	목표 표현	학습 주제	학습 활동
	1	장소 명칭	학교 돌아보기(1)	- 학교 안 장소의 명칭과 역할 학습하기 - 그림빙고(장소 명칭 익히기)
	2	장소 명칭, -(으)세요.	학교 돌아보기(2)	- 학교 안 장소를 직접 돌아보기 - 장소 찾아가기 놀이하기
	3	-(으)세요. -어/아도 돼요?	학교 시설 이용하기(1)	- 복도와 계단통행 놀이하기 - 올바른 화장실 사용방법 알기 - 교실 언어가 포함된 노래 부르기
4	장소 표현	학교 시설 이용하기(2)	- 올바른 도서관 이용방법 알기 - 젓가락질 연습하기 - 분리수거 해보기	

세 번째 징검다리: 교실과 나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실 안에서 볼 수 있는 사물과 볼 수 없는 사물을 구별하며 교실 안 사물의 명칭을 알 수 있다. ● 자신의 물건에 이름을 쓸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물건을 찾아줄 수 있다. ● 1학년 때 배우는 교과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교과서 및 준비물을 사물함과 가방에 정리할 수 있다. ● 학교에서의 하루 일과를 알고, 시간표를 볼 수 있다. 			
차시별 지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실 언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 있어요. - 없어요. / 있어요? - 없어요? ▸ 학생: (교실어휘) 연필, 지우개, 책, 공책, 책상, 의자, 준비물 (소유표현) 내 거, 누구 거, ○○ 거 / (시간표현) 오늘, 내일 			
	차시	목표 표현	학습 주제	학습 활동
	1	교실어휘 있어요. 없어요.	학교 교실어휘(1)	- 교실에서 볼 수 있는 사물 찾기 - '교실에 가면' 놀이하기(교실에서 볼 수 있는 사물 명칭 익히기)
	2	소유표현	학교 교실어휘(2)	- 자신의 물건에 이름 쓰기 - '너는 내 짝꿍' 놀이하기(상대의 물건 찾아주기)
	3	교실어휘 교과목 명칭	교과목과 사물함 속 준비물 알기	- TPR(교실 언어를 듣고 몸으로 움직이기) - 교실 언어가 포함된 노래 부르기
4	시간표현	시간표 알기와 준비물 챙기기	- 하루 일과와 시간표 알기 - 책상 서랍 정리와 가방 챙기기	

네 번째 징검다리: 학교 규칙과 나

<p>학습 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의 장소별 필요한 규칙이나 금지 사항을 알고 실천할 수 있다. ● 건강한 치아 관리의 중요성과 치아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을 알 수 있다. ● 신체명칭을 한국어로 알고 '아파요' 표현을 활용하여 말할 수 있다. 																						
<p>차시별 지도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실 언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 -(으)세요. (정리하세요. 우유를 마시세요. 손을 씻으세요. 물을 내리세요.) -지 마세요. (뛰지 마세요. 떠들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 학생: (규칙 및 금지사항 알기, 신체 명칭 익히기) <table border="1" data-bbox="416 555 1361 1003"> <thead> <tr> <th>차시</th> <th>목표 표현</th> <th>학습 주제</th> <th>학습 활동</th> </tr> </thead> <tbody> <tr> <td>1</td> <td>-(으)세요 -지 마세요</td> <td>기초 생활 안전</td> <td>- 학교에서 지켜야 할 규칙 배우기 - 챗트(학교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리듬에 맞춰 말하기) - 말판놀이(각 장소별로 지켜야 할 규칙 말하기)</td> </tr> <tr> <td>2</td> <td>-(으)세요</td> <td>보건·위생 교육</td> <td>- 양치송 함께 부르기(양치의 중요성과 양치 방법 알기) - 주사위 놀이(치아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 알기)</td> </tr> <tr> <td>3</td> <td>신체 명칭</td> <td>신체 명칭 학습(1)</td> <td>- 신체 부위를 직접 그리고 신체 명칭 배우기 - 신체 명칭을 복습하며 나만의 인형 만들기</td> </tr> <tr> <td>4</td> <td>-이/가 아파요</td> <td>신체 명칭 학습(2)</td> <td>- 친구의 신체 그리며 신체 명칭 복습하기 - 신체 명칭을 사용하여 '아파요' 표현 말하기</td> </tr> </tbody> </table>			차시	목표 표현	학습 주제	학습 활동	1	-(으)세요 -지 마세요	기초 생활 안전	- 학교에서 지켜야 할 규칙 배우기 - 챗트(학교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리듬에 맞춰 말하기) - 말판놀이(각 장소별로 지켜야 할 규칙 말하기)	2	-(으)세요	보건·위생 교육	- 양치송 함께 부르기(양치의 중요성과 양치 방법 알기) - 주사위 놀이(치아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 알기)	3	신체 명칭	신체 명칭 학습(1)	- 신체 부위를 직접 그리고 신체 명칭 배우기 - 신체 명칭을 복습하며 나만의 인형 만들기	4	-이/가 아파요	신체 명칭 학습(2)	- 친구의 신체 그리며 신체 명칭 복습하기 - 신체 명칭을 사용하여 '아파요' 표현 말하기
차시	목표 표현	학습 주제	학습 활동																				
1	-(으)세요 -지 마세요	기초 생활 안전	- 학교에서 지켜야 할 규칙 배우기 - 챗트(학교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리듬에 맞춰 말하기) - 말판놀이(각 장소별로 지켜야 할 규칙 말하기)																				
2	-(으)세요	보건·위생 교육	- 양치송 함께 부르기(양치의 중요성과 양치 방법 알기) - 주사위 놀이(치아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 알기)																				
3	신체 명칭	신체 명칭 학습(1)	- 신체 부위를 직접 그리고 신체 명칭 배우기 - 신체 명칭을 복습하며 나만의 인형 만들기																				
4	-이/가 아파요	신체 명칭 학습(2)	- 친구의 신체 그리며 신체 명칭 복습하기 - 신체 명칭을 사용하여 '아파요' 표현 말하기																				

다섯 번째 징검다리: 친구와 나

<p>학습 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가지 감정 표현들을 알고 말할 수 있다. ● “같이 -자”라는 표현을 익히며 친구와 관계를 맺는 방법을 알 수 있다. ● 1부터 10까지의 숫자를 세며, 한자어계 수사와 고유어계 수사를 구별하여 말할 수 있다. 																						
<p>차시별 지도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실 언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 -수 있어요/없어요? ▸ 학생: 재미있어요./없어요. 좋아요./싫어요. 슬퍼요. 화가 나요. 괜찮아요. 미안해. 고마워. 같이 -자(청유형) <table border="1" data-bbox="416 1391 1361 1792"> <thead> <tr> <th>차시</th> <th>목표 표현</th> <th>학습 주제</th> <th>학습 활동</th> </tr> </thead> <tbody> <tr> <td>1</td> <td>감정 표현</td> <td>감정 표현 익히기(1)</td> <td>- 여러 가지 감정 표현 알기 - 카드놀이(같은 감정 카드 2장이 나오면 감정 표현 말하기)</td> </tr> <tr> <td>2</td> <td>감정 표현</td> <td>감정 표현 익히기(2)</td> <td>- 친구와 함께 감정 표현 묻고 답하기 - 땅따먹기 놀이(감정표현 말하고 땅 차지하기)</td> </tr> <tr> <td>3</td> <td>같이 -자</td> <td>친구와 관계 맺기</td> <td>- 그림을 보며 친구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 표현 익히기 - 파리체 게임('같이 -자'라는 표현을 듣고 해당되는 그림 선택하기) - 같은 그림 카드를 가진 친구 찾기 놀이</td> </tr> <tr> <td>4</td> <td>한자어계 수사, 고유어계 수사 -가 있어(요)</td> <td>숫자(1~10) 알기</td> <td>- 1부터 10까지 숫자 배우고 말하기 - 숫자 표현 연습하며 그림 완성하기</td> </tr> </tbody> </table>			차시	목표 표현	학습 주제	학습 활동	1	감정 표현	감정 표현 익히기(1)	- 여러 가지 감정 표현 알기 - 카드놀이(같은 감정 카드 2장이 나오면 감정 표현 말하기)	2	감정 표현	감정 표현 익히기(2)	- 친구와 함께 감정 표현 묻고 답하기 - 땅따먹기 놀이(감정표현 말하고 땅 차지하기)	3	같이 -자	친구와 관계 맺기	- 그림을 보며 친구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 표현 익히기 - 파리체 게임('같이 -자'라는 표현을 듣고 해당되는 그림 선택하기) - 같은 그림 카드를 가진 친구 찾기 놀이	4	한자어계 수사, 고유어계 수사 -가 있어(요)	숫자(1~10) 알기	- 1부터 10까지 숫자 배우고 말하기 - 숫자 표현 연습하며 그림 완성하기
차시	목표 표현	학습 주제	학습 활동																				
1	감정 표현	감정 표현 익히기(1)	- 여러 가지 감정 표현 알기 - 카드놀이(같은 감정 카드 2장이 나오면 감정 표현 말하기)																				
2	감정 표현	감정 표현 익히기(2)	- 친구와 함께 감정 표현 묻고 답하기 - 땅따먹기 놀이(감정표현 말하고 땅 차지하기)																				
3	같이 -자	친구와 관계 맺기	- 그림을 보며 친구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 표현 익히기 - 파리체 게임('같이 -자'라는 표현을 듣고 해당되는 그림 선택하기) - 같은 그림 카드를 가진 친구 찾기 놀이																				
4	한자어계 수사, 고유어계 수사 -가 있어(요)	숫자(1~10) 알기	- 1부터 10까지 숫자 배우고 말하기 - 숫자 표현 연습하며 그림 완성하기																				



2.3 중도입국/외국국적 다문화 학생용 <징검다리>

[단원별 구성]

첫 번째 징검다리: 우리 가족과 나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와 가족을 소개할 수 있다. ● 나와 가족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 ● 가족과 함께하는 협동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 가족을 사랑하고 서로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 		
차시별 지도 계획	차시	학습 주제	학습 활동
	1~2/4	나 소개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숫자로 나를 말해요. ▶ 내 마음을 붙여 모아요. ▶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3/4	가족과 나에 대해 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몸으로 말해요. ▶ 동물로 표현해 보아요. ▶ 이런 가족도 있을 거예요.
	4/4	가족들과 더 친해지기	▶ 우리 가족에 대해 더 알아보아요.

두 번째 징검다리: 학교와 나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의 모습과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 학교에 있는 장소와 시설의 이용 방법을 알고 알맞게 이용할 수 있다. 		
차시별 지도 계획	차시	학습 주제	학습 활동
	1~2/4	학교 알아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를 알아보아요. ▶ 학교를 둘러보아요. ▶ 학교를 표현해 보아요. ▶ 학교를 완성해 보아요. ▶ 도서대출증을 만들어 보아요.
	3~4/4	학교 체험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리배출(분리수거)을 해 보아요. ▶ 학교를 체험해 보아요.

세 번째 징검다리: 학교생활과 나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다. ● 학교에서의 하루 일과를 알고 준비할 수 있다. ●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기본적인 약속을 지킬 수 있다. 		
차시별 지도 계획	차시	학습 주제	학습 활동
	1/4	학교 행사 알아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에는 어떤 일이 있어요? ▶ 궁금하고 기대돼요.
	2/4	하루 일과 알아보기	▶ 초등학생의 하루를 체험해요.
	3~4/4	학교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칙을 지켜요. ▶ 꼼꼼히 이를 닦아요. ▶ 화장실 예절을 알아보아요.

네 번째 징검다리: 교실생활과 나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시간과 쉬는 시간을 구분하여 알맞게 행동할 수 있다. ● 선생님과 친구 관계에서 필요한 예절을 알고 지킬 수 있다. ● 알림장을 쓰고 필요한 준비물을 챙겨 책가방을 준비할 수 있다. 		
차시별 지도 계획	차시	학습 주제	학습 활동
	1/4	-교시 알아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슨 시간이에요? ▶ 시간표를 만들어요.
	2/4	교실 예절 알아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시간과 쉬는 시간은 달라요. ▶ 교실 예절을 알아보아요.
	3~4/4	학교 갈 준비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림장을 써요. ▶ 준비물을 챙겨요. ▶ 혼자서 준비할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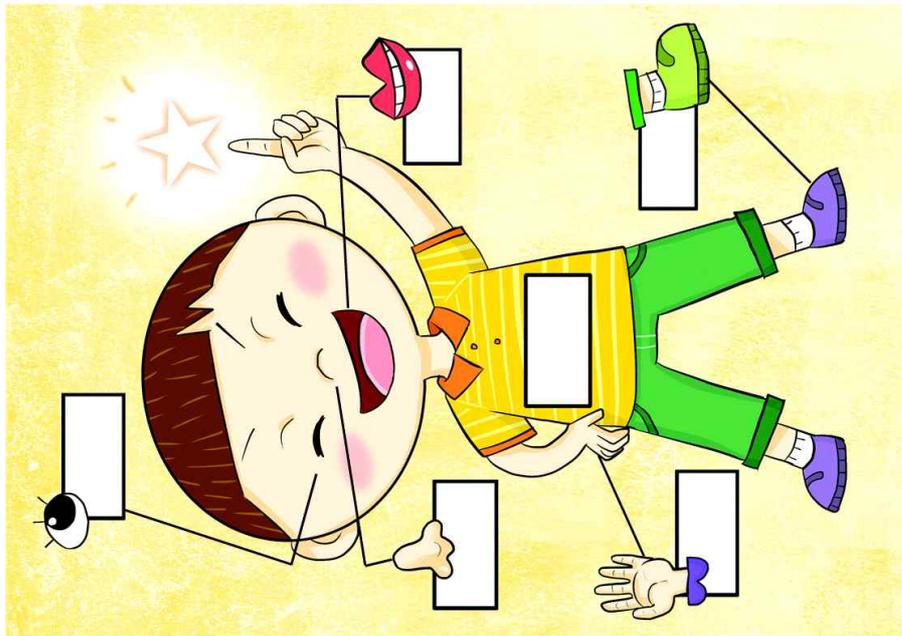
다섯 번째 징검다리: 친구와 나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의 감정을 느끼고 이야기 할 수 있다. ● 친구의 감정을 배려할 수 있다. ● 서로를 도와가며 협동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차시별 지도 계획	차시	학습 주제	학습 활동
	1~2/4	나와 너의 감정 존중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 마음을 색깔로 표현해요. ▶ 내 마음의 표정을 만들어요. ▶ 마음을 몸으로 말해요. ▶ 마음을 전달해요. ▶ 내 마음의 날씨를 알아보아요. ▶ 마음 쉼터에서 쉬어요.
	3/4	친구와 마음 나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와 마음을 모아요. ▶ 이런 말이 듣고 싶어요.
	4/4	친구와 협동하기	▶ 친구와 함께해요.

[단원 구성의 실례(UNIT 1의 일부)]

첫 번째 징검다리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4. 결론

[기대 효과와 활용 방안]

-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및 학업적응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인지·정서·행동 발달을 돕고 학교 부적응 문제를 예방함.
- 입학할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초등 교원의 사전 이해도 및 준비도 증진.
- 학교급 전환기 다문화학생을 위한 '징검다리과정'으로서 틀을 마련으로써 일선 학교에서 적용하기 쉽고 효과적인 학교적응 다문화교육 지원 확대.
- 장기적으로는 전환기를 넘어 저학년 중도입국/외국국적 다문화 학생을 위한 학교 적응용 첫 교재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추가 언급할 사항]

- 재외동포 유아용(3~5세용) '신나는 한국어'의 개발과 보급에 대한 내용
- 한국어 학급과 새 '표준 한국어' 교재에 대한 내용

참고문헌(주요 문헌)

- 교육부(2018). 2018학년도 초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세종: 교육부.
- 김지은(2016). 다문화 예비 학부모를 위한 초등학교 입학의 모든 것. 서울: 시대교육.
- 박명옥, 정하정, 최종원(2018). 2018 다문화학생을 위한 학적관리 매뉴얼. 서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오성배, 김미, 서정숙, 이유경, 조현정(2018). 중도입국·외국인학생을 위한 교육지원 도움 자료. 서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중앙다문화교육센터(2018). 다문화학부모를 위한 입학절차안내 우리아이 학교보내기. 서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헝가리 한국어교육의 현황과 과제

유소영(엘테대학교)

1. 들어가며

이 연구는 헝가리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국어교육의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개선 사항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헝가리 한국학 연구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국립 엘테대학교(ELTE; EÖTVÖS LORÁND UNIVERSITY) 인문대학 내아시아학부 한국학과와 역사와 교육과정의 현황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현재 헝가리에서는 K-POP을 비롯한 K-DRAMA, K-MOVIE와 같은 한류의 영향과 한국 기업 진출의 영향으로 한국어 학습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학문적 연구의 중심인 대학의 한국학과를 비롯하여 주 헝가리 한국문화원에 설치된 세종학당, 주말학교 형태로 운영되는 한인학교와 사설 어학교육기관 등에서도 많은 헝가리 사람들이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다.¹⁾ 이처럼 헝가리의 지리적 여건이나 인구에 비해 여러 경로에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습자의 비율은 높은 편이다.

헝가리 공화국(Republic of Hungary)은 1000년 8월 20일 건국되어 중앙 유럽 문화의 중심지로서 번영을 누리기도 하고 외세의 영향으로 고난을 겪기도 한 나라로 1989년 공산주의 소련연방에서 독립하였다.²⁾

헝가리 통계청에 따르면³⁾, 2019년 4월 현재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헝가리 투자는 26.4% 증가하였고 산업 생산량은 6.2% 상승하였으며, 주력 산업 분야인 차량 및 차량 부품 제조는 각각 14.6%, 2.8%가 증가하였다. 헝가리 정부는 자동차 산업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적용한 EU의 환경보호 정책에 반대한다고 밝혔는데 그 이유는 EU가 발표한 정책들이 헝가리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및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한편 헝가리 외교통상부장은 EU국가들의 자동차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투자는 수용할 수 있도록 산업 개발과 환경 정책 사이의 균형을 강조하였다. 한국의 대 헝가리 투자(2017년 신고, 누적기준 12.7380억 유로⁴⁾)는 헝가리 전체 투자의 0.7% 가량을 차지한다. 이는 유럽 내 투자가 전체의 88.6%를 차지한 가운데 미국과 일본의 투자액이 나란히 감소해, 한국은 비유럽권 국가 중 헝가리 투자 1위국이 됐다. 1989년 헝가리 체제 전환 후 최초로 헝가리에 진출한 삼성전자를 비롯하여 한국타이어와 같은 대규모 한국계 생산법인이 헝가리 투자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16년 시작된 삼성SDI의 헝가리 투자와 2020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인 SK이노베이션 및 기 진출 기업의 증액 투자 수요가 새로운 전환기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헝가리의 청년 실업률은 1% 이내이며 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헝가리 진출 한국 기업들은 인재 채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한국학의 미래도 밝다고 볼 수 있다.

헝가리에 살고 있는 한국 교민은 한국대사관, 현지 한국 법인 기업의 주재원을 포함하여 1,315명이다. 이들 중 주 헝가리 한국대사관을 비롯한 정부 기관과 기업체 주재원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국제결혼과 이민자 등은 30%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2. 학위과정 한국학과 현황

헝가리에서 한국학 관련 학위과정은 1989년 한-헝 수교 이후 2008년 부다페스트에 있는 국립 엘테대학교 인문대학

- 1) 자료의 수집이나 현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주 헝가리 한국문화원을 비롯한 한국 정부 기관과 엘테대학교 국제처, 세종학당, 한인학교, 사설 교육기관 운영자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으나 교수자나 담당자의 교체 및 헝가리와 한국의 업무 스타일의 차이로 인해 현지 기관의 자료가 소실되거나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 2) 헝가리는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등 7개국과 총 2,106km의 국경과 인접해 있다. 헝가리의 면적은 약 93,028km이며, 인구는 약 983만 명이다. 공용어는 헝가리어(Magyarország)이며, 국민은 마자르족 85.6%, 루마니아인 3.2%, 독일인 1.9%, 슬로바키아인, 세르비아인 등 기타 2.6%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종교는 카톨릭 37.2%, 칼빈교 11.6%, 루터교 2.2%, 기타 그리스정교기독교(1.8%) 등이다.
- 3) 자료원: 헝가리 통계청(KSH), KITA, 한국수출입은행, 헝가리 중앙은행, 헝가리이민국 등(2019년 5월 기준)
- 4) 헝가리의 대한 투자는 5,230억 유로에 불과하다.

내아시아학부에 한국학과가 개설되었다. 엘테대학교 한국학과는 헝가리 최초이자 유일한 한국학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헝가리에서의 한국 문화와 한국사, 한국 정치, 한국어학을 비롯한 한국학 연구의 산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를 기반으로 헝가리 젊은이들로 하여금 한국 문화를 통한 국가 간 교류에 자연스럽게 참여하고 나아가 한국 문화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2.1 헝가리 한국학 연구의 역사

헝가리 한국학 연구의 역사는 한-헝 교류의 역사 속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한국과 헝가리는 1890년대 조선왕조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간의 교류가 시작되어 1950~1957년대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으며 한반도 분단 이후 헝가리는 소련 연방 공산주의 체제였기 때문에 한국과의 교류는 단절되고 북한과의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 시절은 헝가리가 부유하여 북한을 지원하는 활동들이 많았다. 일례로 부다페스트에 북한의 고아들을 보호하는 시설을 만들어 그들을 교육하기도 하였으며 헝가리에서 유학하는 북한 학생들은 1,000여 명에 이른다. 그들을 가르쳤던 헝가리인 교사인 쇠베니 얼러다르(Dr. Sövény Aladár 1914-1989)는 최초의 헝한 사전인 “웡조사전”을 출간하기도 하였다.

헝가리에서 한국어교육은 1989년 한-헝 수교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그 과정은 다음 <표1>과 같다.

연도	기관	운영 교수	비고
1953	엘테대학교 인문대학	쇠베니 얼러다르	정치적 이유로 무산됨
1989년 9월~	부다페스트 대외무역대학	오슈바트 가보르	
1996년 9월~	엘테대학교 KOREA PROGRAM	비틀란 아그네쉬	학부 2학년 대상
2008년 6월	엘테대학교 한국학과 설치 인가	하마르 임네	
2008년 9월~	엘테대학교 한국학과 학부과정 운영	초머 모세	전공15명, 부전공 15명
2012년 6월	엘테대학교 한국학과 석사과정 인가	초머 모세	
2013년 9월~	엘테대학교 한국학과 석사과정	초머 모세	
2017년 11월	엘테대학교 한국학과 박사과정 인가	초머 모세	
2018년 9월	엘테대학교 한국학과 박사 과정 운영	초머 모세	1명 입학

<표1> 헝가리 한국학과 개설의 역사

한-헝 수교 이전인 1953년에 엘테대학교 인문대학에서 쇠베니 얼러다르를 교수로 채용하여 한국어교육을 개설하려 하였으나 정치적인 문제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서 무산되었다.⁵⁾ 한-헝 수교 이후 1989년 9월부터 부다페스트의 대외 무역대학에서 한국어교육 시작되어 북한 김일성대학에서 공부한 오슈바트 가보르 교수가 학생들을 가르쳤다.

엘테대학교에 한국학과가 생기기 전, 1996년 9월부터 2006년 8월까지 인문학부에 재학생을 대상으로 2년 특별과정으로 KOREA PROGRAM이 비틀란 아그네쉬 교수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는데 매년 20~30명의 학생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 집중 과정을 이수하였다. 이를 계기로 2006년 9월에 인문대학 내아시아학부에 한국학이 부전공으로 개설되었고 2008년 9월에 정식으로 한국학과가 개설되어 초머 모세 교수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는데 당시 전공 15명과 부전공 15명이 재학하였다. 그 후 2013년 9월부터는 석사과정, 2018년 9월부터는 박사과정이 운영되기 시작하여 석사과정 졸업생들은 현재 한국과 헝가리에서 학업을 계속하거나 한국 기업 등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현재 한국학과에는 학부생이 전공 96명, 부전공이 57명이 재학 중이고 석사과정은 1학년 8명, 석사과정 2학년 3명 박사과정 1학년 1명으로 총 165명이 재학 중이다.

엘테대학교 한국학과는 처음 재학생 대상 특별과정일 때부터 매년 5월 한국 문화의 날을 개최하였으며, 대학원생들을 중심으로 매학기 1회씩 정기 세미나도 열고 있다. 엘테대 한국학과 주관으로 열리는 ‘한국 문화의 날’과 ‘취업박람회’, ‘말하기대회’ 행사 등을 통해 한국학과 재학생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지역 주민 및 인근 고교 재학생들에게도 한국 문화와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헝가리 전역으로 한국 문화를 전파하고 한류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헝가리 엘테대학교에서 한국학이 자리 잡아 가는 데에 숨은

5) 출처: 엘테대학교 공문서보관소 1953 BTK, NYIK, DH. 855. 13.(Source: ELTE Archive Documents 1953 BTK, NYIK, DH. 855. 13.)

역할을 한 것은 한국의 정부 기관인 국제교류재단과 사립대학인 단국대학교 등에서 파견된 한국인 교수들의 공도 크다고 할 수 있다.

2.2 엘테대학교 한국학과 교육과정

2.2.1 학부과정

학부는 3년제로 운영되는데 한국어 전공에 개설 강좌는 ‘한국어화화, 한국어 읽기와 쓰기, 한국어 듣기와 말하기, 한국어 번역’ 등의 한국어 교과목과 ‘한국사, 한국문학사, 동양 미술사, 동양 종교사, 동아시아 역사와 문화’ 등이 개설되어 있다. 한국어 수업에 사용되는 한국어 교재는 ‘100시간 한국어(연세대학교)’, ‘이화한국어(이화여자대학교)’, ‘너랑 나랑 한국어(단국대학교)’ 등으로 한국에서 발행된 교재를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교과목의 세부 구성은 다음 <표2>와 같다.

과목명	학기	주당시수	학점
철학사	1	2	4
출판물 편집 방법	2	2	4
한국어학개론	1	2	3
문학개론	2	2	3
비교 종교사	1	2	3
동양 종교	2	2	4
고대 동양 미술사	1	2	3
동양 미술사	2	2	4
동아시아 역사1	3	2	4
동아시아 역사2	4	2	4
동아시아 문화	4	2	4
동아시아 문자	5	2	4
동아시아 종교	3	2	4
한국어1	1	4	4
한국어2	2	4	4
한자1	1	2	2
한자2	2	2	2
기본 한국어 시험	2	0	0
한국어3	3	2	3
한국어4	4	2	3
한국어5	5	2	3
한국어6	6	2	3
한국어 번역 쓰기1	3	2	2
한국어 번역 쓰기2	4	2	2
한국학	4	2	2
비즈니스 한국어1	5	2	2
비즈니스 한국어2	6	2	2
현대 한국어 회화1	4	2	3
현대 한국어 회화2	5	2	3
한국사1	1	2	3
한국사2	2	2	3
한국사3	3	2	3
전통 한국 문화	4	2	2
한국 미술	5	2	2
현대 한국 문학	6	2	2
한국 종교	4	2	2
동아시아 교류	2	2	3
한국 민족 주제상	3	2	3
현대 한국 문화	4	2	2

<표2> 한국학과 학부과정 교육과정 현황

<표2>에 제시된 학부과정의 교육과정 현황을 보면 한국학과인데도 불구하고 한국학과 교과목 수행을 위한 도구가 되는 한국어나 한국문학 교육보다는 동아시아에 대한 교과목과 한국 역사, 문화, 미술사, 철학사 종교 등의 교육에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한국학과 주요 교수진이 교체되어 그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문제임에는 틀림없다. 이런 교육과정으로는 한국학과 재학생들은 한국어와 한국 문학은 독학을 해야 하는 시스템이고 의지가 약한 학생은 한국학과를 졸업하고도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기는커녕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2.2.2 석사과정

석사과정은 총 4학기 2년제로 운영된다. 석사과정 수업은 ‘현대 한국어, 한국어 번역’ 등의 한국어 교과목과 ‘삼국시대 역사와 문화, 고려시대 역사와 문화, 한국문학, 한국 종교, 한국의 현대문화, 한국의 전통문화 문화’ 등이 개설되어 발표와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교과목 구성은 다음 <표3>과 같다.

과목명	학기	주당시수	학점
현대한국어1	1	4	4
현대한국어2	2	4	4
삼국시대의 역사와 문화	1	2	4
고려와 조선의 역사	2	2	4
옛날 중국 문화	2	2	4
전통 한국 문화	1	4	6
일본어1	1	4	4
일본어2	2	4	4
한국어 번역 쓰기1	3	4	8
한국어 번역 쓰기2	4	2	4
전통 한국 문화	3	2	4
한국 현대사1	3	4	5
한국 현대사2	4	2	4
한국 문학	4	2	5
한국 종교1	2	2	5
한국 종교2	3	2	5
전문 수업	1	2	5
세미나	2	2	3
전문 수업	3	2	5
세미나	4	2	3

<표3> 한국학과 석사과정 교육과정 현황

<표3>에 제시된 석사과정의 교육과정 현황을 보면 학부과정에 이어 석사과정 또한 한국학과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어학이나 한국문학 교육보다는 한국 역사와 전통 문화, 종교 등의 교육에 비중이 높고 더욱 특이한 점은 일본과 중국에 대한 수업의 비중도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한국학과 주요 교수진이 교체되어 그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문제임에는 틀림없다. 이런 교육과정으로는 한국학과 재학생들은 한국어와 한국 문학은 독학을 해야 하는 시스템이고 의지가 약한 학생은 한국학과를 졸업하고도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석사학위 취득은 석사과정의 기본적인 졸업 요건이 충족되면 100,000자~160,000자의 논문을 제출하면 되는데 이 논문의 본문은 헝가리어로 작성하고 한국어로 요약을 첨부한다. 석사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논문이 완성되면 졸업시험으로 석사 졸업 논문에 관한 토론과 한국어로 진행되는 한국학 분야에 대한 토론으로 실시된다.

2.2.3 박사과정

현재 박사과정의 교육과정은 비공개이다. 사실은 비공개인지 실제 교육과정이 존재하지 않은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태이다. 왜냐하면 박사과정 재학생이 1명 있는데 베아트릭스 매치 교수에게 동양 미술사를 공부하고 있고 나머지는 영어교육과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고 한다.

2.2 엘테대학교 한국학과 교수진

현재 엘테대학교 한국학과 교수진은 베아트릭스 메치(미술학 박사), 비틀란 아그네스(몽골학 박사), 마리아 다카츠(영문학 학사, 현지 채용), 유소영(한국어교육학 박사, 단국대 파견교수), 4명의 교수와 라모나 코바치(몽골학 박사과정), 크리스티나(한국학 박사과정), 니콜레트(한국학 석사), 오슈바트 가보르(석사), 김종녀(한국사 학사, 현지 채용) 등 5명의 강사로 총 9명이 있다.

한국학과와 역사와 규모로 볼 때 교수진 확보는 심각한 현실이다. 교수진 구성을 표면적으로만 보면 잘 갖추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상을 보면 두 명의 헝가리인 교수는 한국말을 못 하고, 한국어 모어 화자인 교수는 비전공 학사 학위자로 사실상 석사과정 이상을 가르치기에 적합하지 않다. 헝가리인 강사진의 경우는 교수진보다는 조금 나은 상황인데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이들도 대부분 비전공자들이다.

이러한 문제 중에 전공 일치 여부의 문제는 헝가리 스타일이라고도 하는데 연구자의 입장에서 보면 심각하게만 보인다. 이제 한국학과와 역사가 10여 년이 지나 현재 석사과정을 마치고 유학 중이거나 박사과정 재학 중인 학생들이 있어서 헝가리인 교수진은 가까운 시일 내에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3. 비학위과정 한국어 교육기관 현황

3.1 세종학당

세종학당은 2012년 2월 13일 주 헝가리 한국문화원에 개원하여 현지 운영 형태로 한국어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2012년 개원 당시 14개 학급 125명으로 시작하여 2019년 4월 기준으로 개설 과정은 1급 4개 학급, 2급 4개 학급, 3급 3개 학급, 4급 3개 학급, 5급 2개 학급, 6급 1개 학급, 초급과 중급 회화반, 시니어반 등 총 20개 학급, 각 반의 정원은 15명으로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총 수강 인원은 현재 230여 명이 재학 중이다. 학습자 수가 최고에 이르렀던 2015년 가을 학기에는 24개 학급 304명에 이르기도 하는 등 헝가리 한국어교육의 중심 메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학습자들이 처음 세종학당에 입학하는 동기는 한국 문화가 좋아서이며, 이번 학기에도 한글 기초반이 4반 개설되는 등 초급반이 항상 개설되고 있는 것이 헝가리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꾸준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세종학당의 학사 운영은 봄 학기의 경우 2월 중순에서 5월 말까지 진행되며, 가을 학기의 경우는 9월 중순에서 12월 중순까지 각 학기는 15주 수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1일 2강좌 저녁반(17:00~18:30, 18:30~20:00)으로 진행되고, 금요일은 회화 등의 특강으로 운영된다. 또한 여름 학기에는 1개월 동안 TOPIK 준비반과 회화반 특강도 진행하고 있다.

세종학당 교수진은 세종학당 파견 교사 1명과 현지 채용 교사 4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세종학당 파견 교사의 경우는 주 7개 강좌를 담당하고 있고 현지 채용 강사는 보통 3개 강좌를 담당하고 있으며 수업은 헝가리어와 영어를 매개어로 진행된다.

세종학당 교재는 세종한국어를 사용하는데 1~4권은 주 1회 90분 15주에 교재 진도를 모두 끝내고 있고 5~8급은 2학기 코스로 운영하고 있어 비교적 진도가 빠른 편이다. 이는 헝가리 학습자의 특징이 대체로 학구적인 학생이 많이 분포하였다고 보는 의견과 헝가리 학습자들이 진도가 빠른 것을 좋아하고 소극적인 성향 탓에 말하기를 싫어한다고 보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매개어인 헝가리어와 영어로 진행하므로 이해가 쉽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짧은 학습 시간에 학습량이 많을 경우의 문제점은 충분한 연습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학습자의 이해와 습득의 격차가 커져서 오히려 학습자에게 부담이 될 우려가 있다. 현재 1급의 경우 많은 학급이 개설되는 데에 비해 유급이 많고 중급 이상으로 올라갈수록 수료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세종학당의 진급 기준은 보통 60점 이상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헝가리 세종학당의 경우는 진도가 빠른 것을 감안하여 75점 이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도 수료 비율이 높다.

3.2 한인학교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소재한 한인학교는 1990년 3월에 개교하였다. 처음 개교 당시에는 3개 학급으로 시작하여 학생 수는 22명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유치부, 초등학교 1~6학년, 중학교 1~2학년, 헝가리어 반으로 총 10개 학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76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10명의 교사가 재직하고 있다. 주 헝가리 한국문화원과 헝가리 소재 한국 기업 등에서 임대료 지원을 받고 있고, 기증 받은 도서로 작은 도서관도 운영하고 있다.

한인학교의 주요 교육 대상은 한국대사관을 비롯한 정부기관과 삼성 등의 한국 기업에 파견 나온 주재원 자녀와 국제결혼이나 이민을 통해 헝가리에 살고 있는 교민들의 자녀들이다. 여기에 부모들을 대상으로 헝가리어 반도 운영되고 있다.

한인학교의 교육 내용은 한국의 각 해당 학년의 교과과정 중 국어와 수학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주 1회 토요일 09:00~13:00에 운영하고 있다.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 중 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헝가리어 반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주재원 자녀의 경우에는 주재원 가족이 해외에서 체류하는 기간이 약 4~5년 정도이므로, 파견 근무가 만료 되면 한국에 복귀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대한민국 교과 과정을 반드시 이수하고, 숙지해야 할 의무를 지니게 된다. 그래서 한국의 해당 학년의 교과과정 중 국어와 수학을 중심으로 구성된 이 교과 과정이 유용하다. 하지만 주재원 자녀를 제외한 국제결혼과 이민자로 구성된 교민 자녀의 경우는 대부분 헝가리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교육을 받지 않고 현지인 헝가리의 교과 과정을 이수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대한민국 교과 과정을 이수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현지에서 모국어인 한국어교육을 정식으로 받을 기회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한국 역사와 문화 등에 매우 취약하다. 그러나 주말인 토요일에 시간을 내어 하나밖에 없는 한인학교에 와도 한국어교육이 아닌 국어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 학생들의 경우는 헝가리 교육 제도에서도 한인학교 교육 제도에서도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교포 자녀를 위한 한국어교육과 한국교육이 절실하지만 헝가리 교민 수가 적어 대상 학습자가 적다는 이유와 재정적인 이유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3.3 사설 교육기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는 현재 2개의 사설 한국어 교육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1개 기관(HOKMA)은 부다페스트에 2개의 학원을 운영 중이며 SK이노베이션이 설립되고 있는 코마룸에 1개 분원을 개원하여 운영 준비 중이다. 현재 120여 명의 학습자가 재학 중이며 7~8명의 현지 채용 한국어 교사가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1개 기관은 2018년 부다페스트 아스토리아에 개원하여 현재 27명이 재학 중이며 3명의 현지 채용 한국어 교사가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그 밖에도 헝가리인이 운영하는 외국어 학원에서 소규모로 1대1 과외 형식으로 헝가리인 한국어교사가 가르치고 있다. 헝가리인 한국어 교사들은 대부분 엘테대학교 한국학과 재학생이고 한국인 교사들은 현지 교민들인데 이들은 세종학당이나 한인학교 교사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 중에는 한국어교원으로서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4. 나가며

이 연구는 헝가리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국어교육의 현황을 분석하여 향후 헝가리의 한국어교육의 방향과 개선 사항을 제안하고자 하는 데에서 출발하였다.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료의 수집을 비롯한 현황을 파악에 어려움이 많았다. 교수자와 담당자의 교체 및 헝가리와 한국의 업무 스타일의 차이로 인해 현지 기관의 자료가 소실되거나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충분하지 않은 자료 분석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의 한계가 있었지만 헝가리 한국어교육의 현재 연구들이 이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또한 헝가리 최고의 대학에 개설된 한국학과이지만 실제 교육과정 구성에서 교수진이나 학습자의 요구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 현황 조사가 엘테대학교 한국학과 교육과정 개선의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김경훈(2002), “헝가리에서의 한국어 교육 역사 및 현황”, 개신어문연구 19호, 개신어문학회, 33-53면
- 김재욱(2009), “외국 대학과 한국 대학의 한국어교육 전공 학과 교육과정 비교 연구 The comparative study on the curriculum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at colleges in Korea and foreign countries”, 새국어교육 82호, 한국국어교육학회, 73-94면
- 김창구(2012), “일본 대학에서의 한국어교육의 현황: 교육과정, 교사, 학습자를 중심으로”, 한국어문화교육 6-2호, 한국어문화교육학회, 27-44면
- 김훈태(2014), “동유럽 大學의 韓國語學의 現況과 發展 方向 - 루마니아·헝가리·불가리아의 大學을 中心으로- Situation and Developmental Direction of Korean Studies in Universities of Eastern Europe”, 語文研究 6-2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307-332면
- 노마 히데키(2003), “일본 대학교 대학원에서의 한국어 교육 -동경외국어대학 대학원의 교육 현황을 중심으로- Korean language education of graduate school in Japan”, 한국어교육 14-2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83-106면
- 박안토니나(2012), “우즈베키스탄의 한국문학 교육의 현황과 과제 Status of Korean literature education in Uzbekistan”, 우리말교육현장연구 6-2호, 우리말교육현장학회, 257-285면
- 쁘리마코바 따피아나(Primakova Tatiana)(2009), “러시아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과제 Teaching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in Contemporary Russia : Situation and Challenges”, 세계한국어문학 1호, 세계한국어문학회, 11-34면
- 신성철(2016), “호주 초중고, 대학 및 지역사회의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과제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Australian Schools and Universities: Current State, Issues and Challenges”, 한국어교육 27-4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57-102면
- 유홍주(2012), “해외 대학 한국어학과와 한국문학 교수 방안 - 헝가리 엘테대학교를 중심으로- Korean Literature Educational Method at Oversea's Korean Department -Focus on ELTE University of Hungary”, 새국어교육 91호, 한국국어교육학회, 135-157면
- 장용수(2017), “이집트 아인샴스대학교의 한국어 교육 현황과 과제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the Ain Shams university in Egypt”, 우리말교육현장연구 11-1호, 우리말교육현장학회, 293-329면
- 조은숙(Eun Suk Cho), 프나르알툰다오(Pinar Altundag)(2013), “터키 내 한국기업과 한국어학습자의 요구분석 - 대학 내 한국어교육과정 설계와 개선을 위하여 - Research on Korean Language Education Curriculum Development in Turkey”, 언어사실과 관점 32호,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61-95면
- 조머 모세(2009), “한반도를 방문한 헝가리인들의 기억 비망록”, 집문당, 서울
- 조머 모세(2015), “헝가리 최초의 한국학 학자 북한을 만나다 : 쇠베니 열러다르의 1950년대 북한 문화에 관한 기억들”, 노스보스, 서울
- 최정순(2018), “중국 한국어학과 교육과정 개선 방향과 실천적 대안으로서의 내용 중심 수업 활용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Direction for Improving the Curriculum in th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in China and a Plan for Using Content-Based Instruction as a Practical Alternative”, 한국어교육연구 13-1호, 한국어교육연구소, 173-196면
- 홍혜련(2015), “태국의 한국어 교육 현황과 발전 방안 The present state of the Korean education in Thai and development strategies.”, 국제한국어교육 1-2호, 국제한국어교육문화재단, 63-85면

자료제공

- 주 헝가리 한국대사관
- 주 헝가리 한국문화원
- 주 헝가리 무역대표부(KOTRA)
- 엘테대학교
- 헝가리 세종학당
- 헝가리 한인학교

Session 1D

사회: 신윤경 (가천대학교)

- **한국어 교육의 흐름과 카자흐스탄 현지 교육 사례**

우인혜(선문대, 한국 아산)

- **우즈베키스탄 유학생의 한국어언어문화 적응 실제**

최권진(인하대, 한국 인천)

- **몽골에서의 한국문학교육 현황 연구**

게렐치맥(서울대, 한국 서울)

한국어 교육의 흐름과 카자흐스탄 한국어 교육 사례

선문대학교 글로벌한국학과
우인혜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INK)
제27차 국제학술대회 발표문

목차

- ◆ 1. 서론
- ◆ 2. 국외 한국어교육의 경향
 - ◆ 베트남
 - ◆ 태국
 - ◆ 프랑스
- ◆ 3. 카자흐스탄 현지 한국어교육 사례
- ◆ 4. 국내 한국어교육의 과제와 방향
- ◆ 5. 결론

1. 서론

◆ <한류와 신 한류 변화의 두 가지 양상>

- ◆ 1. 한류 콘텐츠 면에서의 다양성
- ◆ - 2010년 이후에는 온라인 게임이나 모바일 등 뉴 미디어 상품이나 화장품, 막걸리, 호미, 아이돌 스타 관련 제품, 한국 관광 상품 등
- ◆ 2. 대상 지역 면에서의 범위 확대
- ◆ -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나 태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네팔, 미얀마 등 동남아시아 그리고 몽골, 중남미, 동유럽, 아랍권 국가 등

<한국어를 배우려는 동기의 다양성>

- ◆ K-Pop 등 호감에 의해 취미나 관심을 갖는 경우
- ◆ 한국 기업 취업을 위한 실생활 필요에 의한 경우
- ◆ 한인 2세 등 대상으로 정체성을 찾기 위한 경우
- ◆ 대학 내 학문 목적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전공
- ◆ 하기 위한 경우
- ◆ 한국 정착 도구로서 생존방안 모색 위한 경우 등

세종학당재단의 국외 한국어교육

- ◆ 세종학당재단은 2007년 설립 이후 2018년 7월 현재 57개국에 174개소 (아시아100곳, 유럽41곳, 아메리카26곳, 오세아니아4곳, 아프리카3곳)로 확산
- ◆
- ◆ 정식교사자격증 소지 파견 교원과 현지 교원 포함 약 600명 정도의 한국어교사들을 고용하고 있음

2. 국외 한국어교육의 경향

<베트남에서의 한국어교육 경향>

- ◆ 1993년 하노이 국립인문사회대학 최초 한국어 교육 시작
- ◆ 2018년 23개 대학 약 1만 명 학생 한국어 수학
- ◆ 한류 영향 크고 학교, 학원뿐 아니라 인터넷 등
- ◆ 독학 여건도 충분
- ◆ 한국 기업의 대거 진출-한국어과 졸업생은 높은 봉급으로 취업률 대폭 증가
- ◆ 국가 간 경제협력과 문화교류 확대, 한국어
- ◆ 교육 시장 계속 커질 전망

<태국에서의 한국어교육 경향>

- ◆ 초·중·고교 한국어 수강자 2010년 3000여 명에서 2017년 3만여 명으로 증가
- ◆ 2017-2018 한글날 기념 중·고교생용 한국어 교과서 6권 공식 발간
- ◆ 2018학년도 대학입학시험(PAT)에 한국어를 제2외국어 과목으로 채택
- ◆ 2018년 태국 전국 112개 고교에 한국어 과목 개설 후 3만 명 이상 한국어 수강
- ◆ 한국 내 한국어 관련 학과 졸업생 대거
- ◆ 한국어 교사로 매년 선발 파견

<프랑스에서의 한국어교육 경향>

- ◆ 1886년 한불 수교 100주년 한글학교 중심의 한국어 교육 시작 2005년 이후 급증
- ◆ 2011년 9월 고교에 한국어가 정규과목이 됨. 첫 해부터 70명 이상 3개반 열림
- ◆ 2015년 한불 수교 130주년 한불 상호교류의 해, 중학교에 한국어 정식 과목으로 채택
- ◆ 2017년 대학학력고사에 한국어 과목 생김,
- ◆ 한국어학과 경쟁률 매우 급증 현상 발생
- ◆ 현재 프랑스 8개 대학교에서 한국어 전공 과정이나 제2외국어 선택 과목으로
- ◆ 1학년만 100여 명씩

3. 카자흐스탄 현지 한국어교육 사례

- ◆ 2017-2018 2년간 문화체육관광부
- ◆ 국립국어원이 수행한 한국어 예비 교원 국외 실습 사업
- ◆ 카자흐스탄 지원 후 요구분석과 프로그램 개발 방향에 대한 분석
- ◆ 이동은 · 이수연(국민대학교) 2 편의 논문을 중심으로 - 한국어교육 30-1(2019), 한국어교육 29-2(2018)

<카자흐스탄의 한국어 교육 상황>

- ◆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는 초·중등 학교 26곳, 대학은 총 16곳의 대학
- ◆ 한국어교육은 주로 한글학교에서 이루어지는데 44개 한글학교 1266명 학생과 69명 교사가 있음
- ◆ '찾아가는 교원교육프로그램' 기획, 개별 맞춤형 형식으로 진행, 현지 교원 요구 분석을 최우선 반영

<예비/경력/현지 교원 요구>

- ◆ 예비 교원 - 사전 연수에서의 시간 부족, 실습 위주의 연수
- ◆ 경력 교원 - 사전 연수에서 예비 교원과의 교류 시간 더 필요
- ◆ 현지 교원 - 추가 프로그램 요구, 파견 시기의 조절

<다면적 교원 의견 수렴 사항>

- ◆ 2017년도 만족도 결과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2018년도 사업을 조정함
- ◆ 1. 전체 연수 기간 및 러시아어 시간, 참관 및 모의 수업 시간, 사전 교류 시간 충분히
- ◆ 2. 아동 학습자에 대한 수업 방안 제공
- ◆ 3. 추가 프로그램 신설
- ◆ 4. 파견 시기의 조절

<확대와 정교화 조정 사항>

- ◆ 1. 사전 연수 기간을 2주 이상 실시
- ◆ (1주 러시아어 온라인 교육 개별학습 과제, 2주 합숙 하며 러시아어 평가, 실습 위주 강의 참관, 모의수업 및 경력 교원과 간담회)
- ◆ 2. 대다수 한글학교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 ◆ 이론 강의와 활동 교육을 계속 유지함
- ◆ 3. 프로그램을 정교화로 세부 내용 조정
- ◆ - 방학 중 단기 교실 운영, 파견 인원 확대
- ◆ 4. 교원 별 맞춤 교육 프로그램
- ◆ 지속 발전적으로 적용

<프로그램의 확대 방안>

- ◆ 프로그램 확대를 양적 질적인 확대 고려
사전 집중 교육 정교화
- ◆ -프로그램 양적인 확대 방안-
- ◆ 추가 프로그램 운영, 파견 대상 교원 확대
- ◆ -프로그램 질적인 확대 방안-
- ◆ 준비 및 성찰 시간을 강화한 실습 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활동을 통한 언어 교수
- ◆ 방법 학습

<프로그램 정교화 방안>

- ◆ 1. 현지 요구 반영한 파견 프로그램 수정과 정교화
- ◆ 2. 예비 교원 중심 사전 연수 프로그램 보완
- ◆ 3. 사전 연수와 현지 파견의 대상자 파악
 - ◆ - 사전 연수 - 교수자가 교수 및 전문가 경력 교원, 교육 대상자가 예비 교원이 됨, 반면
 - ◆ - 현지 파견 - 교수자가 예비 교원이 되고, 교육 대상자가 현지 학교 학생이 됨
- ◆ 예비 교원은 학습자인 동시에 교수자로 활동

<현지 교원 파견 시기와 방법 조정>

- ◆ 예비 교원 월 2회 파견하던 기존 방식 어려움 - 교사 부재나 중도 교체 문제점 해결 위해 교원 교체 시기와 방법 조정
- ◆ 현지 기관 규모 상 한 지역에 30여 명
- ◆ 교원 한 달 동안 파견 어려움
 - ◆ - 한 지역에 2 그룹 1달씩 순차적 파견, 두 번째 그룹 파견 시기 조정, 교체 시
- ◆ 두 교사 함께 수업 참여 인사 기회, 교체 충격 완화, 수업 공백 최소화됨.

<방학 중 몰입 캠프나 단기 교실>

- ◆ 집단 문화 체험 방식인 몰입 교육 캠프
- ◆ 형식이나 단기 교실 형식인 방학 중 특별 프로그램에도 예비교원 참가 지속적 요구
- ◆ 활동 중심의 한국어 예비 교원과 협업중심의 프로그램'을 구성함 즉, 현지 교사의
- ◆ 의사소통 협업을 위해 현지 대학의 한국어 학과 학생 대상 보조 교사를 추가 모집

<한국어 교원 참여 대상 확대>

- ◆ 현지 요구에 비해 교원 인력 부족해서 참여 대상 확대를 위한 지원 자격 변경
- ◆ - 2017년 과제에서는 학부 4학년 2학기 학생과 대학원 3기 이상 학생이었음
- ◆ - 2018년 과제에서는 학부 3학년, 대학원은 1학기부터 학생 지원 가능케 함

<지속적 프로그램의 설계 방안>

- ◆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효과 보장 위해
- ◆ 첫째, 현지 교원 별 맞춤 교육을 통해 교원의 역량 개발에 초점을 둠
- ◆ 둘째, 국내·외 교원들의 협력적 교수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해야 함

4. 국내 한국어교육의 과제와 방향

- ◆ 신한류 문화 확산으로 국내 외국인 학생 증가
- ◆ 역사 문제나 THAAD 등 영향 한일 관계, 한중 관계 다소 경색됨에 따라 일본과 중국
- ◆ 유학생 감소
- ◆ 하지만 베트남 유학생 증가로 2018년 12월 현재 전체 유학생(160,671명)은 2017년(135,087명)보다 증가함
- ◆ 2013년(81,847명)에 비해 두 배 증가함 '한한령'으로 중국 한류는 위축되었으나 싱가포르 등 중화권 타 국가에서는 오히려 2018년 한 해 더 많은 한류 붐이 불었음

한국어 학습자나 교원 관리강화

- ◆ 국내 국외 한국어·한국 문화 교육 활성화 시점에서 자연스럽게 한국어 학습자나 한국어 교원 관리 문제가 부각됨
- ◆ 한국어학습자 관리 강화의 한 예 - 법무부 실시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제도 개선' 정책
- ◆ 한국어교원 관리 강화의 한 예 - 국립국어원 '2018년 제1차 한국어교육 실습 교과목 정비 심사' 공지

법무부 한국어 학습자 관리 강화

- ◆ 2018년 11월 '비자 체류 관리 검토(안)' 발표 이후, 2019년 3월 4일 법무부 보도
- ◆ 자료를 통해 베트남인 어학연수생에 대한 '유학경비 보증제도' 시범 도입
- ◆ 배경은 최근 한국어교육기관들이 주력해온 베트남이 법무부 최다 불법 체류 국가(2018년 기준 9,213명)로 나타나 베트남 국적 학습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됨
- ◆ 이 제도 영향으로 유학원 및 각 대학 어학당의 외국인 학생 유치에 타격, 국내 한국어 교육의 입지를 주춤하게 함

국립국어원 한국어 실습과목 정비

- ◆ 주최측 - 실습 과목 운영이 부실하다는
- ◆ 지적이 수년간 반복돼 내실화가 불가피함
- ◆ 온라인 교육기관장 측 - 한국어교원 수요 증가 추세를 외면하는 조치임
- ◆ 국립국어원 관계자 측 - 수업 참관이 가능한 해외 교육 인프라 확대 방안 등 개선 방안 검토 중
- ◆ 2018 시범기간 끝난 이후 한국어 교육계에 미칠 영향은 아직 미지수

한국어·한국문화 교육은 민간 외교

- ◆ 최근(2019년 4월 1일) 몽골 UB4 세종학당 아카데미에 무료로 개설된 과목들(한국 음식조리 반, 태권도 기초과정, K-Pop 중급 과정, 사물놀이 기초반, 한복 제작
- ◆ 기타 반)이 이를 입증함
- ◆ 대한민국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민간외교' 기능 활성화 방안? - 현장에 있는 수요자나 공급자의 실제 바람이 담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함

해외 교육 현장에서의 바람

- ◆ 해외 현지 요구 - “한국어 교육 지원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이어졌으면”
- ◆ 이를 위해 국가 간 경제협력과 문화교류 확대가 지속적으로 필요함 - 베트남 하노이(2016년 6월), 아이티(2017년 12월) 등에서 시도되는 기업 연계형 세종학당의 운영 방안이 좋은 예
- ◆ 해외로 진출한 기업들이 세종학당을 통해 그 지역 주민에게 언어와 기술력 교육, 장기적으로 취업 연계까지 진행하여 국가와 기업 이미지를 개선하고 있는 모범적 사례

국내 한국어 교원들의 바람

- ◆ 국내 한국어 교원 요구 - “고용 불안과 함께 처우 개선을 보장해주었으면”
- ◆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애매한 신분
- ◆ 교육부, 노동부 - 한국어 강사는 교육법상 '강사'가 아닌 일반 노동자에 해당
- ◆ 한류 열풍 단물만 '썩'...한국어 강사는 '고용 불안' 2019-02-17 [뉴스데스크 기사]
- ◆ 장기적으로 볼 때 채찍(관리 강화)보다
- ◆ 당근(처우 보장)이 더 효과적

5. 결론

- ◆ 국 내외 한국어 교육의 흐름을 살펴 보고
- ◆ 중앙아시아(카자흐스탄)를 중심으로 실제 현장의 요구 사항을 알아보고
- ◆ 그에 따른 과제 해결 방안과
- ◆ 한국어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보았음

우즈베키스탄 유학생의 한국어언어문화 적응 실제

최권진(인하대학교)

1. 들어가기

2018년 12월말 기준으로 국내 체류외국인은 약 230만명이며, 이중 우즈베키스탄인은 68,433명으로 2.9%을 차지한다. 이는 국적별로 분류하면 중국(45.2%), 태국(8.4%), 베트남(8.3%), 미국(6.4) 다음으로 많다. 전체 체류외국인 가운데 유학생은 16만 명이 넘는데, 우즈베키스탄 출신 유학생은 7,840명으로 중국, 베트남, 몽골 국적의 유학생 다음으로 그 수가 많다. 따라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출신 학습자를 대상으로 이들이 한국의 언어와 문화에 어떻게 적응하는지 그 양상을 파악하는 것은 이들이 학업에서 성공하도록 교육하고 지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우즈베키스탄 출신 유학생을 포함하여 한국에 유학을 온 모든 외국인 유학생들은 낯선 한국 문화에 적응해야 한다. 이 과정을 문화적응이라고 하는데, 문화적응은 정서적, 행동적, 인지적 측면을 포함하여 필연적으로 각 학습자들 개개인의 정서적, 행동적, 인지적인 변화를 수반하게 된다. 본 연구는 문화적응 척도와 인터뷰를 활용하여 한국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우즈베키스탄 출신 유학생의 한국어언어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과 그 적응 양상을 고찰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그리고 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하여 이들의 교육과 지도에 도움이 될 내용을 모색하고자 한다.

한국어교육 및 한국학 분야에서 외국인 학습자들의 문화적응에 대한 연구는 2000년 이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분야별로 이루어진 주요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문화적응을 다룬 와타나베 요시아스(2002),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한국어 숙달도를 연구한 이은정(2009), 문영하(2012), 김현진·문영하(2013; 2014), 한국어 학습자의 언어불안과 문화적응을 다룬 김지혜(2011), 이슬람권 학습자의 한국 언어문화 적응을 다룬 최권진(2011), 외국인 학습자의 한국 문화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양지선(2012), 사회적 거리감과 문화적응 전략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김지혜·강승혜(2013), 김현진·김영주(2014), 한국어 사용 능력을 연구한 김현진·김영주(2015) 등이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한국어 학습자의 언어 숙달도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문화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렇지만 아직은 시작 단계로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가 문화적응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구체적이고 심도 깊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가 대학 부설의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어학연수생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따라서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수학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국문화 적응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학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양상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요인을 질적 연구방법과 양적 연구방법을 통해 한국어 교육학적 관점에서 파악할 것이다.

2. 우즈베키스탄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언어문화 적응

본 장에서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와서 인하대학교 국제학부에 재학 중인 우즈베키스탄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들이 한국어언어문화에 적응하는 정도를 설문지를 통한 양적 연구와 인터뷰를 통한 질적 연구를 혼합하여 파악하고자 한다.

3.1. 양적 분석

3.1.1. 연구 대상

이 연구가 수행된 인하대학교 국제학부에는 외국인 학생들만 재학 중이며 한국어 과목을 제외하고 모든 수업이 영어로 진행된다. 다국적의 학생들이 유학 중이지만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학생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기에 좋은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 이들은 모두 국제학을 전공하고 있으며, 개설된 지 2년밖에

안 된 신설학부로 한국어는 2년 동안 1주일에 3시간씩 기초 과정을 학습한다.

연구대상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출생하여 그곳에서 고등학교를 마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했으며, 고려인 출신 학생들은 종교와 사고방식이 이들과 달라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표 1> 응답자 인적 정보 (n=77)

변수	항목	빈도	퍼센트(%)
수학 학기	1학기생	34	44.16
	2학기생	13	16.88
	3학기생	20	25.97
	4학기생	10	12.99
성별	남자	64	83.12
	여자	13	16.88
연령	평균=19.76, 표준편차=1.206		

3.1.2. 연구 도구

언어문화 적응에 있어서 유학생들이 겪는 심리적인 문제들은 언어 장벽, 가족으로부터의 분리 생활, 문화 충격, 사회적 적응 등이 있다(Sandhu & Asrabadi, 1994:436). 이 연구에서는 언어 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MacIntyre & Gardner(1994)가 구안한 MLAT (Modern Language Aptitude Test) 척도를 응용하여 김지혜(2009)가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여 언어 불안과 문화 적응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개발한 도구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MLAT 척도는 학습의 인지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입력, 처리, 출력 단계의 역할을 고려하여 개발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즈베키스탄 학습자의 한국어언어문화 적응 양상을 파악하려는 본 연구에 적합한 척도로 판단되어 선택하였다. 설문지는 학습자들이 유창하게 구사하는 러시아어로 번역하여 사용되었으며,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고려인 동급생 3명을 대상으로 사전 예비 검토를 거친 후에 활용되었다.

우즈베키스탄 학습자의 한국어언어문화 적응도 검사에 사용된 설문지는 총 3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문항 30개는 '대학교에서 학습, 향수병, 문화 충격, 한국어 사용, 대인관계 형성'의 다섯 개 세부 영역으로 되어 있다. 이들 가운데 설문 문항 1~6번은 언어불안의 하위 요인 가운데 입력 불안, 7~12번은 처리 불안, 13~18번은 출력 불안을 측정하는 문항이다. 각 설문에 대한 응답은 Likert형 5단계 척도로 되어 있으며, 응답자는 자신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 하나만을 선택했다. 설문조사는 2018년 11월에 실시되었다.

<표 2> 한국어언어문화 적응 척도 측정 설문지 구성 내용

세부 영역	번호	설문 내용
1. 대학교에서 학습	1	대학교에서 공부를 계속하기에는 내 능력이 부족함
	2	한국어 수업이 재미있고 학교에 오는 것이 즐거움
	3	한국어 숙제를 하는 데에 힘이 듦
	4	귀국할 때까지 학습 성과를 거둘 자신이 있음
2. 향수병	5	요즘 외로워질 때가 있음
	6	고향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 생각이 자주 남
	7	요즘 이유 없이 짜증이 많이 남
	8	요즘 기분이 좋고 매우 건강함
	9	한국이 낯설어서 생활하기 힘들
	10	한국에 혼자 있는 것이 힘들어서 자주 고향에 가고 싶어짐
3. 문화 충격	11	한국 가게의 서비스가 불만족스러움
	12	한국인들은 가끔 내게 싫은 행동을 함
	13	나와 한국인의 가치관은 다름

	14	한국인의 시간관념은 이해가 안 감
	15	인간관계에 대한 나와 한국인의 태도가 다름
	16	새로운 음식에 적응하느라 불편함
4. 한국어 사용	17	한국어를 잘 못해서 어려움을 느낌
	18	한국인이 내 발음을 못 알아들 때 가장 많이 짜증이 남
	19	한국어로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음
	20	한국어로 의사소통 하려면 신경이 쓰임
	21	말하고 싶은 것을 한국어로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때 답답함
	22	한국어로 말하는 것이 즐거움
	23	교수님들에게 나에 대한 이야기는 무엇이든 말할 수 있음
	24	교수님들에게 편하게 말을 걸 수 없음
5. 대인관계 형성	25	한국인을 잘 이해할 수 있어서 만나는 것이 즐거움
	26	한국에 무엇이든지 털어놓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음
	27	우즈베크 학생들보다 한국 학생들과 만나는 것이 즐거움
	28	한국인은 친해지는 방식이 우즈베크 사람들과 달라서 가까워지기 힘들
	29	한국인은 인간관계에서 일관된 모습을 보이지 않아 사귀기가 어려움
	30	한국에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데 소극적임

3.2.3. 자료 처리 및 분석

본 연구는 설문지의 각 문항을 점수화하여 측정하였으며¹⁾ 이를 통계 처리하였다. 통계를 위해 사용된 도구는 통계패키지 SPSS 21을 활용하였다. 전체적인 크론바흐 알파 계수는 .625였다.

1) 설문 요인별 한국어언어문화 적응 정도 검증

한국문화 적응정도를 나타내는 구성요인으로는 ‘대학교에서 학습, 향수병, 문화충격, 한국어 사용, 대인관계 형성’으로 각 요인에 대한 정도 분석 결과는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한국어언어문화 적응 정도에 대한 기술적 통계(N=77)

한국문화적응 요인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대학교에서 학습	1.942	0.760	0.775	0.116
향수병	2.643	0.725	0.110	0.304
문화 충격	2.907	0.723	-0.125	-0.434
한국어 사용	2.839	0.638	0.007	0.801
대인관계 형성	2.972	0.633	0.030	0.491
전체	2.720	0.457	0.126	0.103

각 요인별로 그 정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반적으로 대학교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수병은 심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화충격의 정도는 보통의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이슬람 문화권에서 온 우즈베크 유학생들이 한국 문화에 아주 잘 적응하지는 못하지만 큰 문제 없이 적응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한국문

1) 설문지의 문항 중 긍정적인 질문으로 구성된 2, 4, 8, 19, 22, 23, 25, 26, 27번 항목은 역코딩으로 처리하였다.

화 적응을 위한 한국어 사용 정도는 조금 소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어 수준이 초급 정도여서 한국어를 자신감 있게 사용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대인관계 형성의 평균이 2.972(표준편차=0.633)로 보통 수준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어언어문화에 대한 적응 정도가 보통 이상인 것으로 판정할 수 있다.

3.2. 질적 분석

한국의 대학교에서 유학중인 우즈베크 출신 유학생의 한국어언어문화 적응 현황을 질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내러티브를 활용한다.

3.2.1. 연구 참여자 및 자료 분석

연구자는 설문지에 응했던 우즈베크 유학생 가운데 4명을 임의로 선정하였으며, 2019년 2월 25~27에 직접 개별 인터뷰를 진행하여 분석 자료를 수집하였다. 개별 인터뷰에 응한 연구 참여자들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표 4> 연구 참여자 정보

연구 참여자	성별	나이	수학 기간	종교	출신지
A	여	21	3학기	이슬람 (조금 유연한 신앙) ²⁾	안디잔
B	남	22	4학기	이슬람 (약간 개방적 신앙)	타쉬켄트
C	여	21	2학기	이슬람 (엄격한 신앙)	페르가나
D	남	21	4학기	이슬람 (아주 개방적 신앙)	타쉬켄트

연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인터뷰의 중심 내용은 ‘한국 유학의 동기, 한국어 학습을 포함한 대학 수업, 가족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 문화 차이, 한국어 사용, 한국인과의 관계 형성’이었다.

3.2.2. 한국어언어문화 적응에 대한 이야기

인터뷰 자료를 분석하는 데 사용한 방법은 영역 분석과 분류 분석이다³⁾. 영역 분석에서는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유학생들이 한국어언어문화를 접하면서 느끼거나 경험한 것을 ‘학습, 향수, 문화, 이슬람, 한국어, 한국인’을 핵심어로 하여 1차로 유목화하였다. 이렇게 분석된 1차 자료를 활용하여 분류 분석을 실시하여, 유의미한 것으로 판단한 내용과 유사한 내용을 묶어 2차 범주화하였다. 이에 따라 ‘학습에 대한 자신감, 한국어 학습과 사용이 주는 즐거움, 향수병보다 강한 성취욕, 문화 차이로 인한 생소한 경험, 이슬람 종교관과 신앙생활의 다양성, 수줍음이 많은 한국 사람들과 친구 되기’로 분류했다.

1) 학습에 대한 자신감

학습자들은 전반적으로 학습에 성공할 것이라는 자신감이 가득하다. 전체적으로 많은 것을 공부하는데 다양한 수업에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업에 성공할 것을 확신한다. 학교의 교환 학생 제도를 이용해 다른 나라에 가서 공부도 해 보고 싶다. 성적이 좋아 조기 졸업할 가능성도 있다.” (연구 참여자 A)

“나는 공부에 자신감이 있다. 학습에 집중하고, 교수님들이 도움을 주기 때문에 자신이 있다. 내가 전공하는 분야는

2) 괄호안의 신앙생활의 형태는 연구자가 인터뷰 내용으로 판단한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 연구의 3.2.2.를 참고하기 바란다.

3) 영역 분석(domain analysis)과 분류 분석(taxonomic analysis) 방법은 Spradley(1980)이 제시한 것으로 실제 적용 방법에 대해서는 김필성·김영천(2015)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공부가 가능하다.” (연구 참여자 B)

“나는 학업에 성공할 자신이 있다. 처음에는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유학 갈 생각이었다. 지금은 한국 생활에 적응했다. 여기서 졸업할 것이다.” (연구 참여자 C)

“나는 고향에서 정보통신(IT)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한국이 IT가 발전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IT 지식과 기술을 늘리고 싶었고, 새 언어를 배우고 싶었다. 언어를 하나 더 아는 것은 플러스 요인이다. 한국어는 모국어인 우즈베크어와 문법이 비슷하다. 노인을 공경하는 것 등 문화가 비슷한 것도 있다. 그래서 한국에서 공부하는 것이 더 용이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학습 성과를 거둘 자신이 있다.” (연구 참여자 D)

위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연구자가 교육했던 학생들로 학습에 집중도가 좋았던 유학생들이었다. 모두가 한국에 유학을 온 목적의식이 분명하여 학업에 열심히 임하며, 따라서 학업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과 자신감에 충만해 있다. 그렇지만 아래 연구 참여자 C가 언급하고 있듯이, 모든 수업에 만족하는 것은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나는 싫어하는 과목이 있다. 나에게 맞는 과목이 있다. 싫어하는 과목은 공부하기 싫고, 좋아하는 과목은 열심히 공부한다.” (연구 참여자 C)

연구 참여자들이 모두 학업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다는 자신감만큼 대학교에서 학업을 마친 후에 어느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걱정도 이와 대등하게 크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이들이 공부하는 국제학부는 아직 졸업생이 배출이 되지 않았다. 따라서 선배들이 진출한 분야가 없어 자신들이 학업을 마친 후에 직업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확신을 할 수 없어서 사회 진출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것이다.

“대학교에서 많은 것을 공부하는데, 학업을 마친 후에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에 관심도 많고 걱정도 많다.” (연구 참여자 A)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국제학의 학문 범위가 넓어 대학 교육을 마친 후에 사회 진출이 어느 분야가 될지 불확실해 걱정이 된다. 장래 취업에 대해 불확실해 교수님들과 학교 당국에 의견을 자주 개진하고 묻는다.” (연구 참여자 B)

2) 한국어 학습과 사용이 주는 즐거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연구 참여자들이 수강하는 과목은 한국어 과목을 제외하고 모두 영어로 진행된다. 한국어는 초급 과정으로 제공되며, 4학기 동안 배운다. 이는 능숙한 한국어를 학습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수이다. 그렇지만 한국어가 이들의 모국어인 우즈베크어와 유사하여 배우기 쉽다고 한다.

“모든 과목이 영어로 진행된다. 아르바이트도 영어로 한다. 한국어는 한국어 수업 시간에만 사용한다. 한국어가 우즈베크어와 문법이 가깝다. 문장 구조가 유사하다. 그래서 한국어가 배우기 쉽다.” (연구 참여자 A)

“한국어는 우즈베크어와 비슷하다. 우즈베크어와 한국어는 유사점이 많다. 그래서 나는 한국어를 배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연구 참여자 B)

한국어 실력이 부족하여 교실 밖에서 아직은 한국어보다는 영어를 더 편하게 자주 사용하지만, 한국어를 사용하면서 즐거운 경험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 친구와 커피숍에서 4 시간 동안 한국어로만 이야기한 적이 있다. 나올 때 내 자신이 자랑스러웠다. (연구 참여자 B)

“한국어를 잘 배우고 싶다. 내가 한국어로 말하면 한국 사람들이 한국어를 잘한다고 칭찬하는데, 이것이 내게 학습 동기가 된다. 영어, 러시아어, 터키어를 하는데, 한국어가 나에게 새로운 언어여서 한국어로 말하는 게 즐겁다.” (연구 참여자 C)

“학교 밖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려고 노력한다. 한국어 실력을 쌓아야 한다. 한국어는 나에게 새로운 언어로 나에게 한국어를 아는 것이 이득이다. 한국어로 말하는 것이 즐겁다.” (연구 참여자 D).

연구 대상자들은 모두 한국어를 배워 높은 수준의 한국어를 구사하고 싶어 한다. 이들은 한국어를 한국에서의 생활에 필요한 언어이기도 하지만 장래를 위해 배워야 하는 언어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비록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하지는 못하지만 한국 사람들과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는 것을 즐겁게 여기고 있다. 이들은 장차 대학교를 마친 후에 한국에서든 아니면 모국에서 취직을 할 때 한국어를 구사한다는 것이 이들에게는 큰 자산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3) 향수병보다 강한 성취욕

고향과 가족을 떠나 외국에서 공부하는 것은 큰 도전이다. 낯선 환경, 익숙하지 않은 음식과 기후, 새로운 인간관계 등 모든 것을 새롭게 경험하면서 이에 적응해야 한다. 따라서 낯선 곳에서 외로움을 느끼며 가족과 고향에 대한 향수를 느끼는 것은 유학생에게 당연한 과정이다.

“가족과 고향이 당연히 그렇다. 거기서 자라서 그렇다. 명절에 고향에 가지 못하면 스트레스가 생긴다. 방학에 고향에 가서 가족과 친구를 봐서 좋았다.” (연구 참여자 A)

“물론 한국에서 향수와 외로움을 느낀 적이 있지만 크지 않았다. 대학 입학이 내 목표였기 때문에 향수병을 느낄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인터넷을 통해 가족과 화상 통화를 하여 그리움을 크게 달랠 수 있어서 향수가 심하지 않다. 향수와 외로움을 극복해 내면서 내가 성장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연구 참여자 B)

“가족과 친구가 보고 싶다. 나는 이제 성인이다. 고등학교 때부터 혼자 떨어져 독립하고 싶었다. 그래서 고향에 돌아가고 싶지 않다.” (연구 참여자 C)

“향수병이 없다. 가족과 친구가 보고 싶다. 그렇지만 내 꿈을 실현하러 한국에 왔다. 한국이 첫 외국 여행지이다. 여기서 석사 공부까지 하고 성공하고 싶다. 외로움을 전혀 안 느낀다. 그러는 순간이 있기는 하지만, 화상 통화를 자주 한다.” (연구 참여자 D)

연구 참여자들은 낯선 타국에서 당연히 향수를 느낀다. 그렇지만 유학을 온 목적을 성공리에 완수해야겠다는 의지가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보다 더 강하다. 그리고 그리움을 달래는 데에 현대 문명의 이기인 화상통화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4) 문화 차이로 인한 생소한 경험

연구 참여자들과 진행한 인터뷰 내용 중 가장 분량이 많은 부분이 한국과 우즈베크 사이의 문화 차이로 인한 경험이었다. 이슬람 문화권에서 온 연구 참여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나는 한국 사람을 존중한다. 한국 사람이 친절하다. 가게 등에서 서비스가 좋다. 한국 사람들은 자신이 해야 할 임무를 한다. 법이나 규정을 어기지 않는다. 사소하지만 수업이나 약속에 우즈베크에서는 일반적으로 늦는다. 한국 사람들은 시간을 잘 지키고 늦을 경우 미리 알린다. 그래서 내가 한국에 온 후로는 우즈베크에서와는 달리 일정에 대해 계획을 세운다. 그래서 시간을 허투로 쓰지 않는다. 음식은 아주 다르다. 우리는 돼지고기를 안 먹는다. 나는 해산물을 먹는 것도 문제이다. 우리는 바다가 없어서 해산물을 먹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 볶음밥과 찜닭을 좋아한다. 이제 매운 음식에 적응했다. 인천의 시내버스에서 휴대폰과 지갑을 잃어버린 적이 있다. 다음날 학과 사무실에 가서 말했는데, 학과 사무실에서 버스 회사에 연락하여 한 시간 후에 찾았다. 버스 종점의 분실물 보관소에 있었다. 우즈베크이었으면 찾지 못했을 것이다.” (연구 참여자 A)

“한국에서 가게의 서비스에 대만족한다. 항상 웃음으로 친절하게 대한다. 우즈베크나 러시아에서는 가게에 가면 적을 대하듯이 했다. 한국 영화나 드라마, TV는 음식에 많은 것을 할애한다. 우즈베크에서는 식사는 일상사로 생각하여 크게 다루지 않는다. 문화 충격은 없다. 한국 친구를 만날 때마다 한국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문화 충격이 없다. 한국의 전통문화를 이해할수록 노인 공경 등 우즈베크 문화와 같은 점을 발견한다.” (연구 참여자 B)

“처음 한국에 도착해서 인천공항을 나올 때부터 우즈베크와 모든 것이 달라서 외로웠다. 옷을 입은 복장부터 달랐다. 그리고 금전적으로도 어려웠다. 영어 과외를 하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비의 절반을 벌고, 부모님으로부터 절반을 지원 받는다. 나는 돈을 많이 쓰지 않는다. 음식을 주로 집에서 해서 먹는다. 월 60~70만 원 정도 생활비로 사용한다. 김치, 김밥, 국, 떡을 좋아한다. 돼지고기를 안 먹으며, 고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연구 참여자 C)

“길 반대편에서 커플이 있었다. 여자가 남자를 상당히 큰소리가 나게 때렸다. 남자는 웃고만 있었다. 여자가 높은 지위가 있는 것으로 느껴져 놀랐다. 한국인은 우즈베크인보다 시간을 잘 지킨다. 빨리빨리 문화가 한국인들이 시간을 제 때 맞추는 좋은 습관을 만든 것 같다. 매운 한국 음식에 처음에는 적응하지 못했다. 3개월 후부터 매운 음식을 좋아하게 되었다. 김밥, 불고기, 비빔밥을 잘 먹는다. 한국은 한국인이 건설해서 외국인도 한국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외국인에게 차별적인 행동을 보이면 피하고, 이도 존중해야 한다.” (연구 참여자 D)

모두가 처음에는 한국의 매운 음식에 적응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약속에 늦지 않는 것과 친절하고 서비스에 긍정적인 경험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화의 차이로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문화적 차이가 문화 충격으로까지는 느끼지 않고 한국문화에 적응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5) 이슬람 종교관과 신앙생활의 다양성

연구 참여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차이는 신앙생활에서 엿보인다.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스스로를 무슬림이라고 답했다. 그렇지만 이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터뷰 내용으로 판단하면, 이들의 종교관과 신앙생활의 모습은 이슬람 신앙을 엄격하게 실천하는 ‘엄격한 신앙(연구 참여자 C)’, 보수적이지만 개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유연한 신앙(연구 참여자 A)’, 약간 더 개방적으로 자유스럽게 이슬람 신앙생활을 하는 ‘약간 개방적 신앙(연구 참여자 B)’, 그리고 아주 개방적으로 이슬람 신앙생활을 하는 ‘아주 개방적 신앙(연구 참여자 D)’으로 구분된다.

“나는 여자이다. 이슬람 종교에 의하면 여자는 집에만 있어야 한다고 한다. 우즈베크에서는 여자 혼자 다니면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는데, 여기서는 내가 길을 걸어가도 그런 시선이 없어서 좋다. 한국에서는 여자와 남자가 동등하다. 학교에서는 여자가 더 좋은 성적을 받는다. 우즈베크에서도 법으로는 동등하다. 현실에서는 문화적으로 여자는 한 단계 아래다. 그래서 한국에서 교육을 받고 고국으로 돌아가면 현지 문화에 적응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즈베크 문화가 변화하고 있어서 문제가 적을 수도 있다. 10년 전에는 여자가 외국으로 유학을 가는 것이 불가능했는데, 현재는 나처럼 유학도 갈 수 있다.” (연구 참여자 A)

“나는 무슬림이다. 그렇지만 마음속으로만 기도한다. 형식적으로 5회 기도는 중요하지 않다. 마음속으로 믿는 것이 중요하다. 아버지께서 지나치게 형식에 집착하면 테러리스트처럼 극단적인 무슬림이 된다고 했다. 하루에 다섯 번 기도하면 외부 테러그룹이 접근할 수도 있다고 했다. 따라서 마음속으로 기도하라고 하셨다. 그렇지만 나는 돼지고기는 먹지 않는다.” (연구 참여자 B)

“나는 아주 종교적인 무슬림이다. 모든 사소한 것도 종교적인 관점으로 본다. 그래서 음식도 가려서 먹으며, 노래 등을 듣지 않는다. 히잡을 쓴다. 한국에 살려면 벗어야 한다고들 하는데 나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국이 이슬람 사회가 아니어서 음식 등에서 힘든 면이 있다. 그렇지만 여기에 사는 게 좋다. 안전하고 사람들이 부드럽다.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면서 당황하게 하지 않는다. 내가 길을 물어보면 한국 사람들이 당황하지 않고 잘 설명해 준다. 한국에서 아무도 나를 무슬림이라고 특별한 시선으로 보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나는 비무슬림 문화 속에서 아주 편하게 무슬림으로 산다.

가족 중에 나만 종교적이다. 고등학생일 때 코란을 읽고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좋은 내용을 발견했다. 그래서 코란의 좋은 내용을 실행하면서 살겠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해서 평온을 찾는다. 그전에는 히잡을 안 썼는데, 코란을 실행하면서 살겠다고 다짐한 열아홉 살 때부터 쓰기 시작했다. 나는 종교적인 행동과 히잡을 쓰는 것에 모두 편안하게 느낀다. 하루에 다섯 번 기도해야 해서 방학 중에도 아르바이트를 안 한다. 내가 믿는 신을 위해서 유혹적인 것이나 내 마음에 거슬리는 것 등을 거부할 수 있어서 종교적으로 사는 것이 힘들지 않다.” (연구 참여자 C)

“나는 자유로운(liberal) 무슬림이다. 로마에서는 로마인처럼 살라는 말이 있듯이, 한국에서는 현지인처럼 살려고 한다.

그래서 한국에서 돼지고기도 먹고, 술은 약한 술을 조금 마신다.” (연구 참여자 D)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 사회에서 자신들이 종교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생활하는 데에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신앙의 형태는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신의 의지와 판단에 따라 철저히 원리적인 규율을 준수하는 학생도 있으며, 아주 개방적인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학생도 있다.

6) 수줍음이 많은 한국 사람들과 친구 되기

외국인이 한국에서 유학하면서 다양한 한국인들과 관계를 맺는 것은 필연적이다. 학교 밖에서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또는 다른 사유로 한국인들과 관계를 갖고 있다.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한 한국인과의 교류 관계는 다음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친한 한국 친구가 3명(남1, 여2명)이 있다. 내가 한국어를 잘 못하니 영어로 의사소통한다. 한국 학생들이 수줍어하고, 먼저 마음을 여는 것을 어려워한다. 먼저 마음을 열고 접근하는 외국인이 있으면 한국 사람이 마음을 연다. 학교에서 테니스 동아리와 탁구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재미있고 동아리 회원들과 친구가 되기가 쉽다.” (연구 참여자 A)

“나보다 나이가 많은 한국 친구가 있다. 그래서 형이라고 부른다. 다쳐서 병원에 간 적이 있는데, 그 형이 내가 치료 받을 때 계속 괜찮냐고 물어보고, 병원비를 깎아달라고 부탁도 하는 것을 보고 우정을 느꼈다. 한국인과 친구가 되면 모든 것을 도와주려고 한다는 것을 느꼈다.”

“식당하고 코인노래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다. 코인노래방에서는 돈을 안 내는 손님하고 치고 박고 싸운 경험도 있다. 세계 어느 곳에서나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있다.” (연구 참여자 B)

“한국 친구는 1명이 있다. 내가 한국 친구를 사귀려고 특별히 애쓰지 않았다. 보통 외국 학생들과 공부를 같이해서 외국 학생들과 자주 어울린다. 한국 사람과 친구가 되지 쉽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한국 친구를 많이 사귀어야겠다. 한국어를 내가 잘하지 못해 한국 사람과 이해가 완벽하지 못해 친구를 못 사귄다.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을 만나면 수줍어한다.” (연구 참여자 C)

“학교에 한국 친구가 있다. 그리고 컴퓨터와 관련된 알바를 하면서 한국인과 친구가 되었다. 친구가 컴퓨터 부품도 구해 주고, 같이 소주를 마시자고 초대한다. 외국에 나가 본 적이 있는 한국인과는 친구가 되기 쉽다. 한국 내에서만 머무른 한국인은 외국인에 대한 확신이 없어 외국인과 친구가 되기를 주저하는 것 같다.” (연구 참여자 D)

우즈베키스탄 학습자들이 경험한 바로는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과 친구를 맺는 데에 주저하고 수줍어한다. 이는 서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언어 문제가 가장 큰 장벽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인 친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적절하게 한국인들과 교류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 범위를 넓히려고 노력하고 있다. 한국인들과의 건전한 교류관계는 교내외에서 이들이 한국어언어문화를 경험하면서 적응해 가는 데에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장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4. 나가기

국내 대학교의 학부에 재학 중인 우즈베키스탄 출신 유학생의 한국어언어문화에 대한 적응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이들은 대상으로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이 수행되었다. 설문지를 통해 이루어진 양적 분석의 결과는 총 5개의 구성요인 별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이 한국어언어문화에 적응하는 정도를 잘 보여준다: ① 전반적으로 학업을 수행하는 대학교 기관에 잘 적응하고 있다. ② 고향과 가족에 대한 향수병은 심하지 않다. ③ 문화 충격은 보통의 정도로, 한국 문화에 아주 잘 적응하지는 못하지만 큰 문제없이 적응하고 있다. ④ 한국어 구사력이 초급 수준이어서 한국어 사용 정도는 조금 소극적이다. ⑤ 한국 사람들과의 대인관계 형성은 보통의 정도이다. 또한 한국어 학습기간에 따른 적응 정도를 검증한 결과에 의하면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이 학년이 높아질수록 ‘대학교에서 학습’과 ‘한국어 사용’에서 더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4명을 대상으로 한 양적 분석의 결과도 전체적으로는 질적 분석의 결과를 뒷받침하지만, 우즈베키스탄 출신 유학생들의 한국어언어문화 적응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도 제공한다. 이들은 학업의 성공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보이며, 한국어 학습과 사용이 주는 즐거움을 느끼고 있으며 한국어 구사 수준이 낮아 사용에 한계가 있지만 한국어를 잘 배워서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사용하려고 한다. 그리고 학업과 유학 생활을 성공적으로 완수해야 한다는 성취욕이 고향과 가족에 대한 향수보다 훨씬 강하다. 모국의 이슬람 문화와는 많이 다른 한국 사회에서 다양한 신앙생활과 문화 차이를 경험하면서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있으며, 그 속에서 한국 사람들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우즈베키스탄 출신 유학생이 한국어언어문화에 적응하면서 한국에서 학업을 성공적으로 마치도록 시도하면서 도움을 주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렇지만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여기에만 머무르지 말고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어 종합적으로 이들을 이해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생략>

몽골에서의 한국문학교육 현황 연구

A Study on the Education of Korean Literature in Mongolia

게렐 치맥 (서울대학교)

1. 서론

1.1. 연구 목적

몽골과 한국은 1990년에 수교 이후 활발한 교류하기 시작한지 내년에 30년째 기념 일이 다가온다. 몽골에서의 한국어교육의 정식적인 시작이 1991년에 몽골국립대학교에 한국어교육이 설립된 이후로 수많은 교류가 발전 되었다. 많은 교류가 발전 시작 이후 한국어를 배우는 몽골인 학습자도 급속하게 증가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인하여 몽골에서 한국어 가르치는 학교가 우후죽순처럼 증가하였다. 즉, 몽골 현지 초 중 고등학교에서 필수 및 선택과목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학교들 점점 생겼으며, 한국어학과를 운영하는 대학교의 숫자도 점점 늘어났다. 2018년 기준으로 한국어학과 설치한 학교가 21개¹⁾가 되었다. 또한 일반인을 위한 한국어교육을 운영하는 한국어 학원들이 생기기 시작했으며, 2017 기준으로 67개²⁾ 한국어 교육하는 학원이 울란바토르 시에서 운영하고 있다. 몽골에서의 한국어 학습자는 주로 목적이 유학, 이주노동, 결혼이민, 사업, 통*번역전공으로 배우고 있다. 이런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한국어를 배우지만 종점은 한국에 입국하는 목적이다. 따라서 입국 목적을 가진 몽골인 학습자가 증가할 수록 몽골에서의 한국어교육 뿐만 아니라 한국문학교육 과정의 발달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한국어교육 기관이 늘어났지만 한국어교육 과정 발달이 발전 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 한국어교육을 한국문학을 통해 가르친다면 학습자가 한국인의 사고방식 및 한국문화를 현장에서 배우지 않더라도 문학작품으로 알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을 밝힌다.

1.2. 선행연구 검토

몽골에서의 한국어교육 현황을 연구한 연구와 한국에서의 한국어교육에서 문화교육 문학작품의 필요성을 논의한 논문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몽골에서의 한국어교육 현황을 살펴본다. 생빌릭트(2005)에서는 한국어교육의 문제, 교수진의 문제를 일부 제기하였다. 최명선 (2014)에서는 몽골에서의 한국어교육 현황과 발전 방향을 한국어교육 현황 및 한국어교육의 특징으로 증빙하여 제시하였다.³⁾ 생빌릭트 (2016)에서 몽골에서의 한국어교육 현황을 몽골 현지에서 한국어교육을 운영하는 기관들 통해 몽골인 학습자의 증가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다루면서 그전보다 한국어교재나 교수진이 다양화 면에서 부족한 상황을 밝혔다. 최근 바트어치르 어치르바이르(2019)에서 몽골에서의 한국어교육 현황을 새로 조사하여, 연수 프로그램, 교사들 연구, 교재 개발의 문제를 제시하였다. 다음으로는 한국에서의 한국어교육에서 문화교육의 필요성을 살펴본다. 김대행(2000)는 문학 교육의 목표는 언어능력의 증진, 개인의 정신적 성장, 개인적 주체성 확립, 문화 계승과 창조 능력 증진, 전인적 인간성 함양이라고 말했다.⁴⁾

이렇게 몽골의 한국어교육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논의가 많지만 한국 고전문학교육 현황을 논문이나 학회에서 보고 된 바가 없다. 그러나 한국 문학교육 현황 조사가 잘 안 되고 있다. 따라서 문학교육이 발달 되지 않았으며, 한국에서의 문학교육 연구들을 보면 몽골에서 한국어 교육을 문학작품으로 가르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밝혀진다.

1) Bat -Ochir Ochirba yar 몽골에서의 한국어교육 현황, 울란바토르 시. 2019.

2) Bat-Ochir Ochirbayar 몽골에서의 한국어교육 현황, 울란바토르 시. 2019.

3) 몽골의 공동의 노력으로 몽골에서 한국어교육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정부 차원과 기관 차원으로 나눠 제시해 봤다. 정부 차원으로는 첫째, 한국 정부의 차원으로 한국문화원을 설립하고, 교사 재교육이나 한 몽 한국어교육 조직을 형성하여 몽골에서 한국어교육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둘째,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을 향해 한국과 몽골 정부는 관심을 갖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기관 차원으로는 첫째, 몽골 대학은 한국 대학과의 교류를 통해 교재 재교육이나 한국인 교사 초청, 교사 세미나를 진행해야 한다. 둘째, 몽골 대학은 한국어교육 담당자 모임이나 한국어교재 박람회를 열어야 한다.

4) 박영애(2015:15) 재인용

2. 몽골에서의 한국어교육 개관

2.1. 초 중 고등학교의 한국어 교육

몽골 전국 총 630 개 초 중 고등학교가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118 개가 울란바토르 시에 위치한다. 울란바토르 시에서 위치하는 초 중 고등학교 중 8개 학교(2018년 기준으로)가 한국어 가르치고 있으며, 이 중 7개 학교가 공식적으로, 1개 학교가 선택과목 및 동아리 활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 교육제도를 도입하면서 몽골 교육부 방침에 따라 현지 한국 동포 자녀와 몽골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초 중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한국어 선택 및 심화 과목의 경우 80%가 “몽골인을 위한 종합한국어 1-6”을 활용하여 커리큘럼을 수립하는 반면에 20%가 당 학교와 협력 학교의 교수 및 연구원들의 선전한 본 교과서를 복사하여 사용하고 있다. 한국어 수업은 중학교 6-8학년 학생들은 1주일에 2회, 고등학교 학생들은 1주일에 3회 한다.⁵⁾

2.2. 대학교의 한국어 교육

몽골에서의 한국어 교육 역사를 살펴보면 몽골국립대학교 (1991), 국립외국어대학교 (사립 인문대학교로 개명 1992), 사립 울란바토르대학교 (국제울란바토르대학교로 개명 1992) 등의 2014년 기준으로 15 대학교 한국어교육 및 학과 설치를 하였다. 학생수가 2,500명 가까이 되었다. 2018년 기준으로 몽골 내 107개 대학교 활동 중이다. 이 중 국립대학교 (ikh surguuli) 14개, 공립대학 (deed surguuli) 4개, 지방국립단과대학 10개, 사립대학교 (ikh surguuli) 21개, 사립대학 (deed surguuli) 52개, 사립전문대학(칼리지) 3개, 외국대학교 부설 대학 3개이다. 적극적으로 활동 중인 107개 대학교이며, 그 중 17개 대학교에 한국어과가 설립되어 있다. 한국어를 선택 과목으로 배울 수 있는 학교가 107개 대학교 중 21개가 된다. 대학교 수업이 1주일에 2시간으로, 15-16주로 이루어진다. 대학교, 칼리지⁶⁾에서의 한국어 필수 과목 및 선택 과목으로 10개 대학교가 “몽골인을 위한 종합한국어 1-6”를 활용하여 커리큘럼을 수립하며, 그 학교 중 5개 대학교가 추가 교과서를 사용한다. 그러나 6개 학교가 함께 연구 및 일하는 교수와 연구원들을 선호하여 교과서를 복사하고 사용하는 조사가 있다.

2.3. 기타 한국어 교육

2007년에 한국 문화관광부 산하 국립국어원의 지원으로 몽골국립대학교와 국제 울란바토르 대학교에 세종학당이 개설되었다. 현재 국제 울란바토르대학교 울란바토르-1 세종학당, 몽골국립대학교 울란바토르-2 세종학당, “HUREE”정보통신대학교 울란바토르-4 세종학당을 운영하고 있다. 학교에서 운영하는 세종학당 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위한 개인 한국어학당도 많이 증가하였다.

2016 12 2019년 9월까지 주사 결과로 몽골 전국에서 교육 인증서가 받아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총 854개 학원이 있으며, 이 중 329개 외국어 학원으로 활동한다. 그 중 한국어교육으로 운영하고 있는 83학원이 있다. 한국어교육을 운영하는 83개 학원 중 67개 울란바토르 시에서 위치하며, 34개 학원이 정기적으로, 23개 학원이 비정기적으로 운영한다. 비정기적으로 운영하는 23개 학원 중 13개 운영을 정지함으로 조사결과 낮다.⁷⁾

3. 한국어교육에서의 문학교육 현황

2장에서 살펴본 내용과 같이 몽골에서 초 중 고등학교에서 한국어교육을 8개 학교, 대학교가 21개, 다른 한국어교육 기관이 67개 있지만 고전문학을 교육 하는 학교가 대학교 2군대학교 밖에 없다. 2018년 기준으로 몽골국립대학교, 인문대학교, 국제울란바토르대학교가 한 학기 3학점으로 필수과목으로 하고 있었지만 인문대학교가 올해부터 교사가 한국어로 귀국 인해 문학교육을 정지하였다. 지금 현재는 2개 대학교가 운영하고 있다.

5) Bat-Ochir Ochirbayar 몽골에서의 한국어교육 현황. 울란바토르 시. 2019.

6) 몽골의 교육과정에 전문대학교가 2종류로 구성된다. 첫 번째, 중학교를 졸업하여 전문대학(칼리지)에 입학할 수 있으며, 고등학교 졸업증 및 자격증을 같이 딸 수 있다. 두 번째, 고등학교 졸업하여 2,3년째 전문대학교에 입학 할 수 있다.

7) Bat-Ochir Ochirbayar 몽골에서의 한국어교육현황. 울란바토르 시. 2019.

3.1. 고전문학교육 현황

3.2. 현대문학교육 현황

5. 결론 및 제언

몽골에서의 한국어교육 현황 연구가 많고 연구들을 살펴보면 한국어교육기관들이 많고 한국어교육이 어느 정도 발달 되어 있지만 문학교육이 안 되고 있다. 그러므로 문학교육 필요성을 제언한다.

참고문헌

앵크체첵 , 김영란 (2017), 몽골의 통 번역 전공 한국어 교육과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Session 2A

사회: 한 넬리 (카자흐스탄 세계언어대학교)

- **한국 무속신앙과 알타이 샤머니즘의 유사성**
카르테바-단체바 S.T. (소피아대, 불가리아 소피아), (E)
- **영적 고향으로 돌아가는 수단으로서의 종교관광**
세인필 아셀(중앙아시아 한국대,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R)
- **카자흐스탄 고려인의 형성, 현황 및 전망**
명 드미트리(카자흐 국립대, 카자흐스탄 알마티), (R)
- **우즈베키스탄 대학의 한국어 교육을 위한 실습 프로그램**
김 나탈리아(타슈켄트 동방대, 우즈베키스탄), (R)
- **한국어교육에서의 프로젝트교수법**
이 올가(타라즈 국립사범대, 카자흐스탄 타라즈), (R)
- **번역의 다문화 측면에서 한국어 어법의 정보 구성 요소**
신데츠카야 예브게니야(비슈케크 인문대,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R)
- **한국어 교육의 혁신적인 교수법**
김 타티야나(타슈켄트 동방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R)
- **문화의 교차점에 있는 키르기스스탄과 한국**
스탐베코바 티나틴(키르기스 한국대,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R)

한국 무속신앙과 알타이 샤머니즘의 유사성

카르테바-단체바 S.
소피아대, 불가리아 소피아

Некоторые параллели между корейским му-сок и алтайским шаманизмом

Картева-Данчева Светла
Софий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Св. Кл.Охридски”, София, Болгария

Аннотация: В результате тщательного изучения ряда деталей корейского шаманизма му-сок можно заметить некоторые элементы, благодаря которым становится возможным выделить те исконные слои, доказывающие его связь с шаманизмом, распространенным среди алтайских народов Сибири, Центральной и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В ритуальной практике шаманов всех алтайских народов и корейцев обязательно используются и широко применяются колокольчики. Они являются неотъемлемой частью костюма тюркских, монгольских, тунгусских и маньчжурских шаманов.

Колокольчики с длинной ручкой обвернутой оленевой или собачей шкурой, являются обязательным ритуальным атрибутом и для корейских шаманок. Верующие считают, что их звонки заманивают добрых духов и прогоняют злых. Другие считают, что во время шаманского ритуала кут в них вселяется дух-покровитель шамана.

Объектом поклонения среди алтайских народов являются и священные птицы (орел, лебедь). Согласно некоторым легендам они являются предками шаманов или родоначальниками некоторых алтайских народов. В шаманских текстах тюркских и монгольских народов орел почитается как повелитель солнца, как высшее божество, считается творцом природы.

Среди корейцев тоже до сих пор бытует традиция у входа деревни воздвигать деревянный столб (сотте) с находящейся наверху фигурой птицы.

Применение веера корейскими шаманами во время ритуала тоже можно считать элементом, который имеет параллель в алтайском шаманизме.

Опахало(веер) - важный ритуальный атрибут, который часто используют шаманы тюркских, монгольских и тунгусских народов. Чаще всего это березовая веточка с листьями или кусок ткани. Термины, которыми его называют тюрки - джалбыыр (як.), шырва (кум.), желпингич (кирг.), jǎlpäk (алт.); čelbeg (шор.); jilbiš (тув.) jelpigü (дрт.). Основы этих терминов - джал-; жел-, čel-; jel- являются фонетическими вариантами древнетюркского слова jel - „ветер”.

Ассоциация насчет наличия ритуальной связи между опахалом и легким ветром, который возникает вследствие его движения, не случайна. Понятие ветра jel как божества среди тюркских народов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о в древнетюркских письменных памятниках, в которых оно упоминается как jel tängri.

Важным общим компонентом алтайского и корейского шаманизма являются и металлические (бронзовые) зеркала, которые используют шаманы во время проведения ритуалов

камлания. Среди большинства алтайских народов они известны под названием толи.

Зеркала, которые применяются в шаманских ритуалах алтайских народов и корейцев, имеют ряд общих функций:

- могут служить для прогнозирования будущих событий
- способны отражать добрые или плохие дела
- отражают грехи людей
- помогают шаману видеть другие миры
- помогают шаману прогнать нежеланных духов, которые могут появиться во время ритуала

ритуала

- используются в лечебных целях

Эти функции отмечают и общие элементы между корейским *му-сок* и алтайским шаманизмом. Их разъяснение дает основания утверждать, что металлические зеркала обладали необычной магической силой. Ответ на вопрос в чем причина шаманским зеркалам приписывать магическую силу, заключается скорее всего в их ассоциировании с образом Луны. Так, можно утверждать, что шаманское зеркало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символ, который приобретает смысл благодаря его связи с Луной. Его блеск ассоциируется с блеском молнии, которая считается носителем сверхестественных сил. Она является вестителем дождя, а дождь контролируется Луной.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магический смысл шаманских зеркал среди алтайских народов не совсем одинаков, объединяющим для них является паломничество к Луне, к неиссякаемым силам, которые сосредоточены в ней.

Некоторые культы, которые существуют и в алтайском, и в корейском шаманизме еще с древних времен, также являются важными общими параллелями. Среди них интерес представляют культ свиньи и культ кузнеца.

Выдающийся русский востоковед Н.Я. Бичурин сообщает, что предки корейцев и остальных обитателей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еще в древности разводили свиней, которые были и жертвенными животными. И до сих пор в современности корейские шаманки мудан выполняют ритуал кут, совершая обрядовые действия с головой свиньи.

Археологические находки времен неолита свидетельствуют о почитании свиньи как жертвенное животное также и для тунгусов и маньчжуров.

Согласно древним верованиям корейцев люди, которые обладают умениями кузнеца, были высоко уважаемые в обществе. Ч. Кларк- один из первых исследователей Кореи обращает внимание на существующее среди корейцев верование, что злые силы боятся железа даже при упоминании этого слова. По этой причине шаманы вешают на костюмах металлические подвески и держат в руках ножи, сабли или другие металлические "оружия".

Среди тюрков и монголов тоже бытует подобное верование. Кузнец играл важную роль и имел огомное влияние в их социуме. Все алтайские народы верили, что железо и железные предметы обладают способностью прогонять злых духов.

Вот почему еще с глубокой древности зародился культ кузнеца и предметов, которые он использует. Термин, которым обозначается понятие кузнец - "дархан, тархан", широко применяется среди тюркских и монгольских народов. Он имел и другие, более широкие значения - "вождь рода и племени"; "предводитель"; "жрец рода"; "привилегированное лицо, освобождено от налогов".

Из древних культов, распространенных среди корейцев и монгольских народов большой интерес представляет обычай поклонения перед каменными кучами, воздвигнутыми на вершине горы, на холме, у дороги или в степи.

Монголы называют такие каменные кучи обо. Корейцы называют подобные сооружения тхап, когда они находятся у дороги, а когда они установлены у входа деревни - сонгхуангданг (сонангданг).

Вследствие тщательного анализа характеристик корейских каменных сооружений сонгхуангданг и монгольских обо, между ними обнаруживаются удивительные сходства, которые являются элементами древней обрядности. В своей самой древней форме эти элементы являются выражением отношения людей к камню как религиозному символу, связанному с тотемными животными.

Алтайские мотивы в корейском шаманизме, рассмотренные в докладе, отмечают некоторые общие черты древнейших слоев шаманских верований в районах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Эти факты подтверждают мнение о наличии этнокультурной и этногенетической близости между корейцами и народами Центральной и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и с точки зрения древних автохтонных религиозных верований.

Some Parallels between Korean *Mu-Sok* and Altaic Shamanism

Karteva-Dancheva Svetla
Sofia University "St. Kl.Ohridski", Sofia, Bulgaria

Abstract: A thorough investigation of a number of details of Korean Shamanism shows a lot of elements that make possible to a large extent the outlining of those fundamental layers that prove its connection with shamanism spread among the Altaic peoples of Siberia, Central, and Northeastern Asia.

Bells are very widespread and are obligatorily used in the ritual practices of shamans of all Altaic peoples and Koreans. They are an inseparable part of shaman's outfit of Turkic, Mongol, Manchu and Tungus peoples. Bells are hung all over the outfit - on the hat and the other attributes. Their function is to scare away evil spirits.

The bells with long handles wrapped in deer or dog fur are obligatory tools of Korean shamans as well. Their sound is believed to summon the good spirits on the ritual site and to expel the evil ones. Some believe that during *kut* the protecting spirit of the shaman comes to possess the bells.

Among Altaic peoples objects of worship were also the sacred birds (eagle, swan), that according to some beliefs could bring the spirits with their flight, or were ancestors of shamans or some peoples. The eagle is held in great respect by the Turkic and Mongolian peoples. In myths and shaman texts the eagle appears as a master of the sun, a supreme deity, a creator of nature.

Even today Koreans practice a tradition to erect a wooden pillar (*sotte*) at the entrance to the village with the figure of a bird alighted on the top to protect it.

The use of fans by Korean shamans may also be accepted as an element of Altaic shamanism. In shaman rituals of Turkic, Mongolian and Tunguska peoples a special type of fan was an often used and

an important attribute. Usually it was a twig with leaves of birch or other tree or a piece of cloth. They called it with the terms джалбыр (yak.), шырва (kum.), желпингич (kirg.)jälpäk (alt.); čelbeg (shor.); jilbiš (tuv.) jelpigü (oldturk.). In the root of all these terms is the ancient Turkic jel - “wind”. The ritual connection between the fan and the slight whiffs of wind created by its movement is not accidental. The Turkic concept of wind jel as a deity or spirit was first registered in the ancient Turkic written monuments where it was referred to as the deity jel tängri.

The metal mirrors that are widely used by Altaic and Korean shamans are also an important common component. They are an obligatory attribute during various rituals.

Most Altaic language peoples call this toli. The functions of the mirrors used in the shaman rituals of the Altaic peoples and Korean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they are used to predict future events;
- they reflect good and evil deeds;
- they reflect people’s sins;
- they help shamans see other worlds;
- they help them expel unwanted spirits that may interfere with the ritual;
- they are used for healing.

These functions that mark the common elements between shaman mirrors and some other ritual details, known from the Chinese sources, give reasons to state that metal mirrors had extraordinary magical power. The answer to the question of what caused that magical force is attributed to shaman mirrors most likely lies in their association with the moon. Shaman mirrors were symbols that gain meaning through their connection with the moon. Their shine was associated with the shine of lightning that is also moon kratophany, bearer of supernatural forces. It portended rain controlled by the Moon.

Some important elements of Altaic shamanism that we find in Korean musok are a few cults known from ancient times. The ones we are interested in are the cults to the pig and to the blacksmith.

N.Y. Bichurin writes that the ancestors of Koreans and the other inhabitants of the north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bred pigs in ancient times and used them as sacrificial animals . Even today during kut a pig’s head is often used by female shamans.

The archeological findings from the Neolithic Era are evidence that pigs were used as sacrificial animals. This cult was absent with Turkic and Mongolian peoples but it is an important common component for shamanism with Manchu and Tungusic peoples and Koreans.

According to ancient Korean beliefs, the people who possessed the skills of the blacksmith were especially revered. Ch. Clark - one of the first explorers of Korea - paid attention to the belief spread among Koreans, that evil forces were afraid of iron, even of the mentioning of the mere word. That is why shamans hung metal objects on their clothes and held knives.

A similar belief is also spread among the Turkic and Mongolian peoples. Blacksmiths were very influential and significant figures in their societies, as well. All Altaic peoples believed that iron and items made of iron could expel evil spirits. That is why the cult to the blacksmith and his tools originated in ancient times. The term to designate the blacksmith was also very widespread - darkan, tarkan. It had a wider meaning: a leader of the family and the clan; a military leader; a priest of the clan; a privileged person free from taxes.

Especially important to this cult was the necessity to produce instruments of production and

weapons – an important prerequisite for military and political strength of the early feudal states of the Turkic and Mongolian peoples on the territory of Central Asia. In the basis of the blacksmith cult was the concept of his supernatural strengths – not only did he use iron tools, but he produced them deftly using fire, water, and iron. The process of creation of entirely new objects from these elements rendered him a creator that controlled natural elements. The knowledge and skills inaccessible to ordinary people shrouded blacksmiths in a veil of mystery. They were even considered stronger than shamans.

Among the ancient cults spread among Korean and Mongolian peoples, one of particular interest is the worship of stone mounds, erected at the top of mountains, hills, by the road or in the steppes.

Mongolian peoples call the mounds obo. Koreans call them thap if they are by the road, and *songhuangdang* (sonangdang) if they are at the entrance to the village. Koreans believe that the mounds are inhabited by sonans – the deity protector of the village, that takes care of the well-being and prosperity of its inhabitants. The shrine erected in honor of this deity usually represents a mound of stones close to the trunk of a big tree. Koreans believe that the mounds are inhabited by sonans – the deity protector of the village, that takes care of the well-being and prosperity of its inhabitants. The shrine erected in honor of this deity usually represents a mound of stones close to the trunk of a big tree.

A careful analysis of Korean stone mounds songhungdang and Mongolian obo shows astounding similarities between them and reveals elements of ancient rituals – the common structure of a stone mound, presence of animal images, offering of different items, food, tying of pieces of cloth, throwing of stones in the mound, sacrificing animals (blood sacrifice – before the influence of Buddhism). In their ancient form, these elements were a reflection of the attitude to the stone as a religious symbol connected with totem animals.

The Altaic motifs in Korean shamanism reviewed here to mark some of the most ancient layers of shaman beliefs in the regions of Central Asia and the Korean Peninsula. These facts support the claim for ethnocultural and ethnogenetic proximity between Koreans and the peoples of Northeastern Asia from the point of view of fundamental beliefs.

**Религиозный туризм как средство возвращения
к своим духовным истокам
(Тенгрианство, Кыргызская Республика)**

Шейнфельд А.С.

Корейский Институт 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Бишкек, Кыргызстан

Аннотация: В статье рассматриваются особенности религиозного туризма и паломничества в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е, на примере тенгрианства, которые будут интересны и могут быть использованы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путешествий в качестве информации и практического руководства к туру по религиозным и культовым местам страны с максимальной пользой для туристов и развития туризма в Кыргызстане.

Ключевые слова: тенгрианство, туризм, история, культура, религия, паломничество, Кыргызстан, охрана, наследие.

Туристские ресурсы, связанные с верованиями, на наш взгляд, представляются самыми перспективными из всего многообразия историко-культурных ресурсов мира в целом и Кыргызстана в частности, так как в глубине души каждый человек верит во что-то свое. Веротерпимость 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была законом жизни. Здесь встретились и мирно сосуществуют по сей день первобытная магия, тенгрианство, зороастризм, буддизм, христианство и ислам. Поэтому поклонники религиозного туризма, которых из года в год становится больше и больше, найдут в нашей стране то, что нужно именно им, от следов верований древнейших людей до современных духовных практик. Но несомненно одно, Кыргызстан,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будет особенно интересен для туристов-тенгрианцев.

Истинной религией всех кочевников издревле считается тенгрианство, кыргызы всегда жили в гармонии с окружающей природой. Именно поэтому, несмотря на небольшую территорию, Кыргызская Республика входит в число 200 приоритетных экологических регионов планеты. Это обусловлено наибольшей концентрацией видового разнообразия флоры и фауны. Так, здесь встречается около 2% видов мировой флоры и 3% видов мировой фауны.

Работникам туристической индустрии необходимо проводить четкие грани отличия культурно-религиозных туристов от паломников. К великому сожалению, проблемы экологии с каждым годом становятся острее. Тенгрианцы знали, что у всего в этом мире есть своя душа и над всеми нами (миром людей, животных, растений, над водой, землей...) есть Тенгри (Верховный Бог) или как его еще называли Көк Тәңірі (Небесный Бог). Все реформы начинаются в уме. А душа – это энергия ума. Оттого какая энергия души питает наш ум – зависит будущее человечества. И это тенгрианцы знали и чувствовали очень хорошо. Поэтому

тур религиозной направленности для тенгрианцев поможет не только последователям этой веры, но и всему прогрессивному человечеству прикоснуться к своим духовным истокам.

Religious Tourism as a Means of Returning to One's Spiritual Origins (Tengriism, Kyrgyz Republic)

Sheinfeld A.S.

Korean Institute of Central Asia, Bishkek, Kyrgyzstan

Abstract: The article discusses the features of religious tourism and pilgrimage in the Kyrgyz Republic, on the Tengriism example, which will be interesting and can be deployed by the organizers of travel as an information and practical guide to the tour of religious places of worship and the country with the maximum benefit for tourists and tourism development in Kyrgyzstan.

Keywords: Tengriism, tourism, history, culture, religion, pilgrimage, Kyrgyzstan, security, heritage.

In our opinion, tourist resources which associated with beliefs, appear to be the most promising of the variety of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of the world in general and of Kyrgyzstan in particular. Because in the depths of their hearts each person believes in something own and different. Tolerance in Central Asia was the law of life. Here, primitive magic, Tengriism, Zoroastrianism, Buddhism, Christianity and Islam met and coexist peacefully to this day. Therefore, fans of religious tourism, which every year becomes more and more, will find in our country what they need, from the traces of the beliefs of the most ancient people to modern spiritual practices. But one thing is certain, Kyrgyzstan, by the first - will be most interest to Tengrian tourists.

Tengriism is considered to be the true religion of all nomads from ancient times, the Kyrgyz have always lived in harmony with the surrounding nature. That is why, despite the small territory, the Kyrgyz Republic is among the 200 priority environmental regions of the planet. This is due to the highest concentration of species diversity of flora and fauna. So, about 2% of species of world flora and 3% of species of world fauna are found here.

Employees of the tourism industry need to make a clear distinction between cultural and religious tourists from pilgrims. Unfortunately, environmental problems become sharper every year. The Tengrians knew that everything in this world has its own soul and above all of us (the world of people, animals, plants, above water, earth ...) there is Tengri (Supreme God) or as it was called Көк Тәңірі (Heavenly God). All reforms begin in the mind. And the soul is the energy of the mind. Because what soul energy feeds our mind - the future of mankind depends. And the Tengrians knew and felt it very well. Therefore, a religious orientation tour for the Tengrians will help not only the followers of this faith, but also all progressive humanity to touch their spiritual origins.

카자흐스탄 고려인의 형성, 현황 및 전망

명 드미트리

카자흐 국립대, 카자흐스탄 알마티

Корё сарам в Казахстане: формирование, тенденции и перспективы

Мен Д.В.

КазНУ им. аль-Фараби, Алматы, Казахстан

Аннотация: В данной статье автор размышляет о судьбе корё сарам, за прожитые ими 80 лет на древней земле казахов, которая для многих стала Родиной. Они никогда не забудут, когда местное население, сами живя в впроголодь, перенесшие сталинскую репрессию, голод, эмиграцию в чужие страны в поисках лучшей жизни и другие страдания, с пониманием отнеслись к депортированным. Корейцы никогда не забывали и не забудут этой благородной помощи братьев-казахов.

Корё сарам выглядели после депортации в Казахстан одним из самых униженных, бедных, неграмотных народов. 1937 год для корё сарам является самым страшным и запомнился бесчеловечным отношением со сторон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к собственному народу. История знает немало жестокостей власти к народу, но такой, какую вытворял сталинский режим, не было.

Автор подробно анализирует, что стало с корейцами уже за более 80 лет проживания на своей настоящей Родине, которая называется Республика Казахстан. Из статистики можно выявить, что для современных корейцев характерна низкая рождаемость, в 1937 г. на территорию республики было выслано около 93000,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насчитывается по последней переписи населения 2009 г. более ста тысяч.

Если в 30-50-е годы прошлого века уделом их занятий был сельский труд, то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им по плечу все мировые цивилизованные профессии. Они стали за это время нацией сплошной грамотности, заседают в парламенте, правительстве, руководят крупными научными и промышленными предприятиями, им присваивают воинское звание генерал, они удостоены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ремии, среди них есть знаменитые ученые и спортсмены.

Сегодня корё сарам будучи активной частью, длительное время жившей в иноэтническом окружении, заметно отличаются по менталитету от соплеменников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причём не в худшую сторону. У них отмечается ментальность казахского народа, которая существенно отличается от образа мышления населения Северной и Южной Кореи. К сожалению, эта тенденция медленно и уверенно проявляется между корейцами СНГ. Это отличие комплексное и проходит по разным причинам – лингвистические особенности, разность в мировоззрении и ментальности.

Что касается дальнейшей судьбы корё сарам, сценарии разные. Всё зависит от того, как наша страна будет развиваться, насколько национальная экономика будет успешной и насколько обстановка в регионах, где проживают корё сарам, будет благоприятной. В этом

вопросе необходимо учитывать много факторов.

В целом, если исходить из данн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сегодня мы видим три основные категории корё сарам в Казахстане. К первой относятся люди, которые связали свое будущее с Казахстаном (это большинство) и нашли методы социализации. Они учат своих детей казахскому языку и сами же следуют за ними. В целом они не видят для своей жизни другую страну, кроме Казахстана.

Вторая – те, кто решил уехать. Сегодня они в поисках форматов наиболее комфортной жизни в Корее, России или в других странах. Третья категория – не определившиеся, если будет комфортно здесь, они останутся, а если будут социальные и бытовые проблемы, уедут в другие страны.

Автор утверждает, что корейцы отличаются своим миролюбием, в этнических столкновениях не участвуют. Отсутствие конфликтов объясняется тем, что казахи и корейцы занимают разные экономические и политические ниши. Кроме того, для корё сарам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характерны смешанные браки с другими этносами, в частности,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русской и казах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сти. Они знают, что их с другими этносами связывает одна цель, общая история, общая судьба и общее будущее.

По мнению автора, корё сарам лучше жить в Казахстане, нежели в Корее. Корё сарам побывали в местах постоянного проживания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и не предвидено столкнулись с житейскими проблемами. Корё сарам и житель Кореи – это два разных человека. У корё сарам уже казахский менталитет, он проявляется во всём казахском, последнее, что осталось – это выучить казахский язык. Молодые корейцы активно осваивают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язык, а взрослым, представителям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сложно освоить, впрочем, никто этого не требует.

По мнению автора, корейцы в Казахстане вполне адаптировались к местным условиям, чувствуют здесь себя вполне комфортно, добились многого за 80 лет проживания, выжили, стали достойными гражданами республики.

Koryo Saram in Kazakhstan: Formation, Trends and Prospects

Men D.V.

Al-Farabi Kazakh National University, Almaty, Kazakhstan

Abstract: In this article, the author reflects on the fate of *Koryo Saram*, during the 80 years they have lived in the ancient land of the Kazakhs, which for many has become the Motherland. They will never forget when the local population themselves were starving, who had suffered Stalinist repression, famine, emigration to foreign countries in search of a better life, and other sufferings treated the deported with understanding. Koreans have never forgotten and will not forget this noble help of the Kazakh brothers.

After the deportation to Kazakhstan, *Koryo Saram* looked like one of the most humbled, poor, and illiterate people in Kazakhstan. 1937 for *Koryo Saram* is the most terrible and inhuman attitude of the government towards its own people. History knows a lot of cruelties of the authorities towards the people, but there was no such one as the Stalinist regime did.

The author analyses in detail what happened to the Koreans already for more than 80 years of living in their real homeland, which is called the Republic of Kazakhstan. From the statistics, it can be revealed that modern Koreans are characterized by a low birth rate, in 1937 about 93,000 were expelled to the republic, currently, according to the last census of 2009, more than a hundred thousand.

If the 30-50s of the last century, the lot of their occupation was rural work, then at the present time they are on the shoulder of all the world's civilized professions. During this time they became a nation of continuous literacy, they sit in parliament, the government, run large scientific and industrial enterprises, they are given the military rank of general, awarded the State Prize, among them are famous scientists and athletes.

Today, *Koryo Saram*, being an active part of a long time living in a foreign ethnic environment, is noticeably different in mentality from the tribesme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not for the worse. They have noted the Kazakhness, which i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popul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Unfortunately, this trend is slowly and surely manifesting between the Koreans of the CIS. This difference is complex and takes place for various reasons - linguistic features, difference in worldview and mentality.

As for the fate of *Koryo Saram*, the scenarios are different. It all depends on how our country will develop, how successful the national economy will be, and how favourable the situation in the regions where they live is. There are many factors to considering this matter.

In general, if we proceed from the research data, today we see three main categories of *Koryo Saram* in Kazakhstan. The first is the people who have linked their future with Kazakhstan (this is the majority) and have found methods of socialization. They teach their children the Kazakh language and they themselves follow them. In general, they do not see another country for their life, except Kazakhstan.

The second - those who decided to leave. Today, they are in search of the most comfortable life formats in Korea, Russia or in other countries. The third category is undecided: if it is comfortable here, they remain. There will be social and domestic problems, we will go to other countries.

The author argues that Koreans are distinguished by their peacefulness: they do not participate in ethnic clashes. The absence of conflict is explained by the fact that the Kazakhs and Koreans occupy different economic and political niches. In addition, *Koryo Saram* is currently characterized by mixed marriage with other ethnic groups, in particular with Russians and Kazakhs. They know that they are connected with other ethnic groups by one goal, a common history, a common destiny and a common future.

According to the author, measles *saram* is better to live in Kazakhstan than in Korea. He himself visited their places of permanent residence, which are not foreseen to face everyday problems. *Koryo Saram* and a resident of Korea are two different people. *Koryo Saram* has a Kazakh mentality, it manifests itself in all Kazakh - the last thing that remains is to learn the Kazakh language. Young Koreans are actively learning the state language, and older adults are hard to master, however, no one requires it.

According to the author, Koreans in Kazakhstan have fully adapted to local conditions, they feel quite comfortable here, have achieved a lot in their 80 years of residence, survived, have become worthy citizens of the republic.

우즈베키스탄 대학의 한국어 교육을 위한 실습 프로그램

김 나탈리아

타슈켄트 국립동방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Учебные программы по обучению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в ВУЗах Узбекистана

Ким Н.Д.

ТашГИВ, Ташкент, Узбекистан

Аннотация: Современное положение обучения в высших учебных заведениях требует пересмотра многих подходов и методов обучения, в том числе и пересмотра учебных программ по обучению иностранному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Учебные программы, составляемые по направлениям бакалавриата показывают, что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учебных лекционных и практических часов, порой не оправдывают желаемые результаты.

Еще в недалеком прошлом лекционные и практические занятия проводились отдельно – профессор читал лекции, ассистент проводил семинарские занятия. При этом студенты получали неоценимые знания, которые, к сожалению, нечасто можно встретить сейчас. Как показывают наблюдения,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преподавани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в вузах не разделяется теоретическую и практическую часть занятия: занятие состоит из этапов-частей, предложенных в учебнике по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и, чаще всего, это учебники, изданные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Раньше это были учебники Сеуль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и, уже в последние годы в качестве основного учебника в вузах используются учебники Университета Енсе, Университета Корё. К сожалению, красочность оформления, иллюстрации,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рисунков и фотографий в учебнике не приносят такой результативности, которую мы ожидаем. Более того, не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упражнений и их простота выполнения ставит под вопрос их целесообразность.

Сегодня в вузах Узбекистана проводится пересмотр всех учебных программ и активное внедрение инновационных методик в обучении. Все больше и больше вузов открывают факультативы, языковые центры или кафедры преподавания восточных языков. К примеру, если совсем недавно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преподавался и преподается в ТашГИВ, ТГПУ им. Низами, УзГУМЯ, УМЭД, СамГИИЯ, то теперь практически во всех вузах страны действуют языковые центры, кафедры восточных языков (Ташкент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узбекского языка и литературы им. А. Навои, Ташкентский институт легкой и текстильн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Ургенч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Наманган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и др.).

Тесн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двух стран Узбекистана 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ызвало необходимость подготовки кадров во всех сферах экономики уже со знанием второго, третьего языков. Такая постановка вопроса подталкивает многие вузы на открытие языковых кафедр (кафедра восточных языков или кафедра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ов и т.д.), где чаще всего

включаются заняти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Особо следует отметить, что среди иностранных вузов, таких как Вестминстер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в Ташкенте (Великобритания), Сингапур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Сингапур), Турин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и др.(Италия) и др. уже можно включить и корейские университеты - Университет Инха, с 2018 года уже функционирует - Технический институт Ёджу.

Training Programs for Teaching Korean in Uzbek Universities

Kim N.D.

Tashkent State Institute of Oriental Studies, Tashkent, Uzbekistan

Abstract: The current state of education in higher education requires the revision of many approaches and teaching methods. It is also necessary to review the curriculum in the Korean language. Currently there are a lot of lecture hours in the programs. Not enough practical training. A large number of theoretical training sessions do not give the desired result of language proficiency.

Previously, the professor gave lectures, and the practical classes were an assistant professor. Then the students received huge and deep knowledge. Now such a system is gradually becoming a thing of the past. Now teaching Korean at universities conducted according to the textbook. Previously, these were textbooks of Seoul University. Now dominated by textbooks Yonsei University, Korea University. Beautiful illustrations, light exercises in textbooks do not give the result that students want to get from classes. Therefore, students try to gain additional knowledge and attend training centers.

Today, universities in Uzbekistan are reviewing all curricula and actively introducing innovative methods in teaching. More and more universities are opening up electives, language centers or departments for teaching oriental languages.

For example, if recently Korean was taught and taught at the Tashkent State University of Oriental Studies, Tashkent State Pedagogical University named after Nizami, Uzbek State University of World Languages, University of World Economy and Diplomacy, Samarkand State Institute of Foreign Languages. Currently, many universities have language centers, departments of Oriental languages (Tashkent State University of Uzbek Language and Literature named after A. Navoi, Tashkent Institute of Light and Textile Industry, Urgench State University, Namangan State University, etc.)

The close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of Uzbekistan and the Republic of Korea has necessitated training in all areas of the economy. We need specialists of different professions with two or three knowledge of languages.

Such an approach pushes many universities to open Language Departments (the Department of Oriental Languages or the Department of Foreign Languages, etc.). Korean is often taught in such centers. Since last year in Uzbekistan there have been more Foreign Universities. For example, the University of Westminster in Tashkent (United Kingdom), the University of Singapore (Singapore), the University of Turin, etc. (Italy), etc. In addition, Korean Universities are already working. These are Inha University, Yeosu University, Bucheon University. These universities teach special subjects and Korean. Korean is especially taught at Yeosu University and Bucheon University.

한국어교육에서의 프로젝트 교수법

이 올가
타라즈 국립사범대, 카자흐스탄 타라즈

Использование метода проектов на уроках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Ли О.Е.

Тараз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Педагогиче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Тараз, Казахстан

Аннотация: Одним из основных моментов развития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является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е в сфере науки и образования.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преподавательское искусство четко диктует необходимость новых подходов к обучению иностранному языку.

Старые методики уходят в прошлое, тогда как на их место приходят инновационные методы и приёмы преподавания. Все чаще широкое применение в учебном процессе получают нетрадиционные формы обучения и контроля.

Современные условия стремительного развития науки и обновления информации указывают на то, что невозможно научить человека на всю жизнь. На первый план выходят необходимость заложить в нем основы языковых знаний, пробудить интерес к их накоплению, а также к постоянному самообразованию. Важнейшая цель, которую ставит перед собой преподаватель – сформировать учащегося, как личность, способную к саморегуляции в условиях непрерыв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Так же следует отметить, что человек на протяжении своей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сталкивается с различными задачами и проблемами. Поэтому за время учебы перед студентом ставится цель, которая заключается в овладении умениями правильно реагировать и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решать возникшие проблемы.

Преподаватель же в свою очередь должен стараться максимально активизировать мыслительн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учащихся, подбирая правильные методы и технологии для достижения поставленной цели.

Исходя из всего вышеизложенного, мы утверждаем, что одним из современных методов,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данным характеристикам является метод проектов.

Метод проектов это совокупность приёмов, действий учащихся в их определённой последовательности для достижения поставленной задачи – решения определенной проблемы, значимой для учащихся и оформленной в виде некоего конечного продукта.

Основная цель метода проектов состоит в предоставлении учащимся возможности самостоятельного приобретения знаний в процессе решения практических задач или проблем, требующего интеграции знаний из различных предметных областей. Если говорить о методе проектов как о педагогической технологии, то эта технология предполагает совокупность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х, поисковых, проблемных методов.

Кроме раскрытия необходимости применения метода проектов на уроках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его особенностей и преимуществ, мы так же рассмотрели различные виды проектов.

Согласно основной классификации проекты можно разделить по продолжительности

времени проведения проектов: краткосрочные, средней продолжительности, долгосрочные; по количеству участников: индивидуальные, парные, групповые; по уровню интеграции: монопроекты и межпредметные проекты; по способу преобладающей деятельности: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е, игровые, творческие, практико-ориентированные, познавательные, информационные.

Несмотря на основную цель метода проектов, которая заключается в самостоятельном овладении знаниями и применении их для решения поставленных задач, следует отметить и ряд компетенций, которыми следует владеть преподавателю для организации проект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Преподаватель должен владеть основными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ми и поисковыми методами, умением организовывать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учащихся, умением направлять учащихся на поиск решения поставленной проблемы и т.д.

В статье рассматривается апробирование эффективности метода проектов на уроках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Проанализировав различные виды проектов, а так же различных подходов к применению проектной методики, нами был выбран групповой, краткосрочный, информационный проект, конечным продуктом которого является мультимедийная презентация. Такой выбор обусловлен возможностью легкого структурирования информации, а так же облегчение усвоения и запоминания материала.

В статье подробно описывается алгоритм проект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Мы выделили шесть этапов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учителя и студентов: начальный, подготовительный, поисково-аналитический, практический, презентационный и заключительный этапы.

На начальном этапе преподаватель ознакомливает студентов с методом проектов, объясняет основные понятия и алгоритм выполнения проектов. Раскрывает методы поиска и анализа информации. Так же преподаватель предлагает темы для будущих проектов, идет обсуждение и поиск оптимальных вариантов.

На подготовительном этапе происходит распределение тем, деление на группы, составление плана будущего проекта, распределение ролей и обязанностей. Помимо этого группы осуществляют выбор источников информации. Данный этап проходит в виде дискуссии, что создает рабочее и творческое настроение.

На поисково-аналитическом этапе происходит постановка цели проекта, сбор и анализ информации, синтез полученных данных, систематизация материалов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целями работы. Поскольку конечный результат проекта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презентацию РРТ, на этом этапе идет поиск необходимых иллюстраций.

На практическом этапе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подготовка презентационных материалов, текущий контроль качества проекта, сверка с изначальным планом проекта, внесение изменений, подготовка речи для докладчика.

На презентационном этапе идет презентация проектов каждой группы. Так же данный этап предполагает оценивание студентами и преподавателем проектов согласно критериям, которые были обсуждены на начальном этапе.

На заключительном этапе выполняется анализ результатов выполнения проектов, конечная оценка качества выполнения проектов, а так же, финальное обсуждения трудностей, плюсов и минусов проект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Прежде чем приступить к выполнению проект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мы учли разный уровень знаний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у учащихся. Для того чтобы все студенты были максимально задействованы было решено назначить ответственных лиц на каждый этап проекта, таким образом каждый из четырех членов группы был лидером по одному разу на своем этапе. Лидер должен был организовать выполнение работы согласно плану, следить за временем выполнения, а так же подготовить отчет о проделанной работе и составить вопросы, если имелись сложности на данном этапе.

Основываясь на рефлексии студентов, а так же на анализе результатов проект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мы выделили основные преимущества и недостатки применения метода проектов на уроках иностранного языка, в частности корейского.

Благодаря четкому распределению обязанностей, каждый студент, несмотря на уровень знаний был задействован в работе.

Необходимо подчеркнуть повышение активности и мотивации к изучению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Кроме того за время работы над проектом студенты приобрели навыки самообразования, самоконтроля, группов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и решения проблемных задач.

Справедливо будет отметить и ряд трудностей возникших в ходе работы. Студенты с низким уровнем знаний неохотно выполняли задания лидера, пока сами не оказались главными на определенном этапе. Однако уже на финальных этапах проект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данных трудностей уже не возникало. С точки зрения преподавателя на подготовку и проведения данного метода во время учебного процесса уходит много сил и времени.

Век непрерывного развития абсолютно всех сфер деятельности, делает необходимым подготовку функционально грамотных,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 мобильн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Это специалист способный решать поставленные перед ним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е задачи и проблемы, специалист способный мыслить критически и применять нестандартные подходы в трудных ситуациях, специалист способный аргументировано изложить свою точку зрения, а так же уметь слушать мнение других.

Все эти навыки можно приобрести с помощью метода проектов. Если студенты будут постоянно заниматься проектной деятельностью, то во время работы он будет более приспособленным, сможет ориентироваться в различных ситуациях, совместно работать с различными людьми и адаптироваться к окружающим условиям. Так же применение метода проектов на уроках характеризую преподавателя, как высоко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ого специалиста, который использует в своей работе современные, нетрадиционные формы обучения.

Using the Project Method on the Korean Language Lessons

Li Olga

Taraz State Pedagogical University, Taraz, Kazakhstan

Abstract: One of the main moments of the developmen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is the improvement in the field of science and education. Today, the teaching skills clearly dictate the need for

new approaches in the foreign language teaching.

Old methods are a thing of the past, whereas innovative methods and teaching approaches are taking their place. Increasingly, non-traditional forms of teaching and control are widely used in the educational process.

Modern conditions of the rapid development of science and information update indicate the impossibility of teaching a person for life. The need to give the foundation of linguistic knowledge, to raise interest in their accumulation, as well as insights for continuous self-education, comes to the fore. The most important goal that the teacher sets himself is to form the student as a person capable of self-regulation in the context of continuing education.

It should also be noted that during his professional activity a person is faced with various tasks and problems. Therefore, during the study, the student is set an aim, which is to master the skills to respond correctly to the problems and independently solve it.

The teacher, in turn, should try to maximize the mental activity of students, selecting the right methods and technologies to achieve the goal.

Based on the foregoing, we argue that one of the modern methods corresponding to these characteristics is the method of projects.

The method of projects is a set of techniques, actions of students in their specific sequence to achieve the task - solving a specific problem that is important for students and designed in the form of a certain final product.

The main objective of the project method is to provide students with the opportunity to acquire knowledge independently in the process of solving practical tasks or problems which require the integration of knowledge from different subject areas. If we talk about the project method as a pedagogical technology, it involves a combination of research, search, and problem methods.

In addition to disclosing the need to apply the project method on Korean language lessons, its features and advantages, we also considered various types of projects.

According to the main classification, projects can be divided by the duration of the project: short-term, medium-term, long-term; by the number of participants: individual, pair, group; by the level of integration: monoprojects and interdisciplinary projects; by the method of prevailing activity: research, game, creative, practice-oriented, educational, and informational.

Despite the main aim of the project method, which is to independently master knowledge and apply it to solve tasks, it should be noted a number of competencies that the teacher should have to organize project activities.

The teacher should possess the basic research and search methods, the ability to organize research activities of students, the ability to direct students to find solutions to the problem, etc.

In this article we consider the testing of the effectiveness of the project method in Korean language lessons.

After analyzing different types of projects, as well as different approaches to the application of the project methodology, we selected a group, short-term, informational project, the final product of which is a multimedia presentation. This choice is due to the possibility of easy structuring of information, as well as facilitating the acquiring and memorization of the material.

The article describes in detail the algorithm of the project activity. We have identified six stages of interaction between the teacher and students: the initial, preparatory, search and analytical, practical, presentational and final stages.

At the initial stage, the teacher introduces to the students the method of projects, explains the basic concepts and algorithm for the implementation of projects. Discloses the methods of searching and analyzing information. The teacher also offers themes for future projects; there is a discussion and search for optimal variants.

At the preparatory stage, there is a distribution of themes, division into groups, drawing up a plan for a future project, distribution of roles and responsibilities. In addition, the groups carry out the selection of information sources. This stage takes place in the form of a discussion that creates a working and creative mood.

At the search and analytical stage, the project aim is set, the information is collected and analyzed, the data are synthesized, and materials are systematized in accordance with the work objectives. Since the final result of the project is a PPT presentation, at this stage students search the necessary illustrations.

At the practical stage, preparation of presentation materials, current quality control of the project, reconciliation with the original project plan, introduction of changes, preparation of a speech for the speaker are carried out.

At the presentation stage there is a presentation of the projects of each group. Also, this stage involves the evaluation by students and teachers of projects according to the criteria that were discussed at the initial stage.

At the final stage, an analysis of project results, a final assessment of the quality of project implementation, as well as a final discussion of the difficulties,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project activities are carried out.

Before embarking on project activities, we took into account the different levels of Korean language skills among students. In order for all students to be involved as much as possible, it was decided to appoint responsible persons for each stage of the project, thus each of the four members of the group was a leader once at a different stage. The leader had to organize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k according to the plan, monitor the time of implementation, as well as prepare a report on the work done and make the questions if there were difficulties at this stage.

Based on the students' reflection, as well as on the analysis of the results of project activities, we highlighted the main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using the project method in a foreign language lessons, especially on Korean.

Due to the clear distribution of responsibilities, each student, despite the level of knowledge was involved in the work.

It is necessary to emphasize the increased activity and motivation to learn Korean. In addition, during the work on the project, students acquired the skills of self-education, self-control, group activities and problem solving.

It is fair to note a number of difficulties encountered during the work. Students with a low level of knowledge were reluctant to carry out the leader's assignments, until they themselves turned out to be the leader at a certain stage. However, at the final stages of the project activity, these difficulties did not arise.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teacher, it takes a lot of time and effort to prepare and conduct this method during the educational process.

The century of continuous development of all spheres of activity makes it necessary to prepare functionally competent, professionally mobile specialists. This is a specialist who is able to solve the professional tasks and problems assigned to him, a specialist who is able to think critically and apply

non-standard approaches in difficult situations, a specialist who is able to articulate his point of view, as well as to be able to listen to the opinions of others.

All these skills can be acquired using the project method. If students constantly engage in project activities, during work they will be fit to navigate in different situations, work together with different people and adapt to the environment. Also, the use of the project method in lessons characterizes the teacher as a highly qualified specialist who uses modern, non-traditional forms of education in his work.

번역의 다문화 측면에서 한국어 어법의 정보 구성 요소

신데츠카야 예브게니야
비슈케크 인문대,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Информационный компонент фразеологических оборотов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в межкультурном аспекте перевода.

Синдецкая Е.О.
БГУ им.К. Карасаева, Бишкек, Кыргызстан

Аннотация: Проблема перевода таких лексических единиц как фразеологические обороты была и есть актуальной в силу особенностей данного объекта. Проблематика обусловлена такими факторами, как структурная особенность внешней стороны фразеологизма в сочетании с семантической наполненностью, как правило, не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й семантике составляющих его частей; а также поиск эквивалента на языке перевода, сложность чего включает в себя потерю некоторых, а порой и большинства экспрессивно-декоративных элементов речи при отсутствии полного эквивалента и перевода семантики лексическими инструментами, имеющими прямое значение.

Необходимо учитывать и тот факт, что единицы подобного рода в языке выполняют не только информативную функцию содержащегося внутри семантического элемента для передачи говорящим отношения к частной ситуации, но и отражают культурные особенности народа, передавая те его черты, что складывались на протяжении длительного течения времени и брали свое начало в века становления быта, отношения к окружающему миру, к себе. Следовательно, рассматривать их необходимо с несколько иной точки зрения, нежели другие лексические единицы. Так как этимология любого рода фразеологизмов носит ситуативный характер, применение их в речи для более информативно насыщенной передачи настроения подразумевает полное осознание говорящим глубинного семантического наполнения. То есть ситуация применения должна максимально соответствовать ситуации, при которой данный фразеологизм возник, при этом время его возникновения не имеет значения: будь то прошлое десятилетие или тысячелетие.

Сохранять такую точность, как правило, под силу лишь носителям данного языка. Но в условиях глобализации и развития межкультурной коммуникации возрастает необходимость более детального изучения смыслового содержания таких элементов речи, как пословицы, идиомы, поговорки, устойчивые словосочетания и т.п. в силу высокого уровня наполненности их культурным наследием народа-носителя данного языка.

Одним из языков, получающим в мире все большее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и пользующимся растущей популярностью, является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Он отличается огромным количеством разнообразных фигур речи, придающих языку особую красочность и позволяющих сохранить и передать неповторимую культурную самобытность. Необходимо отметить, что в данном процессе наиважнейшую роль играет использование носителями языка данных инструментов. В противном случае они устаревают, теряют точность семантики при использовании, становясь устаревшим слоем лексики, фразеологии. Как результат, язык может потерять значительную долю культурной наполненности.

Имея дело с языком, носители которого активно используют в своей речи фразеологизмы, желательно максимально изучить такие единицы речи, так как достаточные знания в этой области помогут лучше понять менталитет данного народа, культуру его быта, а значит, позволит поднять на новый уровень качество коммуникативной составляющей диалога.

The Information Component of Korean Phraseology in the Intercultural Aspect of Translation.

Sindetskaya E.O.

Bishkek Humanities University named after K. Karasaev, Bishkek, Kyrgyzstan

Abstract: The problem of translating such lexical units as phraseological phrases was and is relevant due to the peculiarities of this object. The problematics is caused by such factors as the structural peculiarity of the external side of the phraseological unit in combination with the semantic fullness, as a rule, not corresponding to the semantics of its constituent parts; as well as the search for an equivalent in the language of translation, the complexity of which includes the loss of some, and sometimes most expressive-decorative elements of speech in the absence of a full equivalent and the translation of semantics by lexical tools that have a direct meaning.

It is necessary to take into account the fact that units of this kind in the language perform not only the informative function of the semantic element contained within to convey the speaker's attitude to a private situation, but also reflect the cultural characteristics of the people, conveying those features that developed over a long period of time and took its beginning in the century of the formation of life, relationship to the world, to itself. Therefore, they should be considered from a slightly different point of view than other lexical units. Since the etymology of any kind of phraseology is situational in nature, their use in speech for a more informatively saturated transfer of mood implies a full awareness by the speaker of the deep semantic content. That is, the situation of application must most closely correspond to the situation in which the given idiom appeared, while the time of its occurrence does not matter: whether it is the past decade or a millennium.

Maintain such accuracy, as a rule, only by native speakers of this language. But in the context of globalization and the development of intercultural communication there is a growing need for a more detailed study of the semantic content of such elements of speech as proverbs, idioms, sayings, stable phrases, etc. due to the high level of fullness of the cultural heritage of the people of this language.

One of the languages that is becoming more widespread in the world and enjoying growing popularity is Korean. It is distinguished by a huge number of various figures of speech, giving the language a special color and allowing to preserve and transmit the unique cultural identity. It should be noted that in this process, the use of these tools by native speakers plays an important role. Otherwise, they become obsolete, lose the accuracy of semantics when used, becoming an outdated layer of vocabulary and phraseology. As a result, a language can lose a significant share of cultural fullness.

When dealing with a language whose carriers actively use phraseological units in their speech, it is advisable to study these units of speech as much as possible, as sufficient knowledge in this area will help to better understand the mentality of a given nation, its life culture, and therefore, will raise the quality of the communicative component to a new level of dialogue.

한국어 교육의 혁신적인 교수법

김 타티야나
타슈켄트 국립동방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Инновационные методы обучения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Ким Т.С.
ТашГИВ, Ташкент, Узбекистан

Аннотация: В данной статье рассматривается метод критического мышления на примере анализа текста в разделе «Чтение» на занятиях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Как известно при подготовке специалиста со знанием иностранного языка в сфере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необходимо учитывать специфику его будущей деятельности, чтобы он смог работать с информационными материалами, полученными из разных источников как на русском, так и на иностранном языках.

Поскольку в основе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выпускников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ого вуза лежит информационно-аналитическая работа, которая подразумевает умение сбора, обработки и использования информации, а также деятельность в ходе коммуникации с людьми, говорящими на иностранном языке, владение интеллектуальными умениями критического мышления при работе с информацией должно стать основой формирования и развития коммуникативной компетенции на разных этапах обучения иностранному языку.

Согласно исследованиям А.В. Федотова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существует множество определений критического мышления. Среди них с определенной долей условности можно выделить:

1) лаконичные, но лишенные конкретности формулировки:

Критическое мышление – «особый вид умстве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позволяющий человеку вынести здравое суждение о предложенной ему точке зрения или модели поведения»

2) определения философской ориентации, акцентирующие внимание на теоретических аспектах:

«Критическое мышление – последовательность умственных действий, направленных на проверку высказываний или систем высказываний с целью выяснения их несоответствия принимаемым фактам, нормам или ценностям.

Сюда можно отнести умения выявления проблемы, прояснения ситуации, анализ аргументации, всестороннего изучения вопроса, разработки критериев для оценки решений и надежности источников информации, избежание обобщений».

3) определения педагогической ориентации, акцентирующие внимание на методических и практических аспектах развития способностей к критическому мышлению:

Критическое мышление есть мышление социальное и самостоятельное. Информация является отправным, а отнюдь не конечным пунктом критического мышления. Критическое мышление начинается с постановки вопросов и уяснения проблем, которые нужно решить. Критическое мышление стремится к убедительной аргументации.

Методы критического мышления следует применять с постановки вопросов и уяснения проблем, которые нужно решать.

По утверждению Д. Клустера педагогов, развивающие на занятиях критическое мышление аудитории, предлагают рассмотреть различные суждения, точки зрения на проблему, создают условия для выработки студентами самостоятельного мнения, решения, вывода.

Данный подход крайне необходим, по той причине, что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стоит проблема подготовки высоко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не просто со знанием иностранного языка в сфере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но с навыками критического мышления, умеющего применить знания иностранного языка для высокого уровня коммуникации.

На занятиях по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в разделе «Чтение» студенты 2 курса корейской филологии учатся не просто переводить текст, отвечать на поставленные вопросы по тексту, но также применять навыки критического анализа.

Рассмотрим нижеприведенный текст:

저는 한국에 온지 한 달쯤 됐습니다. 재미있기는 하지만 가끔 외로운 때가 있습니다. 저는 외로운 때마다 인터넷으로 부모님과 회상 통화를 합니다. 인터넷 회선 통하는 소리도 잘 들리고 화면도 커서 아주 좋습니다. 한국생활이 힘들거나 부모님을 보고 싶을 때 통화를 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회상 통화를 하면 부모님이 바로 옆에 계시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은 한국생활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어하십니다. 항상 저에게 어떻게 지내냐고 하시고 필요한 것은 없냐고 물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늘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십니다.

얼마 전에 저는 몸이 많이 아팠습니다. 어머님께서 제 모습을 보시면 걱정하실 것 같아서 화장을 하고 통화를 했는데 어머니 얼굴 보니까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보시고 왜 우냐고 하셔서 저는 너무 반가워서 운다고 했습니다. 울고 있는 저를 보시고 어머니도 같이 우셨습니다.

저는 그 때 이번 방학에 고향에 갈 가리고 했습니다. 제가 고향에 가면 어머니는 맛있는 음식을 많이 만들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방학에 빨리 부모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Прошёл примерно месяц с тех пор, как я приехал в Корею.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интересно, иногда бывает одиноко. Я каждый раз, когда мне одиноко делаю видеозвонки родителям. Очень нравится то, что экран большой и звук хороший, когда связываешься по интернету. В моменты, когда жизнь в Корее тяжела или хочется увидеть родителей, настроение улучшается после разговора с ними.

Когда делаю видеозвонки, кажется, что родители рядом со мной. Родители сильно хотят знать о моей жизни в Корее. Всё время спрашивают у меня как я живу, может быть я в чём-то нуждаюсь. И всегда говорят, чтобы я усердно училась.

Недавно я сильно болела. Переживая, что мама, увидев меня, расстроится, я нанесла макияж, прежде чем сделать видеозвонок, однако, после взгляда на мамино лицо у меня тут же навернулись слёзы. Мама спросила меня, отчего я плачу, а я сказала, что это слёзы радости, что вижу её. Мама, глядя на меня, тоже стала плакать.

Я в тот момент сказала, что на эти каникулы поеду домой. Мама сказала, что когда, я приеду домой, она приготовит что-то вкусное. Скорее бы на каникулах встретиться с родителями.

После данного текста в учебном пособии предлагается ряд вопросов по содержанию текста:

연습 / Упражнение 1

1. 이 사람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Главный герой парень или девушка? Почему вы так думаете?

2. 앞 글에서 인터넷 화상 통화의 좋은 점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В чём достоинство видеозвонка?

연습 / Упражнение 2

1. 이번 방학은 기다립니다. X

Ожидает наступающие каникулы

2. 유학생살이 재미없어서 외롭습니다. O

Одиноко, потому что учеба за границей не интересна

Данные вопросы можно разделить на «обычные» и «развивающие критическое мышление». Так, к примеру 이 사람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Главный герой парень или девушка? Почему вы так думаете?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отсутствует категория рода в отличие от русского языка.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когда идёт повествование от первого лица без указания на пол автора, сложно понять речь идёт о мужчине или женщине. Однако такого рода вопросы при уровне знаний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A2 трудно отнести к «развивающим критическое мышление». Следующий вопрос 앞 글에서 인터넷 화상 통화의 좋은 점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В чём достоинство видеозвонка? Можно отнести к «развивающим критическое мышление», поскольку предполагает формулирование суждения на основе определенного критерия и логическую формулировку выводов, как следствие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го критического анализа фактов и/или явлений.

При разработке вопросов к тексту необходимо формулировать вопрос так, чтобы студенты максимально «включались» не только в логическую цепь размышлений, но и в творческий процесс.

Некоторые ученые рассматривают творчество, как простой процесс решения задачи. Исходя из этого, творческое мышление является процессом, включающим постановку задачи, выяснение того, что именно важно в этой задаче, и нахождение нового пути ее решения.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стоит проблема подготовки высоко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не просто со знанием иностранного языка в сфере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но с навыками критического мышления, умеющего применить знания иностранного языка для высокого уровня коммуникации. Выпускникам филологических отделений необходимо приобрести навыки информационно-аналитической работы, которая подразумевает не только умение сбора, обработки и использования информации, но и применения своих знаний для решения более сложных задач сферы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Innovative Methods of Korean Language Training

Kim T.S.

Tashkent State Institute of Oriental Studies, Tashkent, Uzbekistan

Abstract: This article discusses the method of critical thinking on the example of text analysis in the section "Reading" in the classroom of the Korean language.

As it is known, when training a specialist with knowledge of a foreign language in the field of professional activity, it is necessary to take into account the specifics of his future activity so that he can work with information materials received from various sources in both Russian and foreign languages.

Since the basis of the professional activities of graduates of a specialized university is information and analytical work, which implies the ability to collect, process and use information, as well as work in communication with people speaking a foreign language, possessing intellectual skills of critical thinking when working with information should be the basis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communicative competence at different stages of learning a foreign language.

According to research A.V. Fedotov currently there are many definitions of critical thinking. Among them with a certain degree of conditionality can be identified:

1) concise, but devoid of specific language:

Critical thinking is "a special kind of mental activity that allows a person to make a healthy judgment about his proposed point of view or model of behavior."

2) definitions of philosophical orientation, focusing on theoretical aspects:

"Critical thinking is a sequence of mental actions aimed at checking statements or sentence systems in order to ascertain their inconsistency with accepted facts, norms or values.

This includes the ability to identify the problem, clarify the situation, analyze the argument, comprehensively study the issue, develop criteria for evaluating decisions and reliability of information sources, and avoid generalizations."

3) definitions of pedagogical orientation, focusing on the methodological and practical aspects of the development of critical thinking abilities:

Critical thinking is social and independent thinking. Information is the starting point, and not the end point of critical thinking. Critical thinking starts with asking questions and understanding the problems that need to be solved. Critical thinking tends to convincing argumentation.

Critical thinking methods should be applied by asking questions and understanding the problems that need to be solved.

According to D. Kluster, teachers who develop critical thinking in the classroom offer to consider various judgments, points of view on the problem, create conditions for students to develop an independent opinion, decision, conclusion.

This approach is extremely necessary, for the reason that today there is a problem of training highly qualified specialists not only with knowledge of a foreign language in the field of professional activity, but with the skills of critical thinking, able to apply knowledge of a foreign language for a high level of communication.

In the Korean language class in the Reading section, second-year students of Korean philology

learn not only to translate the text, to answer the questions posed in the text, but also to use the skills of critical analysis.

Consider the text below:

저는 한국에 온지 한 달쯤 됐습니다. 재미있기는 하지만 가끔 외로운 때가 있습니다. 저는 외로운 때마다 인터넷으로 부모님과 화상 통화를 합니다. 인터넷 회선 통하는 소리도 잘 들리고 화면도 커서 아주 좋습니다. 한국생활이 힘들거나 부모님을 보고 싶을 때 통화를 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화상 통화를 하면 부모님이 바로 옆에 계시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은 한국생활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어하십니다. 항상 저에게 어떻게 지내냐고 하시고 필요한 것은 없냐고 물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늘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십니다.

얼마 전에 저는 몸이 많이 아팠습니다. 어머님께서 제 모습을 보시면 걱정하실 것 같아서 화장을 하고 통화를 했는데 어머니 얼굴 보니까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보시고 왜 우냐고 하셔서 저는 너무 반가워서 운다고 했습니다. 울고 있는 저를 보시고 어머니도 같이 우셨습니다.

저는 그 때 이번 방학에 고향에 갈 가리고 했습니다. 제가 고향에 가면 어머니는 맛있는 음식을 많이 만들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방학에 빨리 부모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It has been about a month since I came to Korea. Although interesting, it is sometimes lonely. Every time I make video calls to my parents lonely. I really like the fact that the screen is big and the sound is good when you communicate on the Internet. In moments when life in Korea is hard or you want to see your parents, your mood improves after talking with them.

When I make video calls, it seems that the parents are next to me. Parents want to know about my life in Korea. All the time they ask me how I live, maybe I need something. And they always say that I study hard.

Recently, I was very sick. Worried that my mother, when she saw me, would be upset, I put on make-up before making a video call, however, after looking at my mother's face, tears immediately came to me. Mom asked me why I was crying, and I said that it was tears of joy that I saw her. Mom, looking at me, also began to cry.

I said at that moment that I would go home for this vacation. Mom said that when I come home, she will cook something tasty. Rather, on vacation to meet with parents.

After this text, the textbook offers a number of questions on the content of the text: Recently, I was very sick. Worried that my mother, when she saw me, would be upset, I put on make-up before making a video call, however, after looking at my mother's face, tears immediately came to me. Mom asked me why I was crying, and I said that it was tears of joy that I saw her. Mom, looking at me, also began to cry.

I said at that moment that I would go home for this vacation. Mom said that when I come home, she will cook something tasty. Rather, on vacation to meet with parents.

After this text, the textbook offers a number of questions on the content of the text:

Exercise 1

1. 이 사람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The main character is a guy or a girl? Why do you think so?

2. 앞 글에서 인터넷 화상 통화의 좋은 점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What is the advantage of a video call?

연습 / Exercise 2

1. 이번 방학은 기다립니다. X

Awaiting upcoming holidays

2. 유학 생활이 재미없어서 외롭습니다. O

Lonely, because studying abroad is not interesting

These issues can be divided into "ordinary" and "developing critical thinking." So, for example 이 사람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The main character is a guy or a girl? Why do you think so?

In Korean, there is no gender category in contrast to Russian. Accordingly, when there is a first person narration without indicating the author's gender,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whether it is a man or a woman. However, such questions at the level of knowledge of the Korean A2 language are difficult to attribute to "developing critical thinking." Next question 앞 글에서 인터넷 화상 통화의 좋은 점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What is the advantage of a video call? It can be referred to as "developing critical thinking", since it involves the formulation of a judgment based on a certain criterion and a logical formulation of conclusions, as a result of a preliminary critical analysis of facts and / or phenomena.

When developing questions to the text, it is necessary to formulate the question in such a way that students should be "maximally included" not only in the logical chain of reflection, but also in the creative process.

Some scientists see creativity as a simple process for solving a problem. Based on this, creative thinking is a process that includes setting a task, figuring out exactly what is important in this task, and finding a new way to solve it.

Today there is a problem of training highly qualified specialists not only with knowledge of a foreign language in the sphere of professional activity, but with the skills of critical thinking, who can apply the knowledge of a foreign language for a high level of communication. Graduates of philological departments need to acquire the skills of information and analytical work, which implies not only the ability to collect, process and use information, but also apply their knowledge to solve more complex tasks of the professional sphere.

문화의 교차점에 있는 키르기스스탄과 한국

스탐베코바 티나틴
키르기스 한국대,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Кыргызстан и Корея на стыке культур

Стамбекова Т.Т.
Кыргызско-Корейский колледж, Бишкек, Кыргызстан

Аннотация: В данной статье проводится анализ и сравнение традиций кыргызского народа и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проживающей на территории Кыргызстана. Рассматриваются сходные и отличительные черты традиционных празднований, и обрядов связанных с вступлением в новый возраст. В ходе исследования были выявлены ряд схожих черт. Такими являются: восточные ценности, дань уважения старшим и учителям, преданность семье, культ предков, любовь и помощь друзьям. Не смотря на культурное забвение в годы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кыргызскому и корейскому народу удалось сохранить национальные традиции живыми, привить к ним любовь и передать новому поколению.

Корейская диаспора является наиболее многочисленной в Кыргызстане, на 2018 год на долю 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приходится 0,3%, что составляет примерно 17 000 человек. Говоря о традициях корейцев необходимо кратко изложить историю формирования диаспоры в Кыргызстане. Первая волна переселения народа с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на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произошла в 1861-1910 гг. В 1937-1953 гг. - депортация этнических корейцев с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 страны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Массовые переселения повлекли за собой адаптацию культуры корейцев, а именно языка, национальной кухни и традиций.

Многие исконно корейские традиции были утеряны, другие перетерпели серьезные изменения, третьи адаптировались под местный уклад. Причиной утери традиций стала советская идеология, согласно которой религиозные буддистские корни традиций являлись недопустимыми. Сохранить культурную идентификацию удалось благодаря старшему поколению, которые говорят на родном языке, помнят традиции и передают новому поколению.

Забвению во время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подвергся и народ Кыргызстана. На протяжении полувека местные традиции заменялись «советской культурой». Однако в последние годы наблюдается массовый интерес со стороны всех поколений к народным традициям кыргызского народа. Обряды и праздники отмечаются с особой парадностью и размахом. Не смотря на массовую глобализацию во всем мире кыргызский и корейский народы продолжают хранить и чтить свою этническую идентификацию.

Не смотря на вестернизацию, многие кыргызы и корейцы продолжают жить по традиционным канонам. Связанно это с тем, что древние традиции настолько глубоко находятся в сознании общества, что даже западный образ жизни не может в полной мере проникнуть в повседневную жизнь кыргызов и корейцев. Скорее им удалось адаптировать западный образ жизни под восточные ценности.

К основным духовным ценностям можно отнести: почтительное отношение к старшим, преданность государству, уважительное отношение к людям высшей должности, уважение к учителям, преданность и любовь к семье, верность супругов, культ предков. Данные ценности отмечаются при рассмотрении праздников и обычаев обоих народов. Это позволяет особенно ощутить схожесть традиций.

В статье подробно рассматриваются следующие праздники: 1) обряды, связанные с рождением ребенка – корейский праздник «пэкиль» – сто дней со дня рождения ребенка, «асянди» первая годовщина ребенку, кыргызские праздники – «дже-энтэк той» – празднование по поводу рождения ребенка, «тушоо той» – церемония перерезания путев; 2) свадебные традиции: «согэтхин» – церемония сватовства в Корее, «сойко салуу» – сватовство в Кыргызстане; 3) «хангаби» – 60-летие человека.

Все праздники проводятся в разном возрасте в разное время, однако многие из них имеют регламент по времени так как имеют четкую последовательность действий. Такой план гарантирует исключение спонтанности и неопределенности. Важным моментом в обеих культурах является торжественность праздника – приглашение большого количества гостей: родственников, друзей, коллег. Таким образом приглашающая сторона выражает уважение и признание гостям, приглашая их разделить их праздник. Выражение уважения проявляется и в поклонах старшему поколению. У кыргызов же молодой невестке необходимо клоняться родителям мужа, выражая этим жестом смиренность и уважение.

Долгое время кыргызы и корейцы были вынуждены отказаться от своих традиций. Однако после приобретения независимости Кыргызстана интерес к традициям и культуре возрос.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все больше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обеих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стараются беречь традиции и следовать им, тем самым сохраняя и поддерживать свою культурную идентичность.

Kyrgyzstan and Korea on the Edge of Cultures

Stambekova T.T.

Kyrgyz Korean College, Bishkek, Kyrgyzstan

Abstract: This article analyzes and compares the traditions of the Kyrgyz people and the Korean diaspora living in Kyrgyzstan. We consider similar and distinctive features of traditional celebrations and rites associated with the entry into a new age. The study revealed a number of similar features. These are: Eastern values, tributes to elders and teachers, loyalty to the family, the cult of ancestors, love and help to friends. Despite cultural oblivion in the years of the Soviet Union, the Kyrgyz and Korean people managed to keep their national traditions alive, instill love in them and pass them on to a new generation.

The Korean diaspora is one of the most numerous in Kyrgyzstan, in 2018 the Korean population accounts for 0.3%, which is approximately 17,000 people. Before speaking about Korean traditions, it is necessary briefly describe the history of the formation of the diaspora in Kyrgyzstan. The first wave of the resettlement of people from the Korean Peninsula to the Far East occurred in 1861-1910. In

1937-1953, there was the deportation of ethnic Koreans from the Far East to the countries of Central Asia. Mass migrations entailed the adaptation of Korean culture, language, ethnic cuisine and traditions.

Many of the original Korean traditions were lost, others endured serious changes, and others adapted to the local way of life. The reason for traditions loss was the Soviet ideology, according to which the religious Buddhist roots of traditions were unacceptable. The possibility to preserve cultural identification was due to the older generation, who speak their native language, remember traditions and pass on to a new generation.

The people of Kyrgyzstan were also exposed to obviation during the Soviet Union. For half a century, local traditions were replaced by "Soviet culture". However, in recent years there has been a massive interest from all generations towards the folk traditions of the Kyrgyzstan. Rites and festivals are celebrated with great pomp and scope. Despite the massive globalization of the world, the Kyrgyz and Korean people continue to preserve and honor their ethnic identity.

Despite Westernization, many Kyrgyz and Koreans continue to live according to traditional canons.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the ancient traditions are so deep in the consciousness of society that even the Western way of life cannot fully penetrate the daily life of the Kyrgyz and Koreans. Rather, they managed to adapt the Western way of life to Eastern values.

The main spiritual values include: respect for elders, loyalty to the state, respect for people of higher positions, respect for teachers, loyalty and love for family, loyalty of spouses, cult of ancestors. These values are noted when considering the holidays of both cultures. This allows you to especially feel the similarity of traditions.

The article discusses in detail the following holidays in: 1) ceremonies associated with the birth of a child - Korean holiday "pekil" - celebration of one hundred days from the birth of the child, "Asyandi" first anniversary of the child, Kyrgyz holidays - "je entek toi" - celebration of the birth child, "tushoo toy" - ceremony of cutting the fetters; 2) wedding traditions: "sogatkhin" - matchmaking ceremony in Korea, "soiko saluu" - matchmaking in Kyrgyzstan; 3) "Hangabi" - the 60th anniversary of man.

All holidays are held at different ages at different times, but many of them have a time limit because they have a clear sequence of actions. Such a plan guarantees the exclusion of spontaneity and uncertainty. An important point in both cultures is the solemnity of the holiday - an invitation to a large number of guests: relatives, friends, colleagues. Thus, the inviting party expresses respect and recognition to the guests, inviting them to share their holiday. The expression of respect is manifested in the bows to the older generation. In Kyrgyzstan, the young daughter-in-law must bend to her husband's parents, expressing humility and respect.

For a long time, the Kyrgyz and Koreans were forced to abandon their traditions. However, after Kyrgyzstan gained independence, interest in traditions and culture increased. At the moment, more and more representatives of both nationalities are trying to keep traditions and follow them, thereby preserving and maintaining their cultural identity.

Session 2B

사회: 박 넬리 (카자흐스탄 세계언어대학교)

■ 대중 의료 담화의 의사소통 전략 및 전술

김 올리아나(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카자흐스탄 알마티), (R)

■ 키르기스스탄과 한국:

역사적 전제 조건과 외교 정책의 목표가 양국 관계 수립에 미치는 영향

오르모노바 아이자르킨(비슈케크 인문대,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R)

■ '소프트 파워' 정책을 통한 한국의 국가 가치

보란타예바 파리지,(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카자흐스탄 알마티), (R)

■ 한국 문화의 공간 모델

약사날리에바 자밀랴(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카자흐스탄 알마티), (R)

■ 키르기스인의 문화 유산을 보존하는 요소로서의 현대 기업가 정신

술탄쿨로바 나기마(키르기스 한국대,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R)

■ 그룹활동을 통한 한국어 의사소통능력 개발: 영어와의 비교

카이르자노바 누르굴(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카자흐스탄 알마티), (R)

■ 한국어 정치 담화에서의 영어 차용어

무하메자노바 메루예르트(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카자흐스탄 알마티),(R)

■ 한국시의 새로운 흐름

샤이케노프 아스하트(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카자흐스탄 알마티), (R)

대중 의료 담화의 의사소통 전략 및 전술

김 울리야나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카자흐스탄 알마티

개요: 다양한 담화에 대한 최근 연구에서 의사소통 전략과 전술의 개념이 활발하게 사용된다. 이 발표에서는 대중 의료 담화의 전략과 그 전략을 구현하는 전술을 고려해보도록 한다. 대중 의료 담화에는 의학 주제에 대한 기사, 대중적 과학 잡지에 나오는 의사와의 인터뷰, 광범위한 청중을 대상으로 한 건강에 관한 라디오 및 TV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대중 의료 담화 참가자는 기사 작성자, 텔레비전 및 라디오 프로그램 발신인(addresser)의 역할을 하는 방송인이며 수취인(addressee) 역할을 하는 독자, 청취자 및 TV 시청자이다. 대중 의료 담화의 텍스트는 엄격한 의학적 성향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접근 가능한 언어로 건강에 관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의학 주제 또는 문제를 설명한다. 의사인 프로그램 진행자가 건강에 관한 대중적 과학 프로그램을 이끌면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일상적인 어휘를 선택하려고 한다.

대중 의료 담화의 목표는 의료 서비스를 받든 일반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의료 서비스나 새로운 의료 방법을 알리고 질병을 예방하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조성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전술로 구현되는 특정 전략이 사용된다. 의심할 바 없이, 라디오나 TV 프로그램 진행자가 갖고 있는 의사소통 능력은 대중 의료 담화에서 의사소통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발신인(addresser)이 의사소통 전략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한다. 그래서 발신인(addresser)이 청중에게 영향을 미치는 효과는 올바른 전략을 선택하는 데에 달려 있다. 의사소통 전략을 기술할 때 우리는 O.S. Issers가 제안한 전략과 전술의 분류를 사용할 것이다. Issers의 이론에 따라 이 발표에서는 의사소통 전략으로 “의사소통의 특정 조건과 의사소통의 참가자의 성격에 따라 음성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계획하고 이 계획을 구현하는 것을 포함하여 의사소통과 의사소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설 복합체 (speech complex)”를 이해한다. 따라서 “언어적 전술은 전략 실행에 기여하는 하나 이상의 행동으로 간주되어야 한다.”(O.S. Issers, 1999, 104p.)

의사소통 전술의 특징으로 유연성을 보며, 담화의 각 참가자는 각 상황에 맞고 가장 적절한 전술을 선택할 수 있다. Issers에 따르면 커뮤니케이션을 제어하는 가장 중요한 동기로 상황에 적응할 필요성과 의도를 실현할 욕구를 볼 수 있다. 본 동기는 기본이지만 커뮤니케이션의 유일한 요소는 아니다. J. Dillard와 그의 공동 저자들(Issers 1999: 58-59)에 따르면, 의사소통의 2차 목표 중 자기 표현과 관련된 목표, 효과적인 상호 작용과 관련 목표이며 소중한 가치를 보존하고 증대하려는 목표이다. 의사소통의 주된 목표는 의사소통 과정의 기초이다. 보조 목표는 의사소통 과정의 언어 자료의 선택과 언어행동 유형을 결정한다. 본 논문은 특히 대중적 의료 담화에서 사용된 주요 및 보조 의사소통 전략에 대해 논의한다. 주요 전략은 살펴보는 단계의 커뮤니케이션에서 동기와 목표의 계층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보조 커뮤니케이션 전략은 수취인(addressee)에 대한 최적의 영향을 주며 대화 상호 작용의 효과적인 형성에 기여한다.(Dauletova 2004: 37)

기능적 관점에서 볼 경우 주요 전략에는 수취인의 내면 세계, 가치 체계 및 세계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이 포함된다. 그러한 전략에는 홍보 전략, 질병 예방 전략이 있다. 보조 전략은 수취인에게 최적의 영향을 미치도록 하며 대화의 효과적인 조직에 설정한다.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구축하기 위한 보조 전략에는 정보 받는 전략, 금기 해제 전략 및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만들기 위한 전략이 포함된다. 또한, 연구자가 의사소통 전략을 의미론적 수단의 선택과 언어 행동 측면에서 고려한다. 그러한 의사소통 전략을 의미론적 전략(semantic strategy)이라고 표현한다. 의미론적 전략은 “다양한 언어 수단을 사용하여 바람직한 의미를 유도하는 방법”을 말한다 (O.S. Issers 1997:52).

실용적인 자료로 받아들여지는 한국어와 러시아어로 된 건강에 관한 TV프로그램의 대본을 분석하면 그 두 언어의 의사소통 전략과 그 전략을 구현하는 전술이 동일 할 수 있지만 각 문화는 적절한 언어 수단과 extralinguistic 구성 요소를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구성 요소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취인(addressee)에게 효과적인 영향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Коммуникативные стратегии и тактики научно-популярного медицинского дискурса

Ким У.А.

КазУМОиМЯ им. Абылай хана, Алматы, Казахстан

Аннотация: В современных исследованиях различных видов дискурса активно применяется понятие коммуникативной стратегии и тактики. В данной работе мы рассмотрим некоторые стратегии и реализующие их тактики научно-популярного медицинского дискурса. К научно-популярному медицинскому дискурсу относятся статьи на медицинскую тематику, интервью с врачами в научно-популярных журналах, а также радио и телевизионные программы о здоровье, рассчитанные на широкую аудиторию. Участниками научно-популярного дискурса являются авторы статей, ведущие теле- и радиопередач, выступающие в качестве адресанта, и читатели, слушатели, телевизионная аудитория, выступающие в качестве адресата. Тексты научно-популярного дискурса не имеют строгой научной направленности и поэтому автор или ведущий телевизионной программы о здоровье доступным языком объясняют ту или иную медицинскую тему или проблему. Так, ведущие научно-популярных программ о здоровье, говорят о различных процессах, происходящих в нашем организме стараются подбирать общеупотребительную повседневную лексику

Научно-популярный медицинский дискурс ставит своей целью информирование и просвещ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медицинских услуг, профилактику заболеваний и пропаганду здорового образа жизни. Для решения поставленных целей используются определенные стратегии, которые, в свою очередь, реализуются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ми тактиками. Без сомнения, важную роль в успешности коммуникации в научно-популярном дискурсе играет коммуникативная компетенция врача, ведущего теле или радиопрограммы. Адресант посредством коммуникативных стратегий достигает поставленной цели, а от правильного выбора той или иной тактики зависит эффективность воздействия на аудиторию. При описании коммуникативных стратегий мы в своей работе воспользуемся классификацией стратегий и тактик, предложенной О.С. Иссерс. Так, под коммуникативной стратегией в данной работе мы понимаем «комплекс речевых действий, направленных на достижение коммуникации и коммуникативных целей, включающих в себя планирование процесса речевой коммуникации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конкретных условий общения и личностей коммуникантов, а также реализацию этого плана».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речевой тактикой следует считать одно или несколько действий, которые способствуют реализации стратегии» (О.С. Иссерс, 1999, с. 104). Коммуникативные тактики характеризуются гибкостью, что позволяет участникам дискурса в каждой конкретной ситуации выбирать наиболее подходящую тактику. По мнению автора, к числу наиболее существенных мотивов, управляющих речевым поведением, относится желание быть эффективным (т.е. реализовать интенцию) и необходимость приспособиться к ситуации. Эти мотивы являются первичными, но не единственными в общении. К числу вторичных целей общения, по мнению Дж. Дилларда и его соавторов (Иссерс 1999: 58-59), относятся цели, связанные с самовыражением, с эффективным взаимодействием коммуникантов, со стремлением говорящего сохранить и приумножить

значимые для него ценности, с желанием говорящего избежать отрицательных эмоций. Первичные цели общения лежат в основе коммуникативного процесса, вторичные определяют выбор речевого материала и тип речевого поведения.

В работе рассмотрены основные и вспомогательные коммуникативные стратегии, применяемые, в частности, в научно-популярном медицинском дискурсе. Главной можно назвать стратегию, которая на данном этапе речевого воздействия является наиболее значимой с точки зрения иерархии мотивов и целей. Вспомогательные речевые стратегии содействуют эффективному формированию диалогово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оптимальному влиянию на адресата (Даулетова 2004: 37). К основным стратегиям, с функциональной точки зрения, относят стратегии, оказывающим воздействие на внутренний мир адресата, на его систему ценностей, на его восприятие мира. К таким стратегиям, например, можно отнести информационно-просветительскую стратегию, стратегию профилактики заболеваний, а вспомогательные стратегии направлены на оптимальное воздействие на адресата и эффективную организацию диалога. К вспомогательным стратегиям построения успешной коммуникации можно отнести получение информации, стратегию снятия запретов, стратегию создания положительной тональности общения. Кроме этого коммуникативная стратегия рассматривается исследователями с точки зрения выбора семантических средств, а также речевых действий. Такие речевые стратегии называются семантическими. Семантическая стратегия - это «способ индуцирования желательной семантики, который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через использование различных языковых ресурсов» (Иссерс 1997: 52).

Анализ скриптов телепередач о здоровье на корейском и русском языках, взятых в качестве практического материала позволяет сделать вывод о том, что коммуникативные стратегии и реализующие их тактики хотя и могут совпадать, но каждая национальная культура располагает своим набором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языковых средств и экстралингвистических компонентов, направленных на оказание эффективного воздействия на адресата для достижения поставленной цели.

**키르기스스탄과 한국:
역사적 전제 조건과 외교 정책의 목표가 양국 관계 수립에 미치는 영향**

오르모노바 아이자르킨
비슈케크 인문대,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Кыргызская Республика и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влияние исторических предпосылок и целей во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е на
установление двусторонних отношений**

Ормонова А.Т.
БГУ им. К. Карасаева, Бишкек, Кыргызстан

Аннотация: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е отношения между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ой и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были установлены в 1992 г. За 27 лет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расширились отношения в области политики, экономики, образования и культуры. Южная Корея является одним из приоритетных стран в восточном направлени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Кыргызстана, поэтому исследование их отношений вызывает повышенный интерес.

В данной статье рассматриваются цели во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е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редпосылки установления отношений двух стран. Поставленная задача поможет проанализировать интересы двух стран, которые повлияли на установление отношений. Определение исторических предпосылок и целей во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е Кыргызстана и Южной Кореи при установлении отношений позволит лучше понять нынешнее положение и перспективы кыргызско-южнокорей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После образования Южной Кореи в 1948 г. её основной целью во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е было обеспечение безопасност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и объединение двух корейских государств. Это задача стала основой «Северной политики» (или «Северной дипломатии») Корей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в конце 1980-х гг. Политика была направлена на улучшение отношений с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другими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ими странами, на урегулирование корейского вопроса, в конечном итоге, объединение двух разделенных государств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Результатами осуществления «Северной дипломатии» стали значимые результаты во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е Южной Кореи, такие как вхождение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ООН, установление отношений со странами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го блока. При помощи реализации «Северной политики» корейский вопрос вышел на международный уровень. Также посредством «Северной дипломатии» установились связи с советскими и китайскими корейцами, что привело к расширению проведения политик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Южной Кореи по отношению к корейцам за рубежом.

Дальнейшее осуществление «Северной политики» и поиск единомышленников в решении корейского вопроса повлияло на установление отношений со странами бывшего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в том числе и с Кыргызстаном. Кроме этого, дополнительной причиной установления отношений стало наличие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в Кыргызстане.

В свою очередь, Кыргызстан обрел независимость в 1991 г. и избрал демократический путь развития. Определились цели и задачи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основой которой стали демократические ценности. Кыргызская Республика начала проводить открытую внешнюю политику.

Задачи во внутренней политике, которые были у молод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такие как укрепление экономики, разрешение территориальных вопросов с соседними государствами, обеспечение безопасности в регионе, определили цели и задачи во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е. Одной из главных целей было привлечение иностранных инвестиций в страну.

В силу этих причин и геополитического расположения, Кыргызстан начал проводить многовекторную внешнюю политику. Основными направлениями международной политики молод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стали как соседние, так и западные и восточные страны. В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с восточными государствами одним из приоритетных стран стала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Южная Корея привлекала Кыргызстан схожестью культуры и менталитета, моделью развития экономики и проживанием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в Кыргызстане.

Появление корейцев в Кыргызстане связано с миграцией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на Дальний Восток России и их переселением на территорию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Основная часть корейцев переехала в Кыргызстан после 1953-го г. из Узбекистана и Казахстана, куда они были депортированы с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 1937 г. В конце 1980-х гг. у корейцев появилась возможность установить связи с Южной Кореей, которые ещё более расширились после 1990-х гг. Сейчас в Кыргызстане проживает около 17 000 корейцев. Корейская диаспора вносит свой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е кыргызстанского общества и в укрепление отношений Кыргызстана и Южной Кореи.

Таким образом, целью в установлении отношений со стороны Южной Кореи было осуществление «Северной политики». Кыргызстан же, в основном, был заинтересован в экономическом развитии. Корейская диаспора в Кыргызстане стала дополнительной причиной установления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двумя странами и также является связующим мостом в развитии отношений двух стран.

В данное время предпосылки и интересы двух государств, которые были при установлении отношений, по-прежнему остаются одними из главных направлений их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Главной целью Южной Кореи является разрешение корейского вопроса. Для этой цел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осуществляет «Новую Северную политику», поэтому, Кыргызстан, как и другие страны, останется важным, и для Южной Кореи будет вызывать большой интерес. Во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е Кыргызстана Корея также играет приоритетную роль и Кыргызская Республика заинтересована в расширении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Южной Кореей. Имеются предпосылки укрепления отношений двух стран, и поэтому Кыргызстану следует уделять больше внимания улучшению и укреплению отношений с Южной Кореей.

The Kyrgyz Republic and the Republic of Korea: Influence of Historical Background and Objectives in Foreign Policy on the Establishment of Relations

Ormonova A.T.

Bishkek Humanities University named after K. Karasaev, Bishkek, Kyrgyzstan

Abstract: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the Kyrgyz Republic and the Republic of Korea were established in 1992. In the course of 27 years of cooperation, relations in the field of politics, economics, education, and culture have expanded. South Korea is one of the priority countries in the eastern direction of cooperation for the foreign policy of Kyrgyzstan, so the study of their relations is high interest.

In this article are discussed goals in the foreign policy of the Kyrgyz Republic and the Republic of Korea, background for establishing relations between these two countries. The pointed task will help to analyze the interests of two countries that influenced the establishment of relations. Defining the historical background and goals in the foreign policy of Kyrgyzstan and South Korea in establishing relations will allow for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spects of Kyrgyz-South Korean cooperation.

After the formation of South Korea in 1948, its main goal in foreign policy was to ensure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unite the two Korean states. This task was the basis of the «Northern Policy» (or «Northern Diplomac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late 1980s. The policy was aimed at improving relations with North Korea and other socialist countries, at settling the Korean issue, and ultimately, uniting two divided states on the Korean Peninsula. The implementation of the «Northern diplomacy» was a significant result in the foreign policy of South Korea, such as the entry of the Republic of Korea into the UN and the establishment of relations with the countries of the socialist bloc. With the help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Northern Policy», the Korean issue has reached the international level. Also, through «Northern Diplomacy», contacts were established with the Soviet and the Chinese Koreans, which led to the expansion policy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wards the Koreans abroad.

The further implementation of the «Northern policy» and the search for the like-minded country in solving the Korean issue affected the establishment of relations with the countries of the former Soviet Union, including Kyrgyzstan. In addition, a reason for establishing relations was the presence of the Korean diaspora in Kyrgyzstan.

In turn, Kyrgyzstan gained independence in 1991 and chose a democratic path of development. The goals and objectives of foreign policy were defined, the basis of which became democratic values. The Kyrgyz Republic has begun to pursue an open foreign policy.

The tasks in the domestic policy that the young state had, such as strengthening the economy, resolving territorial issues with neighboring states, ensuring security in the region, defined goals and objectives in foreign policy. One of the main goals was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 into the country.

For these reasons and geopolitical location, Kyrgyzstan began to pursue a multi-vector foreign policy. The main directions of the international policy of the young state were neighboring also western and eastern countries. The Republic of Korea became one of the priority countries in cooperation with the eastern countries. South Korea attracted Kyrgyzstan with some similarities in culture and mentality,

economic development model and the Korean diaspora in Kyrgyzstan.

The appearance of Koreans in Kyrgyzstan is associated with the migration of the Korean people to the Far East of Russia and their resettlement to the territory of Central Asia. The main part of Koreans moved to Kyrgyzstan after 1953 from Uzbekistan and Kazakhstan, where they were deported from the Far East in 1937. At the end of the 1980s, Koreans had the opportunity to establish ties with South Korea, which expanded after the 1990s. About 17,000 Koreans live in Kyrgyzstan now. The Korean diaspora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Kyrgyz society and the strengthening of relations between Kyrgyzstan and South Korea.

Thus, the goal of establishing relations from South Korea's side was the implementation of the Northern Policy. Kyrgyzstan, basically, was interested in economic development. The Korean diaspora in Kyrgyzstan has become an additional reason for establishing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is also a connecting bridge in the development of relations between both countries.

At this time, the background and interests of the two states that were in establishing relations are still one of the main directions of their foreign policy. The main goal of South Korea is to resolve the Korean issue. For this purpose,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s implementing the «New Northern Policy», therefore, Kyrgyzstan, like other countries, will remain important, and will be of greater interest to South Korea. In the foreign policy of Kyrgyzstan, Korea also plays a priority role and the Kyrgyz Republic is interested in expanding economic cooperation with South Korea. There are prerequisites for strengthening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therefore Kyrgyzstan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improving and strengthening relations with South Korea.

‘소프트 파워’ 정책을 통한 한국의 국가 가치

보란타예바 파리자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카자흐스탄 알маты

Национальные ценност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политике «мягкая сила»

Борантаева Ф.Ж.
КазУМОиМЯ им. Абылай хана, Алматы, Казахстан

Аннотация: В современном мире большинство стран испытывают на себе все возрастающее воздействие глобализации и интернационализации – процессов, которые становятся основополагающими в формировании экономической, политической, социальной и духовной сфер общественной жизни. В целях формирования позитивного образа перед миром и реализации стратегии «мягкая сила» многие государства выполняют ряд действий. Концепция "мягкая сила" ведет активную политику по отношению к внешнему миру на основе привлекательности национальной культуры, быта, национального языка. Сегодня корейский феномен мягкой силы, чье начало было положено влиянием корейских сериалов и поп-музыки в таких странах, как Сингапур, Вьетнам, Япония и Китай, все более становится популярным на мировом уровне. В Южной Корее, наряду с информационными технологиями, были подняты вопросы о важности культурных технологий. Н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уровне уделяется внимание развитию промышлен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и культурной индустрии.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помимо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и программ, создан прочный инструмент стратегии «мягкая сила», как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и не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интернет-ресурсов и диаспоры. Мир проявляет интерес к корей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й кухне, к корейским товарам, то есть к продуктам легк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бытовой технике, а также увеличение числа магазинов электронных товаров крупных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что свидетельствует о проводимой эффективной политики «мягкой силы».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с каждым днем увеличивается количество желающих изучать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и людей, которые по различным причинам (туризм, медицина, образование и т.д.) путешествуют по этой стране.

Мы видим, что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уделяет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национальным ценностям в осуществлении политики «мягкая сила» через ее активное продвижение в культуре «хан». «Стиль Хан» – бренды, производимые в стране Хан (한-Корея), правительство намерено вывести «Стиль Хан» не только на внутреннее потребление, но и на внешний мир. Эффективность стратегии Южной Кореи «мягкая сила» наблюдается 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в том числе в Казахстане – это корейская письменность «хангыль», корейская национальная одежда «ханбок», корейская национальная кухня «хансик», корейский национальный дом «ханок».

В современных условиях глобализации важно сохранить национальные ценности. Однако на пути установления взаимовыгодных отношений и дальнейшего его развития особое место занимает понимание национальных ценностей других стран. Поэтому знание национальных ценностей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странами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имеет важное значение для дальнейшего развития двух стран.

National Valu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Soft Power” Policy

Borantaeva F.ZH.

KazUIR&WL named after Ablai Khan, Almaty, Kazakhstan

Abstract: In the modern world the majority of the countries are influenced by escalating impact of globalization and internationalization – processes which become fundamental in formation of economic, political, social and spiritual spheres of public life. In order to create a positive image of the world and implement the “soft power” strategy, many states perform a number of actions. The concept of “soft power” conducts an active policy in relation to the outside world on the basis of the attractiveness of the national culture, life, and national language. Today, the Korean phenomenon of soft power, whose beginning was influenced by Korean TV shows and pop music in countries such as Singapore, Vietnam, Japan and China, is becoming increasingly popular on a global scale. In South Korea, along with information technology, questions about the importance of cultural technologies were raised. At the state level, attention is paid to the development of industrial production and cultural industry. In the Republic of Korea, in addition to government organizations and programs, a durable instrument of soft power strategy has been created, as representatives of government organizations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Internet resources and the diaspora. The world is showing interest in the Korean national cuisine, in Korean goods, that is, in light industry products, household appliances, as well as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electronic goods stores of major manufacturers, which indicates an effective policy of “soft power”. Nowadays, the number of people willing to learn Korean and people who, for various reasons (tourism, medicine, education, etc.) travel around this country, is increasing every day.

We see that the Republic of Korea pays special attention to national values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soft power” policy through its active promotion in the “khan” culture. “Style Khan” - brands produced in the country of Khan (한-Korea), the government intends to bring “Style Khan” not only to domestic consumption, but also to the outside world. The effectiveness of the strategy of South Korea “soft power” is observed in Central Asia, including in Kazakhstan - this is the Korean “Hangehul” script, the Korean hanbok clothing, the Korean national food “Hansik”, the Korean national house “hanok”.

In the current conditions of globalization, it is important to preserve national values. However, on the way of forming mutually beneficial relationship and its further development, a special place is occupied by the understanding of the national values of other countries. Therefore, knowledge of the national values of the Republic of Korea by the countries of Central Asia is important for the further development of the two countries.

악사날리에바 자밀라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카자흐스탄 알마티

Модели космоса в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е

Аксаналиева Ж.Н.
КазУМОиМЯ им. Абылай хана, Алматы, Казахстан

Аннотация: В развитых мифологиях космогоническим мифам соответствует развернутая в пространстве и структурно наглядная космическая модель. «Творение» означает в этом контексте «Сотворение мира», которое также называется Космогонией или Происхождением Вселенной (Космос). Космогония обычно включает в себя не только рассказ о происхождении мира, но и описание его физических качеств, заявляя, например, о том, есть ли свет или тьма в Космосе или из каких частей он сформирован. Точно так же Теогония (Происхождение Богов) не ограничивает себя описанием их появления, но также устанавливает их число и описывает их характер и функции.

Космогония и Теогония не могут быть полностью разделены, потому что мифы установили, что части Космоса являются богами, говоря, например, что Земля (Гайя) и Небо (Уран) являются в то же время физическими реальностями и божествами, наделенными видом силы и интеллекта, который является исключительным атрибутом божественного. По этой причине, можно сказать, что Космос был создан богами, но не в результате работы конструкторов или демиургов, а через Любовь и общение.

Первобытный хаос, который некоторые называли пустотой, а другие равны с беспорядком, иногда появляется как существо, способное к общению и продолжению рода. Точно так же Тартар, описанный некоторыми как мрачное место в Подземном мире, «будучи далеким от земли, как земля с неба» (Гесиод, Теогония 720), породил несколько существ.

Космос - это не безжизненная сцена, на которой актеры выполняют свои роли, но вместо этого актеры, являются божествами. Ибо боги создают новые сегменты Космоса, объединяясь друг с другом, и эти новые сегменты, будучи самими богами, создаются и производятся. Поэтому мифические рассказы, хотя и различаются по своим деталям, рассматривают творение и творчество как одно и то же. В этой точке зрения «создание является результатом встречи, а генезис является продуктом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Идя снова в цепь Творения или Прообщества, нужно прийти к конечному предку, или, как говорили некоторые из них, к первопричине. Некоторые называли этого предка Хаосом, тогда как другие называли его иначе, или также указывали несколько одновременных предков. Тем не менее, некоторое начало часто встречается либо в Хаосе, либо в них.

Основным метафизическим вопросом, на который пытаются ответить мифы создания, является вопрос о происхождении или о том, откуда происходят вещи. Появление дня от ночи, рост растений из семян, происхождение погоды и времен года, рождение живых существ, все провоцируют вопросы относительно источника этих явлений. Мифы о создании

служат в большинстве обществ, чтобы дать отчет о таком происхождении.

Центральное телесное изображение в большинстве записанных мифов о создании - это рождение человека. Это приводит к широко распространенной антропоморфизации оригинальных принципов или способностей творения как первобытных родителей, мужчин и женщин. В классическом греческом мифе о Гесиоде Земля Мать, Гея, пропитана Небесным Отцом, Ураносом, и рождает Кроноса, который позже убивает своего отца и объединяется с его матерью для производства расы гигантов, первого смертного живого существ в мире. Полы земли и неба перевернуты в египетском мифе о творениях, в котором изображена богиня коровы с длинными волосами и свисающими грудями, надземная богиня Геб, ее супруга, как его защитник неба.

Мифы о создании во многих культурах приписывают разные части космоса различным частям тела божественного существа или дают альтернативные корни для полов. В вавилонском мифе Мардук убивает змея Тиамат и делает небо и землю из ее разделенного тела. Тело гигантского Пуруши является основой Вселенной в ведическом мифе.

Мифы о создании имеют двойственную связь с телом, поскольку они стремятся как имитировать, так и объяснять телесные процессы, такие как рождение и рост. Считается, что функции и качества человеческого тела, или микромира, отражают функции внешнего мира или макрокосма. Тело и земля становятся едиными в этих мифах, а человеческое происхождение, геологические образования, растительная жизнь и животная жизнь раскрыты с помощью метафор и изображений, связанных с размножением и развитием человека. Точно так же наблюдаемые оппозиции и дихотомии в мире учитываются как конкурирующие выражения двух братьев и сестер, соперничество которых способствует разнообразию творения.

Space Models in Korean Culture

Zhamilya Axanaliyeva

KazUIR&WL named after Ablai Khan, Almaty, Kazakhstan

In developed mythologies, the cosmogonic myths correspond to a space-unfolded and structurally visual space model. "Creation" means in this context the Creation of the World, also called Cosmogony or the Origin of the Universe (Cosmos). Cosmogony usually includes not only a story about the origin of the world, but also a description of its physical qualities, declaring, for example, whether there is light or darkness in Cosmos or from what parts it is formed. Similarly, Theogony (the Origin of the Gods) does not limit itself to describe their appearance, but also establishes their number and describes their character and functions.

Cosmogony and Theogony cannot be completely separated, because myths have established that parts of Cosmos are gods, for example, that the Earth (Gaia) and Sky (Uranus) are at the same time physical realities and deities endowed with a kind of power and intelligence, which is the exclusive attribute of the divine. For this reason, we can say that the Cosmos was created by the gods, but not as a result of the work of designers or demiurges, but through Love and communication.

Primitive chaos, which some called emptiness, while others are equal with disorder, sometimes appears as a creature capable of communication and procreation. Similarly, Tartarus, described by some as a gloomy place in the Underworld, “being far from the earth, like earth from heaven” (Hesiod, *Theogony* 720), gave birth to several creatures.

Cosmos is not a lifeless scene in which actors play their roles, but instead actors are deities. For gods create new segments of the Cosmos, uniting with each other, and these new segments, being gods themselves, are created and produced. Therefore, mythical stories, although differing in their details, regard creation and creativity as one and the same. In this view, “creation is the result of a meeting, and genesis is a product of interaction.”

Going back into the chain of Creation or Communion, one must come to the final ancestor, or, as some of them said, to the root cause. Some called this ancestor Chaos, while others called it differently, or also pointed out several simultaneous ancestors. However, some beginning is often found either in Chaos or in them.

The main metaphysical question that creation myths are trying to answer is the question of the origin or where things come from. The appearance of the day from the night, the growth of plants from seeds, the origin of the weather and the seasons, the birth of living beings, all provoke questions regarding the source of these phenomena. Creation myths serve in most societies to give an account of such an origin.

The central bodily image in most recorded creation myths is the birth of man. This leads to the widespread anthropomorphization of the original principles or abilities of creation as primitive parents, men and women. In the classical Greek myth of Hesiod, the Earth Mother, Gaea, is saturated with Heavenly Father, Uranos, and gives birth to Kronos, who later kills his father and unites with his mother to produce a race of giants, the first mortal living creatures in the world. The floors of the earth and sky are inverted in the Egyptian creation myth, which depicts the goddess of a cow with long hair and dangling breasts, the elevated goddess Hebe, her husband, as his protector of the sky.

Myths about creation in many cultures attribute different parts of the cosmos to different parts of the body of a divine being or give alternative roots to the sexes. In the Babylonian myth, Marduk kills the serpent Tiamat and makes heaven and earth from her divided body. In the Scandinavian myth, the three creator deities kill the bisexual Gimir Ymir, making the Earth from his body, the sea from his blood and the sky from his skull. The body of the giant Purusha is the basis of the universe in the Vedic myth.

Myths about creation have a dual relationship with the body, as they seek to both imitate and explain bodily processes, such as birth and growth. It is believed that the functions and qualities of the human body, or the micro world, reflect the functions of the external world or the macrocosm. The body and the earth become one in these myths, and human origins, geological formations, plant life and animal life are revealed with the help of metaphors and images associated with human reproduction and development. Similarly, observable oppositions and dichotomies in the world are accounted for as the competing expressions of two brothers and sisters, whose rivalry contributes to the diversity of creation.

키르기스인의 문화 유산을 보존하는 요소로서의 현대 기업가 정신

술탄쿨로바 나기마

중앙아시아 한국대,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Современное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о как элемент сохранения 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кыргызского народа

Султанкулова Н.С.

Кыргызско-Корейский колледж, Бишкек, Кыргызстан

Аннотация: Одним из перспективных видов бизнеса является сельский зеленый туризм (организованный отдых в частном секторе), который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объединение усилий частных собственников для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услуг. В Европе зеленый туризм признан приоритетным направлением в сфере отдыха, ведь от его эффективного развития во многом зависит перспектива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ов, их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наполнение местного бюджета, рост благосостояния территориальной общины.

Европей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Euroter определяет сельский туризм как туризм, поддерживающий развитие аграрных регионов, сохранение 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и экологии села, возрождение местных традиций и продуктов. Такой вид туризма характеризуется региональной идентификацией и удовлетворяет потребности туристов в размещении, питании, досугов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и других услугах, которые способствуют устойчивому развитию социальной сферы села [1].

Не 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сельский туризм - новое явление, история развития как вида туризма началась свое развитие в Западной Европе в 60-х и 70-х годах прошлого века. Территориально это явление концентрировалось в преимущественно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х районах Франции, Италии, Германии [2]. Основной задачей такого вида туризма было сохранение сельских поселений через возрождение ремесел и повышение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кой активности [3].

Одной из причин быстрого развития сельского туризма в Европе является кризис в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ом секторе. В современную эпоху процесс производительности и автоматизации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приводит к уменьшению рабочих мест. Фактически во многих сельских регионах в Европе сельское хозяйство перестало быть самой важной формой использования земли и самой важной деятельностью сельской общины. Доля общин, работающих в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ом секторе в Греции, составляет 30 % от их общего количества, в Португалии – 24, в Испании и Ирландии – 17, в Италии – 12, в Бельгии, Дании, Нидерландах и Великобритании – от 2 до 7 % [4].⁹ Следовательно, необходимо было найти новые виды деятельности, которые бы заменили или дополнили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Поиск подходов в решении этой задачи объясняет повышенную заинтересованность к сельскому туризму, что при быстром развитии может оживить много сельских регионов. Статистические исследования показывают, что 35 % горожан в ЕС отдадут

преимущество отпуску в сельской местности. В Голландии их доля особенно высокая – 49 %. Сельский туризм создает новые рабочие места и приносит реальный доход регионам – Италия в Европе занимает первое место по сельскому туризму, ее прибыль в среднем составляет 350 млн долл. Сельский туризм также позволяет найти средства и способы для сохранения природы. Во многих странах развитие этого вида туризма стало главным направлением охраны и воссоздания национальных сельских ландшафтов – именно таким образом удалось сберечь прекрасные альпийские луга Швейцарии, мельницы и каналы Нидерландов, старые парки и виллы Италии. Сегодня ЕС на примере Италии видит в агротуризме путь спасения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стран Западной Европы. О них пишут в СМИ: «Сельский туризм сейчас top-model. Народ пользуется вовсю, причем не только на лето, но и на Рождество, Пасху и т.п. Старинные дома переделывают как раз для таких отдыхающих. Избалованные туристы готовы согласиться на любые условия». Нарастающая популярность сельского туризма побудила многих английских фермеров организовать с целью предложения более разнообразных услуг в своих домах. Сельский туризм в Англии становится все более привлекательным еще и поэтому, что предлагает исключительно доступные цены и специальные скидки для детей. В Юго-Западной Англии реставрируют старые фермы для туристических целей, они роскошно оборудованы, с отоплением, электробытовыми приборами, телевизорами и с частично сохраненной старой мебелировкой и они пользуются большим успехом у туристов. В Ирландии сельские усадьбы проходят обязательную сертификацию и получают «звезды» как гостиницы, стены их домов украшаются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м количеством зеленых листов. Найти «зеленое жилье» помогают специальные указатели, справочники, каталоги. В Венгрии у хозяина, принимающего отдыхающих, доходы от 10 кроватей не облагаются налогом; в Румынии рассматривается вопрос об освобождении от налогов таких хозяев в течение 15 лет; в Австрии крестьяне, которые занимаются приемом гостей, имеют льготы по налогообложению уже в течение 40 лет; в Польше не облагаются налогом доходы от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туристам не более 5 комнат для проживания и питания. Бесспорны успехи Франции в предложении на рынке туристических услуг такого специфического продукта, как отдых в сельской местности – из 37 млн. иностранных туристов, которые ежегодно посещают страну, около 7млн. отдадут предпочтение именно отдыху в селе [5].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сельский туризм – один из наиболее перспективных видов туризма, имеющий положительное влияние на устойчивое развитие территории и получение экономической выгоды. Так, во Франции каждый третий турист – это сельский турист, в Великобритании 10%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ведущих бизнес в сельской местности, предлагают услуги в сфере сельского туризма 3 %, в Германии 4% [6] .

Однако очевидно, что существуют комплексные проблемы в сфере развития данного вида туризма, которые носят острый и системный характер. Факторы, сдерживающие развитие сельского туризма в Кыргызстане, условно разделяются на две группы.

Системными факторами являются отсутствие нормативной правовой базы, регламентирующей развитие сельского туризма, особенно в части использования для сельского туризма земель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ого назначения, налогообложения, инвестиционного развития агротуристических комплексов; неудовлетворительное состояние объектов туристск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объектов показа, дорож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неудовлетворительное состояние системы обеспечения безопасности туристов, отдыхающих в сельской местности.

К частным факторам, сдерживающим развитие сельского туризма, относятся: отсутствие системы экономической поддержки сельских жителей, оказывающих услуги в сфере сельского туризма; отсутствие интегрированной системы информирования потенциальных туристов о возможностях отдыха в сельской местности; отсутствие системы поддержки на уровне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й сельских жителей; отсутствие мероприятий по привлечению туристов в сельскую местность; отсутствие на региональном и муниципальном уровне программ развития сельского туризма и поддержки исконных промыслов и ремесел, событий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представляющих интерес для потенциальных туристов.

Modern Entrepreneurship as an Element of Preserving the Cultural Heritage of the Kyrgyz People

Sultankulova Nagima

Kyrgyz Korean College, Bishkek, Kyrgyzstan

Abstract: One of the promising types of business is rural green tourism (organized leisure in the private sector), which provides for combining the efforts of private owners to provide services. In Europe, green tourism is recognized as a priority in the field of recreation, because the prospect of settlements, their infrastructure, the filling of the local budget, the growth of the welfare of the territorial community largely depend on its effective development.

The European organization Euroter defines rural tourism as tourism, supporting the development of agrarian regions, the preservation of the cultural heritage and ecology of the village, the revival of local traditions and products. This type of tourism is characterized by regional identification and meets the needs of tourists in accommodation, food, leisure activities, and other services that contribute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social sphere of the village [1].

Despite the fact that rural tourism is a new phenomenon, the history of development as a type of tourism began its development in Western Europe in the 60s and 70s of the last century. Geographically, this phenomenon was concentrated in predominantly agricultural areas of France, Italy, and Germany [2]. The main objective of this type of tourism was the preservation of rural settlements through the revival of crafts and increased entrepreneurial activity [3].

One of the reasons for the rapid development of rural tourism in Europe is the crisis in the agricultural sector. In the modern era, the process of productivity and automation of agriculture leads to a decrease in jobs. In fact, in many rural regions in Europe, agriculture has ceased to be the most important form of land use and the most important activity of the rural community. The share of communities operating in the agricultural sector in Greece is 30% of their total number, in Portugal - 24, in Spain and Ireland - 17, in Italy - 12, in Belgium, Denmark, the Netherlands and the UK - from 2 to 7% [4]. Therefore, it was necessary to find new activities that would replace or complement agricultural activities. The search for approaches to this task explains the heightened interest in rural

tourism, which with rapid development can revive many rural regions. Statistical studies show that 35% of citizens in the EU prefer to leave in rural areas. In Holland, their share is particularly high - 49%. Rural tourism creates new jobs and brings real income to the regions - Italy in Europe ranks first in rural tourism, with an average profit of \$ 350 million. Rural tourism also makes it possible to find means and means to conserve nature. In many countries, the development of this type of tourism has become the main focus of the protection and recreation of national rural landscapes - this is how the beautiful alpine meadows of Switzerland, the mills and canals of the Netherlands, the old parks and villas of Italy were saved. Today, using the example of Italy, the EU sees in agritourism a way of saving agriculture in the countries of Western Europe. They are written about in the media: "Rural tourism is now a top model. The people enjoy with might and main, and not only for the summer, but also for Christmas, Easter, etc. The old houses are being converted just for such holidaymakers. Pampered tourists are ready to accept any conditions." The growing popularity of rural tourism has led many English farmers to organize themselves in order to offer more diverse services in their homes. Rural tourism in England is becoming more attractive also because it offers extremely affordable prices and special discounts for children. In the south-west of England, old farmhouses are being restored for tourist purposes, they are luxuriously equipped, with heating, household appliances, televisions and partly preserved old furnishings, and they enjoy great success with tourists. In Ireland, rural estates are subject to mandatory certification and receive "stars" as hotels, the walls of their houses are decorated with the appropriate number of green leaves. Find "green housing" help special indexes, directories, catalogs. In Hungary, a host who takes a rest, incomes from 10 beds are not taxed; in Romania, the question of exempting such owners from taxes for 15 years is being considered; in Austria, the peasants who are engaged in the reception of guests, have tax privileges for the past 40 years; Poland does not tax income from providing tourists with a maximum of 5 rooms for accommodation and meals. The success of France in supplying a specific product such as recreation in the countryside - of the 37 million foreign tourists who visit the country every year - about 7 million are indisputable. they prefer the rest in the village [5].

Today, rural tourism is one of the most promising types of tourism, which has a positive impact o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territory and obtaining economic benefits. Thus, in France every third tourist is a rural tourist, in the UK 10% of entrepreneurs doing business in rural areas offer 3% services in rural tourism, and 4% in Germany [6].

However, it is obvious that there are complex problems in the development of this type of tourism, which are acute and systemic in nature. The factors constraining the development of rural tourism in Kyrgyzstan are conventionally divided into two groups.

The systemic factors are the lack of a regulatory legal framework governing the development of rural tourism, especially in terms of the use of agricultural land, taxation, and investment development of agrotourism complexes for rural tourism; the unsatisfactory state of the tourist infrastructure objects (show facilities, road infrastructure); the unsatisfactory state of the system of ensuring the safety of tourists who rest in rural areas

The private factors constraining the development of rural tourism include: the lack of a system of economic support for rural residents who provide services in the field of rural tourism; the lack of an integrated system of informing potential tourists about recreation opportunities in rural areas; the lack of a support system at the level of municipalities of rural residents; lack of activities to attract tourists to the countryside; the lack of regional and municipal programs for the development of rural tourism and the support of ancestral crafts and crafts, event activities of interest to potential tourists.

그룹활동을 통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개발: 영어와의 비교

카이르자노바 누르굴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카자흐스탄 알마티

Развитие коммуникативной компетенции студентов на уроках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в сравнении с английским языком с помощью групповой и парной работы

Кайыржанова Н.С.
КазУМОиМЯ им. Абылай хана, Алматы, Казахстан

Аннотация: В данной статье рассматривается эффективность применения групповой и парной форм работы на уроках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в сравнении с английским языком для формирования коммуникативной компетенции студентов. Выявлена и обоснована необходимость использования парной и групповой работы для формирования коммуникативной компетенции на основе преподавания иностранного языка.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основной целью обучения иностранному языку является формирование у студентов способностей использовать иностранный язык как инструмент общения в диалоге культур, то есть формирование коммуникативной компетенции.

Процессы мировой глобализации, расширение меж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межнациональных и межкультурных связей сделало актуальной проблему коммуникации и подготовку специалистов, владеющих иностранными языками. Коммуникативный подход к обучению языку был широко признан в печати в области освоения второго языка (SLA) в течение трех десятилетий.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в различных типах языковых учреждений по всему миру, включая университеты и колледжи, преподаватели языка и исследователи учебных программ выступают за программу обучения, ориентированную на общение, признавая, что это более эффективные способы улучшения коммуникативных навыков учащихся. Таким образом, такие утомительные и неэффективные методы, как методы грамматического перевода, были отвергнуты. В этой статье сначала мы рассмотрим, что такое коммуникативная компетенция, а затем наметим важность преподавания коммуникативного языка и его роль.

Целью иноязычного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го процесса является выпуск конкурентоспособных личностей, которые обладают рядом ключевых компетенций, в том числе коммуникативной компетенцией, овладение которой крайне важно. Понятие «коммуникативная компетенция» впервые появилось в исследованиях американского антропологиста Д. Хаймса, считавшего, что для изучающего иностранный язык недостаточно овладеть только лингвистической компетенцией, необходимо также научиться правильно, пользоваться изучаемым языком.

Существует много интерпретаций понятия «коммуникативная компетенция», что, с одной стороны, доказывает интерес ученых к данной теме, а с другой отсутствие четкой дефиниции. В методике преподавания родного языка коммуникативная компетенция – это способность и реальная готовность к общению адекватно целям, сферам и ситуациям

общения, готовность к речевому взаимодействию и взаимопониманию. Ее составляющими, как отмечает Е.А. Быстрова, являются знания о речеведческих понятиях и коммуникативные умения репродуктивного и продуктивного уровней. Это умения осознанно отбирать языковые средства для осуществления общения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речевой ситуацией; адекватно понимать устную и письменную речь и воспроизводить ее содержание в необходимом объеме, создавать собственные связные высказывания разной жанровостилистической и типологической принадлежности. Формирование коммуникативных умений, как подчеркивает Е.А. Быстрова, возможно лишь на базе лингвистической и языковой компетенции. Коммуникативная компетенция, поддерживает Е.И. Литневская, предполагает овладение всеми видами речев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и основами культуры устной и письменной речи, базовыми умениями и навыками использования языка в жизненно важных для данного возраста сферах и ситуациях общения. М.Б. Успенский конкретизирует знания, включаемые в коммуникативную компетенцию: это усвоенные сведения об употреблении в речевом общении аспектных единиц языка (звуков, морфем, слов, словосочетаний, предложений и т.д.), о различении их с целью правильного употребления в речи. Это те знания, которые даются в форме правил, приемов различения и употребления единиц языка, различных инструкций и рекомендаций по функционированию языка в речевом общении. Вышеизложенное позволяет сделать вывод, что коммуникативная компетенция – это способность адекватно общаться в конкретных коммуникативных ситуациях и способность организовывать вербальное общение с учетом социально-культурных норм поведения.

Парная работа – это форма коллективной работы, в рамках которой участники решают поставленную задачу, взаимодействуя друг с другом посредством изучаемого языка. Групповая работа – форма организации учебно-познаватель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на уроке, предполагающая функционирование разных малых групп, работающих как над общими, так и над специфическими заданиями. Парная и групповая работы способствует развитию всех четырех видов деятельности: аудирования, устной диалогической и монологической речи, чтения и письма. Помимо этого они вносят разнообразие в ход урока и способствуют повышению мотивации учащихся к изучению иностранного языка.

Development of Communicative Competence of Students in the Korean Language Lessons in Comparison with the English Language by Means of Pair and Group Work

Kaiyrzhanova Nurgul

KazUIR&WL named after Ablai Khan, Almaty, Kazakhstan

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the effectiveness of the use of steam and group forms of work in Korean language classes in comparison with English for the formation of students' communicative competence. The necessity of using pair and group work for the formation of communicative competence on the basis of teaching a foreign language using pair and group work has been identified and substantiated. Currently,

the main purpose of teaching a foreign language is to develop students' abilities to use a foreign language as a tool for communication in the dialogue of cultures, that is, the formation of communicative competence.

The processes of world globalization, the expansion of interstate, interethnic and intercultural relations made the problem of communication and the training of specialists who speak foreign languages urgent. In this regard, the teaching of foreign languages in the universities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including the Korean language, has acquired particular importance. Opportunities to study and work in South Korea, open borders for travel, various programs providing international student exchange, joint projects, etc. - all this increases the interest in learning Korean and proves the need to form communicative competence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

The goal of the foreign language educational process is to produce competitive individuals who possess a number of key competencies, including communicative competence, mastering of which is extremely important. The concept of "communicative competence" first appeared in the studies of the American anthropology linguist D. Heimes, who considered that it is not enough for a foreign language learner to master only linguistic competence, it is also necessary to learn correctly, to use the language being studied.

There are many interpretations of the concept of "communicative competence", which, on the one hand, proves the interest of scholars to this topic, and on the other hand the lack of a clear definition. In the method of teaching the native language, communicative competence is the ability and real readiness to communicate adequately to the goals, areas and situations of communication, readiness to verbal interaction and mutual understanding. Its components, as noted by E.A. Bystrov, are knowledge of speech-speaking concepts and communicative skills of the reproductive and productive levels. These are the skills to consciously select language means for communicating in accordance with the speech situation; to adequately understand oral and written speech and reproduce its content in the required volume, create your own coherent statements of various genre-stylistic and typological affiliations. The formation of communicative skills, as emphasized by E.A. Bystrov, is possible only on the basis of linguistic and language competence. Communicative competence, supported by E.I. Litnevskaya, involves mastering all types of speech activity and the basics of the culture of speaking and writing, basic skills and skills of using the language in spheres and situations of communication vital for this age. M.B. Uspensky specifies the knowledge that is included in the communicative competence: it is the learned information about the use of aspect language units in speech communication (sounds, morphemes, words, phrases, sentences, etc.) and their distinction with the aim of correct use in speech. This is the knowledge that is given in the form of rules, methods of distinguishing and using units of language, various instructions and recommendations on the functioning of the language in speech communication. The foregoing leads to the conclusion that communicative competence is the ability to adequately communicate in specific communicative situations and the ability to organize verbal communication taking into account social and cultural norms of behavior.

Pair work is a form of collective work, in which participants solve the task, interacting with each other through the language being studied. Group work is a form of organization of educational and cognitive activity in the classroom, involving the functioning of various small groups working on both general and specific tasks. Pair and group work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all four activities: listening, oral dialogical and monologue speech, reading and writing. In addition, they bring diversity to the course of the lesson and contribute to increasing the motivation of students to learn a foreign language.

한국어 정치 담화에서의 영어 차용어

무хамеджанова 메루예르트, 아망겔디 아크보타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카자흐스탄 알마티

Английские заимствования в корейском политическом дискурсе

Мухамеджанова М.Е., Амангелды А.М.
КазУМОиМЯ им. Абылай хана, Алматы, Казахстан

Аннотация: С точки зрения речевой лингвистики, дискурс - это процесс реального и словесного общения, характеризующийся разнообразными отклонениями от канонической письменной речи. Политика всегда играла ключевую роль в жизни общества.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с целью укрепления региональной и миров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развития социально-политических, торговых и эконом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и для решения мировых проблем странами организуются конференции, форумы, саммиты и заседания. От определенной политической позиции или ситуации зависит место страны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й арене, ее взаимоотношения с другими государствами, ее роль в деятельности мирового общества.

Политический дискурс является явлением, с которым общество сталкивается каждый день. Однако можно предположить, что точного определения понятия «политический дискурс» не существует. Анализируют широкую и узкую разновидность политического дискурса. Е.И. Шейгал одна из исследователей рассматривших широкое определение политического дискурса. Она рассматривает политический дискурс как «любые речевые образования, содержание которых относится к сфере политики». Согласно утверждению Е.И. Шейгал, политическая коммуникация включает не только официальный контроль явлений социальной жизни, но и разговоры о политике в самых разных ракурсах - бытовом, художественном, публицистическом и др. В политической коммуникации важной функцией является воздействующая. Именно на достижение воздействия в коммуникации ориентируется политик при выборе лингвистических средств. Политический дискурс может отличаться тем, что в нем:

- «политическая лексика» терминологична, а обычные, не чисто «политические» языковые знаки употребляются не всегда так же, как в обычном языке;
- специфичная структура дискурса - результат иногда очень своеобразных речевых приемов
- специфична и реализация дискурса - звуковое или письменное его оформление.
- Поскольку термины политический и моральный обладают оценочностью, в лингвистическом исследовании всегда фигурируют соображения внелингвистические.

Словарный состав языка постоянно пополняется, и если это пополнение не происходит внутренними путями, то оно происходит путями внешними, то есть через заимствования иностранной лексики. Можно сказать, что среди существующих на земле языков нет языков, которые не были бы заимствованы в других языках. Доля

заимствованной лексики может колебаться в очень широких пределах: примерно от 10% до 80-90%. Английский язык является языком межнациональной коммуникации. В ходе длительно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языков, а так же в результате исторических процессов и глобализации тысячи языков адаптировали английские слова в своем языке, т.е. слова заимствованные. Одним из них является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По количеству говорящих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занимает 13 место в мире. Сейчас на нем говорят около 86 млн. человек. Одна из особенностей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состоит в том, что лексика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на 80% представлена заимствованиями - 70% занимают китаизмы, остальные 10% - это заимствования из других языков. Большую часть этих 10% занимают заимствования из английского языка и его американского варианта.

Заимствования встречаются во многих сферах деятельности коре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В политической сфере основное количество заимствованной лексики выпадает на долю английского языка. Можно привести маленький пример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신산업, 신기술 분야에 대한 R&D 투자 확대와 과감한 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Перевод звучит так: «мы активно продвигаем смелые регулировки и расширяем инвестиции исследования и разработок в сферах нов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и новых технологии». В данном отрывке словосочетание R&D (исследования и разработки) является заимствованием из английского языка. И хотя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имеется эквивалент (연구 및 개발) спикеры используют вариацию английского языка. И таких ситуации в корейском политическом дискурсе встречается немалое количество.

English Borrowings in Korean Political Discourse

Mukhamedzhanova M.E., Amangeldi A.M.

KazUIR&WL named after Ablai Khan, Almaty, Kazakhstan

Abstract: From the perspective of speech linguistics, discourse - is a process of real-life and verbalized contact characterized by a variety of deviations from the canonical written speech. Politics has always played a key role in society. Today, in order to strengthen regional and world security, to develop socio-political, trade and economic relations and to solve world issues, countries organize conferences, forums, summits and meetings. The country's place on the world stage, its relations with other states, its role in the activities of the world society depend on a certain political position or situation.

Political discourse is a phenomenon that society faces every day. However, it can be assumed that there is no exact definition of the term "political discourse". Scientists analyze a wide and narrow variety of political discourse. E.I. Sheigal is one of the researchers who considered a broad definition of political discourse. She described political discourse as "any speech formation, the content of which belongs to the sphere of politics". According to the statement of E.I. Sheigal, political communication includes not only the official control of social life phenomena, but also talks about politics from various perspectives - social, artistic, journalistic, and so on. In political communication, an important function of it is an influence. Choosing linguistic means a politician is oriented towards achieving influence on communication. Political discourse may differ in:

- “Political vocabulary” is terminological, and ordinary, not purely “political” language signs are not always used the same way as in ordinary language;

- specific structure of discourse is sometimes the result of very peculiar speech techniques;

- the implementation of discourse is also specific - its sound or written design.

- as political and moral terms have evaluations, extra-linguistic considerations always appear in linguistic research.

The vocabulary of the language is constantly replenished, and if this replenishment does not occur by internal paths, then it occurs by external paths, that is, through the borrowing of foreign vocabulary. It can be said that among the languages existing on the earth there are no languages that would not be borrowed in other languages. The share of borrowed vocabulary can vary widely: from about 10% to 80-90%. English is the language of international communication. During the long-term interaction of languages, as well as in result of historical processes and globalization, thousands of languages have adopted English words in their language, i.e. borrowed words. One of them is Korean. Korean is the 13th most widely language in the world. Now it is spoken by about 86 million people. One of the features of the Korean language is that the vocabulary of the Korean language is 80% represented by borrowings - 70% is occupied by Sinicism, other 10% is borrowed from other languages. Most of these 10% are loanwords from the English language and its American version.

Loanwords are found in many areas of Korean society. In the political sphere, the main amount of borrowed vocabulary is shared with the English language. We can give an example in Korean: «신산업, 신기술 분야에 대한 R&D 투자 확대와 과감한 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The translation sounds like this: “we are actively promoting bold adjustments and expanding our research and development investments in the areas of new industry and new technologies”. In this example, the phrase R&D (research and development) is a borrowing from the English language. And although in Korean there is an equivalent (연구 및 개발) speakers use a variation of the English language. So, there is a fair amount of such situations in Korean political discourse.

한국시의 새로운 흐름

샤이케노프 아스하트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카자흐스탄 알마티

Корейская поэзия новой волны

Шайкенов А.Т.
КазУМОиМЯ им. Абылай Хана, Алматы, Казахстан

Аннотация: В последние годы языковая картина мира стала одной из наиболее актуальных тем языкознания. Совокупность представлений о мире, заключенных в значении разных слов и выражений данного языка, складывается в некую единую систему взглядов. Представления, формирующие национальную языковую картину мира отображаются в смыслах, заключающихся в словоформах.

Согласно Лео Вайсгерберу, лингвисту, которому современная наука обязана термином «языковая картина мира», картина мира какого-либо языка является его преобразующей силой, формирующей представление об окружающем мире через язык как «промежуточный мир» у носителей этого языка, языковая картина мира — это система всех возможных содержаний: духовных, определяющих своеобразие культуры и менталитета данной языковой общности, и языковых, обуславливающих существование и функционирование самого языка.

В свою очередь литература в целом и поэзия в частности является значительным элементом национальной культуры. Произведения литературы фиксируют этапы развития национальной культуры, отражая развитие народа в потоке истории. Великий филолог Вильгельм Гумбольдт выразил значение литературы в простом и кратком изречении: «Поэзия и проза суть явления языка».

Для адекватного понимания современной культуры через призму поэзии невозможно игнорировать влияние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х факторов истор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общества.

Корейское общество с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ы XX века пережило серьезные изменения. Экономические и социальные изменения в обществе повлияли и на культуру.

Несомненно, для более полного понимания языковой картины мира корейцев необходимо понимать культурные ценности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С начала XXI века корейская культура под знаменем «Халлю» ведет массовую экспансию посредством телевизионных сериалов и поп-музыки.

Однако, следует понимать что сериалы и поп-музыка являются коммерческим продуктом и как любая поп-культура не в полной мере отражает национальный менталитет, так как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ориентирована на получение прибыли.

Литература, как форма искусства, использующая в качестве материала лексический, стилистический, фразеологический арсенал языка, наиболее ярко отражает культурные ценности и языковую картину мира.

Другими словами, именно чтение произведений литературы позволяет глубже понять то, что Гумбольдт называл национальным духом, а современные исследователи определяют

как менталитет.

Исследование современной корейской поэзии позволяет изучить картину мира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спользуя в качестве объекта исследования нарративы и образы, транслируемые посредством поэтических произведений наших современников.

Korean New Wave Poetry

Shaikenov Askhat

KazUIR&WL named after Ablai Khan, Almaty, Kazakhstan

Abstract: In recent years, a term of language worldview has become one of the most popular topics in linguistics. The set of ideas about the world, concluded in the meaning of different words and expressions of a given language, develops into a kind of unified system of views. Expressions that form a national language worldview are displayed in the meanings contained in word forms.

According to Leo Weisgerber, the first linguist who introduced the term of language worldview, a worldview of any language is its transforming force forming the idea of the surrounding world through language as the “intermediate world” of the speakers of this language. a system of all possible contents: spiritual, determining the originality of culture and mentality of a given linguistic community, and linguistic, determining the existence and functioning of the language itself.

In turn, literature in general, and poetry in particular, is a significant element of national culture. Literary writings reflect the stages of development of national culture, the development of Nation through history. The great philologist Wilhelm Humboldt expressed the importance of literature in a simple and brief sentence: "Poetry and prose are the core of language."

For an adequate understanding of modern culture through the prism of poetry, it is impossible to ignore the influence of socio-economic factors of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society.

Korean society has undergone great changes since the second half of the 20th century. Economic and social changes in society have influenced culture.

Undoubtedly, for a fuller understanding of the Korean language worldview,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cultural values of the Korean people.

Since the beginning of the twenty-first century, Korean culture through “Hallyu” motion has led a massive expansion all over the world with television dramas and pop music.

However, it should be understood that TV dramas and pop music are a commercial product and, like any pop culture, does not fully reflect the national mentality, as it is primarily focused on making a profit.

Literature, as an art form that uses a lexical, stylistic, phraseological arsenal of language as its material, most clearly reflects cultural values and language worldview.

In other words, it is the reading of literary works that gives a deeper insight into what Humboldt called the national spirit, and modern researchers define as a mentality.

The study of modern Korean poetry makes possible to study a worldview of the Korean language, using as an object of study narratives and images introduced by means of the poetic works of our contemporaries.

Session 2C

사회: 김은정 (한국외국어대학교)

- 구어와 문어의 사용 실태로 본 우즈베키스탄 학습자의 문식성(literacy) 연구
이미향(영남대, 한국 경산)
- 일본인 고급 학습자의 한국어 실현 양상 분석
김유선(나가사키외국어대, 일본 나가사키)
- **An Error Analysis of Korean Diphthongs by Russian Learners**
-Focusing on the differences in syllabic structure between one's mother tongue and target language-
노채환(사이버한국외대, 한국 서울)
- 한국어 지시어 '이', '그'의 선택 기준 제시 -러한 번역 사례를 중심으로-
함계임(한국외대, 한국 서울)

구어와 문어의 사용 실태로 본 우즈베키스탄 학습자의 문식성(literacy) 연구

이미향(영남대)

1. 서론

이 연구는 한국어 학습자의 구어와 문어 사용 실태에 관심을 가지고, 구어성이 강하다고 판단되는 우즈베키스탄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학습자들의 문식성 양상을 알아본 것이다. 한국에 유학 중인 학습자의 문화권은 다양하다. 그 중에는 구술 문화의 구술성(orality)에 익숙한 학습자도 있고, 문자 중심 인쇄 문화의 문자성(literacy) 문화에 익숙한 학습자도 있다.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 학습에서 의사소통에 대한 문화는 학습자에게 학습 목표나 방법 측면에서 큰 영향을 미친다. 이에 최근 학습자 수가 크게 늘어난 우즈베키스탄 학문목적 학습자의 학업 성과 확보를 위해, 학습자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학습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저해되는 요소를 해결하는 교수 학습 과정에서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나아가 이는 구술문화권과 문자문화권 학습자 대비를 통해 각 학습자의 역량과 어려움에 맞는 교수 학습 방안 연구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 본다.

2. 구술문화권 학습자의 문식성

문식력(文識力, literacy)이란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을 뜻하는 말로, 라틴어 ‘litteratus’에서 유래하였다. 이 말은 키케로 시대에는 ‘학식 있는 사람’, 초기 중세 시대에는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 종교 개혁 이후에는 ‘자신의 모국어로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였다. (이재기, 2009:117 이미향 2012:142) 이처럼 시대적 요구에 따라 문식력의 의미는 달라져 왔으며, 문해력의 증가로 인해 문식력에 대한 중요성은 점점 커져 왔다.

현대 사회에서의 성공은 문식성이 결정 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자언어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정보 습득과 전달이 중요한 현대인의 의사소통에서 문식력은 삶의 주요 기술이다. 특히 학업 성과를 통해 능력을 검증받아야 할 학문목적 한국어 학습자에게 문식력은 작문 활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동북아시아권 국가는 특히 과거 시험과 같은 국가 차원의 대형 쓰기 시험에 익숙하다. 이런 곳에서 유학하는 학습자가 문식성이 강한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학문목적 한국어 학습자는 학부 유학생으로서 글쓰기 능력 습득에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학습자뿐만 아니라 교수자 측면에서도 극복해야 할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김남미(2012)에서 지적한 바, 학문목적 한국어 글쓰기는 교과의 사회 문화 맥락에 의존적이며, 전공별 장르별 접근의 한계가 내재한다. 이로써 글의 내용과 기술 평가가 각각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다층적 외국어 학습자로 인한 글쓰기교육 접근법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한국어 글쓰기 교사는 한국어 표현뿐만 아니라 학술적 상황과 수준에 맞는 사고 영역 내용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구술성(orality)과 문자성(literacy)에 대한 한국어 학습자의 대비적 인식을 연구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선행 연구가 있다. 특히 송재영(2016), 남주연·김영주·김양희(2017), 안찬원(2018) 등에서 구어와 문어의 사용 양상을 면밀히 논한 바 있다. 구어란 일상적인 대화에서 쓰는 표현이며, 문어란 대화가 아닌 글로 쓰는 표현이다. 남주연·김영주·김양희(2017)는 한국어 학습자들의 문어 산출과 구어 산출에 나타나는 어휘 다양성에 나타나는 차이를 산출하여 비교하여, 문어보다 구어가 더 다양하고 많은 어휘를 사용한 것을 밝혔다. 안찬원(2018)은 말뭉치를 중심으로 동사 사용 양상을 분석하여 구어와 문어의 특성을 밝혔는데, 구어와 문어 말뭉치의 동사 사용 양상을 비교한 결과 구어와 문어 중 한쪽에서의 사용을 선호하는 동사가 존재함을 발견하였다고 한다. 같은 맥락에서 이미향·엄나영(2018)에서도 한국어 학습자들의 말하기와 쓰기에서 사용하는 어휘와 표현의 차이 및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하는 전략의 차이를 대비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학습자들은 구어와 문어를 다른 영역으로 인식하고 다른 방식으로 쓰고 있다.

이러한 차이를 유발하는 데 문화권이 경험이 많은 영향을 준다. 이미정 외(2015)에서는 중앙아시아 유학생들이 경험

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 요인을 밝히고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인터뷰를 통해 분석한 것인데, 문화 충격을 극복하는 것이 학업 달성 여부에 영향을 준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 또한 김영순·갈라노바 딜노자(2017)는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5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질적 사례연구 방법으로 이들의 의사소통상의 어려움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참여자들은 한국어 어휘 사용에 있어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고, 특히 한국어 어휘의 의미상, 즉 유의어의 긴밀성 관계를 구별하기를 어려워하며, 고급 수준의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에 유학을 왔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의 사회언어학적 능력이 부족함을 확인하였다고 한다.

이에 본고는 구술 문화권 한국어 학습자의 쓰기 실태와, 문화 적응상의 어려움을 살피고자 한다. 한국어 문어의 특징을 살펴보고, 한국어 학습자가 인식하는 문어의 특징을 구어 사용 실태와 대비하여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이들에게 적절한 한국어 쓰기교육 방안을 제안하려고 한다.

3. 학습자의 구어 및 문어 사용 실태

3.1 구어와 문어의 차이

한국어 학습자가 표현 영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언어 지식과 언어 사용 기술이 필요하다. 언어 지식이란 표현을 위해 필요한 어휘와 문법, 표현 등 한국어 구사를 위한 언어적 자원이다. 그리고 언어 사용 기술이란 한국어 의사소통을 위해 담화와 텍스트를 사회문화적으로 적절하게 인식하고, 목적 달성에 맞게 표현해 내기 위해 사용하는 내용 생성과 전달에 관한 기술들을 의미한다(이미향·엄나영 2018).

학습자의 쓰기 과정을 통해 구어와 문어 각각을 확인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우즈베키스탄 학습자를 대상으로 특정 주제로 4컷 만화를 구상하게 하고 각 장면에 맞는 말풍선을 구어로 채우게 하였다. 이를 통해 구어를 생성하게 하였다. 또한 동일 학습자에게 만화의 내용을 2-3문장으로 요약하여 문어로 기술하게 하는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것은 문어 사용 실태를 보여줄 자료이다. 이처럼 구어와 문어 생성에 관련된 과제를 제출한 학습자는 모두 15명이며, 이를 수행하기 전에 학습자들은 수업 시간에 한국어 구어와 문어 표현상의 차이를 명시적으로 배우고 연습하는 과정을 거쳤다.

구어란 일상적인 대화에서 쓰는 표현을 이르며, 문어란 대화가 아닌 글로 쓰는 표현을 말한다. 한국어 구어는 문어에 비해 단어, 문법, 문장 차원에서 두드러진 몇 가지 특징을 보여준다. 이러한 구어와 문어의 표현상 차이는 글쓰기 수업에서 일정 시간을 활용하면 충분히 교수될 수 있다. 학습자에게 명시적으로 제공된 한국어 구어와 문어의 차이를 언어 지식 차원에서 대비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구어와 문어의 대비

단어	지시어, 호칭어, 감탄사 사용 여부 줄임말 사용 여부, 동일 단어 반복 여부 한자어 사용의 선호도
문법	조사와 어미의 선택 차이(예: 랑/와, -으니까/-으므로, -더라/-었다 등), 줄임말 사용 여부
문장	문장성분 생략 여부, 문장 내 어순의 적확성 여부

실제로 이미향·엄나영(2018)에서는 동일 주제로 말하기와 쓰기를 수행한 학습자의 결과물을 대비하여 분석하였는데, 학습자들이 각 수행 과정에서 보여주는 오류가 달랐을 뿐만 아니라 각 수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전략도 달랐다. 예를 들어 학습자들이 쓰기에서 맥락과 다르거나 어색한 어휘를 번역을 통해 쓰고, 표현에 다양함이 없어 글이 단순해지며, 긴밀성과 응집성을 고려하지 않는 문제를 보였다. 또한 표현 차원에서 한국어 문장의 주술 호응·조사 선택·시제 표현과 관련된 오류를 많이 보였다. 이러한 쓰기의 문제로 학습자들은 중급임에도 초급과 같은 글을 쓰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쓰기 과정은 내용을 생성하고 조직하는 종합적인 사고 활동이며, 사회문화적으로 볼 때 쓰기에 맞는 표현을 선택해서 써야 한다는 조건이 부기된 것이다. 그러므로 쓰기를 수행하는 한국어 학습자들은 적절한 L1 표현을 생성하는 동시에 적절한 L2 표현을 찾아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이행하는 것이다. 게다가 학습자들은 써야 할 어휘와 문법을 사용하지 못하여도 수정하지 않은 채 제출하거나, 다양한 어휘를 자유롭게 선택하지 못하는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등 전략의 부재 상태이다. 이에 학습자들의 구어·문어 사용 실태를 언어 사용 기술과 언어 지식으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3.2 언어 사용 기술에서의 사용상 실태

언어 사용 기술은 담화와 텍스트를 사회문화적으로 적절하게 인식하고, 목적 달성에 맞게 표현해 내기 위해 사용하는 내용 생성과 전달에 관한 기술들을 포함한다. 우즈벡 학습자들이 텍스트를 구성하는 보편적 방법을 확인하기 위해, 우선 우즈벡 학습자 32명에게서 자기소개글을 받아 보았다. 학습자들은 여타 국가와 마찬가지로 자기 이름과 취미 등을 드러내는 일반적 내용을 기술하지만 이 언어권의 학습자들에게서 찾을 수 있는 특별한 면도 있었다. 우선 독자와의 인간관계를 강조하고, 필자가 겪는 현재의 어려움을 노출하면서 청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을 보였다. 필자 개인의 과거 이력을 노출하면서까지 현재의 독자와 인간관계를 맺는 희망을 보이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글에서 드러나서 마치 청자와 소통하는 화자와 같았다.

이처럼 이 학습자들은 글을 매개로 구체적 독자와 의사소통하는 구술적 소통 경향을 확연히 보여주었다. 이러한 성향을 가진 해당 학습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어 사용 인식을 언어 사용 기술 측면에서 정리해 보았다.

첫째, 서술 주체의 객관화이다. 우즈벡 한국어 학습자는 말을 글로 옮길 때는 우선적으로 화제의 주체를 객관화하는 표현을 도입부에서 드러내었다. 구어 텍스트 시작은 인사나 부름으로 시작하는데, 이를 문어 텍스트로 전환할 때는 도입에서부터 주체를 명시해야 한다는 규칙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 예1) 인사로 시작: [말] 안녕?
부르는 말로 시작: [말] 엄마, 아빠, 자기야,
→ [글] 어제 나는...(하략)
- 예2) [말] 우리 → [글] 람지딘이란 대학생이
[말] 난 → [글] 주인공 아이는
[말] 난 → [글] 여자는
[말] 자기 부모한테서 → [글] 톰하고 유나는...
[말] 엄마, 저는(하략) → [글] 딸이

둘째, 문어로 옮기면서 우선 배경을 기술하려는 노력이 보인다. 입말은 대화의 상황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문어에서는 그 상황과 맥락을 배경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필요하다. 다음 예들은 학습자들이 기술한 글의 도입부에서 배경 설명을 고민한 부분이다.

- 예3) [글] 람지딘이란 대학생이 한국에 유학을 와서 한국 여자랑 사랑하게 되고
[글] (여기는) 여자의 집
[글] 남자-벤자민, 여자-여자 친구 00씨
[글] 큰은 남자 이름

입말 상황에서는 맥락에 따라 해석될 수 있는 ‘한 단어 문장’이 출현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학습자는 독자를 고려하여 문장을 주어와 서술어로 재구성하였다.

예4) [말] 뭐? → [글] 부모는 반대했다.

셋째, 입말을 글로 바꾸면서 학습자들은 시점을 전환하는 시도를 보여준다.

예5) [말] 자기야, 우리 딸이(생략). 너도 보니?
→ [글] 유나의 부모들은 깜짝 놀랐다.

넷째, 학습자는 글의 응집성과 완결성을 의식하여 문단의 연결을 위한 문장 부사를 선택하여 쓰게 된다. 텍스트 연결에 쓰인 문장 부사는 ‘어느 날, 갑자기, 결국’ 등이 있다.

그러나 우즈벡 한국어 학습자들이 구어에 비해 문어에 약한 면을 보여주는 자료도 나타난다. 우선 텍스트를 완결하는 법에서 그러하다. 해당 학습자들은 구어의 마지막 장면을 혼잣말이나 내적 독백으로 마무리한 경우가 많다. 그리하여 만화의 마지막 장면은 글에 포함되지 못한다. 다시 말해 구어로 된 장면을 요약하면서 문어 텍스트에 구어 텍스트의 마지막 장면을 압축하지 못하였다. 그뿐만이 아니라, 전환된 문어 텍스트에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는 오류도 발생하였다.

또한 구어 텍스트의 문장 수가 문어로 요약될 때 문장 수의 대비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문어 텍스트의 문장은 구어의 평균 27%로 집계되었다. 그 중에는 문어 문장을 구어 문장 수의 8.3%로 내용을 압축시킨 경우도 있으나, 구어의 50%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 많은 학생들이 구어의 1/3 정도로 문어 텍스트의 문장을 생성하였다. 쓰기는 입말을 순서대로 단순히 연결하거나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의 재구성을 유도하는 종합 사고 활동이다. 그런데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학생들은 구어와 다른 문장의 연쇄로 문어 텍스트를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문어의 완결성과 응집성, 내용 구조의 긴밀성 등에 대한 문어 텍스트의 특성이 비교적 덜 숙지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문어로 전환된 구어 텍스트는 이전보다 문장이 길어지게 된다. 여러 문장의 내용을 한 문장에 담게 되면서 문장이 길어지는데, 이때 학습자들은 주술 호응에서 오류를 보인다. 예를 들어, 주어는 ‘(000라는) 대학생이...’이나, 서술어는 ‘결혼 허락을 못 주었어.’로 끝나는 문장이 그것이다. 이것은 문장 구성력의 문제를 넘어, 텍스트 전개에서 행위와 사건의 주체를 필자가 논리적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언어 사용 기술 측면의 여러 가지 요소는 학습자의 모문화권으로부터 받는 영향이 더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3.3 언어 지식에서의 사용상 실태

한편 언어 지식 측면에서의 한국어 문어성은 학습자들이 교수 학습 과정을 통해 비교적 쉽게 습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것은 조사, 어미, 문법 표현 등을 구어와 문어에서 각각 달리 쓰는 양상을 통해 확인된다.

첫째, 구어에서 생략한 조사를 문어에서 넣으려고 노력하는 점이다. 또한 문어체에 맞는 조사로 바꾸어 쓰려는 점도 확연히 구별된다. 그런데 문어 텍스트에 쓰이는 조사를 알고 있는 학습자도 예7)과 같이 양자를 구별하지 않는 문장이 많은데, 이것은 특정 입말 조사를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경향은 학습자가 구어성이 강한 ‘하지만’을 문어체 접속부사인 ‘그러나’로 전환하여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습관적으로 ‘하지만’으로 쓰고 있는 상황에서도 빈번하게 보인다. 이는 선행 연구 중 구어와 문어 말뭉치의 동사 사용 양상을 비교한 안찬원(2018)에서 사용자가 구어와 문어 중 한쪽에서의 사용을 선호하는 동사가 존재함을 발견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예6) [말] 결혼 허락 받으러 가자 → [글]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간다.

예7) [말] -랑, -한테 → [글] -와, -에게
* 오류: [말] 데이브랑 결혼하고 싶다 → [글] 남자친구랑 결혼할 거라고

둘째, 구어에 쓰인 줄임말을 문어 텍스트에서는 쓰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다.

예8) [말] 난 → [글] 주인공 아이는

셋째, 대화문을 서술문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연결어미와 종결어미의 문법적 전환이 필요한데, 정확성이 요구되는 부분이라 작문 활동을 할 학습자가 매우 까다롭게 여기는 과제이다. 특히 입말을 전달하는 상황이 되면서 간접화법 적용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예9) [말] 안 돼! → [글] 반대했다.

[말] 우리 결혼도 하려고요. → [글] 결혼도 하려고 하는지 부모님에게 말했다

[말] 결혼 허락 받으러 가자. → [글]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간다.

[말] 유니랑 결혼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외국인은 안 돼.

→ [글] 유나의 아버지는 외국인은 안 된다고 했지만

어머니는 딸이 톰을 사랑하니까 괜찮다고 말했다.

4. 결론

지금까지 구어성이 강한 것으로 보이는 우즈벡 한국어 학습자의 쓰기 활동을 통해 이 과정에서 드러난 구어성과 문어성의 실태를 구체적 작문 자료로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언어 지식 측면에서 학습자의 구어적 표현은 명시적 교수 학습을 통해 비교적 명료히 인지될 수 있는 반면에, 언어 사용 기술 측면에서 구어성은 교수 학습 과정에서 쉽게 교정 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문어성을 지향하는 한국어 쓰기교육에서는 학습자의 모문화의 영향을 더 감안한 교육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 김남미(2012), 대학 내 외국인 학습자의 학술적 글쓰기 개선 방안, 대학작문 4, 67-91쪽.
- 김영순·갈라노바 딜노자(2017), 재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의 한국어 의사소통능력 함양을 위한 한국어교육 방안, 인문사회 21, 제8권 3호, 547-563쪽.
- 김은희·이미향(2013), 한(韓)-콘텐츠를 활용한 한국어 언어문화교육 연구, 한국문화언어학, 10(2), 1-30쪽.
- 남주연·김영주·김양희(2017), 한국어 학습자의 문어 어휘 다양성 연구-구어 어휘 다양성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어 의미학 55, 1-28쪽.
- 송재영(2016), The Unified Grammar of Spoken and Written Language in Korean, 282-292쪽.
- 안찬원(2018), 구어와 문어 환경의 동사 사용 양상 비교 연구, 한국어문교육 제24호, 213-243쪽.
- 이미정 외(2016), 중앙아시아 유학생들이 경험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 요인 연구, 교육문화연구 제21-5호, 283-307쪽.
- 이미향(2012), 매체 문식력(Media Literacy)을 통한 한국어 쓰기 교수·학습 연구, 시학과 언어학 23권, 시학과 언어학회, 137-165쪽.
- 이미향 엄나영(2018), 학문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글쓰기와 말하기에 나타난 표현 전략 사용 양상 비교 연구, 화법연구 40권, 한국화법학회, 67-103쪽.
- 이재기(2009), 문학교육과 문식성 신장, 독서연구, 제22호, 한국독서학회, 115-158쪽.
- Nam Victor(2006) 우즈베키스탄의 한국어 교육 -타슈켄트 국립 니자미 사범대 한국어문학화를 중심으로, 어문논집 제34집, 63-7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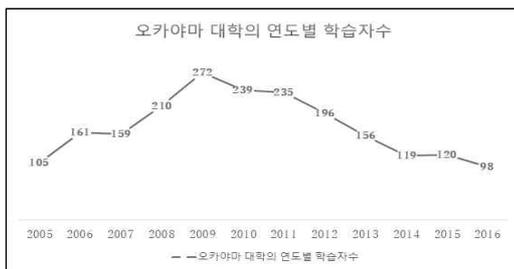
일본인 고급 학습자의 한국어 실현 양상 분석

김유선(나가사키외국어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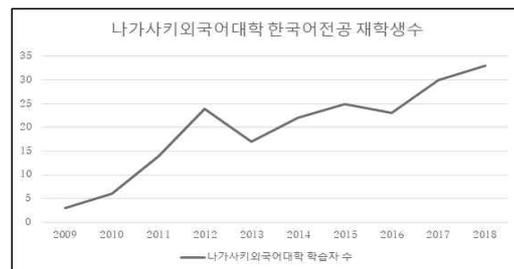
1. 연구 목적

일본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1872년에 대마도에 조선어학습소를 설치하고 조선어를 가르친 것이 일본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효시로 보인다. 그 뒤 1873년에 도쿄외국어대학에 조선어 전공과를 창설하고 통역사를 양성하였다. 그 뒤 1921년에 텐리대학(天理大学)에 조선어과가 창설되었다. 그 뒤 1963년에 오사카외국어대학에, 1997년에 토미야마대학(富山大学)에 각각 조선어학과가 설립되었으며, 1987년에는 칸다외국어대학(神田外国語大学)에 한국어학과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한국어가 대중화된 것은 1984년 일본의 공영방송 NHK가 라디오와 텔레비전으로 ‘한글강좌’가 그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이후 2002년에는 일본대학입시의 외국어 과목으로서 한국어가 도입이 되고 같은 해 한일공동 개최로 치룬 축구월드컵의 영향으로 한국어 학습자가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일본 내 한국 드라마의 인기로 일어나게 된 ‘한류(韓流) 열풍’은 2000년대 후반부터 K-pop의 열광적인 인기로 이어졌고, 이러한 사회 현상은 자연스럽게 한국어 교육 수요의 증가로 연결되었다. 일본의 대학들 가운데 2013년을 기준으로 영어 이외의 외국어과목의 개설대학 중 한국어를 개설한 대학의 수가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를 개설한 대학에 이어 4번째로 많으며 그리고 한국어를 개설한 대학의 증가율이 가장 높다.

나가사키외국어대학의 경우 2009년도에 한국어과를 처음으로 개설한 이후 10년에 걸쳐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는데, 전공 개설 당시 3명이던 재학생 수는 2018년도 기준으로 100여 명을 넘어서게 되었다. 이는 2009년도를 기점으로 수강생이 점차 줄어들기 시작한 오카야마 대학(제2외국어 과목 운영)의 상황과 정 반대의 양상을 보인 것으로 이것은 일본 내 한국어 학습자의 특성이 변화한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 오카야마 대학의 연도별 학습자 수



<그림 2> 나가사키외국어대학 한국어전공 재학생 수

따라서 한국어 전공생들을 위한 교과 운영과 과목 개설에 앞서 우선 학습자들이 어떠한 목적과 기대를 가지고 한국어를 선택하는지에 대한 요구와 특성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기존에 주를 이루었던 초급 수준의 제2 외국어 학습자들과 다른, 차별화된 학습자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교육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제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학습자들의 학습 동기는 대부분 ‘한류’이고 학습목적으로는 ‘일상생활이나 여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회화능력’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학습 목표에 대해서도 ‘입문 수준까지’인 학습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시간 외에는 대부분의 응답자가 음악이나 드라마 등 ‘영상물이나 인터넷’으로 학습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한국어 학습에서 ‘발음’을 가장 어려워하며 ‘영상을 활용한 회화 중심의 수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학습자들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이나 유학에 대해서는 관심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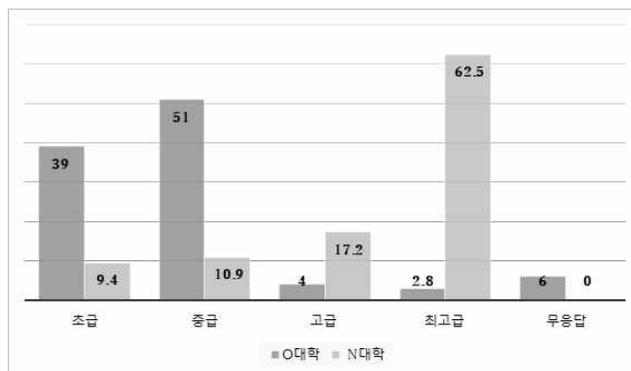
1)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타니자키 미쓰코(2012), 오기노 신사쿠 (2015b), 심보 토모코 (2012), 강영숙 (2014), 박종후 (2014) 등에 의해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한국어를 전공으로 하는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앞서 본 제2 외국어 학습자의 결과들과는 매우 상이하게 나타났다.

나가사키외국어대학의 학생 6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학습 동기로는 ‘한국에 대한 흥미가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64.1%로 가장 높았고 ‘드라마·영화를 자막 없이 보고 싶어서’라는 응답이 60.9%, ‘케이팝 한류(스타)에 흥미가 있어서’라는 응답이 59.7% 뒤를 이었다. ‘장래에 도움이 될 거 같다’는 응답도 40.3%로 상당히 높은 응답이 나왔지만 ‘성적을 받기 쉬울 것 같아서’, 혹은 ‘한국역사가 궁금해서’, ‘한국어로 노래를 부르고 싶어서’, ‘다른 언어를 배우고 싶어서’라는 답변은 모두 1.6%로 저조한 수치를 나타내었다.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한국어 전공생들에게 있어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대학의 전공으로 선택을 하게 강한 동기로서 작용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이어서 한국어 학습 목적에 대해서 물어본 결과 ‘의사소통을 위해’라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79%로 가장 많았다. 이것은 51.6%를 차지한 ‘장래의 직업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라는 응답보다 훨씬 웃돌고 있어 매우 유의미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한국어능력시험’이란 응답이 62.9%로 두번째로 많았는데, 이것은 응답자의 상당수가 한국어를 사용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고자 하며, 한국어능력시험으로 자신의 한국어 실력을 평가하고 검증하는 것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한국어 학습목표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77.4%가 ‘번역이나 통역(봉사활동 포함)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답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일상회화에 도움이 되는 회화능력’이란 답변이 61.5%, ‘비즈니스가 가능한 능력 정도’라는 답변이 51.6%로 뒤를 이었다. 이것은 한국어 모국어 화자와 같은 수준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 다음의 ‘희망하는 도달 수준’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통해서 보다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 O대학과 N대학 학습자의 도달 희망 학습 수준

<그림 3>과 같이 한국어 전공생은 ‘최고급’이라는 응답이 전체 응답의 62.5%로 가장 많았고, 고급(17.7%), 중급(10.9%), 초급(9.4%)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약 80%의 학습자가 고급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희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자신의 한국어 실력에 대한 평가에서 전체의 52.4%의 응답자가 자신의 한국어 실력을 초급으로, 44.4%의 응답자는 중급 수준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고급이라고 평가한 응답자는 3.2%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였다. 최고급이라고 평가한 응답은 없었다. 설문조사에 참가한 학습자 중에는 3~4학년 때 한국 유학 경험이 있고 한국어능력시험의 고급 수준(4급~6급)의 자격을 취득한 학습자가 다수이나, 자신의 한국어 능력을 급수와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배경에는 학습자의 ‘표현 능력의 부족’을 들 수 있다. 일본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능력 시험의 쓰기 평가 점수가 다른 영역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보다 한국어 모어 화자와 같이 되고 싶다는 높은 기대치에 비해 실제 학습자 자신의 말하기 능력이 현저히 부

2) 나가사키외국어대학의 2015년부터 2018년도에 입학한 한국어과 전공생 6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다음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예상할 수 있었다. 3)

한국어 전공학습자들이 ‘향상되기 원하는 한국어 능력’에 대해 묻은 결과, 이에 전체 응답자의 42.2%가 ‘발음’을 꼽았으며, 어휘는 32.8%, 청해력 12%로 그 뒤를 이었다. 작문력이 8%를 차지했고 독해력은 4.7%로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는데, 한국어 전공생들은 문어보다는 구어에, 언어의 이해보다는 사용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의 설문 문항의 응답 양상에서 알 수 있듯이 전공 학습자들은 한국인과 같은 높은 수준의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자유롭게 하고자 하는 학습 목표와 목적을 강하게 가지고 있고, 최고급 수준의 한국어를 구사하려면 발음과 어휘력 등과 같이 보강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어 모어 화자와 같이 자연스럽게 정확한 발음으로 높은 수준의 어휘를 다양하게 구사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는 학습요구로 분석되었다. 4)

한국어능력시험(TOPIK)의 등급별 평가 기준⁵⁾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고급(5~6급)을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1> 한국어 능력 시험 고급(5~6급) 평가 기준

등급	평가 기준
5급	전문 분야에서의 연구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언어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으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친숙하지 않은 소재에 관해서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공식적·비공식적 맥락과 구어적·문어적 맥락에 따라 언어를 적절히 구분해 사용할 수 있다.
6급	전문 분야에서의 연구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언어 기능을 비교적 정확하고 유창하게 수행할 수 있으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친숙하지 않은 주제에 관해서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원어민 화자의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나 기능수행이나 의미 표현에는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표1>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한국어 능력 평가의 고급 수준의 학습자라면 친숙하지 않은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원어민 화자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더라도 기능수행이나 의미 표현에는 어려움을 겪지 않는 정도의 수준에 도달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어를 표현하는 능력과 관련하여 ‘공식적·비공식적 맥락과 구어적·문어적 맥락에 따라 언어를 적절히 구분해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 능력 시험에서 고급을 취득한 학습자들이라고 해서 이와 같은 언어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학습자 요구 분석을 바탕으로 일본인 학습자의 ‘표현 능력’에는 어떠한 문제점이 존재하는지, 한국어의 산출을 어렵게 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일본인 고급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한국어 실현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통역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노트 테이킹’과 ‘순차 통역’, ‘번역하기’ 등과 유사한 형태의 과제를 수행해 보도록 하는 실험을 실시하였다. 통역의 방법을 차용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통역과 같은 과제는 일반적인 의사소통 방식과 유사한 실제적인 과제라는 점에서 우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또한 과제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학습자 스스로가 이해한 것과 아는 것을 토대로 목표 언어를 통해 뭔가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출력하고자 하는 것’과 언어적으로 ‘출력할 수 있는 것’ 사이에 간극(gap)이

3) 이와 관련하여 門田修平(2012)는 일본인이 외국어(영어)의 의사소통 능력을 갖기 어려운 이유로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의 다중 처리에 대한 어려움이라고 설명하며 일본인 학습자의 구어 산출능력향상과 관련하여 심리언어학적인 측면에서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4) 본 설문 문항의 선택항목에서 회화능력과 문법 능력이 빠져 있어서 이에 대한 학습자들의 인식의 양상을 알 수 없었다. 폐쇄형 질문을 통해 이에 대한 학습 요구를 보다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5) 한국어능력시험 공식 사이트 (www.topik.go.kr) 참조

존재함을 알게 된다. 출력하고자 하는 바를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 즉 자신의 중간언어 체계(i)에서 감당할 수 없는 내용을 산출해야 할 때 '+1'로 유도하는 기제가 작동하게 된다. 새로운 가설을 설정하고 가설을 검증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모아 자신의 출력을 재처리함으로써 'i+1', 즉 '이해 가능한 출력'을 하게 되는 과정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⁶⁾

서승진(1989)에 따르면 통역을 하는 말하기의 경우, 외국어 지식이 부족할 때 기발한 전략과 다른 대안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길러준다고 한다. 특히 통역 시 전달하고 표현해야 할 내용이 원문에 주어지므로, 학습자는 이미 알고 있는 어휘와 표현만 사용하는 회피전략(avoidance strategy)을 사용하거나 우회적인 방법으로 요지만을 전달할 수 없어 언어의 정확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통역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알고 있는 언어적 및 언어외적 지식을 회상(recall)하고 맥락 등으로부터 알 수 있는 임시적 지식을 활용해야 한다.⁷⁾ 또한 통역을 통해 학습자가 원문의 내용과 뉘앙스를 정확히 이해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어디였는지 알 수 있다. 이는 학습자로 하여금 본인이 해석하기 어려운 구문 또는 내용의 특징을 파악하여 보다 효과적인 학습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급 수준의 한국어를 실제로 산출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는지, 산출하기까지 어떠한 전략들이 사용되는지, 또한 산출된 언어들은 어떠한 양상을 띠는지를 관찰해 봄으로써 한국어로 표현할 때 미치는 요소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일본인 고급 학습자들의 표현 능력을 검증하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면서도 정확성과 유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교수 학습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둔다.

2. 연구 방법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나가사키외국어대학에 재학 중인 3학년 한국어 전공과목인 '한국어 회화 상급Ⅱ'를 수강하고 있는 학습자 6명을 대상으로 모의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에 참여한 학습자는 다음과 같다. 참고로 학습자들은 통역의 훈련이나 노트테이킹의 훈련의 경험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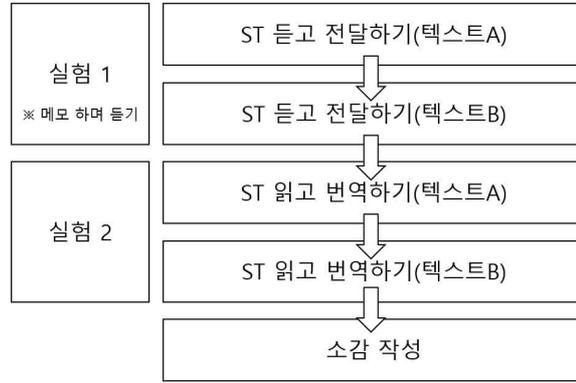
<표 2> 한국어 사용양상 분석 대상

실험참가자	학년	한국어 학습 기간	한국 유학 경험	한국어능력시험 취득 급수
S1. OS	3	2년 6개월	유(1년)	5급
S2. SY	3	2년 6개월	유(1년)	3급
S3. KM	3	2년 6개월	유(1년)	3급
S4. HM	3	2년 6개월	유(1년)	5급
S5. EH	3	2년 6개월	유(1년)	5급
S6. MN	1	3년 7개월	무	5급

본 연구에서는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한국어 말하기 양상을 파악하기 위한 통역 과제를 수행해 보는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은 '메모하며 듣기', '들은 내용 전달하기', '대본 번역하기'의 세 가지로 진행하였다. 연구 대상이 된 듣기 텍스트는 일본의 기독교 역사와 관련한 기념관의 일본인 해설자의 일본어 발화 내용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의 구어 산출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입력의 언어가 내용 이해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듣기 텍스트는 학습자 모국어 자료를 활용하였다. 듣기 텍스트의 내용은 일본 학생들이 이미 중고등 교육 과정의 역사 수업을 통해 배경지식이 있다고 판단된 주제와 관련한 두 개의 다른 텍스트를 선정하였다. 실험 후에는 서면이나 구두로 소감을 말해 보도록 하였다. 실험은 다음과 같이 설계하였다.

6) Swain(1985)이 자신이 출력 가설에 대해 이해 가능한 입력(i+1)의 개념과 일치하는 것으로 '이해 가능한 출력설'이라 부를 수 있다 한 이유이다.

7) Schjoldager(2004)에 따르면 외국어 학습자들의 통역 및 그림에 대한 설명(picture verbalization)을 관찰한 결과, 학습자들이 통역을 할 때에는 원문의 존재로 인해 회피전략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국어의 새로운 측면을 탐색하게 된다고 한다.



※ 텍스트A 핵심어: 후미에, 순교, 가쿠레키리시탄
 텍스트B 핵심어: 가쿠레키리시탄, 마리아 관음상, 눈의 산타마리아

<그림 4> 한국어 사용양상 분석을 위한 실험 단계

[실험①] 순차 통역 <L1 → L2>

- 교사는 2개의 구어 텍스트⁸⁾를 들려주고 학습자에게 각각 텍스트를 듣고 나서 교사에게 내용을 한국어로 설명해 통역을 해 주도록 지시했다.
- 듣기를 하는 동안에는 교사로부터 제공받은 작성지에 자유롭게 노트 테이킹을 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다. 노트 테이킹은 일본어, 한국어 모두 허용하였다.
- 각 듣기 활동이 끝나면, 학습자는 자신이 노트 테이킹한 내용을 참고하여 교사에게 순차통역을 실시하고, 교사는 학습자의 동의를 얻어 통역 발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실험②] 구어 텍스트 번역하기 <L1 → L2>

-교사는 실험 ①의 해설자의 발화가 쓰여진 일본어 구어 텍스트를 학습자에게 제공하고 한국어로 바꿔 쓰도록 지시했다. 교사는 실제로 통역을 할 때 사용한다면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고려하여 작성하도록 하였다.

[소감 작성] 실험이 끝나면 통역 활동을 한 소감을 간단히 쓰거나 말해 보도록 했다.

1. 산출(내용 전달하기)을 의식한 입력 과정(들으면서 메모하기)에서는 언어를 어떻게 인지하고 처리하는가?
2. 입력된 언어는 이후 산출되는 과정에서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가?
3. 산출된 한국어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3. 한국어 실현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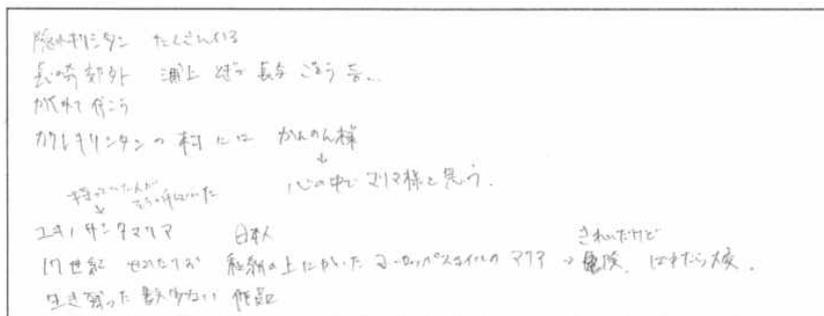
본 실험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었던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한국어 산출 양상을 살펴본다. 듣기 과정에서 수행한 메모의 양상을 살펴보고 이어 들은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발화한 내용과 대본 번역을 통해 구어 사용의 양상을 살펴 보았다. 분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8) 실험 자료로 활용한 구어 자료는 각 2분, 3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선정하였다. 교사에게 통역을 해야 하는 과제의 산출을 의식하여 적극적으로 듣기를 수행할 것으로 가정하였고, 단어와 문법, 주요 내용을 파악하는 능력 등을 개괄적으로 살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3.1. 메모하기 표시 양상

실험 1의 ST들과 전달하기 과정의 메모하기에서 나타난 양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피험자들의 메모는 대부분 일본어로 작성되었다. 한자, 가타가나, 히라가나 중에서 표시 획수가 가장 적은 히라가나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지명이나 인명 등은 한자나 가타가나로 표시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림 5> 메모하기에서 나타난 일본어 표기의 예

둘째, 같은 발음의 다른 단어로 표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 피험자는 ‘교회’라는 단어를 ‘협회’로 잘못 인식하여 메모하였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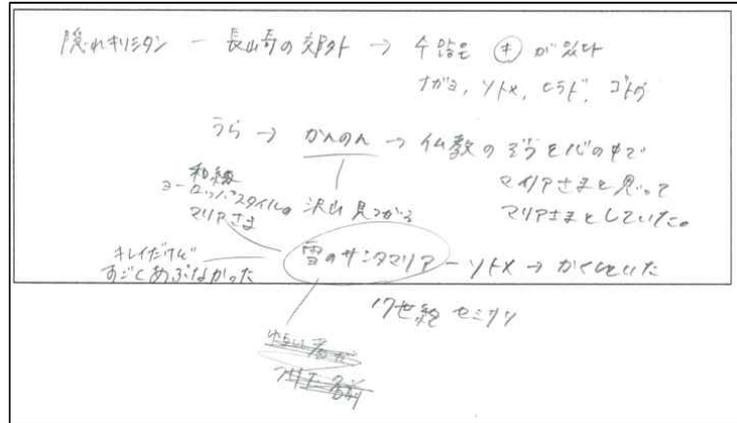
<표 3> 듣고 전달하기 메모에서 나타난 일본어 표시 오류의 예

ST	TT
ローマに教会がある <로마에 교회가 있다>	ローマに協会がある <로마에 협회가 있다>

듣기 텍스트의 내용은 가쿠레기리시탄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와 관련하여 기독교의 박해 등과 관련한 흐름에서 등장하는 ‘キョウカイ’라는 단어는 전후의 맥락에서 볼 때 종교적 단어인 ‘교회(教会)’로 추측하게 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이와 같이 맥락과 무관한 ‘협회(協会)’로 잘못 쓰게 되는 오류를 범한 것은 관련 주제에 대한 배경지식의 입력이 약하거나, 학습자가 발음을 듣고 비교적 접할 기회가 많았을 것으로 보이는 추측되는 ‘協会’라는 단어 떠올렸을 두 가지의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9)

셋째, 피험자들이 표시한 언어는 대부분 일본어였지만 3명의 학습자의 자료에서는 일부 단어나 표현을 한국어로 기록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9) Hedge(1985)는 통역자에게 필요한 배경지식으로 일반 지식(General/World Knowledge), 문화적 지식(Cultural-sepecific Knowledge), 특정 분야별 지식(Subject sepecific Knowledge), 문맥 지식(Contextual Knowledge)의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일반 지식은 상식을 포함한 일반적 지식이므로 통역 훈련 대상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종교적인 지식은 국가에 따라서 문화적 지식이 되거나 특정 분야의 지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인에게 기독교의 문화가 일반 문화적 지식이라면, 기독교 인구 비율이 낮은 일본에서는 별도의 학습을 필요로 하는 특정 분야의 지식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림 6> 메모하기에서 나타난 한국어 표기의 예

‘있었다’, ‘수많은’, ‘있다’, ‘설날’, 단어들이 나타났는데 이 역시 한국어로 표시한 이유에 대해서 사후 심층 질문을 통해 확인한 결과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고 답했다.¹⁰⁾ 이를 통해 입력 언어가 학습자 모어(L1)라고 하더라도 언어를 인지하고 기억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는 무의식적으로 L2의 간섭을 받거나 L2를 연상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넷째, 메모에서 문자가 아닌 도식이나 기호 등을 사용하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듣기 텍스트를 분석적으로 이해하려고 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기호화된 메모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흐름으로 표시된 양상이 나타났다.

<그림6>에서와 같이 실험 참가자는 隠れキリシタン을 쓰고 난 후에 다시 반복되어 등장한 동일 단어를 자신만이 알아볼 수 있는 기호인 ㊦로 표시하는 양상을 보였다.

隠れキリシタン - 長崎の郊外 → 수많은 ㊦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 참가자들이 작성한 메모를 통해 학습자들의 언어의 입력 과정의 일부를 엿볼 수 있었다. 텍스트를 얼마나 분석적으로 듣고 있었는지 작성된 단어들을 통해 추측할 수 있으며, 제한된 시간 안에 산출을 의식한 입력 과정에서 텍스트 이해와 기억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전략들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실험 참가자들 메모의 양상에서는 동일한 규칙이나 순서가 발견되지 않았다. 일본인 학습자들은 대부분 평소에 노트 정리나 메모 등의 쓰기 활동에 있어 매우 정돈되고 깔끔하게 하는 경향이 있으나, 실험에서 보인 메모는 정돈된 형태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3.2. 한국어 구어 산출 양상

다음은 실험 참가자들이 모국어로 구성된 ST 음원을 얼마나 기억을 하고 있고 어떻게 재구성하는지 살펴보았다. 구어 텍스트를 실제 순차 통역 방식으로 발화한 내용과 원텍스트와 비교를 해 보고, 참가 실험자의 언어 능력을 진단할 수 있는 근거를 메모나 이후 실시한 번역하기에서 찾아보았다. 다음은 한 실험자의 발화 내용이다.¹¹⁾

10) 글자 획수나 음절수가 영향을 미쳐 더 용이한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됐는지에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추후의 연구가 필요하다.
 11) 발화 내용은 실험 과정에서 실험 참가자가 한국어로 발화한 것을 연구자가 녹음을 한 후 옮겨 쓴 것이며, 메모의 내용은 연구자의 번역에 의해 등장한 단어와 표현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발화 시의 발음이나 억양 등의 요소는 배제하고 표현하고자 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발화자의 비언어적 요소에 대해서는 ()안에 작성하고, 발화자가 상대방에게 내용 전달을 목적으로 발화했다고 판단한 내용은 한국어로, 그 외의 혼잣말 등과 같은 발화는 일본어로 옮겼다. 단 독자의 이해를 위해 []안에 내용 번역을 기재하였다.

이것은 후미에¹²⁾에 대한 얘긴데 후미에는 예수님이나 마리아님이 쓰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설날 때 나가사키에서는 다들 보고 있는 앞에서 '나는 키리시탄 아니다' 라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사키에는 '가쿠레 키리시탄' 라는 사람들이 있고 카쿠레 키리시탄은 그.. 숨기고? 키리스토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예요. 그 사람들은 후미에를 한 후에 집에 돌아가서 특별한 기도를 한다는 얘기였어요.

이 참가자는 ST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 요점을 잘 정리하여 전개하였다. 한편 주요 내용을 짧게 요약하는 과정에서 생략된 내용들은 텍스트 구성을 위해 생략된 것인지, 참가자의 언어 능력의 한계로 인해서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것인지 알 수 없다. 어휘적으로나 문법적으로 오류를 발견하기도 어렵지만 그렇다고 고급 수준으로 진단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때 발화한 내용과 메모에서 작성되었던 내용을 비교해 보아 표현하지 못한 어휘나 표현은 없는지 추측해 볼 수 있다. 다음은 이 참가자의 발화한 내용과 메모의 내용을 대조한 것이다.

<표 4> 실험 참가자 SY의 메모와 발화 내용

메모 내용	발화 내용
a. 후미에 b. 예수, 마리아가 새겨진 물건 c. 영화를 위해 만들어졌다 d. 모두가 보는 앞에서 e. 설날에 나가사키 봉행소	이것은 a.후미에에 대한 얘긴데 후미에는 b.예수님이나 마리아님이 쓰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e.설날 때 나가사키에서는 d. 다들 보고 있는 앞에서 '나는 키리시탄 아니다' 라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f. 잠복 신자 숨어서 신앙	그리고 나가사키에는 '가쿠레 키리시탄' 라는 사람들이 있고 f.가쿠레 키리시탄은 그.. 숨기고? 키리스토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예요.
g. 집에 돌아가 특별한 기도	그 사람들은 후미에를 한 후에 g.집에 돌아가서 특별한 기도를 한다는 얘기였어요.

이 사례자의 경우 대부분의 주요 내용을 다루어 표현하였지만, 메모에서 등장했던 (c)의 내용과 (e)의 '봉행소'¹³⁾가 누락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메모의 내용에서 다른 표현으로 바뀌어 등장한 부분이 있다. 메모의 내용에서는 (b)에서 '새겨진'으로 작성된 표현이 '쓰고 있는'으로 발화되었다. 또한 (f)의 '숨어서'를 표현해야 하는 곳에 '숨기고'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해설자의 설명에서 가리키고 있는 물건이 '실물'이 아닌 '영화를 위해 제작된 것'이라는 정보를 생략한 의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나, '봉행소'와 같은 경우는 한국어로 표현하기 어려워 생략된 것이라고 볼 수 예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양상은 다음의 원 텍스트의 대본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12) 후미에(일본어: 踏み絵)란 일본의 에도 시대에 에도 막부가 금지령을 내렸던 기독교 신자(기리시탄이라고 함)을 색출해내기 위해 사용했던 방법 또는 거기에 사용했던 목조판 또는 금속제의 판을 말한다.

13) 봉행(일본어: 奉行 부교)은 헤이안 시대에서 에도 시대에 걸쳐 존재한 일본 무가의 직명 중 하나이다. 봉행인(일본어: 奉行人 부교닌)이라고도 하며, 그 직무를 실시하는 관공서를 봉행소(일본어: 奉行所 부교소)라고 했다.

들으면서 메모를 수행할 때 ‘踏む(밟다)’를 일본어로는 듣고 이해했지만, 한국어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 예상하고 작성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비슷한 예로 ‘동방(동판)’, ‘증명(증명)’ 등이 있다. 메모의 내용에서도 발견되지 않았고 구두 발화 시에도 산출되지 않은 이러한 단어들은, 번역하기 실험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다른 유사한 표현으로 바꿔 쓰지 않고 한국어 발음을 유추해서 작성한 것으로 예상되는 단어들은, 정서법 상 오류가 나타난다. 실제 구두 발화 시에는 ‘동판’ 대신 ‘것’으로 대체되었고, ‘증명’ 대신 ‘표현’으로 대체되어 있었다. 다시 말해 발음 상 확신이 부족한 경우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쉬운 표현을 찾아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숨다’에 대해서는 ‘숨기다’로, ‘신앙’을 ‘신교’로 잘못 사용한 것을 발견했다.

ST(L1) : 숨어서 신앙을 지키고 있는 사람입니다.

<메모의 내용(L1)>	<발화 내용(L2)>	<번역 내용(L2)>
잠복 신자 숨어서 신앙	→ 그.. 숨기고? 키리스토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예요.	→ 숨기고 신교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쿠레키리시탄(일본어: 隠れキリシタン)¹⁴⁾은 한국어로 ‘잠복 신자’에 대응하는 말로 ‘숨다’라는 단어를 반드시 사용해야만 설명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다른 쉬운 표현이나 유사한 표현으로 바꿔쓸 수 없는 표현이기도 하다. 따라서 앞에서 ‘동판’이나 ‘증명’을 다른 단어로 바꿔쓰는 회피 전략을 사용할 수는 없었기에 ‘숨기다’의 형식으로 나타났다고 보인다. 한편, ‘밟다’와 같이 어휘 자체를 누락시키지 않은 것은 ‘숨기다’와 유사한 단어일 것이라는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것은 발화 시에 숨기다(?)의 상향 어조로 발화된 것을 통해, 단어 선택을 고민하는 양상을 보였기 때문이다.

화용적으로는 ‘목숨을 걸다’에 해당하는 표현을 ‘숙면을 거는’으로 잘못 번역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이 밖에 문법적인 오류의 내용으로는, 내용 전달하기 실험에서 ‘예수님이나 마리아님이 쓰고 있는 것이고’라고 발화했던 것과 달리 대본 번역에서는 ‘쓰여 있는’으로 고쳐 쓴 것을 알 수 있다.

ST(L1) : 刻まれている(새겨져 있는)

<메모의 내용(L1)>	<발화 내용(L2)>	<번역 내용(L2)>
刻まれた(새겨진)	→ 쓰고 있는 것	→ 쓰여 있는

메모에서는 ‘새겨지다’라는 단어를 인식했으나 구두 발화 시에는 ‘쓰다’라는 표현으로 대체한다. 이것은 일본어의 ‘쓰다(書く[kaku])’라는 단어가 ‘그리다(描く[kaku])’가 동일한 발음이기 때문에 ‘그리다’라는 말을 ‘새기다’의 대체어로 선택을 하다가 생긴 오류로 보인다. 그러나 피동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고 ‘쓰고 있다’는 진행형으로 표현하는 문법적 오류를 발생시켰다.¹⁵⁾ 이후 대본을 번역하는 과정에서는 다시 ‘쓰여 있다’라는 피동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변화 과정을 통해 단어 교체에 대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한 후, 단어 선택이 끝난 후 문법적인 부분을 고려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한국어의 피동 표현에 대한 언어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

14) 17세기 초반부터 19세기 중반까지 밀교 형식으로 신앙을 유지해온 일본의 로마 가톨릭 신자들을 말한다. 1612년에 에도 막부가 가톨릭을 포함한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불법화하면서 많은 수의 가톨릭 신자들이 음지로 숨어들어서 신앙을 유지했고, 그 과정에서 원래의 가톨릭의 교리와는 많은 부분이 달라져 전해지게 되었다.

15) 일본어의 원문을 읽고 번역하는 과정에서 일본어의 ‘-れる・られる’의 문법 표현 ‘-아/어/여 있다’를 생각해 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처럼 모국어 간섭에 의해 [이것을 200수십년간 계속 해 오고 있었습니다.]처럼 ‘-아/어 오다’의 문법을 사용해야 하는데서 [그것을 200년 동안 계속 하고 왔습니다.]와 같이 ‘-てくる’를 ‘-て(-고)’로 인식하여 ‘-고 오다’를 결합하게 되었다고 추측된다.

나라, 구두 발화와 같이 제한된 시간 안에 일회적으로 산출해야 하는 말하기 과제는 번역보다 모국어 간섭을 받기 쉽고 가장 반복적으로 사용했던 내용이 우선적으로 산출되면서 생기는 오류가 많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게 해 준다.

이와 같이 구두로 실현된 발화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학습자의 어휘, 문법, 화용적 표현 등에 대한 인지 정도 및 사용 능력과 관련해, 학습자가 작성한 메모 및 번역하기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표 6> 실험 참가자 SY의 메모와 발화 내용

메모 내용	발화 내용
a. 후미에라고 불려진 것 b. 메이드 인 할리우드 영화를 위해 만들어진 예수 c. 마리아가 그려진 동판 d. 설날의 모두가 보는 앞에서 밝아서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고 증명한다	이것은 a. 후미에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 얘기하는데 이거는, 거기에 있는 거는 b. 메이드 인 할리우드의 영화 찍을 때 무슨 무슨 감독님이 만든 것인데 후미에는 예수 하느님이랑 예수의 아들 아, 엄마? c. 마리아가 ... 그리고 있는 거 있어서 그거를 일본의 d. 설날 때 여러분 보고 있는 곳에서 한 명씩이 그걸 이렇게... (밝는 흉내) <u>なんだっけ[아, 뭐였지](웃음) 이렇게 해서 나는 크리스천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나는 크리스천이 아니다.. 그렇게 하는 거.</u>
e. 20수년 잠복신자 → 순교자는 될 수 없다, 콘치리산하고	그래서 e. 20년 정도 계속 그거 하고 있고, 나는 크리스천인데 거기서는 이렇게 하고, 사람이 없는 곳에 <u>콘치리산이라고 하는</u> (뭐 하고?) 기도하고 있었다... 는 얘기. <u>わからん。踏みつけるってなんだ[모르겠네, 밝는다는 게 한국말로 뭐지].</u>

또한 이러한 양상들이 다른 실험 참가자 학생들의 분석 결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다음은 다른 참가자의 메모 내용과 구두 발화 내용이다.

이 참가자 또한 ‘순교자’, ‘신앙’과 같은 단어들을 사용하지 않았고, 메모에서는 등장했던 ‘동판(만든 것)’, ‘증명(그렇게 하는 것)’과 같은 표현이 구두 표현에서는 ‘숨어서(사람이 없는 곳에)’등과 같이 다른 표현들로 대체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모르는 단어나 표현에 대해서는 ‘무슨 무슨’, ‘이거’, ‘그거’, ‘이렇게’, ‘그렇게’ 등의 대명사를 사용하는 회피전략을 쓰거나 몸짓으로 표현하거나 하는 등의 양상을 보였다. 또한 메모에서도 오류가 있었던 부분이 전달하기 과정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났다. ST에는 ‘200 수년간’이지만, 피험자는 ‘20 수년’으로 표현하였고, 이를 발화 시에도 ‘20년 정도’로 축소해서 전달하고 말했다. ST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 중 하나가 훼손된 셈이다. 또한 이 참가자 역시 ‘밝다’는 표현을 산출하는데 겪는 학습자의 인지 상황을 일본어 독백으로 알 수 있었다. 이 단어를 학습한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조차 분명히 기억해 내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기억으로 저장되어 있지는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대본 번역하기에서도 앞의 참가자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표 7> 실험 참가자 OS의 메모와 발화 내용

ST 내용	실험자 번역 내용
이처럼 예수님이나 마리아님이 새겨진 동판입니다.	<u>이처럼</u> <u>예스님</u> 이나 마리아님이 <u>쓰여</u> 있는 동방입니다.
설날의 시기에, 나가사키 봉행소가 가지고 있는 후미에 각각의 마을로 전해져 이렇게 해서 모두가 계속 쳐다보고 있는 앞에서 밟습니다. 자신은 크리스티교 신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설날 때 나가사키의 -----가 가지고 있는 후미에 각각의 동네에 <u>와서</u> 이렇게 모두가 쳐다보고 있는 앞에서 ----- 그리고 나는 크리스짱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u>기독교를 믿지 않는다</u> 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숨어서 신앙을 지키고 있는 사람입니다.	<u>숨기고</u> 믿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바로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순교자들이 최고이지만, 순교자는 되지 못해도	<u>쭉 자기 인생을 주고 믿는</u> 사람들이 최고지만 <u>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는</u> 사람지만 <u>숨기고</u>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먼저 어휘에서는 앞의 참가자와 마찬가지로 구두 발화 상황에서 등장하지 않았던 ‘동방(동판)’, ‘증명(증명)’의 양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봉행소’와 ‘밟다’에 대해서는 번역이 되지 않았다. 또한 어려운 단어들을 쉽게 바꿔 썼는데 ‘기독교를 믿지 않는다(신자)’, ‘와서(전해져)’, ‘믿다(신앙을 지키다)’, ‘쭉 자기 인생을 주고 믿는 사람(목숨을 바치는 순교자)’ 등에서 나타났다. 이 역시 대부분 앞 참가자의 양상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들과 중복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어휘·문법적 오류의 양상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ST(L1) : 刻まれている(새겨져 있는)

<메모의 내용(L1)>

かかれた

(그려진)

<발화 내용(L2)>

→ 그리고 있는 거 있어서

<번역 내용(L2)>

→ 쓰여 있는

이 참가자의 경우 ‘새겨지다’를 L1으로 들었으나 메모에서는 L2로 실현되었다. 이것 역시 산출 행위를 의식하여 자신이 한국어로 표현할 수 있는 어휘를 미리 선정한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후 구두로 내용을 전달하기 과정에서 ‘그리고 있는 거 있어서’라고 발화하였는데, 이 또한 앞 참가자와 마찬가지로 ‘그리다/쓰다’ 중에서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아/어/여 있다’와 같은 피동 표현을 사용하는 데 유념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대본으로 번역되었을 때 ‘쓰여 있는’으로 교체되었는데 이 또한 L1텍스트로 보인 피동 표현에 대해 통역 상황보다 시간적 여유가 생긴 번역 시 학습했던 언어 정보를 산출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이 나머지 다른 실험 참가자들로부터 분석된 양상들은 많은 부분에서 공통적인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4.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고급한국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어 사용양상 분석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학습자 언어로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라도 한국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어휘나 표현은 생략을 하거나 쉽게 바꿔 표현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양상을 가진다. 고급 학습자들은 이러한 전략을 잘 사용해서 들은 내용을 재구성하는 과정을 비교적 원활히 수행하는 양상을 보였다. 표현하기 어려운 어휘를 대명사로 대체하여 설명하거나 전달성을 높이기 위해 자신의 배경지식을 활용하는 전략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러한 전략은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 필요한

능력으로서 유창성과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재구성하여 말하기 위한 담화 표지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나 상위 개념의 어휘를 구사하는 등의 언어 기술이 필요한데 본 연구의 구어 산출 양상의 분석을 통해서 파악하게 된 학습자의 말하기 전략은 그러한 언어기술을 사용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우선 본 실험에서는 피험자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들은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야 하는 것이었다. 이해를 목적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전달을 위해 듣기를 수행한 것이고 대부분의 피험자는 자신이 듣고 이해한 내용을 가능한 많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고자 시도한 것을 알 수 있다. 단,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난 생략이나 바꿔 표현한 것은 전체 텍스트의 주요 내용을 아우르는 표현으로 요약된 것이 아니라 텍스트에서 사용된 L1의 어휘와 문법에 해당하는 L2(한국어)로의 전환이 불가능해서 언어 전환 자체를 포기하거나 혹은 자신이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바꿔 말하는 양상을 나타낸 것이다.¹⁶⁾ 또한 전달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었다고 보이나 듣기 텍스트에는 등장하지 않은 내용을 추가 설명하기도 하였는데 이와 같이 학습자 자신의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부가 설명하는 것 역시 좋은 말하기 전략의 하나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입력된 내용을 재생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고자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의 배경지식을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학습자가 듣기 처리에서 집중하지 못해서 몇 가지의 정보만을 습득한 경우, 정보들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연결 지어 가면서 내용을 추측하는 전략을 사용한다고 할 때, 듣지 못했던 부분을 메우는 과정에서 자칫 원래의 텍스트의 의미와는 다르거나 무관한 내용으로 채워질 우려가 있다. 특히 이러한 오류는 쓰기와 같이 시간적 여유가 확보되고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보다 말하기와 같이 일회적이고 즉흥적인 행위를 수행할 때 더 나타나기 쉽다는 것이다. 이러한 학습자들의 발화 양상은 원고에 있는 내용을 전달하는 과제를 수행하면서 발견된 것으로 학습자들의 듣기 과정의 인지 정도와 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언어 전환의 양상을 통해 학습자의 한국어 수준이나 자주 사용하는 전략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었다.

둘째, 듣고 전달하기의 과정에서 메모를 수행하면서 텍스트를 분석적으로 듣고 이러한 과정에서 내용을 기억하는 과정이 말하기 활동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험자 6명 중 5명이 다소 긴 내용의 텍스트를 머뭇거리지 않고 잘 요약해서 발화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이때 메모의 내용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반면에 메모의 양이 적거나 없는 학습자의 경우 들은 내용을 전달하는 발화의 양이 매우 적게 나타났다. 들은 텍스트를 모두 기억해서 발화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집중력과 지구력이 필요하고 들으면서 바로 이해하는 과정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메모의 수행 여부가 전달 내용에 대한 이해와 기억을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고급 학습자들의 한국어 듣기를 할 때 메모의 중간언어 표시의 분석 결과 대부분 표시 언어로 일본어를 사용하였지만 절반 가까이의 메모에서 한국어 표시도 등장하는 양상을 보였다. 피험자가 일본인이라는 점과 ST의 언어가 일본어인 것을 생각하면 들은 내용을 메모할 때 일본어만으로 작성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5명 중 3명, 10개의 메모 중에서 5개의 메모에서 한국어 표시가 등장하게 되는데 피험자마다 나타나는 양상이 각기 다르고, 한국어를 사용한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요소를 찾기 어려웠다.¹⁷⁾ 다시 말해 학습자들은 메모라는 TT를 크게 의식하지 않고 ST의 내용을 분석하는데 집중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 나타난 메모의 양상은 학습자들의 듣기 이해와 언어 전환상의 인지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실제로 분석 결과 들으면서 바로 번역을 하려고 하며 메모를 했던 학습자보다 내용을 기호화, 도식화하면서 듣기에 집중했던 학습자가 요점을 잘 파악하고 내용을 요약하여 잘 전달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것은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내용의 이해를 목적으로만 하는 강의 듣기와는 다른 산출을 전제된 듣기과정으로서 통역 교육에서 사용되는 노트테이킹의 역할을 외국어 교육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 통역사들의 노트테이킹과는 다른 말하기 능력 향상을 위한 메모하기의 지도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학습자들의 구어 산출 양상의 세 번째 특징으로 중급 이상의 수준의 어휘나 문법을 다양하게 산출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구두 발화에서 나타났던 표현과 문법상의 오류가 대본을 번역할 때는 정정된 형태로 맞게 표현되었는데 이러한 양상을 통해 학습자가 인지하고 있는 것과 구어로 산출할 수 있는 것 사이에 간극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즉흥적이고 일회적인 말하기와 같은 활동에서는 알고 있는 언어지식이 그대로 산출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에게 익숙하고 습관적으로 굳어 있는 것이 우선적으로 산출되는 경향이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학습

16) 이러한 양상은 먼저 메모의 내용이 학습자들의 의해 발화된 내용에서 등장하지 않은 부분이 대본 번역하기에서도 비워져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통해 학습자가 한국어 표현을 몰라서 회피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17) 획수가 적은 것이 용이해서라고 보기에는 다소 획수가 많고 복잡한 형태의 단어도 쓰이는 것이 특징적이었다.

자들은 발화상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들은 내용을 생략을 하거나 쉽게 바꿔 말하는 전략을 사용했다. 또한 전달하고 있는 텍스트의 양이 부족하다고 인식한 경우나 자신의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설명을 덧붙이는 양상이 나타났다. 외국어교육의 관점에서는 학습자들이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는 이러한 전략이 필요하며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내용을 구성하여 말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또한 원래의 듣기 텍스트의 존재나 메모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이 학습자들의 발화를 듣고 평가를 하게 된다면 나름대로 유창하게 말한다는 인상을 받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원래의 텍스트나 메모의 내용과 비교했을 때는 상이한 평가를 받을 것이다. 대본 번역하기에서 이러한 학습자들의 정확성 문제와 관련 있는 오류들이 다수 나타났다. 일본인 학습자들의 구어 산출과 관련하여 가장 큰 특징은 학습자간의 한국어 실력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류의 양상이 매우 유사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종교적이거나 역사적인 전문 용어 외에도 ‘뺏다’, ‘새기다’, ‘대나무’ 등과 같은 단어를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정확하게 구사하지 못했고 피동사와 사동사와 같은 표현에서도 유사한 오류가 나타났다.¹⁸⁾

또한 대본을 번역하면서 나타나는 학습자의 한국어 발음 표기상의 오류가 학습자간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을 띠고 있었는데 오랜 시간 모어의 간섭을 받은 채 발음을 해 오면서 다소 고착화된 발음도 있었다. 이와 같은 오류 양상을 통해 말하기 수업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야 할 발음 지도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를 통해서 L1에서 L2로의 언어 전환은 학습자의 한국어 사용 능력에 대해 진단할 수 있게 해 주며, 특히 통역 활동과 같은 ‘전달하기’의 활동은 ‘한국어의 표현 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용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일본인 학습자의 특성 상 창의적이고 즉흥적인 말하기 과제가 주어졌다면 통역 과제에서만 양의 발화를 기대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언어전환 활동은 학습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알고 있지만 산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파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산출된 내용을 원고와 비교해 봄으로써 한국어 산출 양상을 모니터링하게 되어 자신의 한국어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무엇보다 교사의 피드백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더라도 정확성에 대한 보완이 된다는 점에서 학습자의 심리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한편, 실험 과정에서 ‘전달하기’라는 과제의 특성을 고려해 볼때, 학습자들은 ‘듣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거기에 노트 테이킹과 유사한 메모 활동은 텍스트를 분석하고 언어지식을 입력하는 힘을 키워주고 들은 내용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¹⁹⁾ <L2→L2>, <L2→L1>, <L1→L2> 언어 전환의 훈련을 병행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L2→L2>은 L2를 듣고 L2로 재구성하여 전달하게 되면, 자연스러운 언어 모델을 접하고 이를 활용하거나 모방하는 것을 통해 L2 텍스트를 스스로 구성하지 않고도 한국어를 산출해 보는 기회를 갖게 된다. 긴 구문을 주요 의미단위로 적절히 끊어 순차 통역을 하는 방식을 통해 요약하여 말하는 기술을 익히게 될 것이다. 이후 한 문장 씩 끊어 통역해 보는 <L2→L1> 방식의 훈련은 <L2→L2>재구성하여 전달하기 과정에서 미처 인지하지 못한 단어나 문법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 줄 것이다. 이 과정에서 L2의 반복적인 듣기 과정이 진행되고 이를 강화함으로써 발음과 억양을 교정하고 나아가 한국어의 유창성과 정확성을 확보한 표현 능력을 갖출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18) 이러한 오류들이 대본을 번역하는 과정에서는 다소 수정되어 보다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바꿔 번역하는 학습자도 있었다.

19) 통역이라는 활동이 ‘분석적으로 들은 내용’을 의미를 해석하고, 재구성하여 발화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청자와 화자간의 대화에서 일어나는 의사소통과정과 매우 흡사하다. 통역은 ST와 TT의 사용 언어가 다르고, 내용은 동일하게 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사소통과 차이점이 있지만, <이해-해석-재구성>하는 각각의 단계에서의 정보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점에서 인지학적 공통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長崎文献社(2005),「나가사키 순례지와 교회 안내서」, (長崎游学マップ 2), 長崎文献社, 単行本.

長崎文献社(2012),「日本二十六聖人記念館」の祈りー公式「巡礼所」総合ガイドブック (長崎游学マップ 8), 長崎文献社, 単行本.

서승진(1989), “인지적 처리과정 중심의 영어교육기법 : 구두해석·번역법”, 「응용 언어학」 2, 한국응용언어학회, pp.113-149.

심보 토모코 (2012), 일본 대학교 교양 외국어 과목으로서의 한국어교육의 과제,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2012-1,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p.89-97.

오기노·신사쿠(2015), “일본 대학 내 교양으로서의 한국어 교육 발전 방향 연구-국립 시즈오카 대학의 한국어 학습자의 요구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집」, pp.66-77.

朴珍希(2016), 日本における韓国語教育に関する研究, 岡山県立大学研究紀要 1-1, pp.21-31 .

러시아어권 한국어 학습자들의 한국어 이중모음 오류 분석
-모국어와 목표어 간 음절구조의 상이성을 중심으로-

노채환(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An Error Analysis of Korean Diphthongs by Russian Learners
-Focusing on the differences in syllabic structure
between one's mother tongue and target language-

Roh, Chaehwan(Cyber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1. Introduction

When adult learners learn a foreign language, they basically think of the target language based on their native language system. Thus, the interference phenomenon of the mother tongue affects learning the target one.

As noted in Heo&Kim(2006), pronunciation is the most affected area by one's native language. In addition, in the learning of foreign languages by adult learners, pronunciation is what can be hardened earliest in the process of acquiring language.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know the pronunciation system of the target language correctly from the beginning. Heo&Kim(2006) discussed four different elements that affect pronunciation: the difference in individual phonemes, the difference in syllable structure, the difference in phonological phenomena, and the difference in suprasegmental elements. This study will focus on the differences in syllable structure among these elements in order to discuss the pronunciation of foreign learners.

The syllabic structure is not specifically presented in the Korean standard pronunciation, but the proper knowledge of syllabic structure is essential for foreign language education. This is because individual phonemes that make up of an individual language are produced by speech sounds through the combination of consonants and vowels based on the syllabic structure of that language. From this point of view, the syllable structure is the basis for adjusting the output of individual phonemes. Thus, when a sound of the target language that does not fit the syllable structure of one's mother tongue is inputted, they will adjust the sound of target language so as to match their native syllabic structure, which results in an error in output of target language.

In particular, given the errors of diphthongs in the process of acquiring vowels, it is clear that the differences in the syllabic structure between the mother tongue and the target language can affect learning the target one. When acquiring a monophthongs of a target language, there can occur positive and negative transitions because of the characteristic differences of individual vowels. However, diphthongs are closely related to the syllable structure as well as the differences in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vowels. Focusing on these characteristics, I will analyze the errors of diphthongs produced by Russian learners, phonologically through differences in syllabic structure and differences in vowel systems in between Korean and Russian.

As discussed in Kim(2016), the study of pronunciation education for Russian learners has been

focused mostly on consonants and monophthongs. In Yoon(2005), the phenomena and types of inter-language phonology were examined by analyzing pronunciation errors in Korean learning. And the contrast analysis in between Korean and Russian confirmed that the predicted difficulties when learning Korean are quite different from the real ones. Although Yun(2005) deals with diphthongs, it also focuses on th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vowels. A study by Kim(2004), Paik(2009), and Lee(2017) also approached learners' errors from a contrast-analytical perspective: they just approached diphthongs as a result of differences in individual phonetic systems but did not address the differences in the syllable structure of the Korean and Russian in detail.

As discussed in Roh(2018), how we perceive and produce any certain pronunciation is closely related to the sound system we have. This sound system is composed based on the syllabic structure of the language. Also, each vowel does not exist independently regardless of the other vowels, but rather has a close relationship¹⁾ with the other vowels that make up of the vowel system. In the next chapter we will consider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is discussion.

2. Theoretical Background

The syllable structure shows the combination of consonants and vowels in a language in what form. After the emergence of autosegmental phonology, it was discussed that syllables are stratified. Along the layers of these syllables, syllables are structured with skeletal and segmental tiers. This chapter focuses only on the syllabic structure of vowels of the Russian and the Korean language directly related to this discussion.

2.1 Syllable structure of Korean vowels

The Korean vowel has a structure where one skeleton is connected to the nucleus. The structure in which one vowel is connected to one skeleton is the structure of a monophthong, and the structure in which both a glide and a monophthong are connected sequentially to one skeleton is the structure of a diphthong. These are represented as follows:

- (1) a. structure of a monophthong b. structure of a diphthong
- | | |
|---|--------|
| N | N |
| | |
| x | x |
| | / \ |
| V | G V |

1) For example, there is no front-low vowel in Korea. This goes beyond simply the meaning of lack of vowels with the qualities of [-back, +low], but also shows that there is a phonological mechanism within the Korean vowel system that prevents the two qualities from coexisting.

2.2 Syllable structure of Russian vowels

Russian is a language where a consonant cluster is accepted in onset and coda. Unlike Korean, a glide is structured to an onset in Russian. On the other hand, vowels have a structure where one vowel is only connected to one skeleton, just like the structure of Korean. Therefore, there are no diphthongs. These are represented as follows:

(2)	a. structure of a monophthong		b. structure of a glide
	N		O N
	x		x x
			/ \
	V		C G 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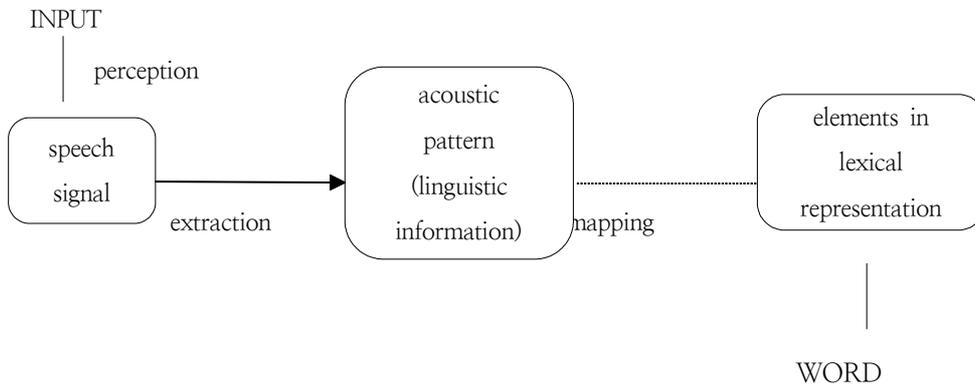
The syllabic structure of the vowel in Russian shows the absence of the diphthong structure. It can be predicted to be a cause of errors when Russian learners acquire diphthongs of Korean. However, a closer look at the structure shows that the sequence of glides and vowels is pronounceable because of the presence of glide in Russian.

In fact, Russian learners can easily acquire pronunciation like [ja] and [ju], which belong to Korean diphthongs, because the glide /j/ is also present in Russian. However, errors occur when the learners perceive and produce the diphthongs related to the glide /w/ in Korean. That is because there is no glide /w/ in Russian and no sequence structure of the glide /w/ and monophthong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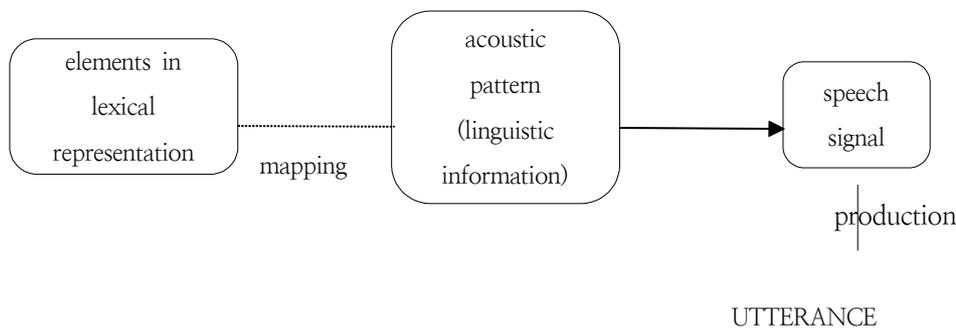
2.3 Element theory

In the preceding studies reviewed in Chapter 1, the method of contrasting and analyzing the vowel system in between Korean and Russian was to compare the articulatory characteristics of the vowel. The traditional way of representing the articulatory characteristics of a vowel is to use [+feature] to indicate each segment by the total of features. However, the way in which the phoneme is presented with these features just describes the phonological phenomenon and does not explain the motivation of the phonological process.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represent segments based on the unary element representation by the element theory, rather than on the binary representation by the distinctive features.

Backley(2011) discussed that while feature theories had been analyzed only by focusing on the articulatory characteristics of speech sounds, element theory can be characterized in that it focused even on the speaker's phonological cognitive processes. Therefore, both the output and input process of speech sounds are important. That is, in addition to the physical articulation of the speaker's speech sounds, the acoustic signal affects input and output. In Backley(2011), the process of language communication is represent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listener and speaker as follows:



The Communication process(hearers) : Backley(2011: 5)



The Communication process(speakers) : Backley(2011: 6)

Elements constitute a segment. All segments are either elements themselves or combinations of elements. For vowel segments, element theory suggests basic three elements as follows(KLV 1985, Harris 1994, Backley 2011). These elements are pronounceable by themselves.

(3)	I : frontness	A : (openness)	U : roundness
	x	x	x
	[i]	[a]	[u]

A vowel which is composed of one element is called a simple vowel. And a vowel which is composed of more than two elements is called a compound vowel. For example, [a] is composed of an element A, [e] or [ɛ] is composed of combination of A and I, and [o] or [ɔ] is composed of combination of A and U. In the case of compound vowels, a segment is composed of a head and an operator. A head means the mayor element of a segment. An operator means the minor element of a segment. For convenience' sake, a head is represented by an underline like in A. The important thing is that a segment which is composed of two head elements is not allowed.

These elements make a vowel system of a language depending on the licensing constraints

affected by parameter of each language. Licensing constraints control the generation of phonological expression, as a part of UG. They define the way in which elements can be combined at the level of lexical structure. They are related to these two factors: what element may be a head, and whether a head can license an operator. These licensing constraints exist in the speaker's recognition system and differences in licensing constraints in each language create different sound system.

Therefore, learning the system of the target language means both learning licensing constraints, which are the principle of composing segments of the target language, and learning the segment system, which are generated by licensing constraints. In addition, differences in licensing constraints between the target language and the mother tongue in this process contribute to errors occurring in the recognition and production of sounds. The vowel system of Korean and Russian based on element theory can be represented as follows.

(4) a. system of Korean vowels

[i]	[a]	[u]	[e]	[o]	[ə]	[ɨ]
x	x	x	x	x	x	x
<u>I</u>	<u>A</u>	<u>U</u>	<u>I</u>	<u>U</u>	∅	∅
∅	∅	∅	A	A	A	∅

b. system of Russian vowels

[i]	[a]	[u]	[e]	[o]	[ɨ] ²⁾
x	x	x	x	x	x
<u>I</u>	<u>A</u>	<u>U</u>	<u>I</u>	<u>U</u>	∅
∅	∅	∅	A	A	∅

3. Error Analysis of Korean Diphthongs for Russian Learners

3.1 Error data

The following error data are found in Russian learners' pronunciation of Korean.

(5) ㅓ → [o]

어디[odi]	거기[kogi]	언니[onni]
너무[nomu]	답다[topˈt'a]	적어요[ʃogojɔ]

(6) — → [i]

증상[ʃinsan]	스무 살[simusal]
------------	---------------

(7) ㅓ → [jo]

여행[johen]	겨울[kjoul]	풍경[pʰungjon]
여자[jodʒa]	달력[talljokˈ]	한 명[mjon]

(8) ㅓ, ㅕ, ㅖ[we] → [e], [ue], [ve]

외대[ede], [uede], [vede]	외할머니[ehalmoni], [uehalmoni], [vehalmoni]
-------------------------	--

2) In Russian, 'И'[i] appears after a soft consonant. It is analyzed that 'ы' [ɨ] after a hard consonant is realized into [i] when followed by the soft consonant because element I in the soft consonant spreads into a vowel.

웬일[enil], [venil]

괜찮아[kentʃ^hana], [kuentʃ^hana]

(9) ㅏ → [a], [ua], [oa], [va]

친구와[tʃ^hingua], [tʃ^hingua]

책상과[tʃ^hek^ːs'anga], [tʃ^hek^ːs'anjuua]

전화[tʃonha], [tʃonhua], [tʃonhoa]

빨리 와[ua], [oa], [ba]

(10) ㅓ → [o], [uo], [uə], [vo]

더워요[toojo], [təujo], [təuəjo], [təvojo]

한 권[kon], [kuon], [kuən]

뭐[mo], [muo], [muə]

(11) ㅣ → [i], [i]

의사 [isa], [isa], [iisa]

3.2 Error Analysis

3.2.1 Error analysis of monophthongs

Errors shown in the example of (5) and (6) are errors of Korean monophthongs, which can be found in the differences between the internal elements that compose the vowels of Korean and Russian respectively. First, it can be analyzed that the errors in (5) are produced by applying the Russian (U, A) structure for the empty head structure: /ɨ/(∅, A) of Korean. And the errors in (6) are the ones that appear when filling the empty head structure of /—/(∅, ∅) of Korean with element I. This can be attributed to the variation in /i/ and /i/ in Russian. In other words, Russian learners can pronounce Korean /—/ as [i] by a positive transfer. However, they sometimes pronounce Korean /—/ as [i] realized into /i/'s variation in Russian. Examples in (6) show that such errors occur especially when vowels are realized after palatal consonants. It can be analyzed that this is caused by the spread of element I, which is a palatal characteristic of consonants.

3.2.2 Error analysis of diphthongs

Now let's take a look at the errors of diphthongs that are the main discussion of this paper. First, the examples in (7) are errors related to diphthongs starting with the glide /j/. In Russian, a glide /j/ is syllabified to consonant and has element I, which is the common feature with the Korean glide /j/. Therefore, Russian learners do not have much difficulty in producing /j/ diphthongs of Korean. Errors shown in the examples in (7) are attributed to differences in internal structure of vowels that follow glide /j/, as analyzed earlier in monophthongs errors, and can be analyzed in the same way as error analysis of monophthongs.

Notable errors are those that appear in (8) to (11). First, errors in (8) are the ones produced into [e], [ue], and [ve] when pronouncing Korean /we/. They can be analyzed as glide deletion, vowel separation and consonant substitution, respectively. These errors are basically based on the difference between the syllabic structure of Korean and Russian. These can be represented as follows:

(12)	/we/		[e]		[ue]
	N		N		N N
	x		x		x x
	/\	→	X\		
	w e		w e		u e
	<u>∅</u> <u>I</u>		U <u>I</u>		<u>U</u> <u>I</u>
	A		A		A

Errors in (9) can be interpreted as the same structure in (12). (9) are errors produced into [a], [ua], [oa], and [va] for Korean /wa/. They can be analyzed also as glide deletion, vowel separation and consonant substitution, respectively. These can be represented as follows:

(13)	/wa/		[a]		[ua]		[oa]		[va]
	N		N		N N		N N		O N
	x		x		x x		x x		x x
	/\	→	X\						
	w a		w e		u a		u a		v a
	U <u>A</u>		U <u>A</u>		<u>U</u> <u>A</u>		<u>U</u> <u>A</u>		U <u>A</u>
					<u>A</u>				

(10) are errors produced into [o], [uo], [uə], and [vo] for Korean /wə/. They can be analyzed also as glide deletion, vowel separation and consonant substitution, respectively. Only the vowel values followed by the glide /w/ are different, and the errors in (10) can be analyzed in the same way as the analyses in (8) and (9). And the interpretation of /ə/ as [o] is the result of interpreting the internal structure of /ə/ in Korean as [o] of the mother tongue, as in error of monophthongs.

Finally, errors in (11) are produced into [i], [i] and [ii] for Korean /ij/. These are the result from the fact that learners could not accept the structure of Korean /ij/, and they interpreted it as vowel deletion and vowel decomposition. These can be represented as follows:

(14)	/ij/	[i]	[i]	[ii]
	N	N	N	N N
	x	x	x	x x
	→			
	/\	X\	/X	
	i j	i j	i j	i j
	<u>∅</u> <u>I</u>	<u>∅</u> <u>I</u>	<u>∅</u> <u>I</u>	<u>∅</u> <u>I</u>

4. Final

So far, based on both differences in syllable structure in between Korean and Russian and the element theory, Korean diphthongs errors by Russian learners are analyzed phonologically. Errors of Korean vowel by Russian learners are due to both differences in the syllabic structure present in these two languages and the internal structure of the vowels, which can be analyzed as a result of the reinterpretation and adjustment process when the target Korean vowels are input to Russian learners.

Reference

Kang, T. S. & Lee, S. M.(2009), *Rusiaeobareumgwagujō*(Russian pronunciation and structure), Seoul: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Press.

Kim, S. J. & Heo, Y.(1999). Licensing Constraint and Korean Vowel System(*Euneohak*) 25, pp55-75.

Kim, S. J. & Heo, Y.(2006), *Teaching Pronunciation of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Seoul: Pagijung.

Kim, A.(2008), *Teaching method of Korean pronunciation for Russian native speakers*, Master Dissertation,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Kim, I.(2016), *Study on the Korean language pronunciation errors of the Russian speakers*, Master Dissertatio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im, Kh. S.(2004), *Analysis of some problems of Korean pronunciation learning by Russian speakers*, Master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Roh, Ch. H.(2018), *An Error Analysis of Korean Monophthong by Mongolian Learners -Based on Element Theory-(Journal of the International Network for Korean Language and Culture)* 15-3, pp113-133.

Paik, S. Y.(2009). *Study on Teaching Korean Pronunciation for Russian Speakers*. Ph. D. Dissert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Yoon, Y. H.(2005). *Study of interlanguage phonology found among Korean learning Russians*, Master Dissertatio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Lee, M. J.(2007), *Reosiaeuigujo*(The structure of Russian) Seoul: Bogosa.

Lee, J. H.(2017), *A Comparative study on the Pronunciation of Korean Monophthongs by Russian Learners of Korean*, Master Dissertation, Kunsan National University.

Cho, N. S. & Park, S. B.(2017), *Introduction to Russian linguistics*, Seoul: Hankookmunhwasa.

Anderson, J, M. & Colin J. E.(1987), *Principle of Dependency Phon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Backley, P.(2011). *An Introduction to Element Theory*, Edinburgh

Schane, S. A.(1984) *The Fundermentals of Particle Phonology*, *Phonology Yearbook* 1, pp. 129-155.

한국어 지시어 ‘이’, ‘그’의 선택 기준 제시 -러·한 번역 사례를 중심으로-

함계임(한국외대 언어연구소)

1. 서론

본 연구에서는 지시대명사가 2개인 언어에서 지시대명사(혹은 지시어)가 3개인 언어로 번역할 때 어떻게 번역할 것인지 그 기준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지시대명사가 2개인 언어는 러시아어로, 지시대명사가 3개인 언어는 한국어로 선택했다.

러시아어의 ‘ЭТОТ’은 영어의 ‘This’의 개념이다. 러시아어의 ‘ЭТОТ’이 한국어로 번역될 때는 상황에 따라 ‘이’ 혹은 ‘그’로 번역이 된다. 그 선택 기준은 형태적, 상황적으로 다양하다. 하지만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상황을 느낌만으로 선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외국인 학습자에게 한국인과 똑같은 상황 인지를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형태적 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직접 수업을 진행했던 한국 소개 자료¹⁾를 바탕으로 러시아어 ‘ЭТОТ’의 번역을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고 필요에 따라서는 연구자 임의로 만든 문장도 사용해서 번역 기준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본 연구의 자료의 문장들은 현재형 혹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고, 주어는 1인칭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다양한 형태적 상황을 가정해서 기준을 제시해야하기 때문에 자료에 없는 형태적 부분에 대해서는 임의로 만든 문장을 사용했다.

2. 지시어 ‘이’, ‘그’의 의미와 사용 양상

한국어에서의 ‘이’, ‘그’는 지시 관형사이고 ‘이것’, ‘그것’은 지시 대명사이다. 단어 뒤에 오는 품사에 따라 의존명사나 명사가 오면 지시 관형사로, 조사가 오면 지시 대명사가 된다. 단어의 성질은 다르지만 앞, 뒤 내용을 대용한다는 기능은 동일하다.

러시아어 품사는 ‘관형사’가 없기 때문에 ‘ЭТОТ’은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해도, 수식어의 역할을 해도 모두 지시 대명사로 분류된다. 이용권(2013)에서도 러시아어 지시대명사 ‘ЭТОТ’이 한정어의 역할 즉 한국어의 관형어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주어나 목적어의 역할도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품사와 관계없이 지시와 대용 기능에 초점을 두어 ‘지시어’라고 하도록 하겠다.

2.1 한국어에서의 ‘이’, ‘그’의 의미와 사용 양상

국어 문법 연구에서 ‘이’와 ‘그’의 연구는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왔다. 초기에는 거리를 중심으로 분류하는 연구(근칭, 원칭, 중칭)가 진행되었고 점차 심리적, 담화적, 화용적 사용에 대한 연구로 확대되어 갔다.

장경희(1980)에서는 실제적 위치와 심리적 위치가 원근 개념에 작용한다고 했다. 공식적 담화 상황이나 문어, 일방적 담화에서는 ‘이’가, 사적 담화나 상호 담화에서는 ‘그’가 자주 사용되며, 화자만 아는 상황에서는 ‘이’가 화, 청자가 아는 상황에서는 ‘그’가 사용된다고 했다. 서정수(1994)에서는 ‘이’는 앞의 문맥에서 나온 것을 좀 더 가까이 느낄 때나 그렇게 강조하고 싶을 때, ‘그’는 다소 멀리 느껴지거나 먼 문맥에 나온 경우, 지나간 문맥의 선행 요소를 가리킬 때로 나누고 있으며 ‘이’와 ‘그’의 선택은 지극히 주관적이며 명확하지 않다고 하고 있다. 조은경·한영균(2009)에서는 사전 표제어를 대상으로 조음 방법에 따라 즉 문맥 조음²⁾이나 상황 조음이나에 따라 ‘이’만 혹은 ‘그’만 혹은 ‘이’와 ‘그’를

1) 본 연구의 자료는 한국 소개 자료로서 한국 관광 공사의 <http://www.visitkorea.or.kr> 에서 러시아어로 작성된 한국 소개 자료와 국제 교류 재단이 제작한 한국어(초급)의 한국 소개 자료(한국어(초급), 2006, 국제교육진흥원)를 사용하였다.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이’와‘그’가 모두 가능하지만 그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 기준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조은경·서상규·서정연(2006)에서는 공적 장르의 글에서 ‘그’가 사용되는 상황을 제시하였다. 인접지시와 비인접지시로 나누었는데 인접지시는 지시 대상과 지시어가 나란히 있는 경우이고 비인접지시는 지시 대상이 분명 있으나 바로 앞에 위치하지는 않은 것을 말한다. 비인접지시일 때 선,후행어의 분포 범위, 선행어의 형태, 선행어의 의미와 술어 등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민경모(2008)은 한국어 지시사의 전반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본 연구다. 문어와 구어에서의 지시어 ‘이’, ‘그’, ‘저’를 지시 대상의 참조 종류(문맥참조, 상황참조)에 따라 참조의 방향(선행조응, 후행조응)등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본 종합적 연구라 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지시어의 화용적 기능에 대한 연구(서경희(2001), 이정애(2002))와 문법화 관점(박근영, 2006)에서의 연구 등도 있었다.

위의 여러 연구들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다음 <표1>과 같다.

<표1> 한국어 지시어 ‘이’와 ‘그’의 사용 상황

‘이’	‘그’
주관적 판단이 있음	주관적 판단이 없음
화맥 참조에 집중적으로 사용	문맥 참조에 집중적으로 사용
발화시와 사건지의 거리감이 짧음(현재)	발화시와 사건지의 거리감이 김 (먼 과거,미래)
신정보(화자만 아는 정보)	구정보 (화,청자가 모두 아는 정보)
후행조응,선행조응	선행조응

2.2 러시아어에서의 ‘ЭТОТ’의 의미와 사용 양상

러시아어의 지시 대명사는 ‘ЭТОТ’과 ‘ТОТ’이다. 영어의 ‘This’와 ‘That’과 유사하다. 대부분 러시아어 문법 관련한 연구에서 ‘근칭’과 ‘원칭’으로 설명하고 있다. 러시아-한국어 사전(고려대학교 러시아 문화 연구소 편)에서는 ‘ЭТОТ’을 ‘이’와 ‘그’로 ‘ТОТ’을 ‘그’와 ‘저’로 번역하고 있다. ‘그’는 ‘ЭТОТ’과 ‘ТОТ’ 모두로 번역할 수 있다.

정정원(2016)에서는 담화 지시 기능을 가장 무표적인 대명사가 하게 되는데 한국어와 영어에서는 ‘그’와 ‘that’이, 러시아어에서는 ‘ЭТОТ’이 담당한다고 하고 있다. 즉 한국어에서는 ‘그’가, 러시아어에선 ‘ЭТОТ’이 무표적 지시 대명사인 것이다. 특히 러시아어에서는 근칭 지시 대명사 ‘ЭТОТ’의 사용 빈도가 압도적으로 우세하다고 보고 있다. 김명자(2000)에서는 ‘ЭТОТ’의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우선 ‘ЭТОТ’이 전경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화자만 알고 있는 대상을 지시할 때 사용된다고 하고 있다. 화자의 관점을 나타내고 있으며 지시 대상은 몇 문장 앞 까지도 지시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한국어의 ‘이’에 대한 설명과도 상당히 유사하다. 이 연구에서 주장하는 ‘ЭТОТ’의 특이한 성질은 화제이동에도 사용된다는 것이다. 이미 언급된 소재 중 주목 받지 못하던 소재(내용)로 관심 변경, 화제 전환 시 사용된다는 것이다.

러시아어의 근칭과 원칭에 대한 연구에 대해 정리해 보면 다음<표2>와 같다.

2) 문맥조응은 지시 대상이 지시어 앞, 뒤에 나타나 있어 지시어가 그 지시 대상을 가리키는 것이고 상황조응은 지시 대상이 지시어 앞, 뒤에 나타나 있지 않고 상황이나 맥락을 지시하기 위해 지시어가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표2> 러시아어 지시어 ‘Этот’의 근칭, 원칭 사용 상황

근칭(‘Этот’)	원칭(‘Этот’)
화자의 주관적 관점 (화자의 감정이입 대상) 발화하거나 관찰하는 화자의 시간과 근접(현재) 직접인용 발화 신정보, 구정보 화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전경)	화자의 객관적 관점(화자 관점 밖) 화자의 시간과 일정한 간격을 둔 시점에서 일어난 사건(과거) 구정보 화자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배경)

2.3 한국어와 러시아어의 지시어 대조

러시아어와 한국어 모두 ‘근칭’과 ‘원칭’을 사용하는 상황은 유사하다. 두 언어의 지시어에 대한 비교를 해 보면 다음 <표3>과 같다.

<표3> 한국어와 러시아어의 지시어 비교

	공통점		차이점
	근칭	원칭	
러시아어	주관성이 강함(화자의 개입) 현재, 현재와 가까운 시간 신정보(화자만의 정보) 전경	객관성이 강함(화자 개입 없음) 과거, 미래, 현재와 먼 시간 구정보 (화자, 청자 공유 정보) 배경	근칭은 넓은 범위까지 지시 가능/ 원칭은 바로 앞까지만 지시 가능
한국어			‘그’사용 빈도가 높음 근칭은 가까운 범위, 원칭은 먼 범위까지 지시 가능

3. 러시아어 Этот의 번역어 선택 기준

3.1 선행조음/ 후행조음

‘Этот’이 지시하는 대상이 ‘Этот’을 기준으로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에 따라 ‘Этот’의 번역이 달라진다. 즉 선행조음인지 후행조음인지에 따라 ‘이’를 쓰지 ‘그’를 쓰지를 결정할 수 있다.

- 1) a. Чусок в Корее считается символом изобилия. Поэтому в этот день готовят различные блюда.
(한국에서 추석은 풍요의 상징이다. 그래서 그 날 다양한 음식을 준비한다)
- b. Секрет такой популярности кроется в том, что на этом рынке можно вкусно и дешево поесть необычные уличные закуски.
(인기의 비밀은 그 시장(강통시장)에서 싸고 맛있는 길거리 음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 c. В этой статье мы расскажем вам о том, как можно экономично путешествовать по морскому городу Пусану.
(이 기사에서는 어떻게 해양 도시 부산을 경제적으로 여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한다.)

1(a)의 этот의 지시 대상은 ‘추석’으로 지시 대상의 위치가 선행문장에 있다. 1(b)의 경우 этом의 지시 대상은 ‘강통 시장’으로 제시된 문장보다 몇 문장 앞에 나타나고 있다. 1(c)의 경우этой는 선행 문장에 지시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후행문장에 그 내용(지시 대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 내용은 부산의 경제적인 여행방법인 것이다. 1(a,b)예문에서 보면 선행조응인 1(a)와 1(b)는 상황에 따라 ‘이’ 혹은 ‘그’를 사용하고 있지만 후행조응인 1(c)의 경우는 ‘이’로만 사용됨을 알 수 있다.³⁾

3.2 주어 생략

러시아어에서 주어의 자리에 это가 지시 대명사로 사용된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2) a. Как уже было отмечено, Чхусок - это один из трёх самых главных празднико в Кореи, наряду с Новым годом по лунному календарю Соллаль и праздником Тано, который отмечается в честь завершения весенних полевых работ.

(이미 말한 것과 같이 추석은 음력 새해인 설날과 봄철 농사일을 마친 것을 기념하는 단오와 함께 한국의 3대 명절이다.)

b. Ещё одно необычное место, куда стоит заглянуть на Инсадоне - это музей кимчи «Кимчиган» (인사동에 볼만한 특별한 장소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김치박물관이다)

2(a)와 2(b)는 한국어와 다른 러시아어의 문장 형태인데 ‘-’을 이용해서 선행 내용을 설명할 때 사용한다. 보통은 선행은 명사나 명사절로 끝나고 서술어 대신 ‘-’을 사용하며 후행과 연결할 때 사용한다. 즉 선행 어휘와 후행의 어휘는 같은 것이 되므로 후행의 어휘(여기서는 지시 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하다. 2(a)의 это가 가리키는 것이 ‘-’앞에 있는 추석이다. 선행은 문장의 형태가 아니므로 это를 선행 명사로 받아 번역하면 된다. 2(b)의 경우는 это가 가리키는 것은 ‘인사동의 가 볼만한 특별한 장소’이다. 이것 역시 ‘이’나 ‘그’로 해석하기 보다는 지시 대상을 바로 주어로 해서 번역할 수 있다. 2(a)와 2(b) 모두 ‘-’를 사용한 문장으로 번역시에는 굳이 ‘이’나 ‘그’로 번역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럽다.

3.3 시제

2장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한국어나 러시아어 모두 발화시와 사건시의 시간적 거리가 짧은 경우 ‘근칭’ 지시어를 사용하고 있고 발화시와 사건시의 시간적 거리가 긴 경우 ‘원칭’ 지시어를 사용하고 있다. 발화시와 사건시의 시간 간격이 짧은 경우는 현재를 말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과거 혹은 미래를 말하는 것이다.

3) a. Обычно рукопожатия распространены среди мужчин, но при этом младший никогда не может первым подать руки старшему.

(보통 남자들 사이에서의 악수는 일반적이지만 그럴 때 나이 어린 사람이 윗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지는 않는다)

b. С начала весны до осени здесь предоставляем условию для игры в гольф, а на территории комплекса, нам можно насладиться катанием на горках Mountain Coaster и санках, канатной дороге и другими экстремальными увлечениями. Этот период идеально подходит для прогулок и поднятия

3) 한국어의 연설 담화문과 같이 청자와 상호 작용이 없는 발화의 경우 ‘이’가 후행조응으로 자주 사용되고 있다. ((예)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올해 경제 성장률이 3%나 증가했습니다.) 물론 담화 상황에서 후행 조응은 ‘그’가 사용되고 있지만 본 연구는 문어 중심이며 청자와 적극적 상호작용이 없는 경우에 한하기 때문에 ‘이’가 후행 조응 단독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в горы.

(우리는 봄부터 가을까지 여기에서 골프를 칠 수 있고 리조트 내에서 마운틴 코스터나 썰매, 그 밖의 무서운 놀이기구를 탈 수 있다. 이 시기에 (우리가)등산하거나 산책하기에 좋다.)

с. Корейцы глубоко верят, что их праоцом является великий Танкун, и эта вера сыграл роль огромной даижушей силы, которая позволяла позволяет корейскому народу сохранить своё единство и самобытность, несмотря ни на какие испытания.

(한국인들은 자신의 선조인 단군을 굳게 믿고 있다. 그 믿음은 어떠한 고난에도 한국인의 독립성과 단일성을 지킬 수 있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

d. 학창시절에 항상 인기가 많은 아이였다. 외로울 때 마다 그때가 그리웠다.

e. 요즘 요가를 배웠다. 머리가 아프면 그것을 해 보려고 한다.

f. 친구가 결혼식에 입을 옷을 샀다. 그 옷을 입으면 예쁠 것이다.

3(a)의 경우 지시어를 포함한 절(후행절)의 시제는 현재이고 후행용언은 동사이다. 지시어 *этом*은 선행절의 약수를 대용하고 전치사 *при* 와 함께 사용되어 ‘그럴 때’로 번역되었다. 3(b)의 경우는 선행문장의 ‘봄부터 가을까지’를 지시어 *Этот период*으로 대용하고 있으며 ‘이 시기’로 번역되었다. 3(a)와 3(b)는 지시어 포함 문장이 현재의 동작, 혹은 현재의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로 ‘이’ 혹은 ‘그’가 지시어로 사용됨을 알 수 있다. 3(c)의 경우 지시어 *эта*가 선행절의 단군에 대한 굳은 믿음을 대용하고 있다. 전체 문장의 시제는 과거형이고 이때 *эта*는 ‘그’로 번역되고 있다. 3(d)는 후행문의 ‘그 때’는 선행문의 ‘학창시절’을 대용하고 있다. 지시어 ‘그’가 포함된 후행문의 시제는 과거이다. 이때 지시어는 ‘그’로 번역되었다. 3(c)와 3(d)의 경우는 지시어 포함 문장 혹은 절이 과거형인 경우로 ‘그’로 번역이 되었다. 3(e)는 선행문장의 요가를 후행문장의 지시어 ‘그’가 대용하고 있다. 후행문장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표현이다. 3(f) 문장은 후행문의 지시어 ‘그’가 선행문의 ‘친구가 산 옷’을 대용하고 있다. 후행문장은 미래의 일을 추측하고 있다. 3(e), 3(f)의 경우 지시어가 포함된 문장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것을 표현하고 있고 지시어는 ‘그’로 사용되고 있다.

위의 예문들을 통해서 발화시와 최대한 가깝거나 일치하는 현재의 경우에는 ‘이’ 혹은 ‘그’로 선행 대용을 하지만 발화시를 기준으로 사건시가 차이가 날수록 즉 과거나 미래표현의 경우 ‘이’의 사용은 없고 ‘그’로만 사용됨을 알 수 있다.

3.4 주관성

3.3의 결과에 따르면 과거와 미래표현의 경우 지시어 포함 문장(절)의 서술어 품사와 상관없이 ‘그’만 사용되나 현재표현의 경우 지시어 포함 문장(절)의 서술어 품사에 따라 ‘이’ 또는 ‘그’가 사용됨을 알 수 있었다. 지시어 포함 문장(절)이 현재인 경우 어떤 상황에서 ‘이’나 ‘그’를 선택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2장에서 살펴 본 대로 지시어 ‘이’와 ‘그’를 변별하는 특징 중 한국과 러시아의 많은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주관성’을 들고 있다. ‘이’의 경우는 주관성이 강하고 ‘그’의 경우는 주관성이 약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주관성’이란 화자가 문장 해석에 개입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이다. ‘주관성’판정에 대한 기준은 함계임 (2017)에서 제시하고 있다. 함계임(2017)에 따르면 주관성 판단의 기준은 서법, 주어, 서술어로 보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서법은 화자의 의지가 담긴 서의법, 주어는 1인칭, 서술어는 형용사 서술어인 경우 주관성이 높다고 하고 있다. 주관성 판단 기준은 서법, 주어, 서술어의 순서이다.

위에서 제시한 예문 3(a,b)를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다.

3) а. Обычно рукопожатия распространены среди мужчин, но при этом младший никогда не может первым подать руки старшему.

(보통 남자들 사이에서의 악수는 일반적이지만 그럴 때 나이 어린 사람이 윗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지는

않는다)

b. С начала весны до осени здесь предоставляем условием для игры в гольф, а на территории комплекса, нам можно насладиться катанием на горках Mountain Coaster и санках, канатной дороге и другими экстремальными увлечениями. Этот период идеально подходит для прогулок и поднятия в горы.

(우리는 봄부터 가을까지 여기에서 골프를 칠 수 있고 리조트 내에서 마운틴 코스터나 썰매, 그 밖의 무서운 놀이기구를 탈 수 있다. 이 시기에 (우리가)등산하거나 산책하기에 좋다.)

3(a)의 경우 후행문의 서술어 *подать руки*(손을 내밀다)로 동사이면서 서법은 서실법이다. 위의 주관성 측정 기준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다. 즉 주관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현재 시제지만 서술어가 동작동사인 경우 주관성 없음으로 판단되어 지시어 선택에서 ‘그’를 선택하게 된다. 3(b)의 경우 지시어포함 문장의 서술어 *идеально подходит*(이상적으로 어울리다 → 잘 어울리다)는 주어와의 호응 관계를 고려하면 한국어에서는 ‘이상적이다’ 정도가 가능하다. 도착어 번역기준으로 하면 ‘이 시기는 ~ 시기이다’의 문장 형태를 취하게 된다. 지시어 포함 문장의 서술어가 도착어에서는 ‘N이다’로 형용사적 성질을 자기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 때 지시어는 ‘이’를 선택하게 된다.

지시어 포함 문장(절)이 현재형이면서 서술어가 형용사(혹은 상태성 용언)⁴⁾일 때 ‘이’를 사용한다고 가정하고 자세한 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본 연구는 도착어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 설정에 필요한 예문⁵⁾들은 원어 자료 없이 한국어의 예문만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지시어가 포함된 후행 서술어는 형용사(혹은 상태성 용언)이고 선행 서술어도 형용사인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4) a. 한국의 겨울은 춥다. 하지만 러시아 사람들에게는 그런 날씨가 춥지 않다.
- b. 한국의 겨울은 춥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날씨가 춥지 않다.
- c. 나는 공포영화가 좋다. 나는 이런 무서운 영화가 재미있다.
- d. 나는 수학이 재미있다. 하지만 보통은 그 과목이 쉽지 않다.

위의 문장들은 후행서술어와 선행 서술어가 모두 형용사인 경우이다. 4(a)의 경우는 선행 주어가 3인칭, 후행주어도 3인칭인 경우이다. ‘그’를 사용하여 선행절의 ‘겨울은 춥다’를 대용하고 있다. 4(b)의 경우는 선행 주어는 3인칭, 후행 주어는 1인칭인 경우로 역시 ‘그’를 지시어로 선택하고 있다. 4(c)의 경우는 선행주어와 후행주어가 모두 1인칭인 경우로 ‘이’를 사용하고 있다. 4(d)는 선행주어는 1인칭 후행 주어는 3인칭이다. ‘그’를 사용해서 선행의 ‘수학’을 대용하고 있다.

위의 문장들을 살펴 본 결과 선행과 후행의 서술어가 모두 형용사인 경우에 주어의 인칭과 일치여부에 따라 지시어 선택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선행 주어와 후행 주어는 모두 1인칭인 경우에만 ‘이’가 사용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사용되었다. 여기서 주관성 판단 기준 중 하나인 1인칭 주어일 때 주관성이 개입된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대용 대상이 있는 선행문의 술어가 동사인 경우이다.

- 5) a. 운동선수들은 매일 5시간 씩 운동을 한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어렵다.
- b. 운동선수들은 매일 5시간 씩 운동을 한다. 그들에게는 어렵지 않다.
- c. 나는 단어를 매일 100개 씩 외운다. 나는 이것 때문에 다른 일을 하기가 어렵다.
- d. 나는 단어를 매일 100개 씩 외운다.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

4) 형용사가 아닌 상태성 용언이란 ‘-이다’와 ‘-있다/없다’를 말하는 것이다.

5) 지시어 포함 절이나 문장의 시제가 현재이면서 용언의 품사가 동사가 아닌 경우를 기준으로 주어의 인칭, 용언 품사의 분류를 다양하게 가정해 본 문장들을 말한다.

위의 문장들은 선행문장의 술어가 동사이고 지시어가 있는 후행문의 술어는 형용사이다. 앞선 경우와 마찬가지로 선행, 후행 주어의 인칭이 일치, 불일치를 시켜 보았다. 5(a)는 선행문의 주어는 3인칭, 후행문의 주어는 1인칭으로 '매일 5시간 씩 운동을 하다'를 대용하는 지시어로 '그렇게'를 사용하고 있다. 5(b)는 선행주어와 후행주어가 동일인으로 모두 3인칭의 경우다. 역시 '그'를 사용하고 있다. 5(c)는 선행 주어와 후행 주어 모두가 1인칭의 경우다. 선, 후행 주어 1인칭 동일인의 경우 '이'를 사용하고 있다. (d)는 선행 주어 1인칭, 후행 주어 3인칭의 경우로 그럴 때는 '그'를 사용하고 있다.

선행 용언이 동사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선행문과 후행문의 주어 모두가 1인칭인 경우 '이'를 사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그'를 사용함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은 동사와 형용사의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는 '있다'가 선행문의 서술어로 사용된 경우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밝히고 있는 '있다'의 의미는 동사로서의 '있다'는 "어느 곳에서 떠나거나 벗어나지 않고 머물다"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다. 형용사로서의 '있다'는 다양한 의미가 있었지만 '존재'와 '소유'의 의미가 대표적이었다.⁶⁾

아래 (6)의 문장들은 동사로 사용된 '있다'이다. 모두 '장소+에'와 함께 쓰여 '특정 장소에서 머물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 6) a. 나는 제주도에 있다. 이곳은 너무 아름답다.
 b. 나는 제주도에 있다. 나는 이곳이 좋다.
 c. 친구들이 제주도에 있다. 요즘 그곳의 날씨가 좋다. (3-3)
 d. 친구들이 제주도에 있다. 나도 그곳에 가고 싶다.

6(a)는 1인칭 주어인 '내'가 제주도에 있다는 것이 선행문에, 제주도를 대용하는 '이'가 후행문에 나타난다. 선행과 후행의 주어의 인칭이 일치하지 않지만 '이'를 사용하고 있다. 6(b)는 선행문에 1인칭 주어인 '내'가 제주도에 있고, 후행문에서 주어는 1인칭이며 제주도를 '이곳'으로 대용하고 있다. 6(b)의 경우는 선행문과 후행문의 주어 1인칭으로 주어 일치치를 보이고 있다. 6(c)는 선행문의 주어는 3인칭이고 후행문의 주어도 3인칭이나 동일 주어는 아니다. 후행문에서는 '제주도'를 '그'로 대용하고 있다. 6(d)는 선행문의 주어는 3인칭, 후행문의 주어는 1인칭으로 지시어 '그'를 사용하고 있다.

동사로 사용된 '있다'의 경우에는 선행 주어 1인칭이면 후행 주어의 인칭에 상관없이 '이'를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선행에서 화자가 현재 존재하는 공간이 어디인지를 알리고 후행에서는 화자가 존재하는 공간의 주어가 반드시 1인칭이 아니더라도 의미적으로 현재, 화자가 있는 곳이라는 것이 전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선택할 수 있다고 보인다.

다음은 '있다'가 형용사로 사용되어 '존재'와 '소유'의 의미를 가진 경우이다.

- 7) a. 나는 초능력이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이 없다.
 b. 나는 친구가 많이 있다. 나는 이것을 자랑하고 싶다.
 c. 내 친구들은 예의가 없다. 나는 그것이 부끄럽다.
 d. 내 친구는 돈이 없다. 하지만 그 친구의 아버지는 돈이 많다.

7(a)는 선행문의 주어는 1인칭이고 후행문의 주어는 3인칭으로 후행문에서 '초능력'을 대용하기 위해 '그'를 사용하고 있다. 7(b)는 선행문과 후행문의 주어 모두가 1인칭으로 '친구가 많은 것'을 '이'로 대용하고 있다. 7(c)는 선행문의 주어는 3인칭, 후행문의 주어는 1인칭으로 '예의 없음'을 '그'로 대용하고 있다. 7(d)는 선, 후행문의 주어 모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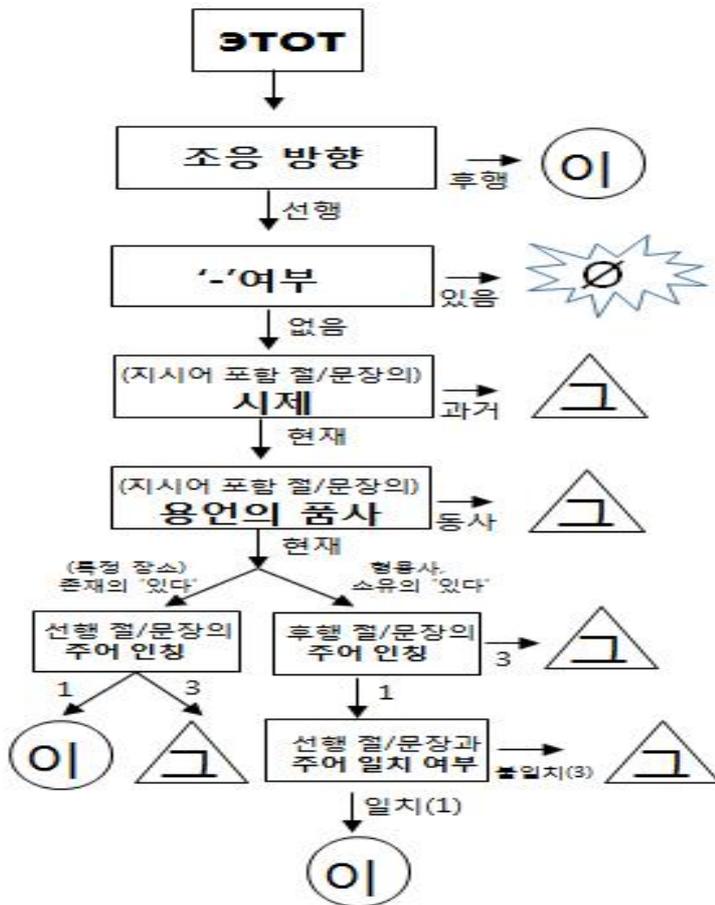
6)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동사로 사용되는 '있다'는 모두 3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 중 하나가 '특정 장소에서 벗어나지 않고 머물다'의 의미였고 예문은 "내일 점심에 집에 있는다고 했다"와 "내일 갈 테니 학교에 있어라"로 모두 '장소명사 + 에'와 함께 사용되고 있었다. 형용사로 사용되는 '있다'는 모두 6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 중 '존재'와 '소유'의 의미가 있었다. 예문은 '존재'의 경우 "신이 있다고 믿는다", "기회가 있다" 등이며 '소유'의 경우 "나에게 1000원이 있다", "이 물건은 주인이 있다" 등이 있었다.

3인칭이나 일치하지는 않는다. ‘내 친구’를 후행문에서 ‘그’로 대용하고 있다.

(7)의 예문들은 형용사로 사용된 ‘있다’의 경우이다. 이 경우는 선행문과 후행문 모두 1인칭 주어인 경우에만 ‘이’를 사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위의 (4)의 선행문의 서술어가 형용사인 경우와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해 보면 주관성 판단 기준인 서술어의 종류와 인칭으로 ‘이’와 ‘그’의 선택 상황을 살펴본 결과, 지시어 포함 문장(절)의 용언이 형용사나 특정지역에 머문다는 의미의 동사 ‘있다’의 경우 주관성이 강한 ‘이’가 선택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대용의 대상이 포함된 문장(절)의 서술어 품사는 지시어 선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선, 후행 주어의 인칭은 모두 1인칭일 때 ‘이’가 선택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모두 ‘그’가 선택되었다. 주관성 판단 기준에 따라 화자의 해석 개입이 가장 강한, 즉 주관성이 강한 경우는 화자 자신이 주어 혹은 주체가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 ‘이’가 선택되었다.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과 그 결과를 도식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1]과 같다.



[그림1] ‘이’와 ‘그’의 판별도

[그림1]에서 보면 ‘이’를 사용하는 경우보다 ‘그’를 사용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민경모(2008)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내용이다. 민경모(2008)에서도 한국어 문어와 구어 모두에서 ‘그’가 ‘이’보다 더 많이 사용되고 있고, 화맥참조⁷⁾를 제외한 문맥참조, 상맥참조, 연결참조에서 모두 ‘그’의 사용이 더 많다고 하고 있다.

7) 텍스트나 담화 안에 참조대상이 없고, 실물로 그 대상이 존재하는 경우

3.5 어휘

현재성과 주관성을 기준으로 ‘이’와 ‘그’의 판단 기준을 선정함에 있어서 <그림1>의 결과와 다소 다른 모습을 보이는 예가 발견이 되었다.

8) a. Здесь находятся 30 склонов, среди которых есть самый длинный в Корее.

Ежегодно в это место приезжает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лыжников и сноубордистов.

(사전에 리조트에 관한 내용이 있었음) 여기에 30개의 슬로프가 있는데 그 중에는 한국에서 가장 긴 것도 있다. 매년 이곳에 많은 수의 스키어와 스노우보더들이 온다)

b. Хванун дал им по стебельку чудодейственной поппыни и по 20 чесночин и сказал, что если они съев это ,проведут сто дней, не выходя из пещеры, то смогут обрести людскойоблик.

(환웅은 호랑이와 사자에게 기적의 쑥 줄기와 마늘을 주면서 만일 이것을 다 먹고 굴 밖으로 100일 동안 나오지 않는다면 사람의 모습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8(a)문장은 선행 서술어는 존재의 ‘있다’이고 후행 서술어는 동사이다. <그림1>에 따르면 ‘в это место’를 ‘그곳에’로 번역해야 하지만 ‘이곳’으로 번역하였다. 그 이유는 선행문에 나타난 ‘여기’(Здесь)라는 단어 때문이다. 많은 스키어들이 오는 곳이 현재 대상이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조건들이 맞지 않아도 ‘이’를 선택할 수 있었다.

8(b)의 경우, 선행절의 쑥 줄기와 마늘을 후행절에서 지시어로 받았다. 후행절의 시제는 동사 현재형으로 <그림1>에 따르면 ‘그’로 번역해야 하지만 ‘이’로 번역하였다. 위의 문장은 간접화법 문장으로 발화 내용을 실제로 위의 말을 하고 있는 순간처럼(직접화법) 표현하고 있다. 직접 화법을 간접 화법으로 바꿀 때에는 문장의 종류와 주체가 되는 일부 대명사(나->자기)만을 변형시키고 다른 부분은 그대로 사용한다. 따라서 “너희들은 이것을 다 먹고 100일 동안 굴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사람의 모습을 가지게 될 것이다”를 간접화법으로 바꾸어서 위의 (8b)로 만든 것이다. 이때 ‘이것’은 간접화법을 바꿀 때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번역할 때도 발화 당시의 상태로 번역해야 한다.

위의 (8)문장들은 <그림1>의 기준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함께 사용된 어휘가 현재성, 현장성을 가지고 있거나 간접화법에서 발화 당시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그’가 사용되는 상황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다.

4. 결론

이 연구는 지시어가 2개인 언어에서 3개인 언어로 번역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 3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지 기준을 제시하고자 했다. 관찰 대상 언어는 러시아어였고 러시아어의 지시어 Этот이 한국어로 번역될 때 ‘이’로 번역되는 경우와 ‘그’로 번역되는 경우를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어만의 독특한 문장유형인 ‘-’의 번역 오류가 자주 나타났다. ‘-’은 앞선 단어를 그것을 설명하는 문장과 연결해 준다는 표시이다. 한국어에는 없는 문장형태이다. 그래서 ‘-’의 번역 대응을 찾기가 어려웠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단어를 주어로 후행문장을 서술부로 하여 번역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즉 ‘-’ 이후에 나타나는 Это는 ‘이’나 ‘그’ 어느 것으로도 번역하지 않는 것이다.

‘이’와 ‘그’의 선택기준은 연구자마다 여러 기준을 제시했지만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에게는 상황적이고 추상적인 선택기준은 어려움을 가중시킬 뿐이다. 그래서 여러 선택 기준 중 형태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을 중심으로 다루면서도 ‘이’와 ‘그’가 가진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그 기준은 조음 방향과 시간성, 주관성이었다. 조음 방향은 지시 대상이 포함된 문장이나 절의 위치로 지시 대상이 뒤에 오면 항상 ‘이’를 사용함을 알 수 있었다.

조음방향이 앞, 즉 선행이면 지시어가 포함된 문장의 시제를 확인하여 현재이면 ‘이’, 현재가 아니면 ‘그’를 선택하게 된다. 이것은 ‘이’의 근접조음성과 관련이 있다. 시간적으로 근접한 것은 현재이기 때문이다.

현재시제 서술어를 가진 경우 모두 ‘이’를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시어가 포함된 문장(절)의 서술어 품사를 확인해

박야 한다. 서술어 품사가 동사이면 ‘그’가 되었다. 이것은 ‘이’가 주관성이 강하기 때문이다. 주관성 판별 기준에 의거, 서술어 품사가 형용사이면 주관성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술어가 동사이면 주관성 반영 여지가 사라지고 객관성을 확보하게 되므로 ‘그’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지시어 포함 문장(절)이 동사가 아닌 경우는 특정 장소에 머문다는 의미의 ‘-에 있다’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야 한다. ‘-에 있다’는 특이하게 선행절의 주어 인칭에 따라 지시 대상 포함 문장(절)의 주어가 1인칭이면 후행의 인칭에 관계없이 ‘이’를 사용하고 그 밖의 인칭인 경우는 ‘그’를 사용한다.

지시어 포함 문장(절)이 형용사이거나 존재나 소유의 의미의 ‘있다’의 경우는 지시 대상 포함 문장(절)의 주어 인칭에 따라 선택이 달라진다. 지시어 포함 문장(절)의 인칭이 3인칭이면 ‘그’, 1인칭이면 지시 대상 포함 문장(절)의 주어도 1인칭, 즉 1인칭 주어로 주어가 일치하면 ‘이’ 그렇지 않으면 ‘그’가 된다.

그러나 현재성을 나타내는 어휘나 말하는 당시의 모습을 나타내는 간접화법의 경우는 이런 규칙과 관계없이 ‘이’를 사용하기도 했다.

이렇게 형태적인 것을 기준으로 변별기준을 제시한 것이 실제 한국인의 담화상황과 완전 일치를 한다고 말하기는 무리가 있다. 한국인들은 본고에서 제시한 선택 기준 이외에도 다양한 담화 상황, 보이지 않지만 인지되는 분위기 등도 고려하여 ‘이’나 ‘그’를 선택하기도 한다. 하지만 외국인 학습자에게는 최소한의 형태적 기준 제시가 절실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는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에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이용권(2013) 편역 정통 러시아어 문법 형태론, 신아사, 서울
- 장경희(1980) 지시어 이, 그, 저의 의미 분석, 어학연구 16-2, 서울대 어학연구소, 167-184
- 서정수(1994) 국어문법, 한세본
- 조은경·한영균(2009) 사전 뜻풀이에서의 이것, 저것, 그것의 쓰임 분석, 한국어 의미학 29, 한국어 의미학회, 229-250
- 조은경·서상규·서정연(2006) 언어31-1, 한국언어학회, 143-163
- 민경모(2008) 한국어 지시사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경희(2001) 한국어 지시사 ‘그’의 상호작용적 의미연구, 언어와 언어학 29, 한국외대 언어연구소, 137-158
- 이정애(2002) 국어 화용표지의 연구, 월인, 서울
- 박근영(2006) 이, 그, 저의 의미 기능 변화, 언어와 문화 2-1,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65-93
- 정정원(2016) 러시아어 담화직시, 러시아어학 13, 충북대학교 러시아, 알타이 지역연구소, 1-45
- 김명자(2000) 지시대명사 연구, 슬라브연구 5, 한국슬라브어학회, 327-352
- 함계임(2017) 주관화 이론을 적용한 연결어미 ‘-(으)면’의 의미 조합 분석과 의미 제시 순서, 언어와 문화 13-2,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195-215

* 사전류

러시아어-한국어 사전, 고려대학교 러시아 문화 연구소편, 2012, 일년, 서울

* 참고자료

한국어 (초급), 국제교육진흥원, 2006, 국제교육진흥원, 서울

한국관광공사 : <http://www.visitkorea.or.kr>

Session 2D

사회: 박숙자 (상지대학교)

- **중앙아시아 출신 유학생들의 한국어학습 전략에 대한 연구**
-정부초청외국인 대학원 장학생을 중심으로-
이진경(건양사이버대, 한국 대전)
-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발표 교육의 변천 과정 연구**
-1970년대부터 2010년대의 교재를 대상으로-
김운옥(영진전문대, 한국 대구)
- **쇼호스트(Show host)의 담화에 나타나는 설득 전략 연구**
-양태부사 사용을 중심으로-
이세인(한국외대, 한국 서울)
- **『論語』를 통해 본 孔子의 교육관과 활용 방안**
-외국인의 한국어 교육 시 시사할 교육방안 제시-
윤인현(인하대, 한국 인천)

중양아시아 출신 유학생들의 한국어학습 전략에 대한 연구 -정부초청외국인 대학원 장학생을 중심으로-

이진경(Lee Jin Kyoung)

I. 서론

한국으로 유학생의 유입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었으며 2018년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현황 통계자료¹⁾를 보면 전체 외국인 유학생은 142,205명이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유학생 수만큼 한국어 학습자도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는 바, 중양아시아 배경 학습자도 한국어 학습자로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중국유학생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온 것에 비해, 중양아시아 출신 유학생 관련 연구는 적은 편이다. 강현민 외(2014)의 한국 대학 초기 적응에 관련한 연구나 박 넬리 외(2018)의 고려인 정체성과 같은 민족 관련 연구나 문화 분야에서 진행되었을 뿐, 한국어교육과 관련한 연구는 미진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중양아시아 배경의 학습자 특성에 대한 연구, 중양아시아 배경의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계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2018년 기준으로 142,205명 중에 중양아시아 학생 수는 6,948명 약 4.9%를 차지하고 있다. 2013년 전체 유학생이 85,923명, 중양아시아 유학생 수가 1,311명으로 볼 때, 전체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현황은 5년 동안 계속 증가하였고, 중양아시아 유학생 수도 급증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추세는 진행될 것이 예상되는 바, 중양아시아 출신 유학생들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교육부 주관으로 해외의 우수한 인재들을 초청하여 국내에서 교육을 시키는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사업(GKS :Global Korea Scholarship)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사업은 1967년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총 157개국에서 8,922명의 장학생을 초청해왔으며, 매년 150여 개 국가로부터 우수한 학생을 초청하여 국내 학위 취득을 지원하고 있다. 2018년 석박사과정 장학생으로 선발된 138개국 665명의 학생들이 9월부터 국내 교육기관에서 학업을 시작했다. 대상 학생들은 한국어 성적 TOPIK 5급이 되면 바로 대학원으로 진학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어 연수기관에서 1년간 한국어연수를 마친 후 TOPIK3급을 취득한 후 학위과정으로 진학한다. 이렇게 한국어연수기관에 배치되는 GKS 장학생들의 한국어능력은 초급에서 4급까지 천차만별이지만 경쟁을 거쳐 선발된 자들로서 ‘학습자적 자질’의 우수함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런 배경으로 본고에서는 중양아시아 배경의 학습자 중 GKS 장학생의 한국어 학습 전략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학습 전략이란 학습자가 쉽고 빠르게 더 즐겁게 자기 지시적이며, 새로운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학습하기 위해 취하는 특별한 행동들(Oxford, 1990:8)이라고 할 수 있다. 이병민(2003)에서는 학습의 주체인 학습자를 이해하고, 능동적 학습자를 양성하기 위해 개별 학습자의 언어학습 전략 연구의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바람직한 교육의 결과를 위해서는 잘 가르치는 교사와 열심히 공부하는 학습자의 교육 활동이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어야 한다. 교사의 효과적인 교수법과 학습자의 능동적인 학습법이 상호작용을 이룬다면 좋은 교육적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학습자의 능동적인 학습법’을 판단하는 기준은 ‘학습전략(learning strategy)을 얼마나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대학원진학을 목적으로 한 정부초청외국인 장학생’은 일정 기간 이내에 한국어능력3급 이상과, 학문목적을 위한 한국어능력을 갖춰야 하는 목표 설정이 되어 있고, 한국어 학습에 몰입할 요건과 환경이 갖춰진 대상자라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GKS 장학생으로서 대학의 한국어학과과정에서 2018년 8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약 10개월간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중양아시아 배경 학습자 4명을 선정하였다. 중양아시아 배경의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 학습전략 분석을 위하여 직접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병행하였다. 학습자의 능동적 학습 과정에서 사용되는 일련의 방법 및 활동을 한국어 학습 전략이라고 규정하고 네 학습자가 사용하는 한국어 학습 전략을 탐구하여 하 이를 활용하여 교수 전략에 활용하고 학습자에게 학습 전략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다.

1) 교육통계서비스 http://cesi.kedi.re.kr/post/6672839?itemCode=04&menuId=m_02_04_03

II. 이론적 배경

학습 전략에 대한 연구는 일반 교육학 분야와 외국어 교육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져 왔으며 학습자 주도의 교육과 학업 성취 및 학습 결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학습 전략이 중요한 동력이 된다고 제기되어 왔다. 학습 전략과 외국어 교육에서의 언어학습 전략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많이 진행되어 왔으며 이를 종합적이고 전체적으로 다룬 교육분야, 외국어교육분야, 한국어교육분야에서의 대표적인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일반 교육 분야에서의 학습전략을 주제로 연구한 김동일 외(2002)에서는 약 224개의 학습전략 학위논문을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하였다. 이를 통해 논의된 논문들은 학습 전략이 학습능력의 향상과 학업성취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외국어 교육 분야에서는 이병민(2003)의 언어학습 전략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 동향과 방향 연구를 통해서 전체적인 언어 학습 전략 선행연구를 파악할 수 있다. 학습의 주체인 학습자의 학습 전략을 중심으로 언어 학습 전략과 학문적 배경, 언어 학습 전략 및 연구 방법론, 한국에서 언어 학습 전략과 관련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외국어교육에서 학습 전략 연구의 동향과 의의에 대해 두루 살필 수 있고, 이후 후속 연구들도 대다수이다.

한국어교육에서는 강승혜(1996)는 제2언어로서 한국어 학습자의 언어 전략에 관한 연구, 학습자 중심 교수 전략 중심의 연구를 통해서 한국어 학습자의 학습 전략 유형을 밝히고 언어학습 전략의 훈련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강승혜(1999a)는 한국어학습자의 학습 과정에 직접 및 간접 영향을 미치는 언어 학습 전략을 살펴보았다. 이는 기억 전략, 인지 전략, 보상 전략, 초인지 전략, 정의적 전략, 사회적 전략 등으로 구분하고 학습자의 언어 학습 전략을 활용하고 중심으로 하는 수업설계를 제한하였다. 이어 강승혜(1999b)에서는 한국어학습자들이 52가지 유형의 세부 언어 학습 전략을 사용하고 있으며 언어 학습 전략 사용에 따라 학습결과의 차이를 보임으로 한국어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히고 있다. 1990년의 강승혜 연구 이후 학습자의 학습 전략, 언어기능별 학습 전략, 학습목적 및 언어권별 등으로 구분되어 후속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2008:손성희, 2011:이경애, 2013,2014a, 2014b, 2015, 2018:홍종명, 2012, 2013 김윤희, 2015:이인혜, 2018:남궁정, 2018: 민유미 외, 2018:장민정, 2018: 칼로타스미스 외, 2019: 김용경 외 다수)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해서 학습 전략을 주제로 한 연구들은 대부분 Oxford(1989)의 언어학습 전략 이론과 SILL 설문조사방법을 통해서 연구가 진행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강승혜(1999a) 언어학습 전략 연구방법을 전략목록 작성법, 형식적 관찰과 면접법, 노트하기와 읽기, 자기보고식 조사 방법을 소개하였다. 그러나 이병민(2003), 강승혜(1999b)에서는 이러한 방법들이 단기간에 대단위 학습자를 대상으로 일반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학습자의 실제 수행하고 있는 학습 전략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하고 있다.

강승혜(1999a)에서는 이러한 기존 연구 방법의 한계에서 벗어나 직접 면접 방법으로 한국어 초급 학생 99명을 면접하여 한국어 학습자의 실제 언어학습 전략과 학습결과에 대해 논의하였다. 김상희(2000)에서도 미국에서의 한국어학습 배경을 가진 학습자와 그렇지 않은 학습자 두 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방식과 면담 및 관찰을 사용하여 질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학습 경험의 유무가 교실 밖의 경험을 학습에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었고 한국어 학습 배경이 없는 학생은 교실 안에서의 수업에서 얻은 지식과 정보로 학습하는 전략을 활용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2000년 이후로 질적 연구방식으로 실제 한국어 학습자의 학습 전략들을 관찰하고 이를 학습자나 교수자와 연결지어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고는 선행연구에는 없는 중앙아시아 출신의 정부 초정장학생들 중 4명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고 이들의 실제 학습 전략을 살펴보고 이들의 학습 전략적 특징을 통해서 학습자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교수 방법과 학습 방법에 환원시켜 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의 특성

연구대상은 K대학교 한국어어학과과정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정부초청장학생 17명 중 아프가니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중앙아시아 출신 4명으로 선정하였다. 이들은 어학과정에서 한국어능력시험 TOPIK 3급 이상을 취득해야 하는 목표를 가지고 2018년 9월부터 한국 대학기관의 어학과정에서 약 9개월 동안 한국어 학습을 해 왔다. 그리고 현재 2019년 5월 기준으로 한국어능력시험 TOPIK 3급 이상을 취득한 상황의 학습자들이다.

중앙아시아 출신이라고 해도 각기 다른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학습자라서 이들의 사례를 중앙아시아 배경의 학습자 특성으로 규정 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제1언어가 러시아어라는 공통점은 이들의 학습전략과 관련 짓기에 충분하다는 점을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었다. 학습자들의 공통 사항으로는 제1 언어는 러시아어이며, 한국정부초청장학생,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자, 한국 대학 석사 입학 예정자이다. 연구 대상자인 학습자의 기본 정보를 정리하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학습자 기본 정보

연번	이름	국적	모국어	민족	성별	한국어 학습단계	TOPIK 취득여부	지원과정	전공
1	A	아프가니스탄	러시아어	하지라족	여	고급	3급	석사	경영학
2	B	카자흐스탄	러시아어, 카자흐어	고려인	여	고급	4급	석사	비즈니스 마케팅학
3	C	키르기스스탄	러시아어, 키르기즈어	고려인	남	고급	3급	석사	언론학
4	D	우즈베키스탄	러시아어, 우즈베크어	우즈베크인	여	중급	3급	석사	회계학

2. 연구 방법

1차 개방형 질문지를 가지고 한국어로 직접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방식은 1인 1시간 반씩 한국어로 진행하였으며, 1차 준비한 개방형 질문으로 학습자의 배경과 학습자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2차는 구체적인 언어 학습 전략을 추출하기 위해 준비한 설문 문항을 통해서 설문 조사를 하고 이 설문 문항을 보고 3차 인터뷰를 통해 항목별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모든 인터뷰는 현장에서 녹음을 진행하였고 그 내용을 정리하였다. 인터뷰 절차를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표2> 연구 방법과 절차

	방법	목적	도구
1차	직접 인터뷰	학습자 일반적 특성 파악	개방형 질문지
2차	자기 보고식 설문	한국어 학습 전략 파악	설문지
3차	직접 인터뷰	한국어 학습 전략 세부 파악	2차 설문지

4명의 연구참여자들은 인터뷰에 적극적으로 임했으며 자신의 유학 생활과 학습 방법을 자세히 전달할 정도로 평균 중급 이상의 말하기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로 직접 인터뷰하는 데 있어 별 문제가 없었다. 질문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1차 직접 인터뷰 질문 내용

1. 유학 전 모국에서는 한국어 학습을 어떻게 하였는가? 학습기간/학습방법/학습기관/학습교재
2. 한국어 정규 과정에서의 한국어 능력 성취도 및 학습자 만족도는 어떠한가?
3. 정규 과정 외의 학습 방법과 학습 양은 어떠한가?
4. 정규 수업 후에 학습을 어떻게 얼마나 하고 있는가? -매체(책, 유튜브, 텔레비전, 라디오, 영화 등) -규칙적/불규칙적
5. 토픽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6. 본인이 어학과정에서의 학습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7. 한국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노력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8. 한국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에 필요한 도움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9. 대학원 학업을 위한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10. 기타
문화 차이로 인한 어려움의 사례는?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언어활동 유무, 효과 지역의 특징과 문제, 한계

2차 설문은 Oxford(190)의 언어학습 전략 6유형²⁾ 총 50개의 전략을 개방형 질문 문항으로 변경하였다. 기존의 질문 문항에서 '영어'로 된 것을 '한국어'로 바꾸어 질문 문항을 각색하였다. 이렇게 언어학습 전략 설문 문항을 준비하고 응답을 리커드 척도(Likert-scale) 형식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 문항을 개방형 질문으로 변경하여 2차 설문이 끝난 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3차 직접 인터뷰를 통해 내용을 정리했다. 설문내용을 제시하면 아래 <표 4>와 같다.

<표4> 2차 한국어 학습 전략 설문 문항

순번		내용
1	기억 전략	한국어를 공부할 때 새로운 것을 배우면 내가 한국어로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새로운 것을 관련지어 생각해 본다.
2		새로운 단어를 암기하기 위하여 그 단어를 문장 속에서 사용하거나 그 단어가 포함된 문장을 공부한다.
3		한국어 단어를 기억하기 쉽게 단어의 발음과 단어의 이미지를 머릿속에서 연결시켜 본다.
4		새로운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마음속에서 그려보면서 기억한다.
5		새로운 단어를 기억하기 위해 발음이 유사한 다른 단어와 연관시켜 기억한다.
6		새로운 단어를 기억하기 위해 단어카드나 단어장을 이용한다.
7		새로운 단어를 잘 기억하기 위해서 그 단어의 의미를 몸짓으로 나타내 본다.
8		한국어수업 시간에 배운 것을 자주 복습한다.
9		새로운 한국어 단어를 공부할 때 칠판, 교과서, 혹은 거리의 표지 등에 쓰여 있던 단어를 머릿 속에 떠올려 봄으로써 기억한다.
10	인지 전략	새로운 단어를 여러 번 반복해서 써 보거나 말해 본다.
11		한국인 원어민처럼 말하려고 노력한다.
12		한국어 발음을 소리내어 연습한다.

2) Oxford 언어 학습전략을 도구로 연구한 이미영(2006), 강승혜(1999b)연구에서 제시한 개념과 분류 기준을 참고하여 개방문항과 설문문항을 제작하였다. Oxford에 의하면 언어학습 전략은 직접적 언어 학습전략과 간접적 언어 학습전략으로 크게 구분한다. 언어의 직접적 사용과 관련하여 기억 전략, 인지 전략, 보상 전략으로 나눈다. 그리고 언어와 직접적 사용과 관련은 적지만 언어 학습을 도와 주는 전략으로서 상위 인지 전략과 정의적 전략, 사회적 전략으로 구분된다.

13		알고 있는 한국어 단어를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해 본다.
14		대화를 한국어로 한다.
15		한국 TV 프로그램을 시청하거나 한국어로 제작된 영화를 본다.
16		한국어로 쓰여진 책을 재미로 읽는다.
17		메모, 메시지, 편지, 보고서를 한국어로 써본다.
18		한국어로 쓰여진 글을 처음에는 대충 읽어보고 그 다음에는 주의를 기울여 다시 읽는다.
19		새로운 한국어 단어와 발음이 비슷한 여휘가 한국어에 있는지 찾아본다.
20		문장이 어떤 유형인지 파악하려고 노력한다.
21		한국어 단어의 의미를 내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로 나누어서 기억한다.(예 : 비슷한 말, 반대말로 묶어서 기억한다.)
22		한국어로 된 글을 읽을 때 단어 하나씩 모국어로 번역하지 않는다.
23		한국어로 된 정보를 읽거나 듣고 나서 요약해 본다.
24	보상 전략	새로운 단어 뜻을 이해하기 위하여 앞 뒤 문맥이나 상황으로부터 추측을 한다.
25		한국어로 대화를 하다가 한국어 단어가 갑자기 생각나지 않을 때 몸짓이나 손짓 같은 제스처를 사용한다.
26		적당한 한국어 단어가 생각나지 않을 때 다른 한국어 표현으로 풀어서 의미를 전달한다.
27		한국어를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있더라도 사전을 찾아보지 않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28		한국어로 대화할 때 상대방이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추측해 본다.
29		적당한 한국어 단어가 생각나지 않을 때는 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단어나 속어를 사용한다.
30	상위 인지 전략	한국어를 사용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어로 이야기하려고 노력한다.
31		한국어를 사용하다가 실수한 것을 알게 되면 그 실수를 이용해서 올바른 한국어를 배운다.
32		다른 사람이 한국어로 말할 때 주의를 기울여 듣는다.
33		한국어를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34		한국어를 공부할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운다.
35		나와 한국어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
36		한국어로 된 글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가능한 많이 찾는다.
37		한국어를 배우는데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스스로 학습목표를 세운다.
38		한국어 학습에서 내가 얼마나 향상되어 가는가를 평가해본다.
39	정서적 전략	한국어로 말하기 두려워질 때 마음을 편안하게 하도록 노력한다.
40		한국어로 말하다가 실수를 할까 봐 두렵지만 그래도 자신감을 가지고 한국어로 말해보려고 한다.
41		내가 한국어를 잘했을 때 스스로 칭찬해준다.
42		한국어를 공부하거나 한국어로 말하고 있을 때 내가 긴장하고 있거나 떨고 있다는 것을 안다.
43		한국어를 배울 때 느끼는 감정들을 한국어 학습 일기에 적어놓는다.
44		한국어를 배울 때 느끼는 감정들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
45	사회적 전략	다른 사람이 한국어로 말하는 것을 내가 이해하지 못했을 때 나는 그사람에게 천천히 말하거나 다시 한번 말해달라고 요청한다.
46		선생님이나 한국어 원어민에게 내가 한국어로 말할 때 틀린 부분을 고쳐달라고 부탁한다.
47		친구들과 함께 한국어로 말하는 것을 연습한다.
48		한국어를 공부할 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49		한국어로 질문한다.
50		한국의 문화에 대해 배우려고 노력한다.

IV. 연구 결과

1. 개방형 질문을 통한 직접 인터뷰

1차 개방형 질문을 가지고 직접 인터뷰를 한 결과 전체적인 한국어 학습 방법 및 전략에 대해 응답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자신의 소개와 자신의 한국 유학생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풀어내어 연구참여자들의 유학 동기와 한국어 학습 과정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다. 학습자 이해 및 학습 전략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므로 중요한 내용만 정리하였다.

1) 한국 유학의 동기와 이유 : 민족성과 문화공통성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민족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자라족이에요.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 대부분 한국 사람들과 똑같아요. 아 얼굴이 똑같아요. 그리고 많은 나라, 그리고 다른 민족들은 우리나라에서는 하자라 사람들은 아, 한국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에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역사 때문에 우리나라 아프가니스탄하고, 한국하고 역사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하지만 한국은 짧은 시간에 더 발전되었어요. 그리고 하지만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아직 발전되지 않았어요. 발전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하자라 사람들은 한국사람들과 같이 똑똑해요. <연구참여자A>

저 고려인으로서 일단 한국어 배우고 싶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취직해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가족 중에서 저만 한국어 할 줄 알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한국어 알고 계신데요, 부모님은 몰라요. 근데 제가 이렇게 고려인이라서 한국어 공부 배우고 싶어서 한국에 오게 되었어요. <연구참여자B>

B처럼 고려인이예요. 조부모님들이 한국어 사용하시는데 현대 한국어 아니고 옛날에 조선 사투리처럼 사용해요. 우리 집에 한국 음식, 국수가 있어요. 한국에 온 걸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하세요. <연구참여자 C>

제가 유럽이나 미국 또는 한국 중에 선택해야 하는데 한국을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먼저, 한국 전통 문화는 유럽의 나라보다 우즈베키스탄의 문화가 가깝기 때문에, 다음에 한국과 한국어 제가 새로운 나라와 언어이기 때문이에요. <연구참여자D>

개방형 질문을 통해 자연스럽게 연구참여자의 소개와 한국으로 유학 온 동기를 설명하던 중에 자국과 한국의 민족 관련성이 큰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연구참여자 A는 ‘하자라 민족’과 ‘한민족’이 유사하고 이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에서 온 연구참여자 B, C는 고려인임을 긍정적으로 밝히고 한국 유학을 자랑스러워하는 가족과 가족 내의 한국문화가 내재하고 있음을 소개하였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연구참여자 D는 자국의 문화와 한국의 전통문화의 유사성 및 인접성과 관련하여 유럽과 미국보다 한국을 선택하였다고 대답하였다.

이러한 민족, 친문화적인 정서가 한국어 학습과 한국에서의 학문 탐구의 기회를 마련하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유학 생활에 임하는 것으로 연계가 됨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2) 영어를 매개어로 학습에 활용

연구참여자들의 제1언어가 러시아라는 공통적인 상황과 영어를 유창하게 사용하는 영어능력자라는 공통적 상황이 한국어 학습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게 되었다. 한국어와 러시아어의 언어학적 차이가 많아 한국어와 러시아어의 일대일 번역이나 대치가 어려워져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매개어로 영어를 활용해서 한국어를 이해하고 학습하고 있다는 것이다.

네이버에서 영어를 찾아요. 한국어와 영어로 비교해서 의미를 이해해요. <연구참여자 A>

우리 모국어 러시아인데요 한국어랑 차이 엄청나요. 그래서 직역할 수 없어요. 바로 하기 엄청 어려워요. 어떤 경우에는 한국어로 문장은 짧았는데, 러시아로 번역해야 하면 더 많이 설명해야 해요. 한국어에는 줄임말 많이 사용해요. 예를 들면 ‘남녀노소, 남녀’ 같은 경우는 그거 러시아어에는 아예 없어요. <연구참여자B>

러시아어가 한국어와 많이 달라요. 한국어 설명 자료, 인터넷에서 영어 자료로 찾아서 봐요. 단어 이해할 때 영어로 뜻을 써요. <연구참여자C>

영어가 한국어 공부할 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런데 한국어로 이야기해야 하는데, 영어로 친구들과하고 말해요. <연구참여자D>

이처럼, 연구참여자들의 한국어 이해 방식은 영어를 매개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구참여자 B가 만든 단어노트에는 한국어 단어 옆에 의미로 모두 영어 단어로 대응시켜 정리되어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3) 1차 직접 인터뷰 내용 정리

1차 직접 인터뷰를 통해서 전제적인 한국어 학습 방법 및 전략에 대한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1차 직접 인터뷰 세부 사항

	연구참여자 A	연구참여자 B	연구참여자 C	연구참여자 D
모국어에서의 한국어 학습	대학교에서 영어영문학 전공 한국어수업(1주 1시간) 수강. 약 2년	F4비자로 서울 2년 거주. 연세대여학당에서 3개월 학 습, 아르바이트	한국어교육센터에서 무료 한 국어수업 매주 1시간, 2년동 안 수강	한국어 글자(자모)만 익히고 움
제감 한국어능력 향상도	말하기능력이 향상됨	1년 집중 교육이 한국어실 력을 향상	중급에서 고급으로	초급에서 중급으로
방과 후 학습 시간	3시간 이상	4시간 이상	2~3시간	5시간 이상
개별 학습 방법	토픽 중심 학습 불규칙적으로 러시아 웹사이트 를 통한 한국드라마, 시청	1)읽기책을 큰소리로 읽기, 유튜브에 읽기 영상 업로드 2)유학생 자조 모임(카카오톡 독-신문 읽기 모임)읽기 자 료 공유 3)한국 라디오 방송 청취 아침,저녁 각 40분씩	1)도서관 이용 : 어린이책, 동화책 대여 2) 한국드라마 시청:러시아 사이트를 통해서 자막	1) 어휘 학습에 집중 2) 네이버 TV로 한국 뉴스 시청
토픽 준비 방법	학교 토픽 수업 문제해결 방법, 고민	기출 문제 중심 학습	1) 토픽 문제집 2) 타대학(2기관) 한국어교 재로 추가 학습	1) 토픽 단어장 2) 토픽 문제집
어학과정에서의 학습 목표	TOPIK 5급 목표 현재 3급	TOPIK 6급 목표 현재 4급	TOPIK 5급 목표 현재 3급	TOPIK 5급 목표 현재 3급
한국어 향상을 위한 노력	한국 친구를 자주 만나 의사 소통 노력	한자어 추가 공부	민화를 좋아해서 카페에 자 주 가서 한국어로 된 민화 다독	한국 라디오와 뉴스 듣기 어휘 암기 반복 정규 후업 후, 기숙사에서 주로 혼자 집중해서 공부함
대학원 학업을 위한 준비도	대학원 과정을 위한 학문목 적 한국어 준비는 안 하고 있음 moox 강의를 통해서 경영 강의 수강	마케팅 전공 예정이나 현재 대학원 학업 관련 준비하지 않음.	광고 전공 예정, 대학원 학 업 관련 준비하지 않음	학부, 석사 동일전공(회계학)
학습에 필요한 요구사항	한국 친구, 한국 사람과의 관 계 및 지속적 만남	한국어 교사의 영어 능력	한국대학 내에서 한국대학생 들과 동아리 활동 같은 취 미활동을 하고 싶음.	

2. 한국어 학습 전략 결과 분석

연구참여자들에게 자기 보고식 설문조사를 하게 하고, 세부 사항들은 직접 면접을 통해서 추가적인 질문을 하여 학습 전략을 살펴보고 관찰하였다. 설문결과와 직접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기억 전략

기억 전략 9개 문항에 대한 연구참여자 4명의 설문결과는 각기 달랐다. 연구자 4명을 A, B, C, D로 표기하고 각 표기한 리처드 척도의 현황과 각 항목의 평균과 연구자별 총계를 정리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기억전략 memory strategy						
순번	내용	A	B	C	D	평균
1	한국어를 공부할 때 새로운 것을 배우면 내가 한국어로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새로운 것을 관련지어 생각해 본다.	3	5	3	3	3.50
2	새로운 단어를 암기하기 위하여 그 단어를 문장 속에서 사용하거나 그 단어가 포함된 문장을 공부한다.	5	5	4	5	4.75
3	한국어 단어를 기억하기 쉽게 단어의 발음과 단어의 이미지를 머릿속에서 연결시켜 본다.	4	1	3	4	3.00
4	새로운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마음속에서 그려보면서 기억한다.	3	2	2	4	2.75
5	새로운 단어를 기억하기 위해 발음이 유사한 다른 단어와 연관시켜 기억한다.	5	4	3	3	3.75
6	새로운 단어를 기억하기 위해 단어카드나 단어장을 이용한다.	4	5	1	5	3.75
7	새로운 단어를 잘 기억하기 위해서 그 단어의 의미를 몸짓으로 나타내 본다.	4	3	4	3	3.50
8	한국어수업 시간에 배운 것을 자주 복습한다.	3	5	3	3	3.50
9	새로운 한국어 단어를 공부할 때 칠판, 교과서, 혹은 거리의 표지 등에 쓰여 있던 단어를 머릿 속에 떠올려 봄으로써 기억한다.	5	5	2	2	3.50
	40	36	35	25	32	3.56

저는 기억, 아 기억하는 것이 저에게 힘들어요. 하지만 기억하면 더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거듭하는 것이 많아야 해요. 반복해야 해요. 그리고 2주 동안 그 단어를 그 문법을 하루하루 반복해야 하고 그 단어를 기억할 수 있어요. 종이에 써야 해요. 종이에 쓰고 말하면서 공부해요. 단어책도 있어요. 그리고 수업 동안 선생님께서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단어를 아 정리해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는 단어 종이를 우리에게 주세요. (연구참여자 A)

무엇보다도 어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휘 공부해요. 어휘 사실은 외우기 정말 어려워요. 그냥 엄청나게 써요. 예를 들면 한 단어 적고 계속 쓰고 그 단어 몇번 쓰고 어휘 가장 어렵게 외워요. 제가 읽기 책은 가장 어려운 어휘 나와요. 거기서 모르는 어휘 쓰고 단어장에 써 놓고 따로 외워요. 네이버 사전에서도 단어 찾을 수 있어요. (연구참여자 B)

단어를 쓰고 말하면서 외우고, 새로운 단어 들어간 문장을 만들어요. 그리고 단어노트를 쓰고 가지고 있어요. (연구참여자 C)

그냥 반복해서 썼어요. 처음에는 몇 번 썼어요. 그러나 요즘에는 쓰지 않아요. 발음 몇 번 읽어요. 읽고 외워요. (연구참여자 D)

기억 전략의 설문문항의 평균 값은 5점 척도에 3.56으로 다른 전략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이를 3차 직접 인터뷰를 통해 질의해 보니 위에 제시한 인터뷰 전사 내용을 보면,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지 않고 단순 암기 방법과 쓰기 병행 암기 방법들로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발음과 단어의 이미지를 연상하거나, 단어 사용 상황과 연관 짓는 것들에 대한 전략은 낮은 편이다. 그러나 새로운 단어를 문장 속에서 사용하거나 그 단어가 포함된 문장을 공부하는 전략은 연구참여자 모두 높은 편이었으며, 연구참여자 A, B, C는 읽기 자료를 통해서 어휘 학습을 하고 있었다. 또한 단어장, 단어노트, 네이버 단어장 등 자기만의 정리된 단어리스트를 가지고 있었다.

복습 전략을 묻는 문항에 가장 높은 척도를 보인 연구참여자 B에게 복습에 대한 질문을 했더니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저 되게 오래 걸려요. 이렇게 복습 가장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항상 뭐가 이렇게 복습하면서 뭔가 완벽하게 알지 않은 느낌이 두려워서 계속 반복해요. 하루에 공부하는 시간 중에 복습하는 시간이 제일 많아요.
(연구참여자 B)

연구참여자 모두 새로운 단어를 암기하는 학습에 부담을 느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자신만의 기억 방법을 가지고 있으나 보다 새로운 학습 전략에 대한 교육과 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 기억 전략에 제시된 의미 연결 방법, 이미지 연상 방법, 실생활과 연관 짓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등이다.

2) 인지 전략

인지 전략은 학습자가 자신의 방식으로 기억하거나 사고하는 전략을 말한다. 한국어를 학습하는 데 있어 학습자가 효과적으로 학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는 전략이다. 2차 설문 결과는 아래 내용과 같다.

인지 전략 cognitive strategy						
순번	내용	A	B	C	D	평균
1	새로운 단어를 여러 번 반복해서 써 보거나 말해본다.	5	5	4	3	4.25
2	한국인 원어민처럼 말하려고 노력한다.	5	5	5	5	5.00
3	한국어 발음을 소리내어 연습한다.	4	5	5	4	4.50
4	알고 있는 한국어 단어를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해 본다.	3	5	3	4	3.75
5	대화를 한국어로 한다.	1	5	3	2	2.75
6	한국 TV 프로그램을 시청하거나 한국어로 제작된 영화를 본다.	3	5	4	4	4.00
7	한국어로 쓰여진 책을 재미로 읽는다.	4	3	3	3	3.25
8	메모, 메시지, 편지, 보고서를 한국어로 써본다.	4	5	2	4	3.75
9	한국어로 쓰여진 글을 처음에는 대충 읽어보고 그 다음에는 주의를 기울여 다시 읽는다.	2	5	3	5	3.75
10	새로운 한국어 단어와 발음이 비슷한 어휘가 한국어에 있는지 찾아본다.	3	5	3	3	3.50
11	문장이 어떤 유형인지 파악하려고 노력한다.	5	1	2	4	3.00
12	한국어 단어의 의미를 내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로 나누어서 기억한다.(예 : 비슷한 말, 반대말로 묶어서 기억한다.)	4	5	2	5	4.00
13	한국어로 된 글을 읽을 때 단어 하나씩 모국어로 번역하지 않는다.	1	1	3	4	2.25
14	한국어로 된 정보를 읽거나 듣고 나서 요약해 본다.	2	5	3	3	3.25
	70	46	60	45	53	3.64

설문조사에서는 인지전략 중에 ‘2번 항목인 한국인 원어민처럼 말하려고 노력한다’ 전략과 ‘3번 한국어 발음을 소리내어 연습한다’의 전략은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터뷰를 통해 들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어휘 외울 때 그것 보고 말하고 읽고 듣고 쓰기 다 해 보면 좋아요. 친구들과하고 그 단어를 이야기하면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어요. 아 한국 친구 아니면 우리 친한 친구, 여기에서 똑같은 반에 친구 우리 그 단어 어떻게 사용할 수 있어요. 무슨 문장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른 의미가 있으면 아 어떻게 생각해요. 이 단어를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를 이야기해요. (연구참여자 A)

혼자서 그냥 읽기 책 읽어요. 왜냐하면 우리 여기 입 근육 있지요. 우리 왜 한국 발음 잘 안되는 이유는 여기 근육이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입은 한국말에 적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읽기 많이 했어요. (연구참여자 B)

‘6번 항목인 한국 TV프로그램을 시청하거나 한국어로 제작된 영화를 본다’의 항목은 연구참여자들의 설문 문항 평균 값은 4.0이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질문하였더니 아래와 같은 답변을 얻을 수 있었다.

사실은 드라마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요즘은 듣기 공부 연습하느라 라디오 듣고 있어요. 고릴라 방송 듣고 있어요. 요즘은 많이 이해해요. 그냥 어떤 앱, 앱 있어요. 교육 방송, 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는 방송이예요. 한 방송은 40분 걸려요. 하루에 한두 개 들어요. 근데 재미있어요. 저 드라마 안 좋아해요. 많이 못 봐요. 근데 그 방송은 들어요. (연구참여자 B)

드라마를 보면 자막이 있으면 실력이 늘어요. 러시아말로 된 러시아 사이트에서 봐요. 키르기스스탄에는 아직 그러 인터넷 사이트 없어요. 우리는 비슈케크에서 러시아어로 사용해요. (연구참여자 C)

라디오 아니면 영화를 봐요. 하지만 영화는 나쁜 말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라디오 많이 들어요. SBS, KBS 채널, 휴대전화로 주로 들어요. 뉴스 들어요. 이해하지 못하지만 들으면 어, 모르는 단어 찾고 공부할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 봐요. 네이버 뉴스를 봐요. 네이버 티비 있어요. 모두 다양하게 공부하면 돼요. 책만 읽으면 배울 수 없어요. (연구참여자 D)

연구참여자들은 한국 TV 프로그램보다는 인터넷을 통한 한국드라마, 영화, 라디오를 통해서 한국어를 실제 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적극적인 전략을 찾아볼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 4명 중 3명은 한국어를 접하기 위해 규칙적으로 매일 일정 시간 이상을 한국방송과 라디오를 활용하고 있었다.

3) 보상 전략

보상 전략						
순번	내용	A	B	C	D	평균
1	새로운 단어 뜻을 이해하기 위하여 앞 뒤 문맥이나 상황으로부터 추측을 한다.	3	5	5	5	4.50
2	한국어로 대화를 하다가 한국어 단어가 갑자기 생각나지 않을 때 몸짓이나 손짓 같은 제스처를 사용한다.	5	5	5	3	4.50
3	적당한 한국어 단어가 생각나지 않을 때 다른 한국어 표현으로 풀어서 의미를 전달한다.	5	5	4	4	4.50
4	한국어를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있더라도 사전을 찾아보지 않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4	1	3	2	2.50
5	한국어로 대화할 때 상대방이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추측해 본다.	4	3	4	3	3.50
6	적당한 한국어 단어가 생각나지 않을 때는 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단어나 속어를 사용한다.	5	5	3	4	4.25
	30	26	24	24	21	3.96

추측을 활용해서 이해하기, 제스처를 사용하기, 단어가 생각나지 않을 때는 풀어서 말하기, 유사 표현으로 대체하기 등의 전략은 연구참여자들 모두 4점 이상 척도를 나타낼 정도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른 항목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지수의 항목은 모르는 단어가 있을 때 사전을 찾아보지 않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전략이었다. 이를 가장 낮은 점수를 부여한 연구참여자 B에게 물으니, 여러 번 연습해 보았으나 별로 효과가 없었으며 시간만 오래 걸리기 때문에 바로 찾아서 해결한다고 응답하였다.

4) 상위 인지 전략

연구참여자의 설문 응답이 모두 상위인지전략은 다른 전략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또한 직접 인터뷰를 통해서 학습자에 따라 구체적인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상위 인지 전략						
순번	내용	A	B	C	D	평균
1	한국어를 사용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어로 이야기하려고 노력한다.	5	5	3	5	4.50
2	한국어를 사용하다가 실수한 것을 알게 되면 그 실수를 이용해서 올바른 한국어를 배운다.	5	5	3	4	4.25
3	다른 사람이 한국어로 말할 때 주의를 기울여 듣는다.	4	5	3	4	4.00
4	한국어를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5	5	2	5	4.25
5	한국어를 공부할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운다.	3	5	3	3	3.50
6	나와 한국어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	4	5	4	4	4.25
7	한국어로 된 글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가능한 많이 찾는다.	5	5	3	4	4.25
8	한국어를 배우는데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스스로 학습목표를 세운다.	4	5	3	5	4.25
9	한국어 학습에서 내가 얼마나 향상되어 가는가를 평가해본다.	4	5	3	4	4.00
	45	39	45	27	38	4.14

우선 상위 인지 전략 항목에 모두 '항상 그렇게 사용한다'를 선택한 연구참여자 B를 집중적으로 학습 전략에 대해 직접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처음에 한국어 배울 때 그런 실수도 몇 개 했어요. 이런 문법 아시죠? '-하는 척 해요', 저 이 문법을 처음에 잘못 활용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그, 그냥 친구한테 활용했어요. '~척하지마.' 말 많이 해 봤어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아주 못했어요. 식당에서 알바했어요. 이 요리 어떻게 먹을 수 있어요? "썩어서 먹어야 해요." 손님에게 "썩어서 먹어야 해요 라고 해야 하는데, 썩어서 먹으라고 했어요."

지금 한국어 고급 배우고 있으니까 한자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한자 많이 사용하니까 같이 연결해서 한자어를 따로 공부해요.

제가 보통 이렇게 공부해요. 음 일단은 음.. 발음 연습 많이해요. 어떻게 하나면 한국어 읽기 책 큰소리로 많이 읽어요. 그리고 유튜브 방송도 해요. 거기서 그냥 책을 읽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친구들이 피드백해 주어요.

유학생들 읽기 모임 있어요. 카카오톡에 신문 읽기 내용이 올라와요. 그걸 읽고 이야기해요.(연구참여자 B)

실수를 통해서 다시 올바르게 적용하는 전략, 한국어를 더 잘하기 위해서 한자어 학습을 추가적으로 집중적으로 학습하는 전략, 발음과 읽기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매일 낭독하고 이를 촬영하고 유튜브에 올려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피드백을 주고받는 전략,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서 신문 읽기 자료를 공유하고 한국어로 토론하기 활동 등, 아주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한국어 학습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다른 연구참여자들도 한

국어를 더 잘하기 위한 자신만의 다양한 전략들을 소개했다.

카톡으로 주로 대화해요. 먼저 말하기보다 쓰기 많이 늘었어요. 저는 책으로만 공부하면 안돼요. 말하기도 못해요. 한국 말하기 배워야 해요.

자연스럽게, 한국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 그 발음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아 좋아해요. 들으면 바로 해 봐요. 듣고 조용히 바로 따라서 말해 봐요. 자주 해요. 사실은 자꾸 읽기보다 더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어휘나 표현 배우게 되면 더 잘 기억해요. 사실은 한국 친구들이 설명하는 어휘 금방 배우게 됐어요. (연구참여자 A)

단어 좋아요. 에너지 받을 수 있어요. 그 시로 단어를 공부해요. 소설은 아직 안 읽었어요.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만화로 조금 공부해요.(연구참여자 C)

언어 향상 능력을 위해서는 실제 상황에서의 언어 활용과 적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학습자들이 인식하고 있고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따라하기, 카톡으로 대화하기, 직접 대화해 보기, 시나 만화로 한국어 익히기’ 등의 학습 전략을 펼치고 있었다. 또한 참여자들은 이런 전략들이 약 9개월이라는 기간에 평균 3급 이상의 토픽 능력 향상과 중급 수준 이상의 말하기 능력을 갖추게 되었음을 확신하고 있었다.

5) 정의적 전략

정의적 전략						
순번	내용	A	B	C	D	평균
1	한국어로 말하기 두려워질 때 마음을 편안하게 하도록 노력한다.	5	5	2	4	4.00
2	한국어로 말하다가 실수를 할까 봐 두렵지만 그래도 자신감을 가지고 한국어로 말해보려고 한다.	5	5	2	5	4.25
3	내가 한국어를 잘했을 때 스스로 칭찬해준다.	5	5	3	4	4.25
4	한국어를 공부하거나 한국어로 말하고 있을 때 내가 긴장하고 있거나 떨고 있다는 것을 안다.	5	5	4	2	4.00
5	한국어를 배울 때 느끼는 감정들을 한국어 학습 일기에 적어놓는다.	4	1	2	3	2.50
6	한국어를 배울 때 느끼는 감정들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	4	5	2	1	3.00
	30	28	26	15	19	3.67

연구참여자 모두 한국어 학습과 한국어를 사용하는 상황에서의 긴장도와 스트레스가 높다고 응답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 와서 한국어를 공부하니 한국어 실력이 향상되었고, 좋은 결과를 성취하고 있어서 한국에 온 것을 잘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긴장도를 낮추거나 정서적 감정 등을 토로하거나 하는 전략은 낮은 편이며 이러한 전략에 대한 지도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을 판단된다.

6) 사회적 전략

사회적 전략						
순번	내용	A	B	C	D	평균
1	다른 사람이 한국어로 말하는 것을 내가 이해하지 못했을 때 나는 그 사람에게 천천히 말하거나 다시 한번 말해달라고 요청한다.	5	5	4	3	4.25
2	선생님이나 한국어 원어민에게 내가 한국어로 말할 때 틀린 부분을 고쳐달라고 부탁한다.	5	5	2	3	3.75
3	친구들과 함께 한국어로 말하는 것을 연습한다.	2	5	2	3	3.00
4	한국어를 공부할 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4	1	4	2	2.75
5	한국어로 질문한다.	4	5	4	4	4.25
6	한국의 문화에 대해 배우려고 노력한다.	4	5	5	3	4.25
	30	24	26	21	18	3.71

한국 대학들은 유학생들의 학교생활과 한국어 학습의 도움을 주기 위해 한국 학생과 1:1 연결을 시켜주는 지원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고 있다. 연구참여자들이 학습하고 있는 대학기관에서도 ‘버디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저는 오자마자 한국 친구 아프가니스탄에 계신 선생님들이 한국에 있는 친구를 소개했어요. 그리고 그 한국 친구하고 말하고, 놀고, 한국어 말하기, 단어 문법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잘했어요. 한국에 오자마자 처음에 한 1주일에 한번씩, 주말에 아마 4개월 만났어요. (연구참여자 A)

우리 학교에서 버디 프로그램 있어요. 버디 친구하고 조금씩 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날 수 있어요. 여자이고요, 그 친구의 전공은 사회복지예요.(연구참여자 B)

버디 친구 만나는 것을 좋아해요. 매주 두번 정도 만나요. (연구참여자 C)

버디 오늘도 만났어요. 일주일에 1~2번 만나요. 대부분 한국어 가르쳐 주고, 저는 버디에게 영어 가르쳐 줘요. 한국에서 어려운 단어 있으면 물어봐요.(연구참여자 D)

연구참여자들은 버디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학생과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는 것을 더욱 필요로 하고 더 많은 한국 사람과의 관계 형성을 확장해 나가길 원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버디 이외의 다른 관계 형성이 되지 않고, 버디 만남의 회수나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어려움을 공통적으로 호소하고 있었다. 사회적인 전략을 더 많이 활용하고 싶지만, 연구참여자 개인적 역량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지원해주는 시스템과 전략이 필요하다.

V. 결론

중앙아시아 출신 정부초청장학생 4명을 대상으로 한국어 학습을 어떤 전략들을 사용하며 한국어 학습을 진행하고 있는지 Oxford의 언어학습 전략 설문 도구와, 직접 인터뷰를 통해 구체적이고 심층적으로 학습자를 관찰하였다. 학습자별로 개별 특성에 따라 학습 방법, 학습 도구, 학습 내용, 학습 전략들이 차이가 있었지만 보다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전략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6가지 전략 중에 5점 척도로 가장 응답률이 높은 순서는 상위 인지 전략 4.14 > 보상 전략 3.96 > 기억전략 3.75 > 사회적 전략 3.71 > 정의적 전략 3.67 > 인지적 전략 3.64 순으로 나왔다. 이 수치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니고, 제시된 질문과 관련된 전략을 현재 활용하고 있는 척도로 이해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직접 면접을 통해서 유의미한 학습 전략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습자들의 요구도가 높은 것은 사회적 전략이었고, 적극적인 자신만의 학습 방법(라디오 방송 듣기, 뉴스 보기, 드라마 및 한국 프로그램 시청하기 등)을 실행하고 있는 것은 인지적 전략으로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기억 전략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학습자들이 유의미한 전략을 가지고 학습하기보다는, 기계적 암기나 반복 전략에 그치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한국어 학습의 긴장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정의적 전략이 부족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어 학습자 중, 중앙아시아 출신의 정부 초정 장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 학습 전략을 분석하여 그 세부적인 사항을 관찰했다. 이를 통해서 연구 참여자들의 부족한 학습 전략과 보완 및 지원이 필요한 학습 전략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는 학습자 특성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습자의 학습 전략의 유형과 장단점을 파악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한국어 기관 및 한국어 교원들이 이 점을 인식하고 학습자의 학습 전략에 대한 파악과 지도를 한다면 한국어 능력 향상의 목표는 더욱 빨리 달성할 것이다.

후속 연구에는 이러한 요구도를 파악하여 학습자에게 학습 전략을 지도하고, 교수자들에게 학습자의 학습전략 현황과 요구도를 제공하여 한국어 교수 방법에 적용시켜 봄으로써 학습 전략 지도의 효과성에 대해서 진행해 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교육통계서비스 http://cesi.kedi.re.kr/post/6672839?itemCode=04&menuId=m_02_04_03

강승혜(1996)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학습자의 언어학습 전략에 관한 연구, 연세교육연구9, 5-31쪽 연세대학교 교육연구소

강승혜(1999a) 학습자중심 교수전략의 모색을 위한 검토 이중언어학 16호 이중언어학회

강승혜(1999b) 한국어 학습자의 언어학습 전략과 학습결과, 외국어로서 한국어교육 24권 89-115쪽, 연대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강현민 외(2014) 중앙아시아 출신 유학생들의 한국 대학 초기 적응에 관한 연구, 교육문화연구 제20-4호, 215-240쪽, 교육

김상희(2000) 한국어 학습자의 학습 전략 : 미목에서의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국어교육학연구11, 107-133쪽, 국어교육학회

김아영 외(2009) 국제 유학생들의 학습과정에 대한 근거이론적 연구

이미영(2006) 중학교 학습자의 영어 학습 전략 사용 분석:학년, 성별, 사교육, 영어 성적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이인혜(2015) 미국 대학 KFL 학습자의 한국어 학습 전략 연구, 이중언어학 60권 201-227쪽, 이중언어학회

이인혜(2016) 미국 대학 KFL 학습자의 변인에 따른 한국어 학습자 전략 분석, 새국어교육 108권, 255-287쪽, 한국국어교육학회

홍종명 (2018) 한국어 문법 학습전략에 대한 기초 연구, 우리말연구 53권, 339~362쪽, 우리말학회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발표 교육의 변천 과정 연구 -1970년대부터 2010년대의 교재를 대상으로-

김운옥(영진전문대학교) · 김홍매(영남대학교)

1. 서론

본 연구는 발표 교육의 선행 연구를 통하여 미국·중국·한국의 발표 교육의 역사를 정리하고 197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의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발표 교육의 역사를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연구자는 교재에 나타난 발표 교육의 용어와 분류 기준의 차이를 지적하고 이들의 통일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학문 목적 학습자 중 1위인 중국에서 자체적으로 출판된 한국어 교재를 한국의 교재와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류의 영향으로 향후 국외에서 ‘on-line’이나 현지 학교에서 공부할 학습자를 위한 교재 개발의 방향을 제시한다. 그리고 나아가 한국어 교재에 부족한 발표 기능들을 간략하게나마 기술할 것이다.

한국어 교육에서의 말하기는 일상생활의 기초 회화를 중심으로 구어 및 문형 중심의 청각구두식 교육에서 출발하였다. 1990년대부터 학습자의 다양화로 인해 특수 목적을 위한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통합형 교재는 1998년에 처음으로 등장했으며 이는 의사소통교수법이 도입된 결과이다. 초기 한국어 교육은 국어학의 종속적인 면이 있었다. 1959년 이래의 국어학적 논의와 한국어교육을 위한 국어학적 연구는 한국어교육용 문법 체계를 위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¹⁾ 또한 초창기 한국어 교재 개발은 국어학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국어학과 한국어 교육학의 이러한 연관성을 바탕으로 국어의 교육과정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발표는 국어의 화법 교육의 담화 유형 중 하나로 자아 성장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말하기이다.²⁾ 발표는 연설의 하위 층위로 분류되다가 2007년 개정 화법 교육과정에서 ‘presentation’이라는 새로운 유형을 구축해 가고 있다. 4차 혁명시대에 필요한 인재는 OECD의 DeSeCo(Defining and Selecting Key Competencies) 프로젝트에서 제시한 ‘핵심 역량’을 갖추어야한다. 이러한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인재 양성과 발표에 대한 요구가 대학과 직장에서 높아짐에 따라 발표 관련 서적들이 대량 출판되었다. 한글파크에서 검색한 결과 한국어 교재는 1938권이다.³⁾ 교재의 대량 출판과 달리 한국어 교육학이 학술적 담론을 한 것은 15년 안팎에 불과하며, 교재에 대한 연구는 초보 단계이다.

Riss의 2019년 5월 11일 조사에 따르면 ‘한국어 교재 변천’에 대한 연구는 학위 논문 3편과 학술지 논문 16편이다. 한국어 교육 교재 변천에 대한 연구는 김영란(2009), 방성원(2011), 고경민(2017)이 있다. 발표 교육의 변천 과정에 대한 교재 연구는 부족한 상태이다. 김영란(2009)은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이 설립된 1959년부터 그 후 50년간의 변천을 살폈다. 학습자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교재 개발을 위한 교육적 처치와 독학용 교재 개발이 부족함을 지적하였다. 방성원(2011)은 1985-1995년까지 발간된 한국어 관련 전문 학술지 논문 138편과 박사학위 논문 8편을 중심으로 한국어 교재와 교육 자료에 대한 연구 동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국어 교재 연구의 다양성과 현장성을 충족할 만한 논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고경민(2017)은 시대별 특징과 대표 교재에 대한 논의와 함께 한국어교육사를 구분하였다. 한국어 교육의 목적에 맞게 교육용 교재가 편찬된 첫 번째 시기는 태동기라고 하였다.

1) 김영란(2009:174-175)에서 외국어 언어 교육과 한국어교육 교재, 한국어교육 연구 등을 시대별로 비교·연구하였다. 한국어교육 교재는 언어 교육과 20년의 시차를 두고 수용되면서 1970년대부터 제안된 의사소통교수법이 1992년에 발간된 교재에 구현되어 있다.

2) 이창덕 외(2017:49-50)에서 화법은 참여자의 규모에 따라 개인 화법, 집단 화법, 대중 화법으로 분류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 교양 과목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진행되는 대중 화법을 ‘발표’라 명명한다.

3) 한글파크:

<http://hangeulpark.com/ko/goods/search.asp?skey=all&sword=%ED%95%9C%EA%B5%AD%EC%96%B4+/2019.05.19>

II. 연구 방법과 분석 대상

2.1. 연구 방법

교재의 변천은 교육의 능동적인 변화의 결과이다. 교재에 담긴 교육 내용의 변화가 교육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동인이다. 외국어 혹은 제2 언어로 가장 많이 학습되는 영어의 발표 교육은 오랜 역사를 토대로 다양한 교재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미국·중국·한국의 발표 교육에 대한 선행 연구를 중심으로 발표 교육의 명칭, 교육 목표, 교육 내용, 교재, 등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중국과 한국에서 1970년대 이후 출판된 교재를 대상으로 발표 기능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 대상의 목록화’→‘자료 확보’→‘발표 기능 목록 선정’→‘내용 분석’→‘DB구축’→‘자료의 해석’ 순서로 진행하였다.

2.2. 분석 대상

본 연구에서는 서종학 외(2017:79-112)에서 제시한 교재사에 근거하여 분석대상을 선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교재 변천 시기는 제1기(1959년-1975년), 제2기(1976년-1988년), 제3기(1989-2000년), 제4기(2001년 이후)이다. 제1기의 교재에서 제시된 담화들은 담화 상황이 구체적이지 않고 사적인 대화 위주여서 제외하였다.⁴⁾ 이는 발표 담화의 ‘격식성·공식성·계획성’의 성격에 맞지 않는 것이다. 제2기인 1970년 중반 이후 한국에서 출판된 교재 중 통합교재 59권(워크북 제외), 기능 분리형 교재 중 말하기 교재 8권, 중국은 2003년 이후 출판된 통합교재 3권과 말하기 교재 9권을 조사 대상으로 정하였다. 각 대학별 교재들을 시기별로 나열하고 출판 시기 순으로 번호를 붙여 목록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아래의 번호로 교재를 칭한다.

2.2.1. 한국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

가. 서울대학교(1979-20180, 4종 20권)

번호	년도	책이름	출판사
서-①-1	1979년	한국어1.2	명지출판사
서-①-2	1980년	한국어3	명지출판사
서-②	1999-2000년	서울한국어1-4	문진미디어
서-③	2013-2015년	서울한국어1A-6B	투판즈
서-④	2018	서울대한국어 ^{+PLUS}	서울대학교 문화원출판

나. 연세대학교 (2006-2012, 2종 4권)

번호	년도	책이름	출판사
연-①-1	2006년	한달 완성 중급 말하기	연세대출판부
연-①-2	2008년	한달 완성 중급 I 말하기	연세대출판부
연-②-1	2012년	한국어 말하기 중급 II	연세대학교출판문화원
연-②-2	2012년	한국어 말하기 고급	연세대학교출판문화원

4) Fred Lukoff(1972:295) Spoken Korean/ Book 2의 43과 상황 1~4에서 <찬성과 동의>에서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 거부합니다.’와 같은 담화표지를 제시하였다. 이 책은 1945년에 출판되어 1972년에 재판한 것이다. 이 시기는 근대기를 맞이한 한국에서는 ‘회의 진행 지침’이라는 번역서 출판과 미국에서는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이란 이름으로 ‘스피치와 토론 교육의 실습을 강조’하는 시대였다.

다. 고려대학교 (1986-1992, 2종, 3권)

번호	년도	책이름	출판사
고-①-1	1986년	한국어회화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고-①-2	1992년	한국어회화5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고-①-3	1992년	한국어회화6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고-②-1	1986년	한국어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라. 서강대학교 (2000-2005, 3종 15권)

번호	년도	책이름	출판사
서강-①	2000-2003	서강한국어1-4	서강대학교한국학센터
서강-②	2005-2007	서강한국어1A-5B	서강대학교한국어교육원
서강-③	2015	서강한국어말하기6	서강대학교국제문화 교육원출판부

마. 경희대학교(2000-2015, 3종 11권)

번호	년도	책이름	출판사
경-①-1	2000-2003	한국어초급I,II	경희대 출판국
경-①-2		한국어중급I,II,	경희대 출판국
경-①-3		한국어고급I,II,	경희대 출판국
경-②	2015	경희한국어 말하기 5	하우
경-③	2016-2017	경희한국어1-4	형설출판사

바. 성균관대학교(2017, 1종 1권)

번호	년도	책이름	출판사
성-①	2016	말하기 능력을 키우는 말하기 기술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사. 이화여자대학교(1979, 2종 5권)

번호	년도	책이름	출판사
이-①	1979	한국어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이-②	1998-200 2	말이 트이는 한국어 I-IV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2.2. 중국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

가. 북경대학교(2018, 2종 4권)

번호	년도	책이름	출판사
북-①	2003	韩国语情景会话(한국어정경회화)	북경대학출판사
북-②	2018	표준한국어 1-3(제7판)	북경대학출판사

나. 중앙민족대학교(2009, 1종 4권)

번호	년도	책이름	출판사
중-①-1	2003	韩国语口语教程 (한국어구어교정) 초급 상·하	민족출판사
중-①-2		韩国语口语教程 (한국어구어교정)중급 상·하	민족출판사

다. 산동대학교(2018, 1종 4권)

번호	년도	책이름	출판사
산-①-1	2003	新世紀韩国语口语教程 (신세기한국어구어교정)초급 상·하	외국어교육연구 출판사
산-①-2	2018	新世紀韩国语口语教程 (신세기한국어구어교정)중급 상·하	외국어교육연구 출판사

Ⅲ. 발표 교육의 역사적 변천 과정 연구

3.1. 미·중·한국의 발표 교육의 명칭 변화

미국은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결정 시 가장 많이 참고하는 교육과정 중 하나이다. 중국은 출입국 외국인 정책 본부의 조사를 통해 한국어 학문 목적 학습자 중 1위를 차지하기에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나라마다 교육과정 비교 시 발표를 표현하는 용어가 동일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므로 발표의 변천 과정 연구에서는 설명, 설득, 동기 부여 등의 다양한 목적을 위해 매체를 활용하여 공식적인 상황에서 구어로 의사소통하는 행위를 발표라 정의하고 이 정의에 부합하는 내용들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⁵⁾

<표 1> 미·중·한국의 발표 교육의 명칭의 변화⁶⁾

미국	시대	1860-70년대까지	19세기 후반	1915-1945	현재
	명칭	오라토리(ortory), 엘로쿠션(elocution), 공공연설(public speaking)	오라토리, 엘로쿠션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
중국	시대	근·현대 시기 (1840년-1949년)	1949년-20세기말	2000년대-	
	명칭	혼자 말하기, 회화, 강연, 공연	독백, 토론, 변론, 역할극	이야기하기, 토론하기, 상의하기, 즉석연설, 주제 강연	
한국	시대	근대 (1809-1946)	1기(1959-	2001년-	
	명칭	담서, 회의법, 연설, 토론, 웅변	소개하기	발표, 스피치, 말하기, 커뮤니케이션	

3.2. 발표 교육의 교육 목표의 변천

이집트 시대에 이미 화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⁷⁾ 미국의 초기 교육과정은 영국의 영향을 받았다. 그리스의 수사학과 시민 교육을 주장한 이소크라테스(Isocrates)의 화법 교육은 영국의 신고전주의로 계승 되었다. 1730-50년대에는 ‘Great Awakening’ 운동으로 증대된 시민성을 높이기 위해 미국 독립 전후인 18세기부터 커뮤니케이션 교육 혹은 소통교육은 대학 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5) 이영창·오현아(2014:332)에 의하면 ‘매체 교육’은 1955년부터 ‘매체언어’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부터 사용된 어휘이므로 활용 여부는 시대에 따라 다르다.
 6) 유성수(2000), 이준웅·양승목(2004), 김영란(2009), 이정옥(2010), 허재영(2015), 이상철(2018) 등의 선행연구와 경흥위(2016) 단행본을 참고하여 비교 정리한 것이다.
 7) 유성수(2000:17-18)에서 프랑스 고고학자 프리세 다벤느(Prisse D’Avennes)가 이집트 고분에서 발굴한 것을 1947년에 프랑스 국립 박물관에 전한 것이다. 이집트인들은 유언을 파피루스에 써서 재산과 함께 후손에게 남기는 습관이 있다. 이 파피루스를 프타호텝 및 케겜니의 교훈이라고도 한다

<표 2> 미·중·한국의 발표 교육의 교육 목표 변화

미 국	시 대	1860-70년대까지	19세기 후반	1915-
	목 표	시민 개개인의 의사소 통능력 향상	공정한 절차와 과정으 로 의사를 표현하는 능 력 배양	민주시민 양성
중 국	시 대	근·현대 시기 (1840년-1949년)	1949년-20세기말	2000년대-
	목 표	듣기와 말하기 능력	언어의 4기능 향상 -듣고 말하기 강조	의사소통능력
한 국	시 대	근대 (1809-1946)	1기(1959-	2001년-
	목 표	세계인과 교제, 회의 진 행, 응변 기술 획득	기초 회화 학습	핵심역량 강화와 공동체 의 지적 발전에 기여

3.3. 발표 교육의 교육 내용의 변천

미 서부 지역의 개발과 경제 성장으로 고등 교육의 수요가 급증하였다. 19세기 중반 이후 미국의 발표 교육은 스피치 교육의 정체성을 확립하면서 교재 출판 활동이 활발하였다. 또한 시민을 위한 실용적인 스피치 교육을 확대되었다.

<표 3> 미·중·한국의 발표 교육의 교육 내용의 변화

미 국	시 대	1860-70년대까지	19세기 후반	1915-1945-현재
	내 용	유명한 연설문 암기	스피치와 토론 교육의 실습	시민교육과 소통교육
중 국	시 대	근·현대 시기 (1840년-1949년)	1949년-20세기말	2000년대-
	내 용	문학과 비문학 작품 읽기	읽고 다시 말하기, 토론, 변론, 그림보고 말하기	기술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학생의 자주의식, 창조능력 배양
한 국	시 대	근대 (1809-1946)	1기(1959-	2001년-
	내 용	서양 예절, 회의 진행법, 응변 지식과 기술	기초 회화	발표의 구조와 기능, 실연

3.4. 발표 교육의 교재의 변천

교재는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 정책을 펼치는 도구이다. 또한 교재는 교육과정을 근거로 선정된 교육 내용을 교사와 학습자에게 제공한다. 아래의 교재 변천 과정은 3국의 말하기 교육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표 4> 미·중·한국의 발표 교육의 교재의 변화

미국	시대	1860-70년대까지	19세기 후반	1915-1945-현재
	교재	①조지캠벨 (GeorgeCampbell1776)-'Philosophyof Rhetoric',-Harper&BrothersPublishers,WentworthPress/CambridgeUniversityPress ②휴블레이어 (HughBlair1783)-'LecturesonRhetoric andBellesLettres'-WentworthPress	①아담힐(Hill1878) -ThePrinciplesofRhetoric,SagwanPress ②밀(Mill1882) -TheScienceofElocution,NabuPress,HanseBooks,WentworthPress ③윌리엄포스터 (Foster1908)-'ArgumentationandDebating,AntesitePress/SagwanPress	트루블러드(Trueblood1915) -PracticalElementsofElocution,WentworthPress
중국	시대	근·현대 시기 (1840년-1949년)	1949년-20세기말	2000년대-
	교재	호적(胡适:1923) 《新学制国语教科书》 엽성도(叶圣陶:1932) 《开明国语课本》	1950《初中语文》 1986《全日制小学语文教学大纲》 2000《语文教学大纲》	왕건화(王建华:2011) 《大学生口语交际教程》
한국	시대	근대 (1809-1946)	1기(1959-	2001년-
	교재	윤치호 [의화통용규칙1898.4]-황성신문사 왕도 [서례수지](西禮須知1896)-학부 ⁸⁾ 안국선 연설법방1907.11]-창신사 안창희 응변법강론1946]-응변구락부	기초 회화서, 통합형 교재	통합형 교재와 기능 영역별 교재- 대학부속 출판부와 출판사

IV. 한국·중국의 한국어 교재 분석

4.1. 한국의 한국어 교재 분석

'서례수지'를 한국어교재의 시작으로 본다면 한국어교재 편찬의 역사는 200년 정도가 될 것이다.⁹⁾한국어교육 교재 개발은 한국어교육 연구가 이루어진 시점보다 앞선다. 1970년대 후반부터 개발된 교재에서 시작하여 최근 개발된 통합형 교재와 말하기 교재를 대상으로 교재에 제시된 발표 기능 목록은 <표 4>와 같다.

<표 5> 발표의 구조와 발표 기능

도입		전개		마무리		질의응답	
1	인사 및 소개하기	1	정의하기	1	발표 종료 알리기	1	청중에게 질문 요청할 때
2	청중의 주목 끌기	2	내용전개/순서안내	2	요약하기	2	청중이 질문을 했을 경우
3	주제 제시	3	예시.인용하기	3	주제마무리 하기	3	질문에 답을 한 후에
4	발표 목적 및 주제 선정 이유 밝히기	4	구분.분류하기	4	강조하기	4	질문의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을 때
5	발표순서 제시하기	5	비교.대조하기	5	당부하기	5	특별히 대답이 필요한 질문이 아닐 때
6	시작 알리기	6	자기 생각 말하기	6	전망하기	6	질문이 없을 경우

8) 허재영(2015:214)에서 서례수지의 원저자는 존 프라이이며 1886년 상해 격치서원에서 왕도(王韜, 1828 ~ 1897)가 서문을 붙여 간행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9) 고경민(2016:298)에서 교재 편제는 어휘와 문장 중심, 교육 내용이나 편찬자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 다양한 교수법과 교수이론의 적용, 대상과 목적, 교육 형태 등에 따라 세분화되고 있다.

7	비유하기	7	결론 제시하기	7	인사
8	자료 제시하기				
9	앞선 내용과 연결				
10	화제 전환하기				
11	논거 제시하기				
12	특정 내용 부각하기				
13	의견 부연하기				
14	자세히 설명하기				
15	부연설명하기				
16	현상 말하기				
17	원인 말하기				
18	대안 말하기				
19	가정하기				
20	요약하기				

발표란 용어는 분석 대상 교재 가운데 이-②의 ‘말이 트이는 한국어 IV’에서 ‘발표 원고를 써 보십시오.’라는 문장에서 처음 출현했다. 기능과 3단 구조, 발표 태도, 언어 표현, 시각적 요소, 발표 평가에 대한 내용은 경-①-3 ‘한국어 고급 II’에 있다. 이와 더불어 교재별로 특이한 점들이 확인 되었다. 연-②-1은 ‘설명요청하기와 의견 묻기’에서 청자의 담화 표지에 대해 상세히 논하고 있다. 연-②-2는 예시·인용하기, 비교 대조하기, 자세히 설명하기를 ‘덧붙여 설명하기’로, 내용 전개를 ‘정보 나열하기’로 제시했다. 연-②-2와 서-④는 발표와 토론을 동일한 비중으로 구성하였다. 서-④는 ‘연결하기’라는 항목을 따로 두고 ‘도입’과 ‘전개’, ‘전개’에서 ‘마무리’로 연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제시하였다. 또한 ‘내용 전개, 구분·분류’를 ‘연결 기능’으로 분류하였다. 경-②는 주제에 유용한 표현으로 각 과마다 속담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서강-③에는 다른 교재에 없는 ‘현상 말하기, 원인 말하기, 대안 말하기, 가정하기’ 등이 있다. 서-③은 1A부터 발표 기능을 제시하고 있으며 6A에 발표문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어 교재에서는 도입 6개, 전개 20개, 마무리 7개, 질의응답 7개 기능이지만 발표와 토론 교육이 일찍 시작되었던 영어권 국가의 발표에 관계된 발표 기능들은 도입 10개, 마무리 8개, 질의응답에서는 ‘질의응답 시간 소개, 질의응답, 청중에게 질문 확인’과 같이 여러 층위로 나누어 14개를 제시한다. 의사소통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화자와 청자 간의 담화 기능을 상세히 세분화하였다. 인사의 경우도 도입 부분에서 ‘인사, 특별한 분 혹은 일이 있으면 감사 인사’ 마무리에서 ‘인사’ 질의응답 중에 질문자에 대한 인사, 최종 인사로 나누어 제시해 두었다.

4.2. 중국의 한국어 교재 분석

[표준한국어]는 1992년 한중수교이후 중국에서 출판한 첫 번째 통합교재이다. 북경대학 교연실 주임인 안병호 교수와 부주임인 장민부교수가 국내 25개의 대학교의 한국어전공 교사들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당 교재를 편집하였다. 많은 대학교와 한국어전공 수업에 사용되는 교재이다. ‘발표’라고 명시적으로 제시된 내용은 제5과와 10과의 연습 6에 제시된 내용이 전부이다.

○ 5과 <연습 6>

여러분의 취미나 여가 생활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글을 써 발표해 보십시오.

○ 6과 <연습 6>

대학을 졸업한 후 취직을 할지 대학원에 진학해 학업을 계속 할지 고민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내가 만일 이 친구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요? 네 사람씩 조를 이루어 의견을 나눈 후 정리하여 발표해 보십시오.

주로 ‘소개하기, 이야기하기, 말해 보세요, 서술하기, 묘사하기’ 등의 말하기 형식으로 교재에 제시되어 있지만 발표 기능에 대한 교육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다.

[韩国语情景会话한국어 생활회화] (2003)에서 단원 구성은 본문대화->새 낱말->관련인사말->어법->연습->보충설명으로 되어 있으며 발표와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

[韩国语口语教程](한국어구어교정) (2009)는 대학교 한국어 전공 학습자를 위해 초급 상·하, 중급 상·하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초급 상 교재는 대학교의 한국어 전공 1학년 학생과 한국어 초급 학습자를 위해 편찬한 것이다. 구어(口語)교수를 위한 교재로 편찬자의 풍부한 교수 경험을 결합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구어의 실제 응용 기술에 대한 빠른 습득을 목적으로 하였다. 중급 상은 대학교 2학년 한국어 전공자를 위한 교재이다. 도입, 활동, 과제 활동은 ‘말해 보세요, 토론해 보세요, 연기해 보기, 설명해 보세요, 이야기를 나누기, 소개해 보세요, 표현해 보세요.’ 등의 유형으로 제시되어 있다.

○중급 하 제5과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가요

[과제 활동] 과제1:

1. 본문을 바탕으로 따뜻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개인적·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그룹별로 토론, 정리하여 발표하세요.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	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 일

‘발표’로 명시적으로 제시된 내용은 중급 상 ‘제5과’와 ‘제15과’, 중급 하의 ‘제5과’ 과제 활동에서이다. 담화 표지와 관련된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발표의 형식이나 구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新世纪韩国语口语教程新世纪한국어구어교정] (2018)은 한국어 전공자를 위한 구어 교재이다. 한·중 양국의 한국어 교육 관련 교사들의 공통 집필하였으며, 목적은 한국어 학습자의 듣고 말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상황설정의 실제성, 언어 사용의 생동감, 듣고 말하는 능력의 향상과 문법을 강조하였다. 교재가 타 교재에 비해 체계적이고, 초급 상·하, 중급 상·하로 총 4권으로, 다양한 삽화, 사진 등을 추가하였다. 초급 교재에는 ‘이야기해 보세요.’ 등과 같은 말하기 유형이 제시되었다. 중급 교재에서는 상·하에 걸쳐 매 단원의 [연습]을 통해 ‘발표’가 명시적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단순히 어떤 주제에 대해 발표를 하라는 내용이고 발표 기능에 대한 교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¹⁰⁾ ‘발표해 보세요.’로 제시된 연습 활동은 서술형, 그림이나 사진을 이용, 문장 완성형 등의 3가지 유형으로 제시되어 있다.

V.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발표 교육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발표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이 목적이다. 교재의 담화는 당대의 대면 커뮤니케이션 상황을 보여주는 동시에 현재 한국어 교재와 미래의 교재 방향을 제시해준다. 먼저 미국·중국·한국의 발표 교육의 명칭, 목표, 내용측면에서 종으로 검토하면서 각 시기별 교재를 소개하였다. 이를 토대로 한국어 교육 교재의 발표 교육의 변모 양상을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한국어와 중국어 교재에서 발표 기능의 변천 과정 분석은 ‘연구 대상의 목록화’→‘자료 확보’→‘발표 기능 목록 선정’→‘내용 분석’→‘DB구축’→‘자료의 해석’ 순서로 진행하였다. 분석 대상은 한국 교재는 1970년 중반 이후 한국에서 출판된 교재 중 통합교재 59권(워크북 제외), 말하기 교재 8권, 중국은 2003년 이후 출판된 통합교재 3권과 말하기 교재 9권을 조사 대상으로 정하였다. 조사 결과 70년대 후반 한국어 교재

10)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制定(2017)의 ‘普通高中语文课程标准’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상(上)부터 고등 3년까지의 국어 교육내용을 제시하였다. 강연, 역할에 따라 본문 읽기, 이야기하기, 소개하기, 연설 등에 관련된 내용은 있으나 직접적으로 발표와 관련된 내용은 없다. 강연이나 연설 교육에서도 구체적인 발표 기능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에서는 ‘격식체를 쓰서 자기 소개하기’가 있었다. 발표가 ‘격식성·공식성·계획성’의 성격을 가진 담화이므로 위의 표현도 발표 기능으로 간주하였다. 발표 기능의 분류에서 교재마다 다른 양상을 보였다. 또한 다른 교재와 구분되는 교재 구성과 특이한 발표 기능들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발표 기능들을 도입·전개·마무리의 3단 구조에 맞게 목록화하였다. 이를 토대로 영어권 국가의 발표 기능과 비교하여 도입과 마무리에서 화자와 청자의 의사소통 활성화에 필요한 기능들을 간략하게나마 제안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분석 대상인 교재 수가 한국 59권, 중국 12권이라는 수적인 부족으로 조사가 부족했다는 한계가 있다. 일본 자료의 확보로 인한 양적 연구가 필요하며 학문 목적 학습자의 발표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고경민(2016), 한국어교재의 편찬 동향 분석, 국제어문, 제71집, 국제어문학회, 297-319쪽.
- 고경민(2017), 한국어 교재의 변천과 시대구분에 대한 연구, 교육과학연구, 제주대학교 교육과학연구소, 19-38쪽.
- 김영란(2009), 한국어교육 교재의 변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학과 박사학위논문.
- 방성원(2011), 한국어 교재 및 교육 자료 연구 동향 분석, 이중언어학, 이중언어학회, 591-626쪽.
- 유성수(2000) 역사적 고찰을 통한 화법 교육의 연구, 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학과 석사학위 논문
- 이상철(2018), 미국 대학교육에서 시민성을 위한 말하기 수사학교육의 천착과 스피치교육으로 변천하는 과정에 관한 연구 - 미국 독립 전후에서 1945년 이전을 중심으로 -, 수사학, 한국수사학회, 7-32쪽.
- 이영창, 오현아(2014), 국어교육 내 매체 교육 변화 양상 탐색, 새국어교육, 한국국어교육학회, 327-379쪽.
- 이정옥(2011), 근대 초기 회의 규범의 수용과정- 의회통용규칙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론업, 한국문학회, 379-409쪽.
- 이준웅, 양승목(2004), 한국스피치커뮤니케이션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스피치커뮤니케이션학회, 127-165쪽
- 허재영(2015), 화법 교육사의 차원에서 본 『서례수지(西禮須知)』연구 한국화법학회, 211-232쪽.
- Fred Lukoff(1972), Spoken Korean/ Book 2, Spoken Language Services Inc.
- 서종학 외(2017), 한국어 교재론, 한국문화사.
- 이창덕 외(2017), 화법 교육론, 역락.
- 경홍위(耿紅衛2016), 中国语文教育史教程, 山东教育出版社.
- 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制定(2017)의 ‘普通高中语文课程标准’.

한글파크:

[http://hangeulpark.com/ko/goods/search.asp?skey=all&sword=%ED%95%9C%EA%B5%AD%EC%96%B4+/\(검색일: 2019.05.19.\)](http://hangeulpark.com/ko/goods/search.asp?skey=all&sword=%ED%95%9C%EA%B5%AD%EC%96%B4+/(검색일: 2019.05.19.))

Riss:

[http://www.riss.kr.libproxy.yu.ac.kr/search/Search.do?detailSearch=false&searchGubun=true&oldQuery=&query=%ED%95%9C%EA%B5%AD%EC%96%B4+%EA%B5%90%EC%9E%AC+%EB%B3%80%EC%B2%9C&x=0&y=0 \(검색일:2019.05.11.\)](http://www.riss.kr.libproxy.yu.ac.kr/search/Search.do?detailSearch=false&searchGubun=true&oldQuery=&query=%ED%95%9C%EA%B5%AD%EC%96%B4+%EA%B5%90%EC%9E%AC+%EB%B3%80%EC%B2%9C&x=0&y=0 (검색일:2019.05.11.))

쇼호스트(Show host)의 담화에 나타나는 설득 전략 연구 - 양태부사 사용을 중심으로 -

이세인(한국외국어대학교)

1. 서론

1) 연구의 목적

일반적으로 설득은 발화자가 청자의 신념이나 행위에 직간접적 변화를 이끌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된다. 이때 화자가 청자에게 전하는 설득 전략은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는데 최종적으로 청자가 수행하는 변화의 방향이 화자의 의도와 부합할 때 설득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고대 서양 사회에서 설득은 수사학이라는 이름으로 주로 정치적 영역에 국한된 담화 전략이었다면, 현대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전 영역에 걸쳐 화자의 의도를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담화 전략으로 이해되고 있다. 대화에 참여하여 말하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지향하는 결과행위(perlocutionary act)에 도달하기를 바라는 의도를 드러내는 수행행위(illocutionary act)라는 점에서 대화 행위는 실제 일어나는 활동으로서 기존의 상태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사회의 각기 다른 분야에서 다양한 방식의 설득 전략이 사용되고 이에 관한 효과를 입증하려는 연구들이 광범위하게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설득 전략의 성공 여부를 가장 빠르게 검증 가능한 분야 중 하나가 TV 홈쇼핑이라는 데에 주목하고, 이에 유일한 화자인 홈쇼핑 진행자를 중심으로 그들의 담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직업사전에 따르면(2013), 쇼호스트(Show host)는 “TV 홈쇼핑 진행자로 상품을 판매하고 방송을 진행하면서 시청자에게 상품의 기능, 특성 등을 설명하고 상품의 판매를 촉진하는 직업”으로 정의된다.¹⁾ 그들은 설득의 전략을 구사하면서 “시청자로 하여금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구매를 유도하는 마케터”의 역할을 수행한다(박란희 2009; 이정현 2001). 이때 설득 화행은 화자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메시지를 통하여 청자로부터 의도된 행동을 유발시키는 역동적인 과정이며, 청자가 되는 소비자의 구매가 결과행위로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대화 행위이다. 쇼호스트는 오로지 상품 판매라는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설득방식은 ‘구매 설득 커뮤니케이션’, ‘구매 설득 스피치’, ‘구매 설득 말하기’, ‘직접 판매 광고의 스피치’ 등으로 불리운다.

본 연구는 TV홈쇼핑 쇼호스트의 담화를 분석해봄으로써 그들이 청자의 구매행위를 촉발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언어 전략이 무엇인지를 양태부사 사용 양상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양태부사(樣態副詞)는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문장부사로, ‘정말’, ‘진짜’, ‘제발’, ‘결코’, ‘좀’ 등으로 양상부사(樣相副詞)로 불리기도 한다. 정해진 시간 내에 구매행위를 직접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홈쇼핑 진행자는 다른 설득 화행을 실천하는 화자보다 더욱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양태부사를 사용할 것이라는 가정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대상은 CJ홈쇼핑,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공영 홈쇼핑, GS홈쇼핑에서 판매하는 식품 광고 5편이며, 상품 판매 각각의 평균 상영 시간은 1시간으로 각기 다른 식품과 브랜드이다.

본 연구는 설득 전략에 대한 일반론이 설득의 대상에 따라 그 전략적 양상이 매우 상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검증하고자 한다. 특히 단시간에 설득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입증해야 할 경우 양태부사의 사용이 매우 빈번하게 사용된다는 점을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설득 전략은 상반되는 두 가지로 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 먼저 설득 전략으로 양태부사가 지닌 매력은 화자의 입장에서 구매행위를 유도한 화자의 의도를 적절히 수행했다는 점에서 효과적

1) 그러나 이후 살펴보겠지만 홈쇼핑을 진행하는 쇼호스트는 단순한 ‘진행자’로서의 역할을 넘어 청자를 설득시켜 물건을 판매하는 마케터의 역할, 소비자의 입장에서 판매물품을 관찰하는 대리인의 역할등을 포함한다. 때문에 홈쇼핑 진행자라는 용어보다 본 논문에서는 좀 더 포괄적이고 중립적인 용어로 많은 선행 연구들이 사용하는 ‘쇼호스트’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권순희 외(2011). TV 홈쇼핑 화장품 판매에 나타난 쇼호스트의 구매 설득 말하기 방식. 세계한국어문학, 6, 98. 참조.

인 설득 전략일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는 상품에 대한 과장된 광고 역할을 수행할 개연성이 있고,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구매행위를 유도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청자의 입장에서는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양태부사의 효과가 입증된다면 구매행위를 촉진하는 매체를 대상으로 양태부사의 사용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건전하고 능동적인 소비행위를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2) 선행연구

설득 전략에 관해서는 수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었지만, 쇼호스트의 담화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많지 않다. 1977년 최초로 TV홈쇼핑을 방영한 미국과는 달리 1995년 처음 TV홈쇼핑이 국내에 방영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2004년 이후 이미 유럽이나 일본을 제치고 홈쇼핑 매출이 세계 2위로 급부상한 국내 상황을 고려하면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특히 홈쇼핑의 매출은 쇼호스트의 능력과 자질 등과 직접적으로 연관을 맺어왔는데, 상품의 판매자와 구매자를 직접 연결하는 중개인으로, 방송의 진행자로, 그리고 상품을 판매하는 마케터로 소비 결정 행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²⁾

쇼호스트에 관한 설득 화행은 주로 포괄적인 차원에서 (1)설득의 내용에 초점이 맞추어진 연구, (2)주로 소구포인트를 분석한 연구, 마지막으로 (3)언어 외적인 것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주를 이루어 왔다. 먼저 설득의 내용에 초점을 맞춘 권순희 외(2011)의 연구에서는 쇼호스트들의 구매 설득 내용을 '구매기회의 희소성과 긴급성'('단 하루', '오늘'), '판매처의 신뢰성과 브랜드의 명성', '제품의 기능과 성능', '자기 경험을 보여주는 스토리텔링', '가격의 매력성'이라는 다섯 가지로 분류하여 분석하고 있다. 이정현(2011)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쇼호스트의 설득 화행을 "구매설득커뮤니케이션"으로 정의한다. 그에 따르면, 구매설득커뮤니케이션은 "잠재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여 자사의 유무형의 제품에 관심을 이끌어내고 궁극적으로 구매로 연결하려는 적극적인 마케팅커뮤니케이션 활동"이다. 그 구체적인 전략은 '상품 매력성 강조', '가격 매력성 강조', '희소성 전략'으로 요약된다. 이두원(2001) 역시 쇼호스트의 커뮤니케이션을 "직접 판매 광고의 스피치"로 정의하면서, 쇼호스트의 설득 행위를 판매행위, 설득 행위, 오락행위를 포함한 수사학에 바탕을 둔 것으로 표현하였다. 이에 따라 설득의 소구점, 설득 전제, 설득의 전략과 전술로 나름 체계적으로 연구를 진전시켰다.

다른 한편, 소구포인트를 중점적으로 분석한 연구들도 있다. 황미영(2003)은 소구 포인트를 논증적포인트, 감정적 소구 포인트, 반복강조형 포인트로 나누었고, 비슷한 맥락에서 유난희(2007)는 쇼호스트의 소구점을 감성적 소구와 이성적 소구로 구분하여 연구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쇼호스트들은 소비자에게 긍정적 이미지를 전달하는 방식의 감성적 소구와 실질 효과나 경제적 효용가치 등을 앞세운 이성적 소구 방식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김세희(2009) 역시 쇼호스트의 방송언어를 소구점과 어휘사용실태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쇼호스트의 구매설득전략은 프로모션, 브랜드 명성, 쇼호스트 체험, 유행정보, 동조 유발과 제안, 무형적 상품 속성의 정보, 유형적 상품 속성의 정보, 비교 및 선취 정보로 구분되었다. 마지막으로 언어 외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들은 매우 다양한 관점에서 홈쇼핑 진행자와 구매행위를 연결시키고 있다. 구체적으로 쇼호스트의 패션에 관한 연구(성광숙 2006), 쇼호스트의 저명도 혹은 신뢰성과 구매 의사의 상관에 관한 연구(정은이 2013; 전타식 2008; 이준일·김효석 2007), 쇼호스트의 스피치 스타일, 목소리 전달속도, 높낮이 등에 관한 연구(박란희 2009; 윤치영 2009, 장문정 2011) 등이 있다.

기존 연구들은 쇼호스트의 설득행위가 청자의 구매행위에 미치는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다양한 요소들을 도출해내었다. 그러나 많은 연구에서 구체적인 어휘사용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비했으며 특히 여타 연구들에서 설득의 전략으로 종종 논의되어 온 양태부사의 경우 쇼호스트의 설득 담화에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제 사례에 적용된 경우는 거의 전무 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2) 실제로 홈쇼핑 진행자의 역할이 급부상되던 2000년대 중반 한국소비자보호원(2004)의 조사에 따르면, TV 홈쇼핑 상품 구매시 '쇼호스트의 설명과 권유'라는 응답이 전체의 77.4%를 차지하였다. 특히 이 중에는 '사전에 제품을 구매할 의사가 없었다가 우연히 충동적으로 쇼호스트의 말을 듣고 물품을 구매했다'는 응답이 60.6%로 나타나기도 했다. 김혜진(2004), "TV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이용실태 조사". 한국소비자보호원.

2. 이론적 배경

1) 쇼호스트의 설득 행위와 설득 전략

설득이란 “말, 이나 상, 몸짓 등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수단을 활용해 설득 주체의 의도에 맞게 타인의 생각, 신념, 의지, 가치 등에 변화를 주어 긍정적이며 호의적인 태도를 창출해 내는 태도 변용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이정현 2011, 313). 때문에 일반적인 대화 행위와는 달리 설득 행위는 매우 정교하고 단계적이며 계획적으로 이루어진다. 그것은 대인 설득 메시지를 고심하여 계획하는 메시지 산출과정을 거쳐, 계획된 메시지를 수정하고 보완하면서 구체적인 메시지 전략과정을 모두 통과해야 설득에 성공할 수 있게 된다(강길호·김경은 2012).

설득 행위에 관해서는 미국의 마웰과 슈미트(Marwell & Schmitt, 1967)의 연구 및 여러 학자들로부터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져 왔지만(Buss, Gomes, Higgins, & Lauterbach, 1987; Cody & McLaughlin, 1980; Cooke & Kipnis, 1986; 강길호·김경은 재인용),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쇼호스트의 설득 행위와 전략은 일반적인 설득 행위와는 차이가 있다. 대개의 설득 행위는 발화자와 청자, 즉 설득 행위자와 설득 대상자가 있다. 그리고 설득의 목적이 직접적으로 행위자와 대상자에게 어떠한 이득을 수반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는 행위자와 상대 간의 영향력을 차이에서 오는 부담을 주거나 받는 방식을 포함한다.

그러나 쇼호스트의 설득 행위는 행위자와 대상자에게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이익을 수반하지 않는다. 또한 행위자는 상대에게 어떠한 위력이나 영향력을 직접 행사하지도 않기 때문에 청자는 화자로 인한 부담을 갖지 않는다. 쇼호스트의 설득 행위는 무엇보다 업체로부터 제공된 물건의 최대한을 판매해야 한다는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 시간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때문에 이들이 사용하는 설득의 전략은 매우 직접적이고, 자극적이며, 명령조로 진행되는 특징을 지닌다.³⁾ 정해진 시간에 상품이 지닌 장점이나 매력을 최대한 부각시켜 동일시간대에 방송되는 유사상품과 경쟁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쇼호스트의 설득 담화는 당연히 전략적일 수밖에 없다.

위의 다양한 기존 연구들에서 보여주듯이 쇼호스트의 설득 전략은 주로 <상품 매력성 소구 전략>, <가격 매력성 소구 전략>, <희소성 소구 전략>, <구매자 인증 제시전략>, <긴급성 소구 전략>, <상호 호혜성 전략>, <구매 안정성 보장 전략> 등의 다양한 설득 전략 방식이 있다. 이러한 전략의 유형에 따라 소구포인트는 다르게 임히는데, 이정현(2011)의 연구에 따르면 상품 매력성 소구전략은 주로 상품의 특징이나 우수성, 장점 및 브랜드의 우월성이 소구포인트다. 또한 저렴한 가격이나 할부라는 조건을 앞세우는 것이 가격매력성 소구 전략이며, 상품의 소진, 판매기회의 희소에 소구하는 것이 희소성 전략이다. 구매자의 증가를 보여줌으로서 사회적으로 소위 인증된 제품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전략, 전문가의 조언과 지지를 강조하며 권위나 명성에 호소하는 전략, 환불과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구매 안정성 보장 전략 등이 있다. 이러한 모든 전략들은 설득을 위한 담화의 내용들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2) 설득 전략으로서 양태부사

기존의 연구에서 보여주듯이 쇼호스트들의 담화전략이 그동안 설득의 ‘내용’에 집중되었다면, 그 전략들은 주로 사전에 의도된 말들이거나 쇼호스트 개인의 순발적인 설득 능력에 기인하는 측면이 강하다. 그러나 화자의 말은 이러한 의도된 말과 함께 비의도적으로 그리고 훨씬 순간적으로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순간의 감정이나 태도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그 발화가 바로 양태부사와 직결된다.

양태부사의 사전적 정의는 “화자(話者)의 태도를 나타내는 문장 부사”로 “‘과연’, ‘설마’, ‘제발’, ‘정말’, ‘결코’, ‘모름지기’, ‘응당’, ‘어찌’” 등의 부사를 의미한다.⁴⁾ 이때의 태도는 주로 화자의 ‘심리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화자

3) 권순희 외(2011)의 연구에서는 쇼호스트가 물품구매의 긴급성과 희소성을 강조하는 특징적인 방식으로 권위나 청유가 아닌 단정적인 ‘명령’이 자주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었는데 주로 ‘해야 한다. 하셔야 해요’라는 어투를 사용하여 구매를 독촉하는 현상이 나타남을 지적하고 있다. 권순희 외(2011). TV 홈쇼핑 화장품 판매에 나타난 쇼호스트의 구매 설득 말하기 방식. 세계한국어문학, 6. 105.

4)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의 다양한 심리적 태도나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이선영 2018; 오철우 2017). 쇼호스트의 설득 화행은 1시간 정도의 짧은 시간에 최대한의 물건을 판매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주로 동일한 시간대에 비슷한 상품이 경쟁적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쇼호스트들에게 상당한 스트레스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실제 양태부사는 이러한 스트레스의 상황과 의미있는 상관을 맺고 있다는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오철우 2017).

한국어 양태부사와 관련하여 이선영(2018)은 한국어 양태부사의 범주와 용어의 정의, 부사체계 내에서 양태부사의 위치, 그리고 양태부사 어휘의 분류와 목록 등이 연구자들마다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한국어 교육학에서 양태부사에 관한 광범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에 의하면, 국가 주도의 <한국어 교육 어휘 내용 개발>의 부사목록은 745개에 해당 되었으나 양태부사를 연구한 선행연구에서 모두 출현한 부사는 총 125개에 해당 되었다. 이 부사 중 의미적 기준으로 제외된 부사(53개)가 제외되고 총 72개의 양태부사가 주로 사용되는 부사로 정리되었다. 이 부사들은 다시 의미적 특성에 따라 사실성, 가정성, 의지성으로 다시 문법적 호응관계와 제약에 따라 사실성 양태부사, 가정성 양태부사, 의지성 양태부사로 나뉘었다.⁵⁾ 관련한 다양한 논의들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설득 전략으로서 양태부사가 어떻게 유의미하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한하여 몇 가지 특징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첫째, 설득의 내용에 대해서 가능, 실현, 개연, 가정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화자의 심리적인 태도를 가의적으로 표현하는 부사라는 점이다(왕문용·민현식 1993; 온영주 1999; 서정수 2005).

둘째, 양태부사로 제시된 어휘 수나 목록은 학자에 따라 14개에서 87개로 선정되어 연구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거의 모든 양태부사에서 연구에 수행되었거나 구어에서 실현되는 빈도가 가장 높은 부사가 '정말', '진짜'라는 점에 착안하여, 이 두 부사가 설득 전략으로서 양태부사에 빈번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특히 이 두 부사는 강조의 의미나 적절한 용어가 순간 떠오르지 않을 때 채움말로 기능한다는 점도 고려되었다(송인성 2017)

셋째, '정말', '진짜'의 양태부사의 사용은 화자의 다양한 감정들을 순간에 여과없이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실성 양태부사이면서도 '확신'을 동반한 것이라는 점이다. 이 두 용어는 확신을 지닌 양태부사들이 몇 가지의 문법적 제약을 가지고 있는 것과는 달리 어떤 주어나 시제, 서법이나 부정, 결합 용언과도 제약이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과거나 현재 미래와는 문법적 제약이 없으며 평서나 의문 청유나 명령과도 문법적 제약이 없다. 반면 동일한 확신의 의미를 지니는 양태부사 중 과연, 분명, 분명히, 역시와 같은 양태부사는 청유나 명령에는 문법적 제약이 있다(이선영 2018, 178-9). 청유나 명령은 쇼호스트들의 설득 담화에 매우 중요한 전략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정말', '진짜'의 양태부사가 가지고 있는 속성은 매우 유의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3. 연구 방법

- 1) 연구 문제 및 실험방법
- 2) 분석 틀

4. 연구 결과 분석

- 1) 담화에 따른 설득 전략 사용 양상
- 2) 양태부사의 사용 양상

5. 결론

5) 이에 해당하는 부사의 목록은 <가령, 감히, 결코, 과연, 굳이, 기어코, 기필코, 꼭, 다행히, 대체, 대체로, 도대체, 도리어, 도무지, 도저히, 딱히, 뜻밖에, 마땅히, 마치, 물론, 반드시, 별로, 보통, 부디, 분명, 분명히, 불행히, 비단, 비록, 사실, 설령, 설마, 설사, 솔직히, 실은, 실제로, 아마, 아마도, 아무래도, 아무리, 아무쪼록, 아무튼, 아예, 어쨌든, 어쩌면, 어쩌지, 어찌, 역시, 오히려, 왜, 의외로, 전혀, 절대, 절대로, 정말, 정말로, 제발, 진짜, 차라리, 차마, 참으로, 통, 하긴, 하마터면, 하물며, 하여간, 하여튼, 한사코, 혹시, 확실히, 흡사>이다. 이선영. 2018. p.64.

참고문헌

- 고영근·구본관(2008).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 김혜진(2004). “TV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이용실태 조사”. 한국소비자보호원.
- 송인성(2017). ‘정말’, ‘진짜’의 담화 기능과 운율 특성. 한국어학, 77, 155-179.
- 장경현(2016). ‘좀’의 의미와 담화 기능. 국어문학, 61, 77-102.
- 신동혁·남지순(2016). 온라인 후기글 문서에 나타난 ‘좀’의 실현 양상과 극성 전환에 대한 연구, 우리말연구 44집.
- 조민정(2015) ‘좀’의 의미와 기능 변화 양상 연구, 한국어 의미학 49, 1-32
- 김현지(2015). 한국어 구어에서 ‘정말?’, ‘진짜?’의 담화 기능 연구. 언어와 언어학 제66집
- 권순희 외(2011). TV 홈쇼핑 화장품 판매에 나타난 쇼호스트의 구매 설득 말하기 방식. 세계한국어문학, 6, 93-119.
- 이정현(2011). TV홈쇼핑 쇼호스트의 구매설득커뮤니케이션 전략.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1(8), 311-320.
- 강길호·김경은(2012) “한국인의 커뮤니케이션에 나타난 대인설득 전략”, 한국소통학보, 18, 78-120.
- 이두원(2001), “TV홈쇼핑채널에 구매설득에 관한 수사학적 분석 연구”, 『광고연구』 제47권, 143-159.
- 이세인(2019), “한국어 거절 화행 교육 방안 연구: 러시아어권 중·고급 학습자의 거절 화행 사용 양상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선영(2018), “한국어 양태 부사 연구: 한국어 교육을 위한 기초 자료 구축”, 서울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오철우(2017), “언어사용 패턴은 몸의 스트레스 보여주는 지표”, 사이언스온.
- 윤치영(2009), “쇼핑호스트의 스피치스타일이 고객만족과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대전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난희(2007). “TV홈쇼핑 쇼호스트 방송언어 분석 :화장품과 가전제품 사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세희(2009). “TV 홈쇼핑 의류 상품 쇼핑 호스트의 방송 언어 분석 :구매 설득 소구점과 사용 어휘를 중심으로”, 『韓國衣類學誌』, 제33권 제9호 통권191호, 1483-1494.
- 장문정(2011). “쇼호스트의 목소리가 소비자 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음높이와 언어전달속도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란희(2009). “목소리 구성요소의 커뮤니케이션 효과에 관한 연구: 화자의 호감도와 공신력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論語』를 통해 본 孔子의 교육관과 활용 방안 -외국인의 한국어 교육 시 시사할 교육방안 제시-

윤인현 (인하대학교)

1. 序論
2. 시문학을 통한 性情醇化와 풍속의 교화
3. 因人施教의 교육관
4. 현대적 활용 방안
5. 結論

1. 序論

『論語』는 孔子의 언행을 비롯하여 그 가르침을 계승한 제자들의 언행까지 기록한 책이다. 편집자는 공자 제자의 제자들로 「學而」篇부터 「堯曰」篇까지 20篇 499章 12,700字로 구성되었다. 『논어』는 동양의 思想書 중에서도 동양인은 물론 서양인까지도 애독하는 책으로 道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사상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따라서 『논어』를 읽고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 배운 것을 실천하고 경우에 따라 삶의 참된 도리를 터득하여 자신의 심성 수양은 물론 인격 도야까지 행할 수 있다고 믿어왔다. 또한 修身과 齊家가 이루어지면 세상에 나아가 배운 바를 밝혀, 세상을 빨리 좋은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그 실천을 중시하기도 하였다. 여기서는 『논어』의 내용 중에서도 공자의 교육관과 관련 있는 내용을 살피면서, 현재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구해 보고자 한다.

孔子는 이름이 丘이고 字가 仲尼이다. 공자의 부친이 尼丘山에 빌어 공자를 낳았으므로, 이름을 산의 이름과 같이 丘라 하고 字를 仲尼라 하였다. 공자의 6대조이신 孔父嘉(공보가)가 宋나라에서 살해되어 그 증손자이며 공자의 3대조 곧 증조부 防叔의 代에 魯나라로 피신해 왔다. 공자의 부친은 叔梁紇로, 字가 叔梁이고 이름이 紇이며, 모친은 顏徵在이다. 공자는 B.C.551년에 魯나라 昌平鄉 陬邑에서 출생하였다. 유년 시절 노닐 때는 항상 제사 지내는 흥내를 냈으며, 장성해서는 곡식 창고를 맡은 관리인 委吏와 가축을 맡은 관인인 司職吏가 되었으며, 저울질은 공평하였고 가축은 번성하였다. 한편으로 천자의 國인 周나라로 가서 주나라 藏書室의 벼슬 柱下史를 지낸 老子께 예를 물으셨으며, 노나라로 돌아올 때는 따르는 제자들이 더욱 많았다. 35세 되던 해 齊나라로 가서 景公을 도우려고 하였지만 재상인 안영이 거절하여 다시 노나라로 돌아왔다. 魯나라 定公 원년은, 공자가 43세 되던 해이다. 이때 魯나라 桓公의 세 서자 계통의 자손이 있었는데, 孟孫氏·叔孫氏·季孫氏 등이 그들이다. 이 중에 가장 권력이 센 집안이 계손씨였다. 그 계손씨 집안의 陽虎가 노나라 정권을 멋대로 행하니 공자는 벼슬에 나아가지 않고 물러나서 『詩經』과 『書經』 그리고 禮와 樂 등을 편찬하였다. 제자들은 더욱 늘어나고 먼 곳에서까지 찾아와 글을 배우지 않은 자가 없었다.

정공 9년 庚子年에 공자가 51세 되던 해로, 公山不狃가 계씨에게 뜻을 얻지 못하자 양호에게 의탁하여 함께 費 땅에서 반란을 일으켜, 공자를 부르거늘 가시고자 하시다가 자로가 기뻐하는 기색이 없자 마침내 가지지 않으셨다. 그 후 정공이 공자를 中都 고을의 長으로 삼으니, 1년 만에 사방이 모두 공자의 통치방법을 따랐다. 공자가 중도의 장에서 사공(司空, 공조판서)이 되었고, 또 대사구(大司寇, 대사헌)가 되었다. 정공 10년 辛丑年에 정공을 도우셔서 齊나라 임금(景公)과 협곡(산동성 무래현)에서 회동하시니, 제나라 사람들이 노나라에 침략한 땅(운·민양·구음)을 되돌려 주었다. 정공 12년 癸卯年에 공자의 제자 仲由 곧 子路로 하여금 계손씨의 가신이 되게 하여 계손씨·숙손씨·맹손씨의 성벽을 허물고 그 갑옷과 병장기를 거두도록 하였는데, 맹손씨가 성읍의 성을 허물기를 좋아하지 않아 포위하였으나, 이기지 못하고 물러났다. 정공 14년 乙巳年은 공자께서 56세가 되는 해로, 대사구로서 재상의 일을 대신 맡아 행하였으며 노나라 정사를 문란케 한 대부 少正卯를 주살하였다. 공자가 정치를 맡은 지 3개월 만에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속이지 않았으며, 남자가 길을 갈 때 따로 걷고 길에 떨어진 물건을 주워가는 사람도 없었다. 사방에서 찾아오는 여행

객도 관리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었고 모두 잘 대접해서 만족하며 돌아갔다.

제나라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여자와 음악을 보내서 노나라가 잘 되는 것을 방해하고자 하였거늘, 노나라 계손씨가 80명의 무녀와 康樂舞라는 춤곡을 받고서 사흘 동안 정사를 돌보지 않았으며, 남쪽 교외에서 하늘에 제사 지내는郊祭를 지내되 대부들에게 희생제물을 나누어주지 않으니, 마침내 공자께서 노나라를 떠나서 衛나라로 가서 子路의 처 오빠 顔濁鄒의 집에 머물렀다. 그때 위령공이 노나라에 있을 때 봉록으로 조 6만 두를 주면서 머물게 하였으나, 누군가가 참조하여 10달 정도 머물다가 陳나라로 가려고 匡 땅을 지나갈 때, 광 땅 사람들이 공자를 양호로 잘못 알고 5일 간 포위당해 있었다. 그러나 풀려나 다시 위나라로 가서 蘧伯玉의 집에 머물렀다. 위나라 영공의 부인인 南子를 만나보고 떠나서 宋나라로 가시니, 권력자 사마환퇴가 죽이고자 하였거늘, 또 떠나 진나라로 가서 司城貞子の 집을 주인집으로 정하고 머물렀다. 그런 지 3년 만에 위나라로 돌아왔는데, 영공이 공자를 선뜻 거용하지 않았다. 이처럼 공자는 말년에 여러 나라를 周遊하시다가 68세 되던 해 스스로 벼슬을 구하지 않으시고 『書經』의 傳과 『禮記』를 서술하시고 『詩經』을 刪述하셨으며 음악을 바로잡으셨다. 노나라 애공이 庚申年(14년)에 노나라 서쪽으로 순수하여 麒麟을 포획하니, 공자께서 『春秋』를 지으셨다. 공자께서 72세 되던 辛酉년에 제자 자로가 위나라에서 죽고, 애공 16년 壬戌年 4월 乙丑日(11일)에 공자께서 돌아가시니, 연세가 73세였다.¹⁾

聖人으로서 추앙받는 孔子의 언행을 모아놓은 『論語』의 여러 내용 중에서도, 여기서는 공자의 말씀 중 性情醇化와 풍교의 기능 그리고 因人施教의 교육관을 먼저 살핀 후 외국인의 한국어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연구는 『논어』를 통해 본 공자의 교육관에 대한 연구²⁾가 주였다. 그리고 구체적 활용 방안으로는 공자의 교육적 관점을 활용한 외국인의 의사소통 능력 신장³⁾과 선인들이 공자의 교육관을 활용한 예⁴⁾ 그리고 공자의 교육관을 이용한 현대적 활용 방안⁵⁾ 및 교육관의 현대적 개선안⁶⁾ 등이었다. 선행 연구 중 ‘유가의 궁극적 목적이 治國平天下에 있다’⁷⁾고 하거나, 有子 곧 有若이 ‘孝弟’라 한 말을 공자가 한 말씀으로 간주⁸⁾하여 논리의 허점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유학의 근본은 ‘誠意正心’과 ‘修身齊家’에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외국인 중 한국어 학습을 하고자 할 때 그 수준에 따른 교육적 방법을 공자의 교육관을 활용하여 한국어 학습 방법에 적용하고자 한다. 공자는 문학의 기능 중 성정의 순화와 풍교의 기능을 중시하였으며, 교육의 방법은 수준별 학습에 따른 因人施教의 방법을 택하였다. 본고는 공자의 교육관 중 이 부분에 착안하여, 공자의 문학적 기능을 살피는 동시에 인인시교의 교육법을 탐구한 후 외국인의 한국어 학습시 성정순화와 풍교의 기능을 습득하면서 인인시교에 따른 한국어 습득 방법에 따른 수준별 학습법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朱子, 『論語集註序說』. 司馬遷, 『史記』 「孔子世家」 참조

2) 金昌煥, 「論語를 통해 살핀 孔子의 教授法」, 『中國文學』 제39집, 韓國中國語文學會, 2003.

이재권, 「孔子의 學習觀-진통적 해석을 중심으로」, 『大同哲學』 제24집, 大同哲學會, 2004.

李載高, 「孔子의 教育思想 研究」,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朴鍾赫, 「孔子의 學問·教育觀」, 『중국학논총』 제22집, 국민대학교 출판부, 2006.

이광소, 「孔子의 教育思想과 方法論」,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李美英, 「孔子의 教育思想에 나타난 人性教育 研究」,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申珥均, 「孔子思想을 통한 人性教育 指導方案」, 군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3) 장용수, 「한국어교육이 공자의 교육관에서 취할 수 있는 시사점: 문학과 음악을 중심으로」, 『아세아연구』 제59권 제2호 통권 164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16.

4) 심승환, 「茶山 사상에 나타난 孔子 교육관의 창조적 계승」, 『한국교육학연구』 제21권 제3호, 안암교육학회, 2015.

5) 金東龍, 「孔子의 實踐 教育思想의 現代的 意義」,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6) 성영이, 「공자의 교육관을 통해 본 중학교 전통윤리교육의 개선방안」,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閔智煥, 「공자의 교육사상을 통해 본 우리나라 학교 교육의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 연구」,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7) 장용수, 앞의 논문, 65쪽.

8) 심승환, 앞의 논문, 36쪽.

閔智煥, 앞의 논문, 9쪽.

2. 시문학을 통한 性情醇化와 풍속의 교화

性情醇化란, 타고난 바른 성품을 지닐 수 있도록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말이다. 『論語』 「爲政」篇 ‘無邪’ 章에 보면 공자가 68세 되던 해 魯나라 季康子가 불렀으나 선뜻 벼슬자리를 주지 않자, 이에 벼슬을 구하지 않고 『詩經』을 산술 하시고 음악을 바로잡았는데, 그 『시경』시를 한 마디로 評斷한 구절이 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시경시] 300편에 대하여 한마디 말로써 가려 말하자니, ‘생각함에 간사함이 없었다’고 할 것이니라.> 하셨다.”⁹⁾

위의 공자 말씀은 『시경』시 311편 전체를 한 마디로 평단을 한다면 ‘思無邪’라는 말로 평할 수 있다는 것이다. ‘思無邪’란, 『詩經』 「魯頌」의 시편 중 ‘駟」章에 나오는데, ‘말을 기르는 사람의 정성이 지극하며 생각이 치우치거나 간사함이 없기에, 그 말이 잘 자라고 또 잘 간다.’라는 구절에서 온 것이다. 지금은 작시자의 정성스럽고도 공명정대한 자세를 이르는 말로, ‘생각함에 사악함이 없다’는 뜻으로 쓰인다. 『시경』시가 대중들이 부른 노래라 해도 그 작시자의 생각이 한결 같이 정성되고 순수하며 조금도 간사함이 없었다는 것이다. 우리 인간사의 애정과 감정이 자유롭게 표현된 것이면서도 모든 노래가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은 감정을 노래한 것이기에 그 305편¹⁰⁾에 나타난 작시자의 자세가 생각함에 간사함이 없는 공명정대한 것이었음을 밝히고자 한 것이 위의 공자의 말씀에 담긴 뜻일 것이다.

위의 ‘無邪’章에 근거하여, 순수시의 개념을 한 번 짚고 가야 할 것 같다. 보통 순수시라 하면, 현실 인식을 배제한 채 언어의 조락미와 운율감을 살린 시를 순수시라 한다. 그러나 진정한 순수시는 작시자의 태도가 생각함에 간사함이 없고 공명정대하여 언제 어디서나 당당한 마음이 진정한 순수시의 마음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사무사’는 진정한 순수시의 개념을 드러낼 수 있는 말이다. 공자가 평단한 『시경』시 300여 편은 모두 사회시로, 생각함에 사악함이 없는 노래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암울한 현실 상황에 그 현실을 외면한 채 신변잡기에 가까운 감정을 드러낸다는지 자연의 아름다움만을 노래한 시는 참된 순수시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진정한 순수시는 작시자의 태도나 자세가 공명정대하여 사악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참된 생각의 결과물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고려 무신 시대 때, 신흥사대부들이 모여 노래했다는 「翰林別曲」도 이런 이유에서 배척되어야 할 시이다. 그래서 퇴계 이황은 「陶山十二曲發」에서 어린 학동들이 감히 불려서는 안 될 노래라고 하였다. 작시자의 태도가 공명정대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향락적이고 퇴폐적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참여시의 대척 지점에 있는 순수시에서의 純粹라는 말은 『시경』시를 평단한 思無邪의 개념으로서의 순수라는 의미는 안 될 말이다. 『시경』시를 평단한 사무사의 순수는, 시인들이 마땅히 현실의 문제에 외면하지 않고 그 현실의 문제를 제기하고 비판해야 한다. 현실이 암담하여 비판해야 할 처지에서 자연의 아름다움만 노래하고 진정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삶의 현실은 외면한 채, 賞自然만 노래한다면, 그것은 『시경』을 평단한 사무사의 개념과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사무사를 소재적 영역만 중시하고 개인의 감정적인 면을 노래한 일부 순수시파의 서정시에 비유하면 안 될 것이다. 이처럼 일부 연구자가 바라본 순수와 사무사와의 관계는 왜곡된 순수의 개념에서 비롯된 허구성을 지닌 말이라고 할 것이다. 일제치하에서의 사무사는 부정한 현실을 비판하는 참여시로, 곧 이육사와 윤동주 같은 시인의 시일 것이다. 그들의 자세가 공명정대하고 사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무사’의 평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자도 “무릇 『시경』시에서 쓰인 말이, 착한 것을 말한 것은 가히 남의 참한 마음을 감발시킬 수 있고, 악한 것을 말한 것은 가히 남의 안일한 뜻을 징계할 수 있으니, 그 쓰임이 사람으로 하여금 성정의 바름을 얻도록 하는데 귀결될 따름이다.”¹¹⁾라고 하여, 『시경』시가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계하는 의의를 보여주었다고 하였다. 이렇듯 『시경』시는 공자가 평단한 ‘사무사’처럼, 시를 짓는 작시자의 자세가 공명정대한 것이기에 사무사에 따른 순수시를 정의할 때 소재나 감정의 표현으로 논할 성질의 성격은 아닌 것이다.¹²⁾ 공자가 정리한 『시경』시는 참여적 성격의 시이기

9) 『論語』 「爲政」篇 ‘無邪’章. “子曰, 詩三百에 一言以蔽之하니 曰 思無邪니라.”

10) 현전하는 『시경』시 311편 중 6편은 제목만 전하고 있다. 실제로 내용이 전하는 작품은 305편이다.

11) 『論語』 「爲政」篇 ‘無邪’章 朱子の註. “凡詩之言, 善者, 可以感發人之善心, 惡者, 可以懲創人之逸志, 其用, 歸於使人得其情性之正而已.”

때문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관저(『시경』의 관저 장의 내용)는 즐거워하면서도 넘치지 않고, 슬퍼하면서도 마음을 상하지는 않는 것이니라.> 하셨다.”¹³⁾

위의 공자 말씀은 『시경』의 첫 편인 ‘관저’장을 논평함으로써 『시경』시의 전반적인 내용과 정서를 ‘樂而不淫 哀而不傷’으로 논평한 것이다. ‘관저’장의 첫 부분은 “관관히 우는 저구새는 하수의 모래섬에 있도다. 요조숙녀는 군자의 좋은 짝이로다(關關雎鳩 在河之洲. 窈窕淑女 君子好逑).”라는 노래인데, 周나라 文王과 문왕비 太姒와의 사랑을 비유한 것이다. 이는 군자와 요조숙녀의 사랑 곧 인류 탄생의 시작이라고 할 부부지간의 사랑으로, 지극한 사랑을 노래한 것이다. 부부의 사랑이 없다면 인류는 멸종하기 때문이다. 그 남녀의 사랑이 즐거워하면서도 넘치지 않고 슬퍼하더라도 마음과 몸이 상하지 않게 그 슬픔을 극복하여 마침내 화평한 마음을 잃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시경』시를 통해 그 노래에 나타난 성정의 바름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란 것이다. 공자는 『論語』「陽貨」篇 ‘性近’章에서 “사람의 성은 서로 가까우나, 후천적인 성이라고 할 습성이 사람에 따라 서로 멀다”¹⁴⁾고 하였다. 사람이 타고난 性を 성정이라고 하는데, 이는 본래 착하다라는 말이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노출된 환경과 습성에 따라 제2의 性이라 할 습성이 사람들의 성품을 다르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선한 일에 익숙해지면 선하게 되고 악한 일에 익숙해지면 악하게 된다는 말이다. 따라서 시문학과 노래 등에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가까이해야 할 것인지를 시사해주고 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애들아, 어째서 그 시(『시경』시)를 배우지 않느냐? 시는 가히 (그로써) (의지와 정서를) 흥기시킬 수 있으며, 가히 (그로써) (정치의 득실과 풍속의 순후함을) 살펴볼 수 있으며, 가히 (그로써) 무리 지어 살 수 있으며, 가히 (그로써) 원망할 수 있으며, 가까이로는 부모를 섬길 수 있으며, 멀리로는 임금을 섬길 수 있고, 날짐승과 길짐승, 풀과 나무의 이름을 많이 알 수 있느니라.> 하셨다.”¹⁵⁾

위의 글은 공자가 제자들에게 왜 『시경』시와 같은 참된 시를 배우지 않느냐?고 묻는 내용으로, 참된 시의 효용성 몇 가지를 일깨워주고자 한 말씀이다. 시로써 의지와 정서를 흥기시킬 수 있으며, 정치의 득실과 풍속의 순후함을 살펴볼 수 있으며, 집단을 이루며 살 수 있고 또한 시로써 위정자를 원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事父’와 ‘事君’을 예로 들어 부모님을 섬기는 것과 나라를 위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모두를 통해 삶의 도리를 알게 된다는 것이다. 곧, 『시경』시 같은 좋은 시를 노래하거나 읊조리게 되면 나도 모르게 착한 일을 행하게 되며, 나아가서는 仁을 행할 수 있는 의지와 정서를 감발시키고 흥기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가사가 마음에 와 닿은 대중가요도 듣는 사람의 정서를 순화시킬 수 있다는 논리이다. 또한 정치의 잘못이나 풍속의 두텁고 소박함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안목과 역량을

12) http://book.interpark.com/product/BookDisplay.do?_method=detail&sc.prdNo=237357359. 출판사의 서평, <사무사(思無邪)의 표상성과 자명(自明)성 [짧아지는 연필처럼]>에서도 사무사의 개념을 잘못된 순수의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시경(詩經)에서의 ‘사무사’의 ‘사(思)’는 ‘맑은 마음’, ‘마음의 숨구멍’, ‘마음의 세밀함’, ‘마음의 연민’으로 그 의미의 쓰임새를 압축하여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사(思)를 사(辭; 목소리)로 볼 때에는 시경에서의 ‘사무사(思無邪)’를 “말소리에 사(邪)가 없다.”(윤재근의[시론] p53)로 풀이한다고 할 때, 노래에 샅됨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 마음의 맑음에 샅됨이 없다는 말은 순수하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마음의 숨구멍’은 시에 있어서의 생명과도 같은 호흡, 운율을 의미한다. 그것에 샅됨이 없다는 말은 내재율이 있어 시의 생동감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마음의 세밀함’은 디테일한 정서를 의미한다. 그것이 샅됨이 없다는 것은 영혼의 맑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연민’에 샅됨이 없다는 말은 진정성 혹은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있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 밖에도 현대시 공부방의 카페에서도 사무사를 단지 소재로서의 순수와 정서적 순수의 개념으로 보아, 『시경』시를 평단한 참여적 개념으로서의 사무사의 의미는 아니었다.

13) 『論語』 「八佾」篇 ‘關雎’章. “子曰, 關雎는 樂而不淫하고 哀而不傷이니라.”

14) 『論語』 「陽貨」篇 ‘性近’章. “子曰, 性相近也나 習相遠也니라.”

15) 『論語』 「陽貨」篇 ‘學詩’章. “子曰, 小子아, 何莫學夫詩오. 詩는 可以興이며 可以觀이며 可以羣이며 可以怨이며 邇之事父이며 遠之事君이요 多識於鳥獸草木之名이니라.”

지낼 수 있으며, 집단생활을 하며 못 사람들 속에서 무리 지어 평화롭게 사는 인정을 터득할 수도 있다. 농경 사회에서 농사꾼은 노동요를 불러 지친 삶의 노고를 잊게 하여, 평화롭게 어울려 살아갈 수 있었다. 그런 가운데 화평한 마음도 일어나 이웃과 형제자매들을 생각하고 인륜의 애환을 느꼈다. 그리고 시로써 위정자와 윗사람을 시로써 원망하거나 진실된 속마음으로 바른말을 하되 은근히 충간함으로써, “말하는 자에게는 죄가 없고, 듣는 자에게는 족히 경계할 만한 말이 될 수 있다.”¹⁶⁾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시경』시를 배우고 노래하는 동안 그 시에서 노래된 감정을 불러 일으키는 기분이나 분위기를 체득하게 됨은 물론, 초목과 날짐승·길짐승 등 많은 사물의 이름도 알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시경』시에서 제시된 ‘초목’의 이름만 알게 되더라도, 초목의 성질을 구별할 뿐만 아니라, 식용의 구분도 할 수 있고 유용한 약재의 구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날짐승과 길짐승도 수목과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렇듯 『시경』시는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게 해주었다. 따라서 오늘날 노랫말이 어떤 내용을 지녀야 함을 넉넉히 알려주고 있다.

“공자께서 ‘백어’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周南’·‘召南’을 배웠느냐? 사람으로서 ‘주남’·‘소남’도 배우지 않으면, (그) 똑바로 담장에 낮[얼굴]을 향하고서 서 있는 것과 같다고나 할까.> 하셨다.”¹⁷⁾

위의 ‘伯魚’章 공자 말씀은, 아들 백어가 평소에 『시경』시를 잘 공부하는가를 묻은 것이다. 심지어 인륜의 근본에 해당되는 ‘수신·제가’의 도리를 밝힌 『시경』시의 머리편 ‘주남’편·‘소남’편도 제대로 배워 알지 못하면, 세상을 살아갈 만한 소견이 전혀 없게 된다는 것으로, 눈앞에 있는 담장을 마주하듯이 소견이 좁아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넓은 시각을 지닐 수 없게 된다고 하였다. “알아야 ‘面牆’을 하지”라는 격언도 이 『시경』시의 ‘牆面’에서 온 말이다. 이처럼 공자는 시로써 깨우치고 교화시켜 나가는 詩教를 중히 여겼다. 이는 시에 담긴 뜻을 터득하고 그 시의 내용과 가까워지는 것을 정치의 목표로 삼았다. 좋은 노래는 우리의 성정을 순화시킬 뿐만 아니라 풍속을 교화시켜 나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공자가 살았던 춘추시대 말기에는, 제후국의 지방마다 시를 채집하던 풍속 곧 <採詩之風>이 이미 사라진 시대였다. ‘채시지풍’이 있던 시대에는 <採詩之官>을 두어 민요로써 정치의 득실을 살펴보아 선을 권장하고 뉘는 징계할 수 있었는데, ‘채시지풍’이 끊겨서 ‘시’가 亡하게 되자, 마침내 천하의 풍속이 어지러워지게 되었다. 이런 풍속의 교화를 위해서도 참된 詩 『시경』시를 공부할 것을 아들 백어에게 당부하였다. 『시경』시는 인륜의 도리를 밝히고 바로잡자는 뜻에서 참된 시만을 모아 둔 것이다. 어떤 내용을 공부해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알려준다.

한편 공자는 “禮니 ‘禮’니 이르지만[하지만], (고작) 백옥을 이르는 말이겠는가? 樂이니 ‘악’이니 이르지만[하지만], (고작) 鐘鼓를 이르는 말이겠는가?”¹⁸⁾라고 하여, 옥이나 비단[玉帛(옥백)]만을 교환한다고 해서 ‘예’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종이나 북’[鐘鼓(종고)]만을 친다고 해서 ‘악’[음악]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예’를 행하는 데에는 공경심[敬(경)]이 위주가 되어야 하며, ‘음악’을 행하는 데에는 화락함[和(화)]이 위주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예악의 근본은 공경심과 화락함이라는 것이다.

“‘진향’이 ‘백어’에게 물어서 이르기를, <그대가 또한 (무엇인가) 특이한 말씀을 들은 것이 있는가?> 하였다. (‘백어’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직 없습니다. 일찍이 (아버님께서) 홀로 서 계시거늘, (저) ‘리’가 종종걸음 쳐서 뜰을 지나고 있었더니, 말씀하시기를 <시[『시경』시]를 배웠느냐?> 하시기에, 대답해서 말씀드리기를 <아직 배우지 못했습니다.> 하였더니, <시를 배우지 않으면, (씨) 말을 할 수가 없느니라.> 하시거늘, (저) ‘리’가 물러가서 시를 배웠습니다. 뒷날[다른 날]에 또 홀로 서 계시거늘, ‘리’가 종종걸음 쳐서 뜰을 지나고 있었더니, 말씀하시기를 <예를 배웠느냐?> 하시기에, 대답해서 말씀드리기를 <아직 배우지 못했습니다.> 하였더니, <예를 배우지 않으면, (씨) 존립할 수가 없느니라.> 하시거늘, ‘리’가 물러가서 예를 배웠습니다. 이 두 가지를[시와 예를 배워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였다.”¹⁹⁾

16) 『詩經』 國風 「周南」篇, ‘關雎’章 序. “言之者, 無罪, 聞之者, 足以戒.”

17) 『論語』 「陽貨」篇 ‘伯魚’章. “子(가) 謂伯魚曰, 女(가) 爲周南召南矣乎아. 人而不爲周南召南이면 其猶正牆面而立也與인저.”

18) 『論語』 「陽貨」篇 ‘禮樂’章. “子曰, 禮云禮云이나 玉帛云乎哉아. 樂云樂云이나 鐘鼓云乎哉아.”

19) 『論語』 「季氏」篇 ‘異聞’章. “陳亢이 問於伯魚曰, 子(가)亦(가)有(가)異聞乎아. 對曰, 未也로다. 嘗獨立이어시늘 鯉가 趨而過庭일리니

위의 내용은 『論語』 「季氏」篇, ‘異聞’章에 나오는 것으로, 공자의 제자 진향이 공자의 아들 鯉가 선생님 공자로부터 뭔가 특별한 것을 배우는가에 대한 호기심에 묻고 싶은 것을 묻은 내용이다. 그에 대한 伯魚의 대답은 남달리 특이하고 특별한 가르침은 없었고 시와 예를 공부할 것을 강조했다라는 것이다. 『시경』시 같은 참된 시를 배우지 않으면 소견이 없는 사람이 되어 남과 더불어 어떤 말도 할 수 없으며 그런 소견 없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기도 어렵다는 뜻이다. 또한 예를 배우지 않으며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존재로 세상에 우뚝 설 수 없으며 행세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자기 몸과 언행을 단속하기를 예’로써²⁰⁾ 하지 않으면 자기의 발전을 이루기 어렵다는 것이다.

예에 대해서 공자는 “공순하면서도 예에 맞지 않으면[예의가 없으면] 수고롭기만 하고, 신중하면서도 예에 맞지 않으면[예의가 없으면] 무서운 기운만 풍기고, 용기가 있으면서도 예에 맞지 않으면 어지럽게 만들고, 곧으면서도 예에 맞지 않으면 (융통성이 없이 배배) 꼬이기만 하느니라.”²¹⁾라고 하여, 사람의 도리에서 먼저 하고 나중에 할 바 곧, 예의를 알게 되면 백성들이 교화되어 덕이 두터워진다고 하였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詩에서[시를 통하여] 정서가 흥기되며, 禮에서 세상에 우뚝 서며, 음악[樂(악)]에서 인격이 완성되느니라.>하셨다.”²²⁾

위의 공자 말씀은, 『시경』시 같은 참된 시를 읊고 노래하게 되면 착함을 좋아하게 되고 악함을 미워하게 되어 사람으로서 참된 도리를 행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다. 그리고 예는 외모와 마음속으로 공경하며 사양하고 겸손하게 행동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는데, 살아가는 동안 이 예를 갖추는 마음을 잃지 않으면 몸이 건강해지고 마음이 건전해져서 부귀공명이나 이익에 의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음악은 사람의 성정을 기르고 마음속의 그 간사하고 더러움을 씻어내며 그 찌꺼기를 없앨 수 있기에 배움의 완성 단계에서 이 음악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시와 예와 음악의 효용성을 강조한 내용이다. 오늘날 대중들이 애호하는 대중가요가 나갈 길을 제시하고 있다. 노랫말의 중요성과 몸가짐의 태도 그리고 곡조의 현란함보다는 단아한 곡조가 왜 필요한가를 잘 말해주기 때문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시경』시 300편을 외웠으되, 정사를 맡겨 주어도 잘 해내지 못하며, 사방의 나라에 사신으로 가서 능히 ‘專對’할 줄 모른다면, 비록 많이 외운들 또한 무엇으로써[어떻게] (제 구실을) 하리오?> 하셨다.”²³⁾

위의 공자 말씀은, 『시경』시 300편을 외우기만 하고 현실의 실생활에서 적용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지적한 말이다. 적어도 『시경』시 300편을 외우고 나서 사신으로 나가면 전대할 줄 알아서 사신으로서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專對’란 일의 순서를 알아서 오로지 제 마음대로 잘 대처하여 말할 줄 안다는 뜻이다. 『시경』시 300편의 내용을 알기에 제대로 전대하면 충분히 자기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의미이다. 『시경』시 300편은 인정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사물의 이치를 다 갖춘 것이니 그로써 풍속이 성하고 쇠하였음을 증험할 수 있고 정치의 잘 잘못을 살펴볼 수 있으며, 그 말이 성품이 따뜻하고 인정이 두터우며 화락하고 평탄하여 풍자해 깨우침에 장점이 있는 지라 외우는 자가 반드시 정사에 통달하게 되면 능히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시경』시를 알게 되면 經世致用 뿐만 아니라 세상일에 융통성 있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자는 『論語』 「述而」篇 ‘雅言’章에서 “평소에 늘 말씀하시는 바는 시와 서와 예를 집행하는 일이 모두 늘 하시는 말씀이시더라.”²⁴⁾와 같이, 시로써 가르치는 詩教를 중시하였다. 주자도 주석에서 “詩’는 (그로써) 성정[情性]을 다스리게 하고, ‘書’는 정사를 말해 주고[진술해 주고], ‘禮’는 절도[節]와 문채[文]를 삼가게 하니, 모두가 매일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의 실속에 절실하다”²⁵⁾고 하여, 시는 성정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기에 매일 매일의 실제 생활에 절실한 것으로

曰, 學詩乎 아 하실새 對曰 未也 이로이다 호니 不學詩면 無以言이라 하여시늘 鯉가 退而學詩호라. 他日에 又獨立이어서늘 鯉가 趨而過庭일러니 曰, 學禮乎 아 하실새 對曰未也 이로이다 호니 不學禮면 無以立이라 하여시늘 鯉가 退而學禮호라. 聞斯二者로다.”

20) 『論語』 「顏淵」篇 ‘博學’章. “約之以禮”

21) 『論語』 「泰伯」篇 ‘無禮’章. “恭而無禮則勞하고 愼而無禮則憊하고 勇而無禮則亂하고 直而無禮則絞니라.”

22) 『論語』 「泰伯」篇 ‘興詩’章. “子曰, 興於詩하며 立於禮하며 成於樂이니라.”

23) 『論語』 「子路」篇 ‘誦詩’章. “子曰, 誦詩三百호대 授之以政에 不達하며 使於四方에 不能專對하면 雖多나 亦奚以爲리오.”

24) 『論語』 「述而」篇 ‘雅言’章. “子所雅言은 詩·書·執禮가 皆雅言也러시다.”

인식되었던 것이다. 『시경』시의 효용성으로 공통적인 관심사를 주제로 하여, 대화를 나누다 보면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 외교에서도 친화적인 방법으로 공감하는 漢詩의 내용을 말한다든지 K팝의 노래를 화제로 올려 분위기를 잡아나갈 수 있는 것과 상통하는 면이 있다.

朱子도 「詩經前序」에서 시로써 교화가 되는 까닭은 묻는 말에 “시는 사람의 마음이 物에 느껴져서 말로 나타난 나머지[결과]이다. 마음이 느끼는 바가 간사하고 바름[邪正]이 있는지라, 그러므로 말로 나타나는 바가 옳고 그름[是非]이 있으니, 오직 聖人이 윗자리에 계시면, 그 (아랫사람이나 백성들이) 느끼는 바가 바르지 않음이 없어서 그 말이 모두 옳게 교화가 될 수 있고, 그 간혹 느끼는 것이 雜되어[다양하고 복잡하여] 표현되는 바가 능히 가릴 만한 것이 없을 수 없을진댄 윗자리에 계시는 분이 반드시 스스로 (바른 데에) 돌이킬 것을 생각하여 그로 인하여 (善을) 권장하고 (惡을) 징계할 것이 있었으니, 이 또한 교화가 되는 것이다.”²⁶⁾라고 하였다. 이는 『시경』시 같은 시가 착한 것을 말한 것은 사람의 착한 마음을 펼쳐 나아가게 하고 악한 것을 말한 것은 사람의 안일한 뜻을 징계할 수 있으니, 그 쓰임이 사람들로 하여금 바른 성정을 얻게 하거나 풍속을 교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좋은 노랫말은 당대의 잘잘못을 풍자할 수도 있고 부부와 부모 자식간의 의리와 우애를 가질 수 있게 하여 인륜의 정을 두텁게 하고 교화를 아름답게 하여 풍속을 미풍양속으로 옮겨가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왜 노랫말이 중요한가를 알 수 있게 한다.

3. 因人施教의 교육관

전통적인 유가의 교육관 중 공자의 교육적 특징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것이 因人施教의 교육관이다. 因人施教란, 배우는 사람의 능력과 그가 처한 환경에 따라 가르침을 베푸는 교육 방법을 이르는 말이다.

『論語』 「爲政」篇 ‘無違’章에 맹의자[노나라 대부 중손씨로 이름이 何忌]가 孝에 대해서 여쭙는 부분이 있다.

“맹의자가 ‘효’에 대하여 여쭙었는데,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에) 어김이 없는 것이니라.> 하셨다. 번지가 수레를 몰며 모셨더니, 공자께서 알려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孟孫이 나에게 효를 묻거늘, 내가 대답해서 말하기를 ‘(예에) 어김이 없는 것이다’라고 했노라.> 하셨다. 번지가 말씀드리기를, <무엇을 이르신 말씀입니까?> 하였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살아 계실 때에 섬기기를 예로써 하며, 돌아가셨을 때에 장례 지내기를 예로써 하고 제사 지내기를 예로써 하는 것이니라.> 하셨다.”²⁷⁾

맹의자는 魯나라 맹씨 집안인 孟孫氏·叔孫氏·季孫氏의 세 집안 중, 맹손씨 집안이다. 이들은 춘추시대 초기의 魯나라 임금 桓公의 세 庶子 계통의 자손들이었는데, 처음에는 嫡子 계통의 莊公과 외람되게도 같은 位階로 생각하여 자기네 집안들을 ‘중손씨·숙손씨·계손씨’라고 自稱하다가, 나중에 다시 자기네 집안들끼리만 순서대로 따로 일컬어 ‘맹손씨·숙손씨·계손씨’라고 하였다. 따라서 맹의자가 참람하게도 노나라 임금을 업신여기고 도리에 어긋난 짓을 하였기 때문에, 공자께서 질문한 사람의 사람됨에 따라 ‘예의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라고 가르침을 내린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잘못이 반복될까 봐 제자 번지에게 한 번 더 알려 주어 이 말의 뜻이 맹의자에게 제대로 다시 전달되기를 바랐던 것이다.

맹의자의 아들 맹무백[이름이 黹(체)]이 효에 대해서 여쭙니, “부모는 오직 그 병을 근심하시느니라.”²⁸⁾라고 하였다. 노나라 대부 맹의자의 어린 아들 맹무백이 육체가 건강하지 못하고 잔병치레를 하였다. 세상의 모든 부모는 어린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주기를 바랄 것이다. 그런데 맹무백은 건강 체질은 아니었다. 그래서 공자는 맹의자가 걱정할 것을 염려하여, 모든 부모는 자식의 질병을 근심하니, 약골인 맹무백에게 평상시 잘 먹고 체력 관리를 잘하여, 부모의 마음

25) 위의 책, 朱子の註. “詩以理情性, 書以道政事, 禮以謹節文, 皆切於日用之實.”

26) 朱子 「詩經前序」. “詩者, 人心之感物而形於言之餘也. 心之所感, 有邪正, 故言之所形, 有是非, 惟聖人在上, 則其所感者, 無不正, 而其言皆足以爲教, 其或感之之雜, 而所發, 不能無可擇者, 則上之人, 必思所以自反, 而因有以勸懲之, 是亦所以爲教也.”

27) 『論語』 「爲政」篇 ‘無違’章. “孟懿子가 問孝한대 子曰, 無違니라. 樊遲가 御러니 子가 告之曰, 孟孫이 問孝於我어늘 我가 對曰 無違라 호라. 樊遲가 曰, 何謂也니잇고. 子曰, 生에 事之以禮하며 死에 葬之以禮하며 祭之以禮니라.”

28) 『論語』 「爲政」篇 ‘憂疾’章. “子曰, 父母는 唯其疾之憂시니라.”

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라고 하였다.

문학에 능한 공자의 제자 자유[성이]가 이름이 偃임]가 효에 대해서 여쭙니, “오늘날의 ‘효’는[‘효’라는 것은] 그 바로 (그저) 잘 奉養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니, 犬馬에 이르러서도[있어서도] 모두 능히 길러 줌이 있으니, 공경하지 않는다면 (개나 말을 기르는 것과 부모 봉양하는 것을) 무엇으로써 구별하리오?”²⁹⁾라고 하여, 평소의 자유가 부모님에 대한 공경심이 부족한 것을 깊이 깨우쳐 주신 말씀이다. 아버지를 봉양하기를 공경심으로 행하지 못하면 견마를 기르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로 질책함으로써 설혹 공경심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경계하신 말씀이다. 『맹자』³⁰⁾에 증점과 증자, 그리고 증원의 3대에 걸친 효 이야기가 나온다. 증자가 아버지 증점을 봉양할 때 늘 고기반찬을 올렸다. 그러면 아버지 증점은 밥상을 물리면서 ‘남은 반찬이 있느냐’고 물으면, 증자는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증자가 연로하여 아들 증원으로부터 봉양을 받을 때, 증원에게 ‘남은 반찬이 있느냐’고 물으면, 증원은 남은 고기반찬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고기반찬이 귀하기 때문에 남겨두었다가 다음 식사 공양 때 올리려는 마음이었다. 그런데 이는 입과 몸만 섬기는 ‘養口體者’에 불과한 물질적인 효인 것이다. 하지만 증자가 행한 효는 아버지 증점의 뜻을 알아차린 ‘養志者’이기에, 차원 높은 정신적 효라고 할 것이다. 아버지 증점이 남은 고기반찬을 사손들과 나누어 먹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효에 공경심과 차원 높은 養志者의 뜻이 더해지면 錦上添花일 것이다.

역시 문학에 능한 제자 자하도 효에 대해 여쭙었는데, “얼굴빛이[얼굴빛을 가지기가] 어려우니, 일이 있거든 ‘아우나 자식된 사람’[젊은이]이 그 수고로움을 맡아서 행하며, 술과 밥이 있거든 먼저 나신 분께 대접해 드리는 것, 일찍이 이로써 ‘효’를 삼겠는가?”³¹⁾라고 하여, 아버지를 모실 때 얼굴빛을 온화하게 가져야 할 것을 이르신 말씀이다. 대개 효자는 깊은 사랑을 지닌 자로 온화한 기색을 지니게 되고 온화한 기색이 있는 자는 반드시 기쁜 안색이 있기 마련이며, 기쁜 안색이 있는 자는 반드시 고운 얼굴을 지니기 마련인 것이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대개 효를 행한다고 하면서 술이나 밥 등의 음식을 어른들에게 대접해 드리는데, 이는 기본적인 것으로 차원 높은 효는 아닐 것이다. 진정한 효도는 얼굴빛을 온화하게 가지면서 어머니나 웃어른을 편안한 안색으로 섬기면서 뜻을 받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공자께서 효에 대해 맹의자에게 일러주신 말씀은 일반 대중에게 일러주신 경우요, 맹무백에게 일러주신 말씀은 그 사람이 근심하게 할 만한 점이 많은 까닭에서였다. 자유는 능히 봉양하기는 하되 간혹 공경심이 부족했고, 자하는 능히 곧게 모시고 의롭게 모시기는 하되 간혹 온화한 기색이 적었으니, 각각 그 재목의 높고 낮음에 말미암아서 그 모자라는 점을 인정하시어 일러주셨으니, 그 질문에 대한 가르침의 말씀이 한결같지 않았다.

공자는 안연이 仁에 대해서 여쭙니 “克己復禮”³²⁾라고 하였으며, 중궁이 仁에 대해서 여쭙니, “門을 나섬에 (마치) 큰 손님을 만나듯이[접견하듯이] 하며, 백성을 부림에 (마치) 큰 제사를 받들 듯이 하고, 자기 몸에 바라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 것이니, (그런 사람은) 나라에 있더라도 (그를) 원망하는 일이 없으며 집안에 있더라도 원망하는 일이 없느니라.”³³⁾라고 하였다. 또 사마우가 仁에 대해 여쭙니, “仁한 자는, 그 말하는 것이[그 하는 말이] (말을) 참아서 하느니라.”³⁴⁾라고 하여, 할 말이 있더라도 그 말을 참아서 하라고 하였다. 그리고 번지가 仁에 대해서 3번 여쭙었는데, 먼저 「雍也」篇에서는 “어려운 일은 내가 먼저 하고, 얻는 일은 나를 뒤로 돌린다.”³⁵⁾라고 하였으며, 「顏淵」篇에서는 “愛人”³⁶⁾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子路」篇에서는 “거처함에 공순하게 하며, 일을 집행함에 공경스럽게 하며, 남과 더불어 사심에 진실되게 하는 사람을, 비록 이적의 땅에 가더라도 결코 버려지게 할 수 없을 것이니라.”³⁷⁾고, 공자는 대답하였다. 또한 「陽貨」篇 ‘問仁’章에도 자장이 仁에 대해서 여쭙는 장면이 나오는데, ‘천하에 다섯 가지 곧 恭·寬·

29) 『論語』 「爲政」篇 ‘能養’章. “子曰, 今之孝者是 是謂能養이니 至於犬馬하여도 皆能有養이니 不敬이면 何以別乎리오.”

30) 『孟子』 「離婁」章(上)

31) 『論語』 「爲政」篇 ‘色難’章. “子曰, 色(이) 難이니 有事어든 弟子가 服其勞하고, 有酒食어든 先生饌이 曾是以爲孝乎아.”

32) 『論語』 「顏淵」篇 ‘克己’章. “顏淵이 問仁한대 子曰, 克己復禮가 爲仁이니 一日(을) 克己復禮면 天下가 歸仁焉하니 爲仁이 由己니 而由人乎哉아.”

33) 『論語』 「顏淵」篇 ‘仲弓’章. “出門(에) 如見大賓하며 使民(에) 如承大祭하고 己所不欲을 勿施於人이니 在邦(에) 無怨하며 在家(에) 無怨이니라.”

34) 『論語』 「顏淵」篇 ‘訥言’章. “仁者는 其言也가 訥이니라.”

35) 『論語』 「雍也」篇 ‘樊遲’章. “仁者는 先難而後獲이면 可謂仁矣니라.”

36) 『論語』 「顏淵」篇 ‘仁知’章. “樊遲가 問仁한대 子曰, 愛人이니라.”

37) 『論語』 「子路」篇 ‘樊遲’章. “樊遲가 問仁한대 子曰, 居處에 恭하며 執事에 敬하며 與人에 忠을 雖之夷狄이라도 不可棄也이니라.”

信·敏·惠 등을 행할 수 있으면 仁이 될 것이니라.’³⁸⁾라고 하였다.

위의 내용처럼 仁에 대한 물음에 공자는 사람과 그 사람이 처한 처지에 따라 각기 달리 말씀을 하였다. 이는 등급을 뛰어넘어 었등(躐等)하지 않고 배우는 사람의 수준이나 처지 등에 따라 가르침을 베푸는 因人施教인 것이다. 안연에게 베푸는 극기복례 곧 개인의 사사로운 욕심을 이겨 예로 돌아간다고 한 것은 지고지순한 仁의 경지로 지극한 군자의 경지인 것이다. 중궁에게 仁에 대한 물음은 사람을 대하거나 만날 때 공경심을 위주로 하라는 말씀으로 이는 敬에 대한 말씀이다. 그러면서 자기 싫어하는 바를 남에게 시키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그러면 조정에 출사하거나 집안에 있더라도 원망을 사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사마우는 평소에 말이 많고 조급한 사람이었기에, 말을 썩 내지 않으며, 할 말이 있더라도 그 말을 쉽사리 다 하려 하지 않고 가능하면 참아서 하라는 가르침을 내린 것이다. 그리고 번지에는 愛人이라는 가르침을 내렸다. 이는 번지가 아직 학문적 경지가 안연이나 사마우의 경지까지 도달하지 못했기에 쉽게 가르침을 베풀어 ‘사람을 사랑하라’고 한 것으로, 일반인 누구나 마땅히 행할 수 있는 仁의 포괄적인 의미를 깨우쳐 준 것이다. 이렇듯 공자는 배우는 사람의 학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깊은 경지에 이른 정도와 수준에 따라 가르침을 달리 내렸다. 이런 교육 방식이 因人施教의 방식인 것이다.

공자는 “굳세고 썩썩하고 질박하고 말을 참는 것이 仁에 가깝다”³⁹⁾고 하였다. 자신의 뜻이 굳세고 욕심이 없으며 주관이 뚜렷하면서도 참된 뜻을 단단히 잡고 나가면서 과단성이 있으면서 엄격하고 썩썩한 자세를 견지하고 꾸민 데가 없이 순수하고 실천할 수 없는 말은 썩썩 내지 않는 행동의 소유자가 仁함에 가깝다는 것이다. 이는 「학이」편 ‘선인’장의 “巧言令色”의 자세와 상반되며 「양화」편에 나오는 “鄉原”과도 그 자질이 상반된다고 할 수 있다. “巧言令色”은 “말씀을 공교롭게 하고 얼굴빛을 곱게 가지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겉모습만 가꾸고 남을 기쁘게 하는 것만 힘쓰게 되면 사람의 욕심이 방자해져서 진실되고 미더운 마음 곧 仁을 행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鄉原”은 “우리 사회의 덕을 해치는 자이다”로 풀이 되는 말로, 이는 한없이 착하기만 하여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는지 등에 전혀 관심 없이 단지 자신의 부귀영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자면 시골뜨기처럼 분별없이 착한 듯 행세하여 世流에 영합하고 아첨하는 자는 그가 속한 사회의 德을 어지럽히고 해치는 자라는 말이다. 이를테면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사람으로, 어찌 보면 덕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그렇지 않은 사람인 것이다. 이런 무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사회는 나쁜 곳으로 흘러가기 때문이다. 나쁘면 나쁘다고, 잘하면 잘한다고 목소리를 내주어야 그 사회는 바른 곳으로 나아가기 때문이다.

有子⁴⁰⁾는 “효제는 인을 행하는 근본이라고나 할까?”⁴¹⁾라고 하여, 인의 근본은 효도와 공경스러움에 있다고 하였다. 仁의 구체적 내용을 밝혔다. 시나 대중가요의 내용도 우리 주변의 사람 사는 모습으로 무엇을 중시해야 하는가를 던지시 일러주고 있다.

“<자로가 여쭙기를, “(도의를) 들으면, 곧[이에] 행합니까?> 하였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父兄이 계시니, 어떻게 (그) 듣는다고 곧[바로] 행하리오?> 하셨다. 염유가 여쭙기를, <들으면 곧[이에] 행합니까?> 하였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들으면 곧 행하느니라.> 하셨다. 공서화가 말씀 드리기를, <由(仲由)가 여쭙기를, 들으면 곧 행합니까? 하였거늘,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형이 계신다’ 하시고, 求(冉求)가 여쭙기를, 들으면 곧 행합니까? 하였거늘,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들으면 곧 행하느니라’ 하셨으니, (저) 赤(公西赤)이 의혹되어 감히 여쭙습니다.> 하였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求是 후퇴하는지라 그러므로 전진하게 하였으며, 由는 여러 사람의 몫을 아우르는지라[아울러 행하는지라] 그러므로 후퇴하게 하였노라.> 하셨다.”⁴²⁾

38) 『論語』 「陽貨」篇 ‘問仁’章. “子張이 問仁於孔子한대 孔子曰, 能行五者於天下면 爲仁矣니라. 請問之하노이다 한대 曰, 恭·寬·信·敏·惠이니 恭則不侮하고 寬則得衆하고 信則人(이) 任焉하고 敏則有功하고 惠則足以使人이니라.”

39) 『論語』 「子路」篇 ‘近仁’章. “子曰, 剛毅木訥이 近仁이니라.”

40) 『論語』 「學而」篇 ‘務本’章은 有子 곧 공자의 제자 有若의 말씀인데, 일부 논문에서는 공자의 말씀으로 논한 논문도 있었다.

41) 『論語』 「學而」篇 ‘務本’章. “孝弟也者는 其爲仁之本與인저.”

42) 『論語』 「先進」篇 ‘兼人’章. “子路가 問, 聞斯行諸잇가. 子曰, 有父兄이 在하니 如之何其聞斯行之리오. 冉有가 問, 聞斯行諸잇가. 子曰, 聞斯行之니라. 公西華가 曰, 由也가 問聞斯行諸어늘 子曰, 有父兄(이)-在라 하시고 求也가 問聞斯行諸어늘 子曰, 聞斯行之라 하시니 赤也가 惑하여 敢問하노이다. 子曰, 求也는 退라 故로 進之하고 由也는 兼人이라 故로 退之호라.”

사람이 도의를 행하면서 학문을 해 나가자면, 도의를 들어서 아는 것과 그것을 실천적으로 행하는 것을 모두 잘 닦아 나가야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아는 것을 제대로 아는가 알지 못하는가의 ‘知愚’와, 행하는 것을 제대로 행하는가 그렇지 못한가의 ‘賢不肖’가 나뉘지는 것이다. 그런데 위의 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로’는 행하는 측면에서 매우 적극적이어서 다소 지나치는 점이 있었으며, ‘염유’는 그런 측면에서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다. 그래서 공자는, 행하는데 적극적이었던 ‘자로’에 대해서는 <부형께서 살아 계시니, 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점이 있다.>라는 뜻으로 다소 억눌러 주었으며, 행하는 데 적극성이 부족했던 ‘염유’에 대해서는 적극성을 북돋우어 주었다. 공자의 말씀과 가르침은, <(그) 사람을 말미암아 가르침을 베푼다>는 <因人施教>(인인시교)의 교육 방법에 의해, 위와 같이 제자의 타고난 자질과 품성에 따라 달리 행해졌던 것이다.

“자장이 공자에게 仁에 대하여 여쭙었는데,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능히 천하에 다섯 가지를 행할 수 있으면, ‘인’이 될 것이니라.> 하셨다. (자장이 말씀 드리기를) <청컨대, (그 구체적인 세목을) 여쭙고 싶습니다.> 하였는데,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공순함과 관용을 베풀고 신의를 지키고 (일에) 민첩함과 은혜로움이니, 공순하면 (남이) 업신여기지 않고, 관용을 베풀면 대중[대중의 민심]을 얻고, 신의를 지키면 남이 맡겨 주고, 민첩하면 功이 있게 되고, 은혜로우면 족히 그로써 사람[남]을 부릴 수 있느니라.> 하셨다.”⁴³⁾

자장이 仁을 여쭙는 데 대하여 답한 공자의 말씀에서 거론된 공·관·신·민·혜 등의 다섯 가지로써도 공자의 말씀대로 인을 행함이 되지 못할 것은 물론 아니다. 그러므로 인의 도가 비록 크다는 것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공자의 대답은 자장에게 부족한 점을 말미암아 행한 因人施教 곧 사람에게 따라 가르침을 베풀어왔던 것이다. 사람에게 따라 그 배우는 사람에게 부족한 점부터 가르치면서도 그 사람의 능력에 맞으면서 세상의 누구에게나 이치에 맞는 가르침을 내리는 것이, 바로 공자 같은 성인의 교육 방법이었던 것이다.

4. 현대적 활용 방안

공자가 행한 문학의 기능과 교육 방법을 외국인이 한국어를 습득하는 과정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 이왕 배우는 한국어를 통해 공자가 『논어』에서 강조한 정서를 순화시키고 더 나아가 풍속의 교화와 유용성까지 가져올 수 있다면 一石二鳥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공부 방법 중에서도 능력에 따라 그 가르치는 방법이 일률적이 아니라 그들의 한국어 수준에 따라, 그 가르치는 방법과 내용을 달리한다면 그 결과도 달라질 것이다. 이미 확인한 바와 같이 공자가 능력의 차이와 처지에 따라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달리 한 것처럼, 그 방법을 외국인의 한국어 습득 과정에 적용해 보려는 것이다.

K팝의 인기는 싸이의 <강남스타일>로 열기를 더했다. 노래가 인기를 얻으면 외국인들은 가사의 의미에 대해 궁금해한다고 한다. 그래서 <강남스타일>이 상종가를 칠 때 영국 BBC 라디오는 청취자의 요청에 따라, 그 가사를 영어로 번역하여 낭송했다고 한다. “밤이 오면 심장이 뜨거워지는 여자, 커피 식기도 전에 원샷 때리는 사나이. 지금부터 갈 데까지 가볼까, 정숙해 보이지만 놀 때는 노는 여자. 때가 되면 완전 미쳐 버리는 사나이, 근육보다 사상이 울퉁불퉁한 사나이.” <강남스타일>의 노랫말이다. 인기의 비결이 ‘한국의 빈부 격차라는 사회상을 풍자해서’라는 영국 일간지 가디언지의 논평도 있었다고 한다. 이는 노랫말의 가사가 공자가 말한 성정순화와 풍교의 기능을 염두에 두고 한 말 같다. 그런데 <강남스타일>은 이런 바람을 담지 못했다. 한때 우리도 영어 공부를 위해 당시 유행하던 팝송 가사를 유용하게 사용하였다. 지금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세계의 젊은이도 한국 노랫말 가사에 관심을 가져 그것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배우려고 할 것이다. 이런 시점에 우리 노래에 세계인의 정서를 순화하고 타락한 문화를 바로잡을 의미 있는 가사를 담아 메시지를 전한다면 2,500년 전 공자가 행한 성정 순화와 풍교의 기능을 통해,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가장 인기 있는 한 그룹으로, 방탄소년단의 노랫말을 보자. 방탄소년단의 2013년 2번째 앨범 중 ‘학교 3부작’

43) 『論語』 「先進」篇 ‘問仁’章. “子張이 問仁於孔子한대 孔子曰, 能行五者於天下면 爲仁矣니라. 請問之하노이다 한대 曰, 恭·寬·信·敏·惠이니 恭則不侮하고 寬則得衆하고 信則人(이) 任焉하고 敏則有功하고 惠則足以使人이니라.”

<Oh! Are you late, too?>에, 꿈을 잃어버린 어린 시절을 회고하는 장면이 있다.

“왜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게 됐고 당연하지 않은 게 당연하게 됐어. 왜 나의 인생에서 나는 없고 그저 남의 인생들을 살게 됐어. 이걸 진짜야 이걸 도박도 게임도 아냐 딱 한 번뿐인 인생 넌 대체 누굴 위해 사냐? 9살 아니면 10살 때쯤에 내 심장은 멈췄지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해봐 내 꿈은 뭐였지? 어… 진짜 뭐였지”

위의 가사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닌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삶을 살게 된 후로, 나의 꿈은 사라지고 가슴의 심장까지도 멈췄다는 것이다. 이는 방탄소년단이 유엔연설에서 “밤하늘과 별을 바라보는 것을 멈췄고 꿈꾸는 것을 멈췄다. 대신에 다른 사람들이 만드는 시선에 저 스스로를 가뒀다”라고 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많은 이들이 그 가사에 공감했기에, 개인의 정서를 순화시킬 뿐만 아니라 대중의 욕구를 대신 채워주는 역할도 하면서 민풍의 교화까지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의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공부할 때 이런 가사로 한국어를 공부할 수 있다면 정서순화는 물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서 자신의 꿈을 접고 사는 많은 세계의 젊은이들에게 힘을 줄 있을 것이다. 그리고 2015년 앨범 화양연화pt.2에 수록된 <Ma City>에 “나 전라남도 광주 baby 내 발걸음이 산으로 간대도 무등산 정상에 매일매일 내 삶은 뜨겁지, 남쪽의 열기. 날 불라면 시간은 7시 모여 집합, 모두 다 눌러라 062-518”이라고 하여, 광주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노래하였다. 1980년 5월 18일 광주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되새겨, 그날의 의미를 소환시키고 있다. 062는 광주의 지역번호이고 518은 그날의 날짜이다. 이런 민주화의 열망이 담긴 방탄소년단의 노랫말은 세계인에게 울림이 있는 노랫말 가사가 될 수 있다. 민주화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외국인의 한국어 학습이 흥미 위주와 실용성이 경도되어 학문적인 깊이가 없다는 지적처럼⁴⁴⁾, 광주민주화운동의 실상을 이야기하면서 한국인들이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강했던가를 설명한다면, 많은 외국인들에게 감동을 줄 것은 말한 것도 없고 민주화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큰 울림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공자가 『시경』시를 통해 주장한 성정순화 및 풍교론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 노랫말의 가사는 우리말의 아름다움과 우리나라에 대한 인상까지 세계인에 알릴 수 있는 창구이기도 하다. 그러나 앞으로의 뮤지션은 어떤 노랫말로 세계의 팬을 만나고 대화할 것인지는 자명해졌다. 미국의 가수 케이티 페리(Katy Perry)가 부른 <파이어워크(Fire work)>의 노랫말은 소외된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내용이다. 이 내용을 번역하여 한국어를 가르치면 더 효과적인 것이다. “그대 자신이 비닐봉투라고 느낀 적 있나요? 바람에 휩쓸려 다니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었나요? 자신을 종잇장 같다고 생각한 적 있나요? 한 번 불면 무너지고 마는 카드로 만들어진 집처럼, 6피트(약 180센티) 깊이의 땅에 묻혀 있는 것 같다고 느낀 적 있나요? 비명 지르는 데도 아무도 못 듣는다고 느낀 적 있나요? 아직 그대에게 기회가 있다는 건 알아요. 그대 안에 작은 불꽃이 있다는 것은 불만 불이면 돼요. 그리고 그냥 빛나게 내 두면, 7월 4일(미국 독립기념일)의 밤처럼 즐겨요. 그대는 폭죽이에요. 이리 와서 얼마나 가치 있는지 보여줘요. 그대가 하늘을 가로질러 날아갈 때 아, 아, 아, 하고 소리치게 만들어요. 그대는 폭죽이에요. 이리 와서 그대의 색을 불타오르게 해요. 그들이 그대의 굉장함에 놀라 아, 아, 아, 하고 소리치게 만들어요.” 이는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일으키는 가사로, 희망의 메시지를 불어넣고 있다. 이처럼 소외된 계층을 위한 노랫말은 감정의 순화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대한 책임감마저 들게 하는 풍교의 기능까지 더한다. 또한 영어권 학생들에게는 잘 알려진 노래였기에 한국어도 쉽게 이해될 것이다.

「도산십이곡발」에서 성정 순화를 강조한 퇴계 이황도, 도산서원의 학동들의 정서 순화를 위해 <도산십이곡>를 만들었다고 하였다. 우리 교과서에 있는 퇴폐적 내용의 노래인 경기체가의 「한림별곡」이라든지 현실도피적인 작품은 비판하였다. 공자나 퇴계의 관점처럼, 무의미한 노래를 하거나 친일 행각을 한 작가의 작품을 아무런 비판적 시각도 없이 작품 자체만 가르치는 앵무새 같은 것이 아니라, 작가의 잘못됨을 지적할 수 있도록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는 데 한국 노래나 작품들이 활용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공자나 에디슨 등의 위인전 활용, 한국드라마 줄거리 요약하기 등으로 한층 더 한국문화에 다가 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많은 학습자들이 한류라는 한국드라마와 K팝으로 불리는 음악에 매료되어 한국어를 학습하기 원했다⁴⁵⁾고 한다. 이러한 매체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방안은 적극적으로 모

44) 장용수, 앞의 논문 73쪽.

45) 장용수, 위의 논문 68쪽.

선택될 필요가 있다. 다만, 그 내용의 선정에서 공자가 『논어』에서 강조한 내용을 염두 해두고 선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좋은 내용을 선정하고 인문학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감정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동요와 대중가요 그리고 시 활용도 필요할 것이다. 이들 작품들 중에는 우리의 정서를 순화시키는 것들이 다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수준별 한국어 학습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공자가 因人施教로 제자들을 교육시킨 것처럼, 외국인들에게도 이 방법에 따라 한국어를 교육하면 그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인인시교의 교육 방법으로서의 맞춤형 교육은 수강생의 지적 수준에 맞게 가르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초급·중급·고급으로 나누어 그들에 맞는 한국어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가령, 초급일 경우는, 우리 말이 예쁜 동요와 동화책 가르치고 중급일 경우는 인기 있는 우리 노랫말을 이용하거나 문학 작품 중 널리 애송되는 작품을 선정하여 가르치는 방법도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대중가요 중 노랫말이 개인의 정서를 순화시키고 감동까지 줄 수 있는 방탄소년단의 노랫말이라든지 널리 알려진 팝송의 우리말로 번역된 가사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고급 단계에서는 국역된 세계적인 위인전을 그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피노키오』나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 등을 통해 우리말과 글을 익히게 하면 훨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결과를 얻어내게 될 것이다. 외국인이 잘 아는 내용의 동화책이고 그 내용도 권선징악의 전형으로 계도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문학적인 면에서도 우리말이 뛰어나면서 사회적 기능을 한 현실 참여적인 시와 소설을 선택하여 가르치는 것이 배우는 사람들의 풍교와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조선 후기 다산 박지원의 현실 참여적인 시와 당나라 때 두보가 안녹산의 난으로 인해 민중들이 겪은 고난의 삶을 문학으로 형상화한 번역시를 함께 다루면서 더불어 사는 삶의 중요성과 참된 삶의 방향을 알 수 있게 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민풍의 교화와 관련이 있으면서 중급 정도의 교육자라면, 팝송의 번역 가사를 소개할 수 있을 것이다. 영국의 록 밴드 퀸의 대표곡 중 하나이며 1975년 발표한 네 번째 정규 앨범 <A Night at the Opera>의 수록곡이면서, 최근 개봉한 영화의 제목이기도 한 <보헤미안 랍소디>(Bohemian Rhapsody, 집시의 광시곡, 또는 자유로운 영혼들의 광시곡)를 예를 들어 보자.

“엄마, 난 지금 사람을 죽였어요.
그의 머리에 총을 들이대고 그는 이제 죽었어요.
어머니, 내 삶은 이제 막 시작한 것 같은데,
난 내 삶을 내팽개쳐 버린 거예요.

어머니, 당신을 울게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내가 이번에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앞으로도 곳곳이 살아가세요. 곳곳이 살아가세요.
마치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요.”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아이가 권총으로 사람을 죽였다⁴⁶⁾는 내용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엄마, 난 지금 사람을 죽였어요.”라는 가사 때문에 1989년까지 금지곡으로 지정되어 있었던 노래이기도 하다. 가정폭력의 현실을 고발하여 사회적 이슈로 만든 것도 풍교의 의미가 있다.

보헤미아 랍소디(집시의 광시곡)의 ‘보헤미아’는 집시의 의미로, 자유로움을 뜻하기도 한다. 체코 일대인 보헤미아의 집시들이 15세기 프랑스에 대거 몰려와 살게 되면서, 보헤미아가 자유로운 생활을 즐기는 집시의 유래가 되었다. 바다를 건너 영국에서의 보헤미아는 사회의 관습에 구애받지 않고 방랑적이며 자유분방한 생활을 하는 사람을 뜻한다. 외국인이 아는 ‘보헤미아’라는 단어 설명과 함께 한국어를 조금 더 친근하게 배울 수가 있을 것이다.

성정순화와 풍교에 관련되면서 상급 한국어 배움에 활용될 수 있는 것은 퇴계 이황의 「도산십이곡」 같은 고시조를 예로 들 수 있다. 퇴계도 「도산십이곡발」에서 학동들에게 노래를 가르치는 이유를 “아이들로 하여금 아침저녁으로 익

46) 프레디가 양성애자의 갈등을 표현한 것으로 보는 설도 있다.

혀 노래하게 하고 의자에 기대어 듣게 하며, 또한 아이들로 하여금 스스로 노래하며 스스로 춤추고 뛰게 하고자 함이 거늘, 행여 비루하고 인색한 마음을 씻어내어 감동된 것이 있다면 시로 표현해내고 멋진 마음을 녹여 통하게 한다면, 노래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서로 유익함이 없지 않을 것이다.”⁴⁷⁾라고 하여, 성정 순화뿐 아니라 노래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유익함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퇴계의 <도산십이곡> 같은 격조 높은 고시조를 통해 우리 문화도 알게 하면서 마음의 안정도 가져올 수 있게 할 것이다. 12곡 중 한 편을 감상해 보자.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 못 뵈.
고인을 못 뵈도 녀던 길 알피 있니.
녀던 길 알피 잇거든 아니 녀고 엇덜고.”

<도산십이곡> 중 제9곡으로, 옛 성인의 행적을 따라 학문 수양에 정진하겠다는 내용이다. ‘옛 성현도 나를 보지 못하고, 나 역시 옛 성현을 뵈지 못했네. 옛 성현을 뵈지 못했지만 그 분들이 행했던 길(학문의 길)은 앞에 있네. 그 행하신 길이 앞에 있는데 아니 행하고 어찌할 것인가?’로, 풀이 된다. 퇴계 이황이 벼슬을 사직하고 고향 안동 도산서원으로 돌아와 후학을 가르치면서 지은 작품이라는 배경 설명과 도산서원을 통해 조선 시대 서원의 역할, 그리고 유학의 정신 등을 함께 알려주면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도 깊어질 것이다.

5. 結論

대중가요는 그 시대를 관통하는 대중의 욕구와 불만을 해소해주는 역할도 한다. 시나 노래로써 워정자를 원망하거나 진실된 속마음으로 은근히 드러냄으로써 노래하는 사람은 죄가 없고 듣는 사람도 족히 경계가 된다. 지금의 대중가요도 대중들의 욕구와 소망을 담아 부르기에, 한편으로는 듣는 대중들도 이 노래를 듣고 성정의 순화와 더 나아가서 풍속의 교화까지 이르게 하면 더욱 좋을 것이다. 따라서 대중가요라 해서 “웃기고 앉았네, 아주 놀고 자빠졌네.”(싸이, 리잇 나우)라든지 “너무나 뜨거워 만질 수가 없어 사랑에 타버려 후끈한 Girl”(소녀시대, 지) 등의 가사처럼, 성정순화는 고사하고 외국인들의 한국어 공부에 있어서, 한국어의 아름다움을 알게 한다든지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 가능하면 세계인들이 K팝을 듣고 좋아해서 한국어 가사에 관심을 가질 때 당혹스럽지 않게 그 가사의 의미도 시대를 아우르는 정서와 메시지를 담으면 좋을 것이다. 그렇게 할 경우에 세계인의 정서 순화와 세계적인 풍교에도 한 몫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500년 전 공자도 풍교에 도움 주고자 『시경』시를 찬술하였던 것이다.

공자께서 『시경』시를 한 마디로 평단한 말씀이 ‘思無邪’이다. 현대인들에게도 사무사한 시와 노래가 필요한 시대이다. 『시경』시를 평단한 사무사란, 순수하고 불의에 굴하지 않은 마음일 것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1930년대 일제치하에서 우리 민족 현실의 문제를 노래한 시들이 진정으로 사무사한 시이다. 소재만 보고 순수한 것을 말하는 소위 순수시파 계열의 시는 진정 사무사한 순수시라고 할 수 없다. 적어도 일제 강점기의 순수한 마음은 일제에 대한 저항의 마음을 담는 것이 작시자의 태도에 사악한 마음이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30년대 순수시파의 대명사인 김영랑 시인의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내 마음을 아실이」·「모란이 피기까지는」 등의 시보다는 이육사의 「광야」·「절정」·「청포도」 그리고 운동주의 「서시」·「십자가」·「쉽게 씌어진 시」 등이 더 사무사한 의미를 지녔다. 이들 작품은 시로써 외국인 교육에 이용할 수 있는 것들로, 그들이 잘 알고 있는 노랫말과 함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의 시는 정서순화와 풍교의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서 순화에 이바지하면서 풍교의 기능까지 있는 팝송의 가사와 방탄소년단의 노랫말 가사 등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내용의 빈약이라는 철학적인 부분도 해소될 것이다. 또한 因人施教라는 공자의 교육관에 따라 교육자를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누어, 그들의 한국어 수준에 맞게 대상 작품을 선정하여 가르치면 더 효율적일 것이다.

공자의 교육관은 외국인의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현대의 한국어 교육에도 활용할 수 있다. 『論語』「八佾」篇, ‘禮

47) 李滉, 「陶山十二曲跋」 “欲使兒輩朝夕習而歌之, 憑几而聽之, 亦令兒輩自歌而自舞蹈之, 庶幾可以蕩滌鄙吝, 感發融通, 而歌者與聽者, 不能無交有益焉.”

樂'章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으로서 어질지 못하면 예가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사람으로서 어질지 못하면 음악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셨다.”⁴⁸⁾라고 한, 표현이 있다. 이는 사람이 어질지 못하면 사람의 참마음이 없어지게 되니, 예악이 있다 하더라도 그 예악이 참된 예와 음악으로 제대로 쓰일 수 없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예악을 행하되 본질을 모르고 도리에 어긋나게 행한다면, 그런 예악은 진정한 예악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음악을 행하기 전에 천하가 바른 이치를 되찾아야 하고, 그러면 사람의 마음도 참마음이 회복되며 저절로 음악도 화평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천하의 바른 이치를 잃으면 음악도 화평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자는 예와 음악에 앞서 풍속의 순후함을 먼저 강조하였다. 풍속이 선해야 사람들의 마음도 선해지고, 그로 인해 그들에게 순한 풍속이 반영되어 그들이 부르는 노래도 선하게 된다는 논리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진 사람을 길러내면 사회는 자연히 선한 풍속이 퍼지고, 그들이 부르는 노래도 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한 풍속이 그들의 마음에 반영되어 자연히 노랫말도 선해질 수 있다는 논리이다. 풍교의 기능이 왜 중요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준 말씀이다. 자꾸만 거칠어지는 요즘 현실에서 우리 사회의 선한 풍속을 위해 노랫말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인식했으면 한다. 좋은 노랫말은 우리 사회를 정화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參考文獻>

1. 基本資料

宋刊本十三經注疏附校勘記『詩經』, 藝文印書館, 1981.

” 『論語』 ”

朱熹, 『朱子大全』, 曹龍承 影印本, 1978.

” , 『朱子語類』, 啓明大 圖書館 所藏本.

『古文眞寶』, 景仁文化社, 1983.

朱子, 『論語集註序說』.

司馬遷, 『史記』 「孔子世家」

李滉, 『退溪全書』, 成均館大 大東文化研究院, 1958.

2. 論著

金東龍, 「孔자의 實踐 教育思想의 現代의 意義」,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김원중, 「孔子 文學理論의 思想的 檢討」, 『建陽論叢』 4, 建陽大學校, 1996.

金昌煥, 「論語를 통해 살핀 孔子의 教授法」, 『中國文學』 제39집, 韓國中國語文學會, 2003.

閔智煥, 「공자의 교육사상을 통해 본 우리나라 학교 교육의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 연구」,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朴鍾赫, 「孔자의 學問· 教育觀」, 『중국학논총』 제22집, 국민대학교 출판부, 2006.

申珥均, 「孔子思想을 통한 人性教育 指導方案」, 군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성영이, 「공자의 교육관을 통해 본 중학교 전통윤리교육의 개선방안」,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심승환, 「茶山 사상에 나타난 孔子 教育觀의 창조적 계승」, 『한국교육학연구』 제21권 제3호, 안암교육학회, 2015.

尹寅鉉, 『韓國漢詩와 漢詩批評에 관한 研究』, 아세아문화사, 2007.

이광소, 「孔자의 教育思想과 方法論」,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李美英, 「孔자의 教育思想에 나타난 人性教育 研究」,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이재권, 「孔자의 學習觀-전통적 해석을 중심으로」, 『大同哲學』 제24집, 大同哲學會, 2004.

李載高, 「孔자의 教育思想 研究」,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장용수, 「한국어교육이 공자의 교육관에서 취할 수 있는 시사점: 문학과 음악을 중심으로」, 『아세아연구』 제59권 제2호 통권164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16.

정요일, 『논어강의』天, 새문사, 2009.

정요일, 『논어강의』地·人, 새문사, 2010.

鄭羽洛, 「논어에 나타난 공자의 예술정신과 문학사상」, 『大東漢文學』 제18집, 大東漢文學會, 2003.

池信昊, 「退溪와 南冥의 文學論에 끼친 論語의 영향」,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주영아, 「論語의 詩에 대한 고찰」, 『東方學』 제35집, 韓瑞大學校 附設 東洋古典研究所, 2016.

河正玉, 「孔자의 文學思想: 論語의 記錄을 중심으로」, 『論文集』 Vol.5 No.1, 국민대학교, 1973.

48) 『論語』 「八佾」篇, 「禮樂」章. “子曰, 人而不仁이면 如禮에 何하며 人而不仁이면 如樂에 何오.”